중학교

역사 1

정재정 | 김태식 | 박근칠 | 최병택 | 강신태 | 구본형
장종근 | 박찬석 | 강성주 | 김종현 | 김지현

(주)지학사

머리말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내력을 학습하고 탐구하는 과목이다.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삶은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분야의 상호 관계를 종합하여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나라와 지역 사이에 사람, 물자, 정보, 문화 등의 교류가 활발해진 근대 이후에는 각 나라와 민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다. 따라서 역사를 학습할 때에는 다른 나라와 민족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근대 이전에 주로 인근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세계 각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역사는 물론 다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도 세계사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하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사용할 이 교과서는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되었다. 이 교과서의 특징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진과 지도 등 시각 자료를 풍부하게 실었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각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문 내용의 효율적인 이해를 위해 도움 글, 사료 돋보기, 역사적 인물 이야기, 역사 가로지르기 등을 마련하였다. 다양한 코너를 학습하다 보면 역사와 세상을 더욱 폭넓게 보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본문을 학습한 후 대단원별로 주요 사건과 개념 등을 다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정리를 통하여 자신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조 대대로 이룩해 온 문명의 혜택을 입으며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조가 만들어 온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충실히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교과서를 공부하면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서로 관련지어 이해하고, 열린 자세로 세계를 무대 삼아 활약하는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 지은이 씀

한국사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Ⅳ 고려의 성립과 변천

Ⅴ 조선의 성립과 발전

Ⅵ 조선 사회의 변동

차 례

세계사

VII 통일 제국의 등장

VIII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IX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부록

대단원 시작

본문과 탐구 활동

학습 내용 확인하기

❶ [사진] 대단원을 대표하는 사진을 제시하여 학습 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 [학습 개요]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학습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❸ [연표] 해당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시간 순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❶ [본문] 사진, 지도, 삽화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 [탐구 활동]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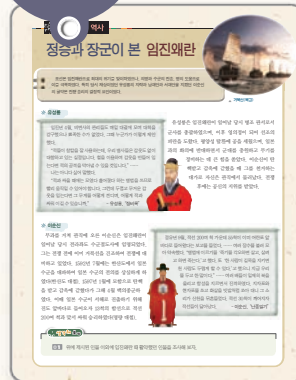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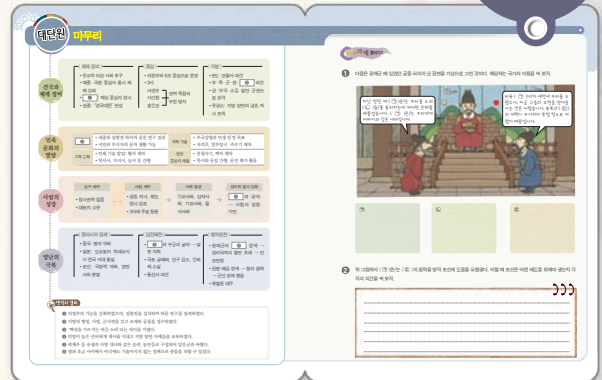
❸ [학습 내용 확인하기] 중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 더하기

도움 글

본문과 관련하여 보충할 내용이나 학습자가 궁금해할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시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료 돋보기

본문과 관련된 사료와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사료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❶ 〔깊이 있는 역사〕 다양한 자료와 함께 폭넓은 학습을 위한 생각해 보기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❷ 〔걸어서 역사 속으로〕 역사 유적지를 생생하고 유익하게 제시하여 역사의 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단원 학습 내용을 도식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대단원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적 인물을 선정하여 그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어, 역사적 인물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사이에 이루어진 역사적 만남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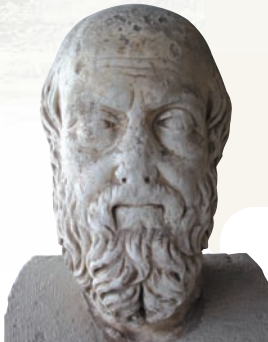
역사는 과거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현재 우리의 삶까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류는 선사 시대부터 석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꾸준하게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문명을 탄생시키고 세계 여러 지역에 국가를 세웠다. 한편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는 고유 문명 위에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고유 문화를 환경에 맞게 발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그 후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나라가 일어났다.

	400만 년 전	30만 년 전	기원전 1만 년경	기원전 3000년경	기원전 2000년경	기원전 1100년경
한국		구석기 시대 시작	신석기 시대		고조선 건국 (기원전 2333)	청동기 시대
세계	인류의 출현		신석기 시대	고대 문명의 발달		중국, 주 성립

순천 고인돌 공원

기원전 5세기경	기원전 3세기경	기원전 194	기원전 108
	철기 도입	위만 집권	고조선 멸망
페르시아 전쟁 (기원전 492)	진, 중국 통일 (기원전 221)		

01 역사의 의미와 역사 학습의 목적

1 역사의 의미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토스는 "역사"라는 책에서 페르시아 전쟁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역사"에는 사실뿐만 아니라 전쟁의 원인을 분석한 평가도 함께 담겨 있다.

헤로도토스는 왜 "역사"에 사실과 평가를 함께 담았을까?

▲ 헤로도토스

학습 목표 | 역사의 뜻과 역사 연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역사와 시간
기원전, 기원후를 영어로 표기할 때 기원전을 B.C.(예수 탄생 이전), 기원후를 A.D.(예수 탄생 이후)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원전을 B.C.E.(Before Common Era, 공동 시대 이전), 기원후를 C.E.(Common Era, 공동 시대)로 표기하기도 한다.

역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일상에서 역사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역사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난날에 있었던 일 그 자체, 곧 **'사실로서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인이 기록에 남긴 사실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 중 역사가가 선택하여 정리한 이야기, 곧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환경에 도전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온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인이 기록에 남긴 사실과 더불어 과거의 사실 가운데 역사가가 조사하고 판단하여 구성한 기록을 뜻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역사적 사실들이 서술되므로 주관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

도움 글 | 역사의 의미

편견을 갖지 말고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라.
– L. v. 랑케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16~17세기 영국사", "16~17세기 프랑스사" 등이 있다.

역사란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 E. H. 카

영국의 역사학자 카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현재를 살고 있는 역사가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역사란 무엇인가"가 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역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다

사람마다 각자 독특한 개성이 있듯이 한 나라의 역사에도 다른 나라의 역사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역사의 특성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 자연이나 지리의 영향을 받으며, 오랜 세월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지구 상에 언어, 문자, 복장, 음식, 풍속 등이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얽히고설키면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역사의 특성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새로 덧붙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독특한 역사를 만들어 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서로 다른 복장
한국의 한복(위)과 일본의 기모노(아래)

우리도 역사를 쓸 수 있다

역사를 쓰려면 무수히 많은 **사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려 내고, 그것을 자기 나름의 논리로 다시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료 중에는 한문이나 외국어 등으로 기록된 것들도 많으므로 역사를 쓰려면 이것들을 해독하고 쉽게 풀어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료는 돌, 대나무, 종이 등에 문자로 쓴 기록물뿐만 아니라, 건물 터, 무덤이나 탑, 불상, 노래 등 유형·무형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역사를 쓸 수 있다.

사료
과거의 사람들이 남긴 문서, 비문, 일기 등의 기록물이나 그림, 도구와 같은 유물, 옛 무덤, 궁터 등과 같은 유적들을 모두 사료라 한다.

탐구 활동 나의 역사 쓰기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의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날그날의 일을 기록한 일기장이나 앨범은 과거의 사실을 알려 주는 기록물이다. 또한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 책이나 부모님의 말씀도 유형·무형의 사료가 될 수 있다.

과제 1 자신의 역사를 쓸 때 위에 제시된 것 이외에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과제 2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역사를 쓰고 발표해 보자.

2 역사 학습의 목적

▲ 아우슈비츠 박물관(폴란드 오시비엥침)

폴란드 오시비엥침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 인을 대량 학살한 곳이다. 이곳은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 138만여 명, 2011년 140만여 명이 방문하였다.

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을까?

학습 목표 | 역사 학습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역사의식을 기르다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사람이 경험하고 이룩한 내력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동아시아의 역사책, "자치통감"과 "동국통감"
'통감'이란 세상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고 정치를 하는 데 본보기가 된다는 뜻이다. 역사가 바로 통감인 셈이다.

사람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고와 판단의 근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안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따져 본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은 옛사람의 경험과 지식에서 많은 지혜와 교훈을 얻기 때문에 매사에 실수가 적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을 기르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며, 과거를 탐구함으로써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 역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역사를 배움으로써 나, 가족, 지역 사회, 국가, 세계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뛰어난 업적은 이어받고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극복한다면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자취를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당시 상황을 유추하면서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비판력을 키울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날은 교통수단과 교역 체계가 발달하여 사람, 자본, 물자, 정보 등이 국가와 민족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있다. 한국인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는 역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먼저 우리 역사 못지않게 다른 역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서로 날줄과 씨줄이 되어 세계사라는 옷감을 짜 간다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각 나라와 민족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으로서의 투철한 자의식을 갖추고, 외국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개방성과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야 할 것이다.

▲ 개방화, 세계화 시대
한국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지니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사실로서의 역사이면 '사',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면 '기'라고 쓰시오.

(1)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4강에 진출하였다. (　)

(2)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

(3) 우리나라의 광복은 우리 민족이 벌여 온 독립 투쟁의 결실이었다. (　)

(4)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　)

2 다음에 제시된 사료의 형태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 문헌	㉡ 유물	㉢ 유적

(1) 석굴암　(2) 고려청자

(3) 수원 화성　(4) 삼국유사

(5) 반달 돌칼　(6) 조선왕조실록

3 역사 학습의 목적을 간단히 쓰시오.

02 한반도와 세계 여러 지역의 선사 문화

1 구석기 문화

▲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

아메리카 대륙에는 출현하지 않았던 유인원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출현한 이유는 수풀이 뒤덮인 정도와 관계가 있다. 유인원과 초기 인류는 수풀이 뒤덮인 열대 우림보다 시야가 개방된 사바나(초원) 지역에서 출현하였다.

– 리차드 리키, 로저 레윈, "오리진"

인류가 초원에서 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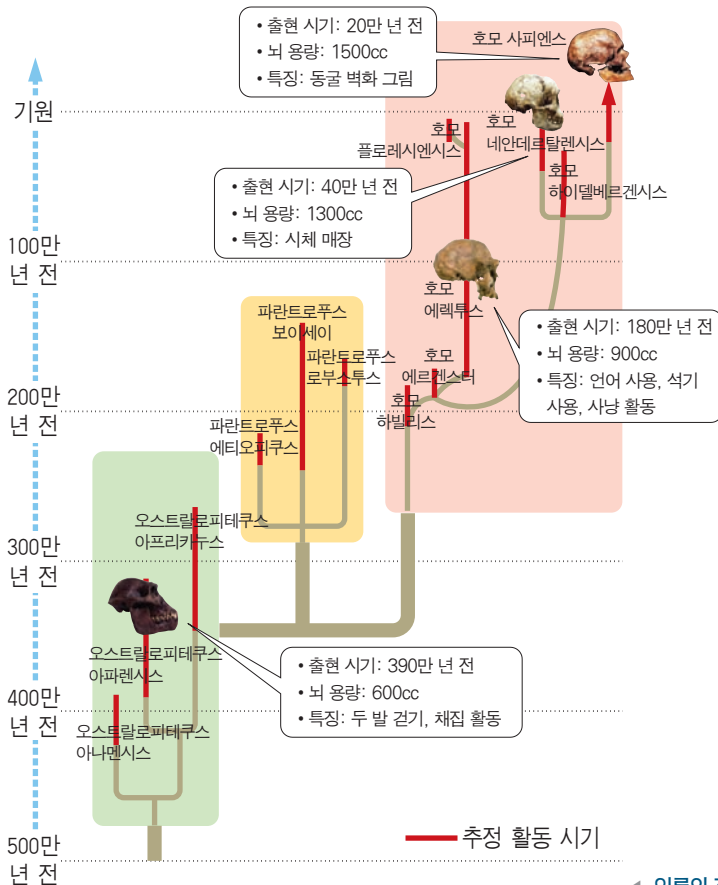
학습 목표 | • 인류의 진화와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인류의 진화

인류가 등장하다

약 400만 년 전 최초의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하였다. 인류는 초원에서 두 발로 서서 다니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인류는 점차 뇌 용량과 신체가 커져 **언어**를 사용하고 집단을 이루어 살았으며, 석기를 사용하여 사냥과 채집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점차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고,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빙하기의 추위를 극복하였다.

약 15만 년 전에 출현한 현생 인류는 뛰어난 언어 구사 능력과 도구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약 4만 년 전에는 전 세계에 걸쳐 번성하였다. 이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동굴 벽화나 바위그림을 남기기도 하였다.

뗀석기를 만들어 사용하다

인류는 약 200만 년 전부터 돌을 깨뜨려 만든 **뗀석기**를 사용하였는데, 이 시기를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외날찍개, 주먹도끼, 긁개, 찌르개 등 수십 종의 뗀석기를 이용하여 주거지를 만들거나 동물을 사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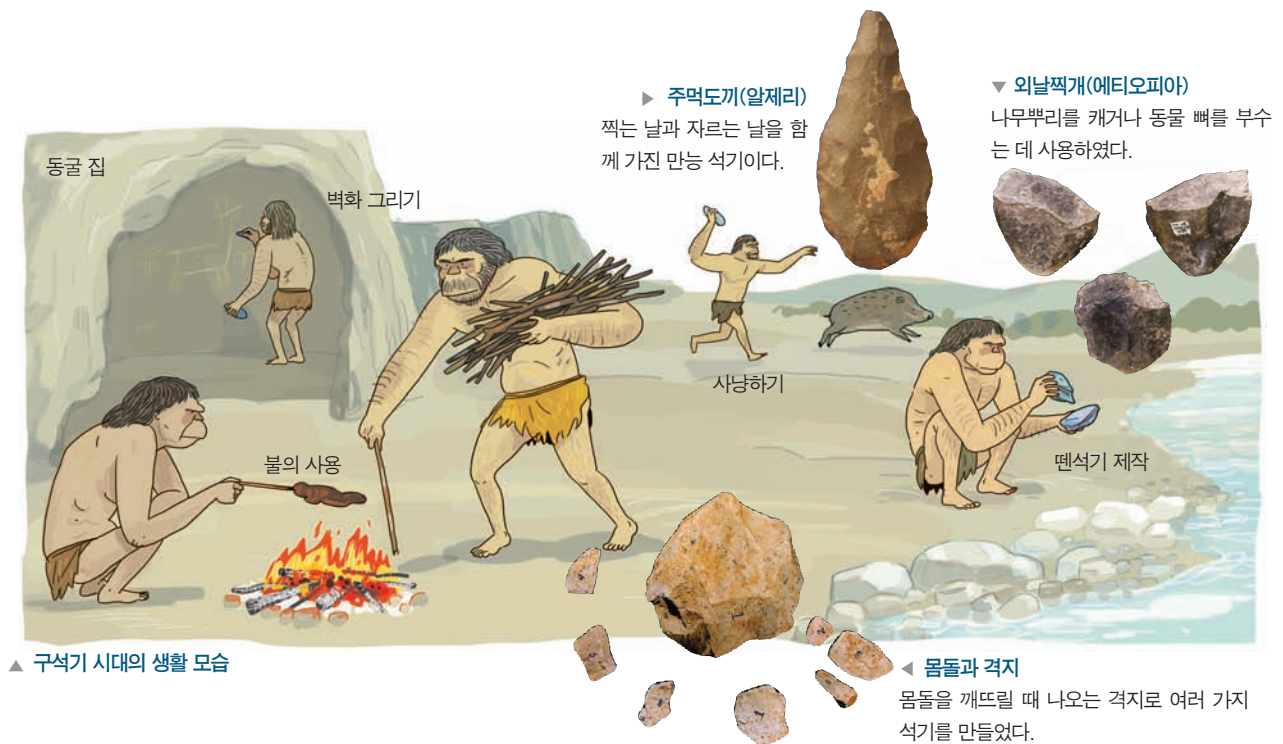
약 4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는 돌을 눌러 떼는 석기 제작 기법을 발달시켜 작으면서도 매우 정교한 뗀석기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석기로 나무, 뿔, 뼈를 가공하여 작살이나 창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류의 도구 제작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연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아져서 인구도 점차 늘어났다.

▲ **구석기 시대의 예술 활동**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동굴에 그림을 그리거나(왼쪽, 프랑스 라스코), 여인상을 만들었다(오른쪽,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

▶ **주먹도끼(알제리)**
찍는 날과 자르는 날을 함께 가진 만능 석기이다.

▼ **외날찍개(에티오피아)**
나무뿌리를 캐거나 동물 뼈를 부수는 데 사용하였다.

▲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 **몸돌과 격지**
몸돌을 깨뜨릴 때 나오는 격지로 여러 가지 석기를 만들었다.

▼ **뗀석기의 제작 기법**

모루떼기	직접떼기	간접떼기	눌러떼기
돌을 모룻돌에 부딪쳐서 격지를 떼어 낸다.	돌을 직접 때려서 필요한 석기를 얻는다.	단단한 뿔이나 뼈 등을 이용하여 격지를 떼어 낸다.	뿔이나 뼈의 뾰족한 끝으로 돌에 힘을 주어, 격지를 떼어 낸다.

▲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구석기 유적지**
빙하기에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반도에서 구석기 문화가 시작되다

한반도에도 일찍부터 인류가 들어와 구석기 문화를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이른 시기의 유적으로는 평양 상원 검은모루 동굴 유적과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종류의 뗀석기와 동물 뼈 등이 출토되었다. 약 4만 년 전의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는 충남 공주 석장리를 비롯한 유적이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과 **채집**을 통하여 생계를 해결하였고, 무리를 지어 계절마다 이동하면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 또는 나뭇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은 한반도가 비교적 온난한 기후일 때 번성하였다가, 빙하기의 마지막 시기인 12000년 전 무렵에는 매우 추운 기후를 겪으면서 살기도 하였다.

◀ **흥수아이(충북 청원)**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어린아이의 화석이 발견되어 발견자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찌르개(평양 상원)**
뾰족한 끝 부분을 이용하여 가죽에 구멍을 내거나 사냥감을 찌르는 데 사용하였다.

▲ **긁개(충남 공주)**
가죽을 가공하는 용도 등으로 쓰였다.

◀ **슴베찌르개(충북 단양)**
나무에 꽂아 창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도움 글 연천 전곡리의 주먹도끼

경기도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이전에는 인도와 유럽, 아프리카에서만 주먹도끼가 만들어졌고, 인도의 동쪽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달리 찍개만 있는 문화권이라는 이론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전곡리에서 주먹도끼가 발견됨으로써 이 이론을 반박할 수 있게 되었다.

전곡리의 주먹도끼는 그 형태로 보아 약 3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을 적용하면 전곡리 지역 유물은 최고 4만 5천 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나, 석기 제작 방식이나 동물 뼈의 종류로 보아 그 시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 신석기 문화

빙하기에는 몸집이 큰 초식 동물들이 세계 각지에서 번성하였고, 인류는 이를 집단 사냥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약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고 온화하고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자 큰 사냥감들이 멸종하기 시작하였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세계 각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학습 목표 | • 농경이 시작된 원인과 지역별 차이를 알 수 있다.
• 신석기 시대 한반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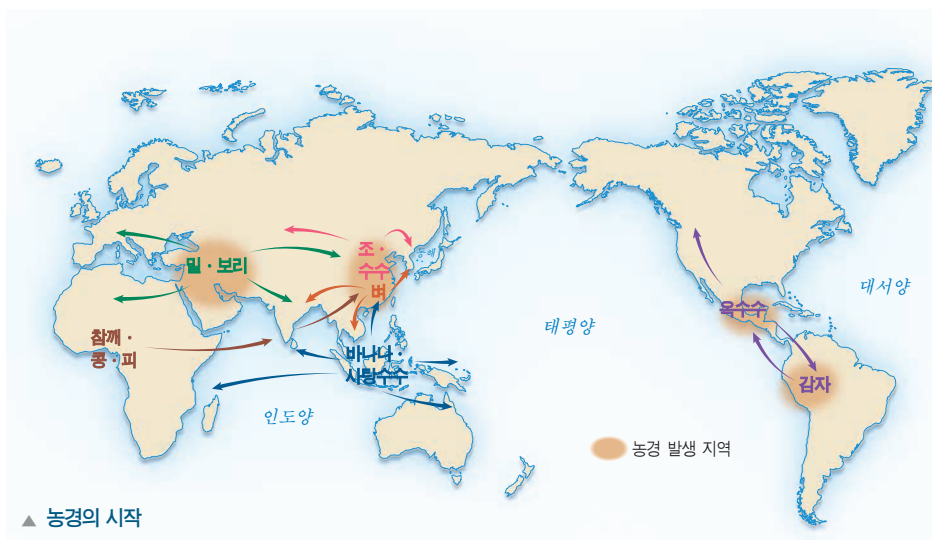
▲ 타실리 벽화(알제리)

인류가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다

약 1만 년 전에 빙하기가 끝나면서 지구 생태계가 변화하자, 인류는 매머드처럼 큰 동물 대신 사슴, 멧돼지 같은 작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하여 활과 화살을 발명하고 집단 사냥보다 개인 사냥의 비중을 높여 갔다. 또 낚시와 그물, 통나무배 등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기도 하였다.

인류는 다양한 간석기를 사용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기원전 8000년경에 서아시아에서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되어 유럽과 인더스 강 유역에 전파되었다.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황허 강, 창장 강(양쯔 강)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농경 문화가 성립하였다. 또한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성과였다.

각 지역의 농경 시작
기원전 8000년: 서아시아
기원전 3000년: 유럽, 인더스 강 유역
기원전 6500년: 황허 강 유역
기원전 5000년: 창장 강 유역
기원전 3500년: 멕시코 지역
기원전 2000년: 안데스 산맥 일대

간석기
신석기 시대의 도구로서,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 돌도끼, 돌낫 등의 농기구는 물론, 물고기를 잡는 데 필요한 낚싯바늘이나 돌 그물추 등도 만들었다.

▲ 농경의 시작
서아시아에서는 보리와 밀이 재배되고 양, 염소, 소 등을 가축으로 길들였다. 중국의 황허 강 유역에서는 기장, 조, 수수가, 창장 강 유역에서는 벼가 재배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개, 돼지, 닭, 물소 등을 가축으로 길렀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지역에서는 옥수수와 호박이,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는 감자가 재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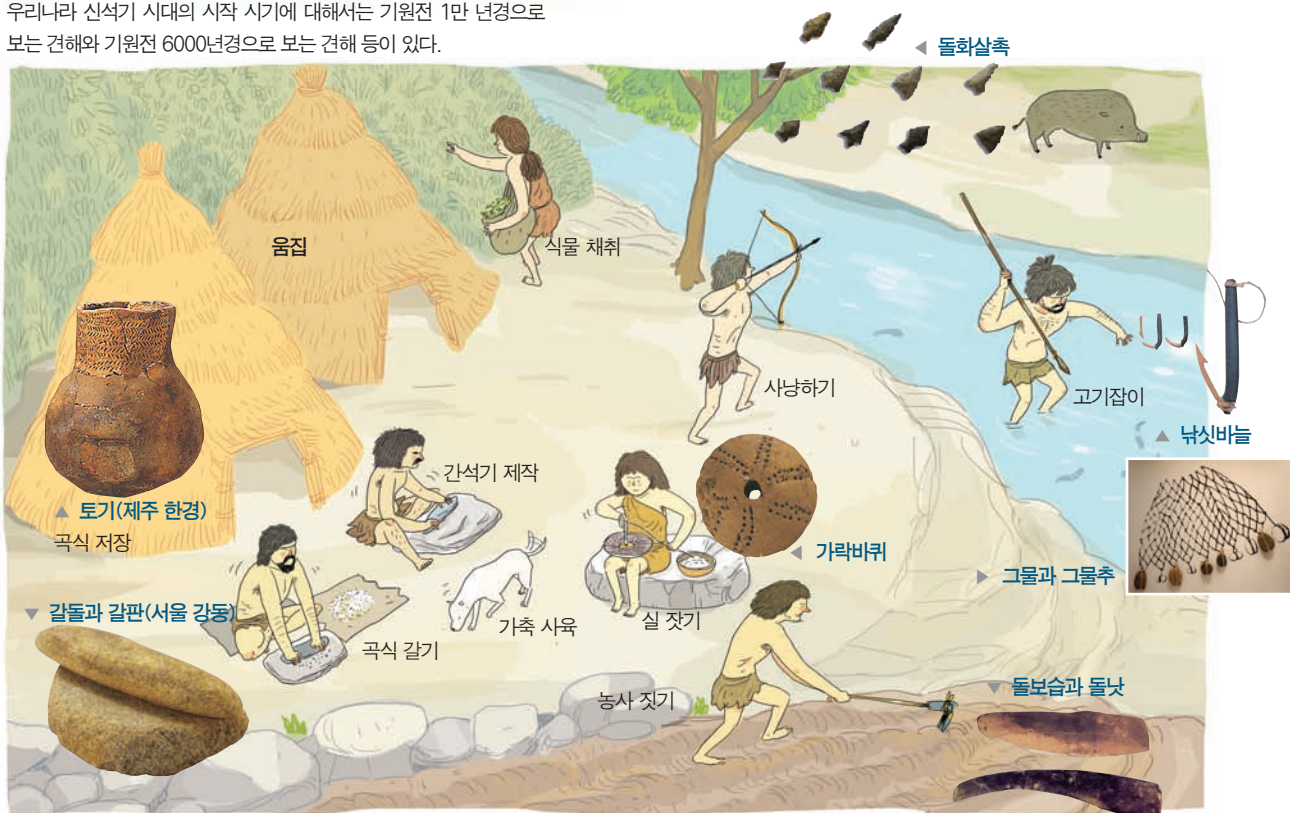
▼ 신석기 시대의 토기
중국(위)과 에스파냐(아래)의 토기이다.

한반도에서 신석기 문화가 일어나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간석기**와 **토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주로 큰 강가나 바닷가에 지은 둥근 **움집**에서 생활하였다.

초기에는 돌화살촉, 돌도끼, 돌 그물추, 작살, 낚싯바늘 등으로 사냥이나 고기잡이를 하였으며, 도토리를 갈판에 갈아 먹거나 바닷가에서 조개를 채집하기도 하였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중국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아 조, 피 등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돌낫, 돌보습 등 돌로 만든 농기구도 출현하였다.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씨족이나 부족을 단위로 마을을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공동 생산과 공동 분배를 바탕으로 자급자족적 경제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등의 원시 신앙도 나타났다.

▲ 한반도의 신석기 유적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1만 년경으로 보는 견해와 기원전 6000년경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 신석기 시대 인류의 생활 모습

탐구 활동 암사동 신석기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은 1925년 대홍수로 한강이 넘쳐 토기, 석기 등 유물이 드러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 후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암사동 유적은 기원전 4500년경부터 기원전 1500년경에 걸친 신석기 시대의 것임이 밝혀졌다.

암사동 유적지에서는 모래땅에 지은 30기의 움집터가 확인되었다. 움집에는 기둥을 세우고, 한가운데 화덕 시설을 갖추었으며, 입구는 주로 남쪽으로 내었다. 집터 밖에서는 가마 또는 공동 화덕으로 보이는 시설도 확인되었다.

이곳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돌도끼, 돌 그물추, 돌창, 돌화살촉, 갈돌과 갈판, 돌괭이, 돌보습, 돌낫 등과 함께 새 뼈와 도토리가 출토되었다.

▲ 빗살무늬 토기

▲ 암사동 유적 전시관(서울 강동)

▲ 움집터(서울 강동)

▲ 복원된 움집(서울 강동)

과제 1 빗살무늬 토기의 용도를 알아보자.

과제 2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을 정리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현생 인류는 풍요를 기원하며 □□ □□나 바위그림을 그렸다.

(2)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깨뜨려 만든 □□□를 사용하였다.

(3) 신석기 시대에는 □□과 목축이 처음 시작되었다.

(4)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진흙을 구워 만든 □□를 사용하였다.

2 다음 유물과 관련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식량을 구하였는지 간단히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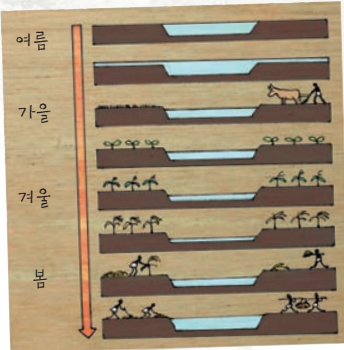
03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

1 문명의 형성

이집트가 나일 강의 선물이라는 것은 한 번만 보면 알 수 있다. …… 그들은 괭이로 땅을 일구거나 다른 지역의 농민처럼 힘써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 나일 강이 스스로 넘쳐흘렀다가 물이 빠지면 각자 씨를 뿌리고 돼지를 들여보내 씨를 밟아 눌러 준 다음 수확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 헤로도토스, "역사"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는 나일 강의 선물'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기후가 따뜻한 큰 강 유역은 농경에 유리하여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어 살면서 **관개 농업**을 발달시켰다. 관개 농업으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일부 촌락은 점차 도시로 발전하였다.

관개
인공적인 시설을 만들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농지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에는 신관이나 전사들이 등장하여 지배층을 이루었다. 그들은 도시와 주변 농촌을 다스리면서 농민과 노예를 동원하여 성곽을 쌓고 궁전과 신전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도시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무렵에 사용된 청동기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진 도시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인류는 역사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인류는 도시 국가를 바탕으로 청동기와 문자를 사용하며 급속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문명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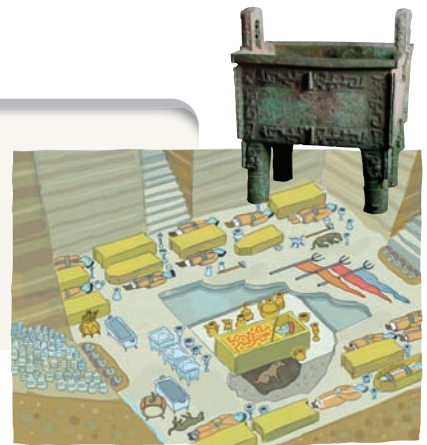
문명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 기술적 · 사회 구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생 지역과 문자**
고대 문명 발생지에서는 각각 독특한 문자를 발명하여 사용하였다.

2 중국의 고대 문명

은허에서 발굴된 상의 왕릉 중에는 면적이 1,800 m²나 되고, 160여 명의 사람을 순장한 것이 있으며, 무게가 수백 kg에 달하는 청동 제기가 여러 개 발굴되었다.

이러한 왕릉의 규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상·주 시대에 형성된 중국 문명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주의 봉건제를 혈연관계와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 상의 왕릉 복원도와 청동 제기

황허 강 유역을 중심으로 상이 발전하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황허 강, 창장 강 유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서 신석기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들 중 규모가 큰 촌락은 점차 성곽을 두른 도시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기원전 2000년경부터 청동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촉진되었다.

상은 기원전 1600년경에 황허 강 중류와 하류를 중심으로 그 주변 일대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하였지만, 왕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여러 차례 도읍지를 옮겼다. 상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은허 일대의 큰 무덤들에서 순장의 증거와 함께 청동으로 만든 제사 용품과 무기, 옥으로 만든 도구 등이 나왔다. 또 궁전 터 등에서 **갑골문**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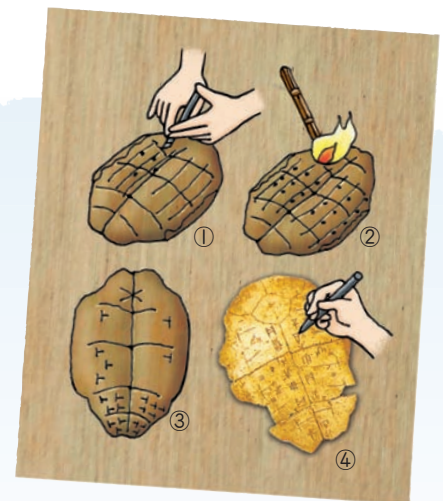
상에서는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자주 점을 쳤으며 그 내용과 결과를 갑골문으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상은 신의 뜻을 빌려 나라를 다스리는 제정일치의 신정 정치를 실시하였다. 갑골문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 상의 사회 모습이 상세하게 알려졌다. 갑골문은 후에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중국 최초의 왕조
최근에 상보다 앞선 시기의 도시 유적과 청동으로 만든 제기가 발견되었다. 이는 하 왕조 때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역사 시대의 주요 근거인 문자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갑골문과 한자

도움 글 상의 갑골문

상의 왕은 왕실의 제사, 왕의 사냥, 전쟁, 날씨, 농경 등에 관한 일을 결정할 때, 신의 뜻을 묻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쳤다. 이를 통하여 상의 왕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한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갑골로 점을 치는 과정
① 갑골의 뒷면에 '•', 'ㅏ' 모양의 홈을 판 후 단상에 놓고 제사를 지낸다. ② 홈 부분에 불로 열을 가한다. ③ 갑골의 표면에 갈라진 금을 보고 길흉을 판단한다. ④ 표면의 한 부분에 점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다.

주에서 봉건제를 실시하다

천명(天命)
중국의 최고신인 천(天)이 덕이 있는 군주(천자)에게 부여한 통치 권한을 의미한다. 주 왕조부터 중국의 군주가 하늘(天)을 대신하여 천하(天下)를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사용되었다.

상의 서쪽에서 성장하던 주는 기원전 11세기 중반에 천명을 구실로 상을 무너뜨리고, 동쪽으로 랴오허 강에서 창장 강 유역까지 영역을 넓혔다. 주는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수도인 호경과 그 주변 지역을 왕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왕실과 제후의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에 대한 주 왕실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결국 권위가 약해진 주 왕실은 서북 지역으로부터 이민족의 공격을 받아 낙읍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이때부터를 춘추 시대라고 한다(기원전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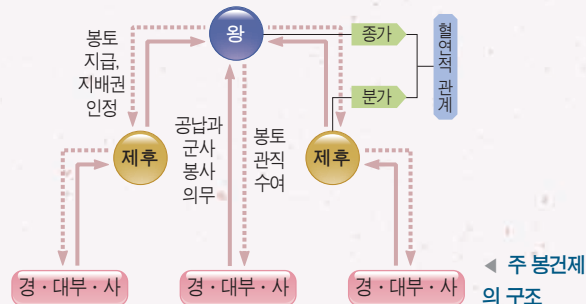
▲ 상과 주의 세력 범위

주의 봉건제 사회에서는 왕족과 제후가 지배층을 이루고 청동제 무기와 제기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농민과 노예는 지배층의 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농사에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상·주 시대의 문자, 청동기 문화, 정치 제도와 통치 이념은 고대 중국 문명이 성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탐구 활동 주의 봉건제 사회

자료 1 주의 봉건제

'봉건'이란 말은 '왕이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封, 봉) 제후국을 세운다(建, 건).'라는 뜻이다. 주의 왕과 제후는 왕실이 종가가 되고 제후의 집안이 분가가 되는 혈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주 봉건제의 구조

자료 2 청동 정

청동으로 만든 제사용 그릇인 정(鼎)은 주에서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주의 제도에는 제사를 지낼 때 왕은 아홉 개, 제후는 일곱 개, 경과 대부는 다섯 개의 정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 주대의 청동 정 (타이완 국립 고궁 박물원)

과제 1 자료 1을 토대로 주의 봉건제에서 왕과 제후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과제 2 자료 1, 2를 통하여 주의 신분 제도를 정리해 보자.

3 인도의 고대 문명

푸루샤(태초의 거인)의 입에서 브라만이 나왔고, 두 어깨에서 크샤트리아가 태어났다. 두 다리에서 바이샤가 나왔고, 두 발에서 수드라가 나왔다. -"리그베다"

고대 인도에서 신분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학습 목표 | • 고대 인도 문명이 형성되는 과정을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카스트제와 브라만교의 특징을 서로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카스트제의 기원 신화

인더스 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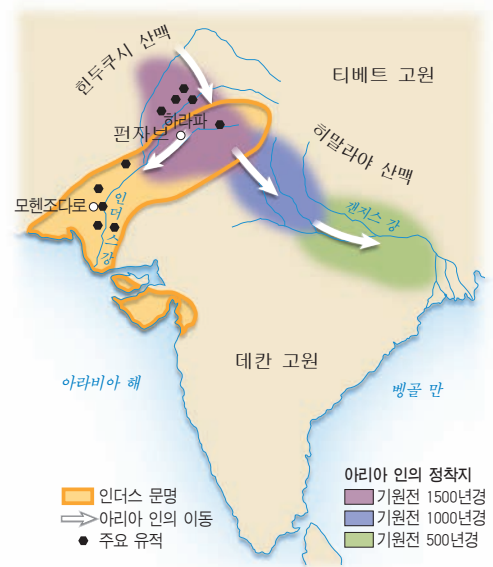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 유역은 기름진 평야 지대로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발달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기원전 2500년경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등 고대 도시를 중심으로 청동기를 사용하는 **인더스 문명**이 발생하였다. 이 도시들은 사전 설계에 따라 성곽과 도로망을 갖추고, 구운 벽돌로 지은 공공건물과 주택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치한 계획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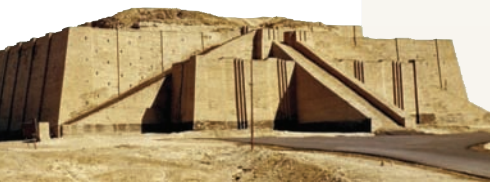
인더스 문명의 도시들은 인더스 강과 아라비아 해를 통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토기, 인장, 작은 입상, 공예품 등을 수출하는 등 상업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인더스 강의 잦은 홍수, 삼림 파괴에 따른 기후 변화, 아리아 인의 침입 등으로 몰락하였다.

▲ 모헨조다로 유적지와 이곳에서 발굴된 청동 소녀상(인도 국립 박물관)
정면에 보이는 공중목욕장 주변에는 집회소, 곡물 창고 등이 있었다.

아리아 인이 이동하여 인도 문명의 토대를 마련하다

기원전 1500년경 북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리아 인이 남하하여 인더스 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인더스 문명을 정복한 아리아 인은 먼저 살고 있었던 주민을 정복하거나 내몰면서 기원전 500년경에는 갠지스 강 중상류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정복 전쟁이 치열해졌고, 그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제**가 확립되었다. 또한 베다를 바탕으로 태양, 강 등의 자연신과 소를 숭배하고, 장수와 다산을 기원하며 제물을 바치는 브라만교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카스트제와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인도 문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브라만 계급이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자, 이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 인더스 문명과 아리아 인의 이동

4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 우르의 지구라트 유적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도시에서는 굽거나 햇볕에 말린 흙벽돌로 여러 층의 단을 쌓고, 그 위에 신전을 세워 도시의 수호신을 받드는 거대한 탑(지구라트)을 세웠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현재 3층의 기단 중 1층 부분만 남아 있는데, 가로가 62.5 m, 세로가 43 m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우르 인들은 지구라트에서 무엇을 기원하였을까?

학습 목표 | •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
•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세계사에 끼친 영향을 말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초로 문명이 발생하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되었으며, 사방으로 통하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상업도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최초로 도시 문명이 성립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서남아시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이라크를 중심으로 시리아 동북부와 이란 서남부를 포함한다.

▲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 인**은 메소포타미아의 남부 지역에 우르, 라가시 등 여러 도시 국가를 세워 경쟁하였다. 이들 국가의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신관과 전사를 두고 평민과 노예를 다스리는 신정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도시 국가들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기원전 1800년경에는 아무르 인이 세운 **바빌로니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였다. 바빌로니아는 함무라비 왕 때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하고 법전을 편찬하는 등 전성기를 맞았다. 그러나 기원전 1500년경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한 히타이트에게 멸망하였다.

사료 돋보기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알아보는 바빌로니아 사회의 모습

1조 남을 살인죄로 고발하고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자는 죽인다.
8조 신전이나 궁전의 것을 훔치면 30배, 평민의 것을 훔치면 10배로 갚게 한다.
195조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의 손을 자른다.
196조 귀족이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멀게 한다.
198조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면 은 1미나를 지불한다.

바빌로니아 사회는 신분 질서가 엄격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로, '눈에는 눈'의 복수법이 시행되었으나 신분에 따라 법률 적용에 차별을 두었다.

▲ 함무라비 법전 돌기둥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법전을 받는 모습 아래에 282개조의 법률이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다.

나일 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다

이집트를 관통하여 흐르는 나일 강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범람하여, 강 주변 지역에 비옥한 흙을 실어 나른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강줄기를 따라 농경이 발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국가들이 생기면서 문명이 발생하였다.

기원전 3000년경 나일 강 유역의 도시 국가들을 아우르는 통일 왕국이 성립되었다. 이집트는 사방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 세력의 침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왕조가 바뀌면서도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집트의 왕은 **파라오**라 불리며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되었다. 파라오는 농민과 노예를 동원하여 거대한 신전과 **피라미드**를 쌓는 등 정치와 종교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신정 정치를 실시하였다.

나일 강을 따라 남아 있는 고대 이집트 인의 사후 세계 믿음

고대 이집트 인은 선행을 쌓으면 사후에 나일 강 신의 심판을 거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시신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미라로 만들어 저승길 안내서인 사자의 서와 함께 묻었다. 왕의 경우에는 미라의 관을 황금으로 만들거나 무덤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으며, 왕을 신으로 섬기는 웅장한 신전을 세우기도 하였다.

▲ 미라 만들기

▲ 사자의 서(영국 박물관)

◀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 투탕카멘의 황금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

▲ 나일 강과 이집트 문명

▲ 아부심벨 신전

문자의 의미	이집트 문자	페니키아 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황소의 머리		('a) Aleph	AA(a) Alpha	A
집		(b) Beth	B(b) Beta	B
모서리		(g) Gimel	ΓC(g) Gamma	C/C
창		Δ(d) Daleth	ΔD(d) Delta	D

▲ 알파벳의 기원

▲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페니키아와 헤브라이가 활약하다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세력이 약화되자, 서아시아의 지중해 연안에서는 페니키아 인과 헤브라이 인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에 여러 개의 도시 국가를 세운 페니키아 인은 조선술과 항해술이 뛰어나, 기원전 12세기부터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지중해 각지에 카르타고와 같은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선진 문명을 전파하였다. 이때 이들이 사용하던 **표음 문자**가 그리스에 전해져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었다.

유목 생활을 하던 헤브라이 인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기원전 1000년경에 **헤브라이 왕국**을 세웠다. 헤브라이 왕국은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맞았으나, 곧 이스라엘과 유대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후에 유대가 신바빌로니아에 항거하다 정복당하자, 그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고난을 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는 **유대교**가 성립되었으며, 그들의 역사와 신앙을 기록한 구약 성서가 경전으로 정리되었다. 유대교는 후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300년경까지 멕시코의 남동 해안 지방에서는 올메카 문명이 발전하였다. 이를 계승하여 기원후 300년 무렵부터 과테말라와 유카탄 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마야 문명이 융성하였다. 거대한 피라미드 형태의 신전들로 이루어진 도시, 나무껍질 두루마리에 기록된 상형 문자, 정밀한 달력 등을 통하여 마야 문명의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올메카의 거석 인두상(높이 178cm, 멕시코 국립 인류학 박물관)

▲ 마야의 상형 문자 기록

◀ 쿠쿨칸 피라미드(멕시코 치첸이트사)

탐구 활동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자료 1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인은 왕명이나 세금의 액수를 진흙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하였다. 또한 그들은 천체의 운행이 인간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믿어 천문 관측을 중시하였다. 그 결과 점성술이 발달하였으며, 달의 운행 주기에 맞춘 태음력과 60진법이 발명되었다.

바빌로니아는 수메르 인의 법률을 계승하여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그들은 지구라트에 도시의 수호신을 모시고 현세의 평안을 기원하였다. 이처럼 수메르 문명의 여러 요소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여러 민족에게 계승 · 발전되었다.

자료 2 이집트 문명

이집트 인은 상형 문자를 발명하여 돌에 새기다가 점차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 '사자의 서'와 같은 기록을 남겼다. 한편 나일 강의 범람 주기를 예측하고자 태양력을 만들었으며, 범람 후 농경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측량술과 기하학을 발전시켰다. 그 계산에는 10진법이 사용되었다.

이집트 인은 태양신, 나일 강의 신 등 여러 신을 숭배하였고,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사자의 서'를 작성하여 무덤에 함께 넣었으며, 부활에 대비하여 미라를 만들었다.

과제 1 위의 자료를 읽고 다음 표를 완성하여 보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내용	이집트 문명
개방적 지형	지리적 특징	폐쇄적 지형
잦은 민족 교체	정치 변천	
	문자	상형 문자
태음력, 점성술	과학 기술	

과제 2 자료 1, 2를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종교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주는 왕족이나 공신을 제후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하는 □□□를 실시하였다.

(2) 고대 인도에서는 베다를 바탕으로 자연신을 숭배하는 □□□□가 성립하였다.

(3) 바빌로니아는 □□□□ 왕 때 영토를 통일하고 법전을 편찬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히타이트 •   • ㉠ 유일신의 종교 확립

(2) 페니키아 •   • ㉡ 알파벳의 기원 전파

(3) 헤브라이 •   • ㉢ 최초로 철기 문화 전파

3 다음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문명 발생의 공통 요소로는 도시 국가 발생, 청동기와 문자 사용 등이 있다. (　　)

(2) 중국의 상은 점을 친 내용과 결과를 갑골문으로 기록하였다. (　　)

(3) 인도에서 성립한 카스트제는 개방적인 신분 제도이다. (　　)

(4)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외부 세력의 침입이 어려워 오랫동안 통일 왕국을 유지하였다. (　　)

4 고대 이집트 인이 사후 세계를 믿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을 두 가지만 쓰시오.

04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1 고조선의 성립

▲ 강화 참성단(인천 강화)

강화 참성단은 고조선을 세운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드렸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강화도 마니산에 참성단을 쌓고,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

오늘날 참성단에서는 어떤 행사를 치를까?

학습 목표 | •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고조선의 통치 이념과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다

청동기 문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보는 견해와 기원전 700년경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기원전 1000년경부터 만주와 요동, 한반도 지역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중국의 것과 구별되는 **비파형 동검**을 비롯한 각종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당시의 청동기는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만들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의 무기나 장신구, 제사 용품 등으로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도 생활 도구와 농기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반달 돌칼**, 여러 가지 모양의 돌도끼, 홈자귀 등이 있다.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 토기 등을 사용하였다.

◀ 각 지역의 동검
①은 중국식 동검(도씨검: 중국), ②는 오르도스식 동검(중국), ③은 비파형 동검(전남 여천)이다. 비파형 동검은 중국식 동검보다 날이 넓고 몸통에 홈이 패어 있으며, 검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의 각종 유물

▲ 반달 돌칼(충북 청주)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데 사용한 도구이다.

▲ 돌도끼(충북 제천)

▲ 홈자귀(관동대 박물관)

▲ 민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토기가 널리 사용되었다.

▲ 붉은 간 토기(충북 제천)

농업이 본격화하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누어지다

청동기 시대에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이용하여 땅을 일구고 농경지를 넓혀 나가는 등 농업 활동이 본격화하였다. 밭에서는 조, 보리, 콩 등이 재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개 시설을 이용한 벼농사도 이루어졌다.

벼농사의 확대
논에 도랑을 내고 물을 끌어들여 벼를 재배하는 방식이 충남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개 농업 방식은 점차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전파되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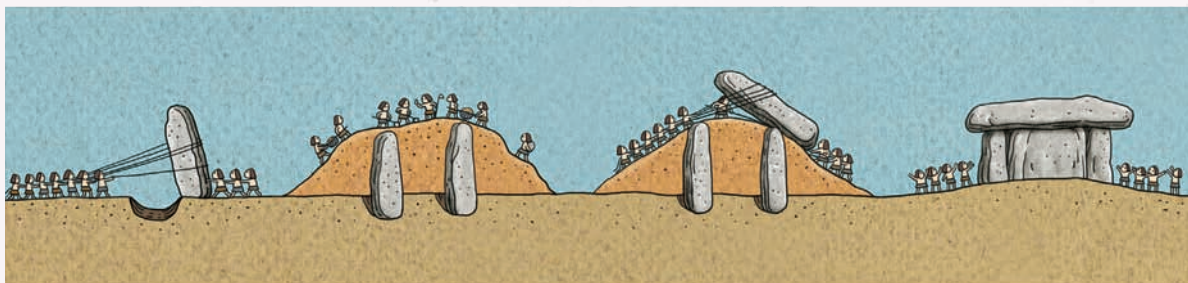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대개 낮은 언덕에 직사각형의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어 생활하였다. 또한 방어를 위하여 마을 주위에 울타리를 치거나 도랑을 파기도 하였다.

청동기 시대에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사유 재산이 발생하고 빈부의 격차가 커졌다. 이에 따라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나 마을을 통솔하고, 주변을 정복해 갔다. 지배자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고인돌**이나 돌널무덤을 만들고, 청동기와 같은 껴묻거리들을 함께 묻었다. 그 후 지배자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무덤의 규모가 한층 커지고 껴묻거리도 많아졌다.

▲ 청동기 시대의 마을(울산 검단리 유적 복원도)
마을 전체를 도랑으로 둘러싸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탐구 활동 고인돌,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

고인돌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분포하는 선사 시대의 무덤으로서, 지상이나 지하에 만든 무덤방에 굄돌을 놓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얹은 형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되는 곳은 전남 화순, 전북 고창, 인천 강화 지역 등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 탁자식 고인돌(인천 강화 부근리)
▲ 바둑판식 고인돌(전북 고창)

▲ 고인돌 제작 과정

과제 1 고인돌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과제 2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사진 자료를 수집해 보자.

◀ 미송리식 토기(평북 의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성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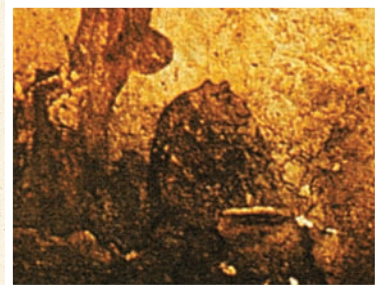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 청동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요령(랴오닝)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방에는 족장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나타났다. 고조선은 이들을 통합하여 세운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였다. 고조선의 성립은 “삼국유사”에 실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단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보여 주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고조선은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만주와 한반도에 걸치는 넓은 영토를 통치하였다. 그리하여 기원전 4세기경에는 요서 지방을 경계로 중국의 연과 대립할 만큼 강성해졌다.

◀ **고조선 관련 유물·유적의 분포**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가 겹치는 지역으로, 중국의 랴오허 강 동쪽에서부터 한반도의 대동강 유역까지 해당한다.

사료 돋보기 단군, 고조선을 건국하다

지금(“위서”가 편찬된 때)으로부터 2천 년 전에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고 하였으니, 요 임금과 같은 때이다. ……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생각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가 이를 ‘신시(神市)’라고 일컬었다.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니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물,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대개 인간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이치에 맞게 다스렸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동굴에 머무르며 환웅에게 언제나 기도하기를 “사람으로 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신께서 영험한 쑥 한 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가 이를 받아 금기를 지킨 지 삼칠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으로 바뀌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을 얻을 수 없었다. 웅녀는 결혼할 상대가 없어서 늘 신단수 아래에서 임신하고 싶다고 빌었다. 그래서 환웅이 임시로 (사람으로) 변하여 결혼하니 (웅녀가) 아이를 낳아 단군왕검이라고 이름하였다. – “삼국유사”

▲ 벽화의 곰과 호랑이(각저총, 중국 지린 성 지안)

이 이야기는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우는 지배자가 나타나 동물 토템 신앙을 가진 원주민들을 포용하여 새로운 지배 체제를 이룩하였음을 보여 준다. 홍익인간은 이 시기에 등장한 지배층이 부족 단위의 폐쇄적인 사회 질서를 타파하고 큰 사회로 통합하여 모든 사람을 더욱 이롭게 하겠다는 통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단군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호칭으로서, 단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임금을 뜻한다. 이를 통해 고조선이 제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2 고조선의 발전

일찍부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중국은 자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의 모습들도 기록하였다. 중국 역사책 "사기"의 '조선전' 항목에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

중국 역사서에는 고조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 "사기"

학습 목표 | • 한반도의 철기 문화와 농기구의 발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위만 조선의 흥망 과정과 사회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철기 문화가 시작되다

기원전 4~3세기경부터 요동과 한반도 지역에서 철기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철기와 청동기가 함께 사용되었고, 세형 동검과 같은 발전된 청동기가 만들어져 한반도 전 지역에 퍼졌다. 이와 함께 갈색의 덧띠 토기, 검은 간 토기와 같은 다양한 토기도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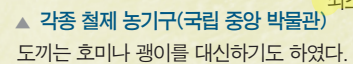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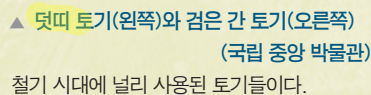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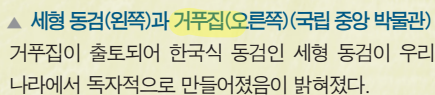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철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기원전 1세기경에는 한반도 전 지역이 철기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각 지역의 정치 세력들은 아직까지 칼이나 검, 창과 같은 철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는 철기로 만든 호미, 괭이, 보습, 낫과 같은 농기구가 사용되었다. 철제 농기구의 사용으로 농경 지역이 확대되었으며, 농업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 철기 문화 유적

▲ 세형 동검(왼쪽)과 거푸집(오른쪽)(국립 중앙 박물관)
거푸집이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인 세형 동검이 우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밝혀졌다.

▲ 덧띠 토기(왼쪽)와 검은 간 토기(오른쪽)(국립 중앙 박물관)
철기 시대에 널리 사용된 토기들이다.

▲ 각종 철제 농기구(국립 중앙 박물관)
도끼는 호미나 괭이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위만 조선이 성립하다

기원전 3세기경 고조선은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쳤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이 멸망하고 한이 들어서는 혼란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고조선에 들어왔는데, 위만도 이들 중 한 명이었다.

위만이 무리를 이끌고 들어오자, 고조선의 준왕은 그에게 서쪽 100리의 땅을 주고 변경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위만은 점차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 명도전(국립 중앙 박물관)
중국의 화폐이다. 고조선과 한반도 각 지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국제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만 조선이 주변 정복과 대외 교역에 힘쓰다

위만은 집권한 후 한의 발달된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조선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의 대부분을 다스렸다. 또한 한반도 남부 및 일본 열도의 여러 지역들과 중국 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며 발전하였다.

위만 조선이 멸망하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 때 고조선은 남부의 진국이 중국의 한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계 무역의 이익을 계속 독점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은 대규모의 수군과 육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공격하였으나, 고조선은 이를 크게 격파하였다.

한은 평화 교섭을 추진하다가 결렬되자 다시 고조선을 공격하여 왕검성을 포위하였다. 고조선은 1년여 동안 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으나, 지배층 내부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결국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은 고조선의 옛 땅에 낙랑군을 비롯한 한사군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에 고조선의 유민들은 한의 군현에 맞서 싸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한사군은 고조선 유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곧 폐지되거나 물러났다.

◀ 위만 조선의 중계 무역권
위만 조선은 중계 무역으로 중국과 한반도 남부 및 일본 열도를 연결하였다. 위만 조선의 남쪽 무역로는 충남, 전북, 전남 지역을 거쳐 남해안의 경남 사천 늑도, 일본 이키 섬, 규슈 북부 지역까지 이어졌다.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다

고조선은 어느 정도 중앙 통치 체제를 갖춘 국가로서, 수도 왕검성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다스렸다. 왕은 대신, 장군 등의 신하를 거느리고, 많은 수의 병사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회 신분은 왕을 비롯한 귀족, 평민, 노비 등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8조법**을 갖추고 엄격하게 법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3개 조항이 전한다.

고조선의 8조법

1.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3.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 "한서" '지리지'

8조법을 통해 고조선이 사람의 생명과 노동력을 중시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명도전 •   • ㉠ 중국과 교류

(2) 고인돌 •   • ㉡ 지배자의 무덤

(3) 반달 돌칼 •   • ㉢ 곡식을 자르는 도구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단군왕검의 칭호에서 고조선이 □□□□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2) 고조선은 위만이 집권한 이후, □□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발전하였다.

(3) 고조선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을 갖추고 엄격하게 이를 시행하였다.

3 다음은 단군의 건국 이야기 중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국 이념을 쓰시오.

>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 고 생각하여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보내 다스리도록 하였다.

05 고조선 이후 여러 나라의 발전

1 여러 나라의 성립

조선의 준왕이 연에서 망명한 위만의 공격을 받아 왕위를 빼앗겼다. 준왕은 좌우의 궁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韓)의 땅에 살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고 하였다. 그 뒤에 후손이 끊어졌는데, 지금 한인(韓人) 가운데 아직도 그 제사를 받드는 자가 있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반도 남부에는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였을까?

학습 목표 |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한 국가의 위치와 정치 조직을 파악할 수 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 중국 동북 지역이나 한반도 서북 지역에 있던 철기 문화 세력들은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들은 각 지역의 토착민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었으며, 중국이나 낙랑 등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시기에는 철기 제작 기술이 더욱 발달하여 단검, 창, 화살촉 등의 철제 무기가 대량 생산되었고,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고리자루 큰칼도 만들어졌다. 철제 무기가 일반화되면서 전쟁도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 약간 높은 지대에 마을을 만들거나 마을 주위에 토성을 둘러쌓기도 하였다.

◀ **고리자루 큰칼(경북 울진)**
손잡이 끝을 둥근 고리 모양으로 만든 칼로서,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한다.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이나 두 개의 항아리를 옆으로 이은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주거지로는 직사각형의 지상 가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땅을 파고 지은 움집이나 나무를 옆으로 쌓아 만든 귀틀집이 있었다.

▲ **철기 시대 주거지 유적(전남 순천)**

▲ **널무덤(경남 창원)**
땅에 네모난 구덩이를 파고 나무 널을 묻었다.

여러 나라들이 성립하다

고조선을 이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등 여러 정치 세력이 나타났다.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관료를 거느렸으며, 궁궐, 창고, 감옥 등을 갖추었다. 각 지방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대가들이 독립적으로 다스렸고, 국가의 중요한 일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고구려도 부여와 마찬가지로 왕이 관료를 거느렸으며, 5부의 대가들도 각자 관리를 두고 자기 지역을 다스렸다.

옥저와 **동예**는 고조선이 멸망한 후 한 군현의 간섭에 시달렸고, 그 후에는 고구려의 압력을 받다가 결국 복속되었다. 왕이 없었으며, 읍군이나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기원 전후부터 서기 3세기 무렵까지 여러 소국이 나타나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을 이루었다. 각 소국에는 신지, 읍차 등으로 불리는 지배자가 있었다. 마한, 진한, 변한은 훗날 백제, 신라, 가야로 발전하였다.

▲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

부여의 인구는 약 8만 호, 고구려는 3만 호, 옥저는 5천 호, 동예는 2만 호였다.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의 인구는 모두 15만 호 정도였다.(“삼국지” ‘위서 동이전’)

탐구 활동 여러 나라의 모습

- 다음은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기록이다.

자료 1

말이나 풍습은 부여와 비슷하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5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연노부에서 왕이 나왔으나 점점 약해져서 지금은 계루부가 왕위를 차지하였다.

자료 2

남쪽으로는 진한, 북쪽으로는 고구려, 옥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큰 바다에 닿았다. …… 대군장이 없고, 후, 읍군, 삼로라는 관직이 있어 사람들을 다스렸다.

자료 3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왜와 접하였다. 면적은 사방 4,000리 정도이다.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이다.

과제 1 각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의 위치를 위의 지도에서 찾아보자.

과제 2 자료에 나타난 나라의 국가 발전 단계를 구분해 보자.

2 여러 나라의 생활과 풍속

▲ 오리 모양 토기(경남 울산)

(삼한 사람들은) 큰 새의 깃털을 장례용으로 썼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이 날아오르도록 하려는 뜻이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삼한 사람들은 왜 무덤에 오리 모양 토기를 넣었을까?

학습 목표 | 고조선 이후에 성립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을 설명할 수 있다.

부여, 소 발굽으로 점을 치다

부여에서는 밭농사를 주로 하였고, 목축이 발달하였다. 말, 모피 등의 특산물이 유명하였으며, 말, 소, 돼지, 개의 이름이 붙은 군장 호칭도 있었다. 12월에는 '영고'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부여에서는 왕이나 지배층의 장례에 사람들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으며,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갚게 하였다. 또한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전쟁이 나면 소를 잡아 그 발굽이 갈라진 모양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 사람들은 흰옷을 좋아하였으며,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 무예를 숭상하다

고구려는 산악 지대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농사보다 목축이 발달하였다. 말을 길들여 탈것으로 이용하였으며,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었다.

사람들은 사냥이나 씨름 대회를 열어 신체를 단련하고, 활쏘기와 말타기 등의 무예를 숭상하였다. 부여와 마찬가지로 법률이 매우 엄격하여 중대한 범죄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을 열어 하늘에 제사 지냈으며, **서옥제**라는 결혼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혼인을 정한 신랑이 신부의 집 뒤꼍에 마련된 집에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풍습이다.

◀ 수렵도(무용총, 중국 지린 성 지안)
고구려 사람들은 무예를 수련하며 강건한 기상을 키워 나갔다.

옥저, 풍부한 해산물을 생산하다

동해안 지역에 자리 잡은 옥저는 농사가 잘 되고 해산물이 풍부하였으나, 정치 발전이 늦어 고구려에 소금, 어물 등의 공물을 바쳤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속이 있었다. 또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나무 덧널에 넣어 두었다.

민며느리제
어린 여자아이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후 성인이 되면 여자 집에 돈을 주고 나서 정식으로 아내로 삼는 풍습이다.

동예, 산천을 소중히 여기다

동예 사람들은 별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쳤고,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드렸다. 같은 씨족끼리는 혼인을 하지 않았으며, 산천을 소중하게 여겨 함부로 출입하지 않았다. 동예 사람들은 마을끼리 서로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동예의 특산물로는 활, 과하마, 바다표범 가죽 등이 있었다. 10월에는 '무천'을 열어 하늘에 제사 지냈다.

삼한,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다

삼한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였고, 벽골제, 의림지, 수산제 등의 저수지가 만들어졌다. 또 누에를 쳐서 비단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씨를 뿌리고 난 후인 음력 5월과 추수를 마친 10월에 사람들이 한데 모여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함께 어울리며 놀았다. 진한과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변한에서는 덩이쇠를 화폐로 사용하였으며, 마한, 한의 군현, 왜 등에도 수출하였다.

삼한의 구성
마한 54개국, 진한과 변한은 각 12개국 등 총 78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한의 각 고을에는 제사장인 천군이 머무르는 **소도**가 있었는데, 이곳에 솟대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성한 지역임을 표시하였다. 소도에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도 잡아가지 못하였다.

▲ 솟대
삼한 사람들은 새를 하늘의 전령이라고 생각하고 새가 영혼을 하늘로 실어다 준다고 믿었다.

▼ 의림지(충북 제천)

사료 돋보기 하늘에 제사 지내는 여러 나라

부여

음력 정월(12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큰 행사를 열어 날마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하였다. 이때는 죄지은 자를 처벌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 주었다.

삼한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떼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율동은 중국의 춤과 유사하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고구려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나라의 큰 행사를 이름하여 동맹이라 한다. 그들의 의복은 모두 비단으로 수놓았고 금은으로 장식하였다. …… 나라 동쪽에는 큰 굴이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을 맞이하고 나라 동쪽 위에 모시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의 자리에 모신다.

▲ 국동 대혈(고구려 수혈, 중국 지린 성 지안)
고구려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신을 모신 곳이라고 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추수를 마친 뒤에는 대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 이때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춤추고 즐겼으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풀어 주기도 하였다.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초기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가 기록되어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지도에서 ㉠~㉤에 해당하는 나라를 쓰시오.

2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을 두 가지 쓰시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나라를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보기	㉠ 삼한	㉡ 동예	㉢ 부여	㉣ 고구려

(1) 활쏘기와 말타기 등 무예를 숭상하였다.
(2) 제사장인 천군이 머무르는 소도가 있었다.
(3) 마을끼리 서로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였다.
(4) 왕이나 지배층의 장례에 사람들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깊이 있는 역사

낙랑군의 흥망

낙랑은 옛 고조선 땅에 한이 설치한 군현 중 하나로서, 한반도 북부에서 오랫동안 존재하였다. 낙랑은 정치적으로는 초기 여러 나라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었지만, 한반도 고대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 문자가 새겨진 낙랑의 수막새(평양)

▲ 성립기(기원전 1세기)의 한사군 위치

한사군의 성립과 변천

한 무제는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반도 북부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네 군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한은 현지 주민들의 저항을 받아 기원전 82년에 진번군과 임둔군을 폐지하였다. 그 후 현도군도 고구려 계통 주민들의 저항으로 요동 방면으로 쫓겨나서, 한반도에는 낙랑군만 남게 되었다. 낙랑군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동해안 지역을 빼앗기는 등 영토가 축소되었다가, 4세기 초에 고구려 미천왕에게 멸망하였다.

낙랑군의 성격

낙랑군은 옛 고조선 지역의 자치를 인정하고, 중계 무역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낙랑 태수와 일부 중앙 관리를 뺀 대부분의 관리와 군인은 현지인들이 차지하였다.

그 후 중국에서 이주해 온 소수의 한인과 고조선계 주민들이 차츰 융합되다가, 3세기 후반에는 거의 토착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낙랑의 문화는 소수의 중국 계통 주민과 대다수의 옛 고조선 유민들이 함께 이룩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 낙랑의 순금 허리띠 장식(왼쪽)(국립 중앙 박물관)과 청동 거울(오른쪽)(평양)

생각해 보기

01 낙랑의 문화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마무리

선사 문화

〈 구석기 시대 〉
- 언어 사용, 동굴 벽화·바위그림
- 도구: 뗀석기(주먹도끼, 긁개 등)
- 생활 모습: 사냥, 채집, 이동 생활

〈 신석기 시대 〉
- 농경과 목축 시작
- 도구: 간석기, 토기
- 움집에서 생활, ❶ 출현

고대 문명의 형성과 발전

〈 문명의 발생 〉
- 청동기 사용
- 인구 증가
- 도시 발전
- 문자 사용

→ 큰 강 유역에 4대 문명 탄생

중국	• 상 왕조: 순장 풍습, 갑골문 사용(신정 정치) • 주 왕조: ❷ 실시
인도	• 도시: 하라파, 모헨조다로 • 아리아 인의 진출: ❸ 확립
메소포타미아	• 개방적 지형 → 잦은 왕조 교체 • 바빌로니아 왕국: 함무라비 법전 편찬
이집트	• 폐쇄적 지형 → 오랫동안 통일 왕조 유지 • 사후 세계 믿음 → 피라미드, 사자의 서, 미라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고조선의 성립	
청동기 문화	• 비파형 동검, 반달 돌칼 • 생활: 움집, 벼농사 시작 • 계급 발생: 고인돌, 돌널무덤
건국	단군왕검,

고조선의 발전	
철기 문화	• 세형 동검 • 철제 농기구 사용
발전	• 위만의 집권: 철기 문화 수용 • 8조법: 생명과 노동력 중시

여러 나라의 성립

〈 부여와 고구려 〉
- 목축 발달
- 부여: 순장, '영고'
- 고구려: '동맹', 서옥제

〈 옥저와 동예 〉
- 군장이 각 부족을 다스림
- 옥저: 민며느리제
- 동예: ❺, '무천'

〈 삼한 〉
- 벼농사 발달
- 철 생산, 수출
- 제정 분리: ❻

생각의 열쇠

❶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애니미즘 등이 있다.
❷ 수도와 주변 지역은 왕이 직접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를 임명하여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❸ 아리아 인의 진출과 함께 정복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확립된 엄격한 신분 제도이다.
❹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고조선의 이념이다.
❺ 동예 사람들이 마을끼리 서로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❻ 삼한의 각 고을에 제사장인 천군이 머물었던 곳으로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 다음은 요동과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다룬 가상 신문이다.

○○ 신문 OOOO. OO. OO.

역사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 문화가 궁금해요

작은 칼 모양이며, 가운데 '明(밝을 명)'이란 글자가 있어 명도전이라 부른다.

왼쪽의 도끼는 땅을 파거나 열매를 캘 때 이용하기도 하였다.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보다 가늘게 생겼다. 오른쪽의 거푸집은 세형 동검을 만들 때 사용한 것이다.

1. 가상 신문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2. 자신이 역사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제시된 유물들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글을 써 보자.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각각 독립적인 고대 국가로 성립하여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면서 체제를 정비하였다.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은 대외적으로 북방의 중국 및 남방의 왜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각각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 한편, 불교를 수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기도 하였다.

	기원전 1세기경	기원후	200년경	300년경
한국	57 신라 건국 37 고구려 건국 18 백제 건국	42 가야 건국	250 백제, 관등제 마련	313 고구려, 낙랑군 멸망 373 고구려, 율령 반포
세계			220 중국, 후한 멸망 226 사산 왕조 페르시아 성립	320 인도, 굽타 왕조 성립 395 로마, 동·서로 분열

고구려 훈장 강 입구

400년경	500년경
427 고구려, 평양 천도 475 백제, 웅진 천도	520 신라, 율령 반포 538 백제, 사비 천도 562 대가야 멸망
439 중국, 남북조 성립 476 서로마 제국 멸망	589 수의 중국 통일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01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

1 고구려의 성장

중국 랴오닝 성 환런 현 훈장 강 유역에는 오녀산성이 있다. 이곳은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첫 도읍지 졸본이라고 알려져 있다.

고구려는 왜 험준한 산 위에 국가를 세웠을까?

학습 목표 |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가 건국되다

기원전 3세기 이후 철기 문화를 가진 세력이 압록강과 훈장 강 유역에 등장하였다. 기원전 1세기경 이 지역에 부여계 유민이 들어와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세웠다.

고구려는 졸본에서 압록강 중류 일대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주변 소국을 정복하면서 국가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 **환도산성**
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도성으로 이용되었다.

▼ **지안 일대(중국 지린 성)**
압록강 유역에 위치한 고구려의 중심지로, 광개토 대왕릉비, 장군총 등의 고구려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 **산성하 고분군**
고구려의 돌무지무덤과 굴식 돌방무덤이 분포하고 있다.

▼ **국내성 성벽**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은 평지에 위치하였다.

고구려 건국 이야기

“삼국사기”에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천제(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물의 신)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하여 졸본에 이르러 비류수 가에 흘승골성을 짓고 기원전 37년에 개국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지금의 오녀산성으로 추정된다. 동명왕(주몽)은 주변에 있던 비류국 왕 송양과 대결하여 승리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하늘의 자손임을 주장하는 이주민이 토착민을 포섭하여 나라를 통치한 사실을 반영한다. 고구려는 해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동맹을 개최하여 건국 신화의 내용을 알리고 국가 의식을 고취하였다.

고대 국가를 건설하다

1세기 후반에 태조왕은 계루부 중심으로 5부를 연합하여 고대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대외 정복에 나서 옥저와 동예를 아우르고 요동 지방으로의 진출을 꾀하였다.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왕권이 크게 강화되어 부자 상속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무렵에는 동부 등의 방위명 5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진대법을 시행하여 빈민을 구제하고자 노력하였다.

▲ **고구려와 중국의 대립**
고구려는 요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압록강 하류 유역의 서안평을 자주 공격하였다.

고대 국가를 완성하다

3세기 전반 동천왕은 중국이 위, 촉, 오의 삼국으로 분열하여 대립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위의 장수 관구검의 공격을 받아 환도성이 한때 함락되기도 하였다.

한동안 위축되었던 고구려는 4세기 초 미천왕 때에 서안평을 점령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냈다. 그러나 얼마 뒤 고구려는 중국 전연과 백제의 공격을 받아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였다.

4세기 후반 **소수림왕**은 중국의 전진과 교류하여 불교를 받아들였다. 또한 유교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으며, 국가를 다스리는 **율령**을 반포하는 등 국가 체제를 다시 정비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는 중앙 집권 국가를 제도적으로 완성하였다.

위, 촉, 오
후한이 멸망하고 나서 3세기 초에 중국은 위, 촉, 오의 세 나라로 분립되었다. 이때 위는 중국 북부 황허 강 유역의 대부분을 차지한 강국이었다.

서안평
서안평은 지금의 중국 랴오닝 성 단둥시 동북쪽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낙랑군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다.

2 고구려의 발전

중국 지안의 광개토 대왕릉비 부근에 있는 대형 돌무지무덤에서 벽돌이 발견되었다. 이 벽돌에는 "태왕릉이 산처럼 편안하고 굳세기를 기원한다(願太王陵 安如山 固如岳)."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이 벽돌이 출토된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

학습 목표 | •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과 외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고구려 정치 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고구려의 영토 확장(5세기)

광개토 대왕, 영토를 크게 넓히다

소수림왕 때 통치 체제를 확고하게 다진 고구려는 이를 바탕으로 대외 정복 활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광개토 대왕은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고 동부여를 병합하여 요동과 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넓혔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하여 황해도 지역과 강원 및 충북 일부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만주와 한반도 중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또한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왜군을 쫓아내고 남해안의 가야 지역까지 공략하였다.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 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태왕'으로 불리었다.

▶ 태왕릉(중국 지린 성 지안)
고국양왕이나 광개토 대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돌무지무덤이다.

▶ 광개토 대왕릉비(중국 지린 성 지안)
높이 6.4 m, 무게 약 37톤이다. "국강상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란 시호가 새겨져 있다.

장수왕, 남하 정책을 추진하다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왕권을 강화하여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하고, 평양으로 천도하였다(427).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을 폈다.

▲ 복원된 아차산 제4 보루
한강 유역을 차지한 고구려군이 주둔하던 곳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이에 따라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서울)을 함락하고, 신라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와 남한강 상류 일대를 차지하였다. 충주 고구려비는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한반도의 중부 지방과 요동을 포함한 만주 지역을 차지하여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성장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 북쪽 지역에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며 발전하던 부여는 3세기 후반 선비족의 침입을 받아 크게 약화되었다. 이후 부여는 고구려의 간접 통치를 받으며 명맥을 유지하다가, 5세기 말에 고구려에 완전히 복속되었다. 이 무렵 고구려는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탐구 활동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 되다

자료 1 광개토 대왕릉비문

대왕의 은혜로운 혜택이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온 사방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들이 각기 생업에 힘써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풍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도다.

자료 2 충주 고구려비문

고구려 대왕이 신라 매금(왕)을 만나 영원토록 우호를 맺기 위해 중원에 왔으나 …… 동이(오랑캐) 매금에게 옷을 내려 주었다.

▲ 충주 고구려비(충북 충주)

과제 1 자료 1에서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임을 알 수 있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자.

과제 2 자료 2를 통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아보자.

한강 유역을 상실하다

6세기 중엽에 이르러 고구려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귀족들 사이에 내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귀족 사회가 분열되어 어느 한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북방의 돌궐이 공세를 강화하자, 고구려 남쪽에 대한 방비가 소홀해졌다. 결국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 동맹군의 협공을 받아 한강 유역을 모두 상실하였다.

제가 회의 중심에서 왕권 중심으로 정치 제도를 확립하다

고구려는 5부가 연합하여 지배 체제를 형성하였다. 초기에는 계루부의 대가가 왕이 되고 각 부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제가 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였다. 그 후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제가들은 점차 중앙 귀족으로 전환되어 **대대로** 이하 10여 개의 관등으로 편제되었다.

주요 정복 지역에는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이나 촌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큰 성의 지방관을 욕살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일반 행정과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동천왕 •   • ㉠ 서안평 공격
(2) 미천왕 •   • ㉡ 낙랑군 축출
(3) 소수림왕 •   • ㉢ 왕위의 부자 상속
(4) 고국천왕 •   • ㉣ 불교 수용, 태학 설립

2 다음 내용이 광개토 대왕에 해당하면 '광', 장수왕에 해당하면 '장'이라고 쓰시오.

(1) 중국 북조의 북위와 우호 관계를 맺었다. ( )

(2) 요동과 만주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 )

(3)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자신을 '태왕'이라 부르게 하였다. ( )

(4) 남하 정책을 추진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다. ( )

3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 옥저와 동예를 복속시켰다.
㉣ 율령을 반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02 백제의 건국과 발전

1 백제의 건국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는 남북으로 2km, 동서로 1km에 이르는 토성이 자리 잡고 있다. 풍납 토성에서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터가 확인되고 많은 유물이 출토되어, 이곳이 백제의 위례성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제가 한강 유역에 세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백제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풍납 토성(서울 송파)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다

기원 전후 시기에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이 내려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백제를 건국하였다(기원전 17).

백제가 자리 잡은 한강 유역은 일찍부터 농업과 철기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으며, 황해를 통하여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유리한 위치였다. 백제는 이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도움 글 백제를 건국한 세력은 누구인가?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건국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동명왕)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각각 무리를 이끌고 내려와 미추홀(인천)과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온조 세력이 비류 세력을 병합하였다. 온조의 조상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부여씨로 하였다.

서울 송파 지역에는 한성 시대의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남아 있는데, 규모와 구조가 고구려의 것과 유사하다. 이것은 백제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라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 고구려의 돌무지무덤(중국 지린 성 지안)

▲ 백제의 돌무지무덤(서울 송파)

고대 국가로 성장하다

3세기 중엽 **고이왕**은 왕권을 강화하여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고이왕은 마한의 중심 세력인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강 유역 일대와 경기도를 포괄하는 영역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앙 정치 기구인 남당을 설치하고, 관등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백제는 이처럼 국가 조직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당
왕을 비롯한 중앙 및 귀족 세력들의 대표자가 모여 국가의 업무를 의논하던 중앙 기관이다. 초기에는 남당에서 국가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나중에는 각종 실무 행정이 다른 기관으로 분리되어 나가고, 주로 군신 회의를 행하는 합좌 기관으로 변하였다.

고대 국가를 완성하다

백제는 3세기 후반에 낙랑과 대결하면서 내부의 단결을 이룩하고 국가의 위신을 드높였으나, 낙랑의 반격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낙랑과 대방이 고구려에게 멸망한 뒤, 4세기 중엽 왕위에 오른 **근초고왕**은 그 유민들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지방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근초고왕은 북쪽으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키고,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남쪽으로는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와 교류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가야, 왜 등과 교류하여 신라를 견제하였다. 근초고왕의 활약을 바탕으로 백제는 4세기 후반에 중앙 집권 국가를 완성하고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침류왕 때에는 동진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여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중앙 집권 체제를 뒷받침하게 하였다.

▲ 백제의 발전(4세기)

고구려가 요동을 점령하니, 백제는 요서를 점령하고 진평군 진평현에 이 지역의 통치 기관을 설치하였다.
– "송서" '백제전'

백제는 마한 족속이다. 진나라 말기에 고구려가 요동과 낙랑을 차지하니, 낙랑은 요서 · 진평현을 경략하였다.
– '양직공도'

▲ 백제의 요서 지방 공략에 관한 기록
중국의 역사서에는 4세기 무렵 백제가 요서 지방을 공략하여 한동안 보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로 여기는 견해와 중국 남조 계통 역사서들의 오류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2 백제의 발전

무령왕릉에서는 철제 오수전 꾸러미가 발견되었다. 중국 화폐인 오수전은 한과 그 이후의 여러 왕조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무령왕릉에서 오수전이 발견된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백제의 발전과 외교 관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백제 정치 제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백제 왕실이 남쪽으로 쫓기다

4세기 말에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공격을 받아 한강 이북 지역을 일부 상실하였다. 이 때문에 백제 왕실의 권위가 추락하여 귀족들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5세기부터 백제는 중국 남조, 신라, 가야, 왜 등 주변 국가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고구려에 맞서 나갔다. 그러나 개로왕 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한강 유역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에 백제는 남쪽의 **웅진**(공주)으로 천도하였다(475).

▲ 양직공도에 그려진 백제 사신의 모습(중국 난징 박물원)

6세기 무렵 양에 파견된 백제의 사신을 그린 것으로, 중국 남조의 양과 백제의 교류 사실을 보여 준다.

웅진에서 재기를 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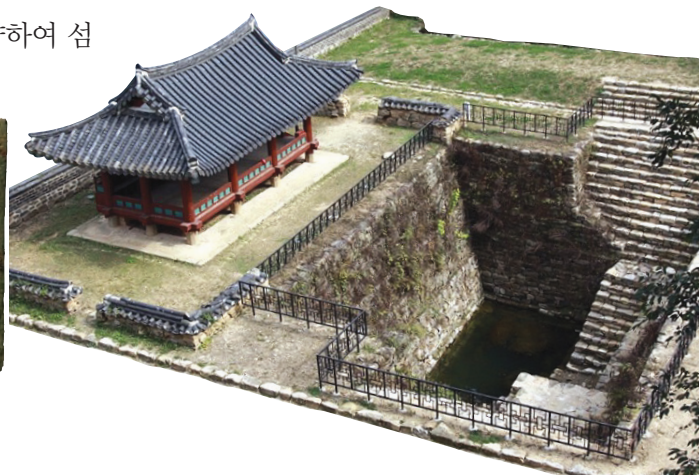
웅진 천도 초기에 백제는 왕권이 추락하고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지는 등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후 동성왕은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동맹을 강화하고, 웅진 주변의 토착 세력들을 새로이 중앙 귀족으로 받아들였다. 동성왕의 이러한 노력으로 백제는 점차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무령왕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경기 남부 지역까지 국경선을 회복하고, 대가야를 공략하여 섬진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맺고 문물 교류에 힘썼다. 이러한 무령왕의 노력으로 백제는 국력을 회복하고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2담로

담로는 백제의 지방관이 파견된 거점으로서의 성 · 읍이다. 무령왕 때에는 22개의 담로가 있었다.

▲ 무령왕릉 지석(충남 공주)

▼ 웅진성의 연못(충남 공주)

사비에서 중흥을 이루다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은 수도를 사비(부여)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과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장려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남조 및 왜와 교류를 강화하고, 가야 연맹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국력을 회복한 백제는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다. 얼마 후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자, 백제는 보복에 나섰으나 성왕이 관산성 싸움에서 전사하면서 크게 패하였다(551). 그 후 백제에서는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들을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되었다.

탐구 활동 백제의 수도 변천

백제의 첫 수도는 위례성이었다. 이곳은 현재 서울의 풍납 토성과 몽촌 토성 일대로 추정된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문주왕 때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고, 성왕 때에는 다시 사비로 천도하였다.

▲ 풍납 토성 유적(서울 송파)
신전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 몽촌 토성(서울 송파)
풍납 토성과 함께 한성 시대 수도의 역할을 하였다.

▲ 웅진성(공산성, 충남 공주)
백제의 두 번째 수도로 금강 유역에 있다.

▲ 궁남지(충남 부여)
사비성 남쪽에 있는 백제의 별궁 연못으로서, 무왕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과제 백제가 웅진과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유를 정리해 보자.

정사암 회의에서 국정을 논하다

백제에서는 왕권의 강화와 함께 중앙 집권 체제가 진전되면서 관료들이 좌평 이하 16관등으로 나뉘었다. 한편 최고 귀족 회의 의장인 내신좌평은 귀족들이 정사암에서 모여 선출하였다.

지방에는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하여 다스렸으나, 사비 천도 이후에 지방 행정 구역을 정비하여 5방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각 방에는 방령을 파견하였고, 방 아래의 군과 성에도 관리를 보내 행정과 군사의 일을 맡겼다.

사료 돋보기 정사암

또 호암사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후임 재상을 논의할 때에는 뽑아야 할 사람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함봉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개봉하여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자를 재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이러한 이름이 생겼다. - "삼국유사"

▲ 천정대(충남 부여)
정사암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재상 후보들의 이름을 쓴 상자를 바위 위에 놓는다고 해서 그 중 한 사람의 이름에 자연히 도장이 찍힐 리는 없을 것이다. 이름을 적고 봉한 뒤에는 대표적인 귀족들이 모여 재상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백제 시대에 오늘날과 같은 비밀 선거 방식이 있었음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고대의 정치가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고대 국가 초기에는 각 부의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제가 회의(고구려), 화백 회의(신라) 등이 있었다. 고대 국가의 중앙 집권 체제가 완비된 후에도 이런 전통이 귀족 회의로 전환되어 남게 된 것이다. 정사암이란 바위 이름으로 보아 재상 선출 외에도 귀족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정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무령왕 • • ㉠ 불교 수용
(2) 침류왕 • • ㉡ 신라와 혼인 동맹
(3) 동성왕 • • ㉢ 22담로에 왕족 파견
(4) 근초고왕 • •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백제는 □□□ 계통의 이주민이 □□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건국되었다.

(2) 성왕은 국호를 □□□로 고치고 제도를 정비하며 중흥을 꾀하였다.

(3) 백제의 귀족들은 □□□에 모여 내신좌평을 선출하고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였다.

3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을 쓰시오.

(　　　) → (　　　) → (　　　)

03 신라의 건국과 발전

1 신라의 건국

▲ 계림(경북 경주)

탈해왕이 밤에 금성 서쪽의 시림(계림)의 숲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새기를 기다려 호공을 보내 살펴보게 하였더니, 금빛이 나는 조그만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 "삼국사기"

궤짝에서 나온 아이는 누구일까?

학습 목표 | 신라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사로국이 성장하다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지역에서 진한 12국이 성립하였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고조선 멸망 이후 남쪽으로 내려온 이주민들은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사로국을 세우고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다.

신라 초기에는 왕권이 확립되지 못하여 박, 석, 김 3성이 교대로 왕위에 올랐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야와 왜의 잦은 침입도 신라 성장의 방해 요소였다. 이 때문에 신라는 국가를 통합하고 발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도움 글 시조 신화가 보여 주는 초기의 신라

▲ 나정 발굴지(경북 경주)
나정은 박혁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신라의 건국 신화에 따르면 경주 지역에 고조선 유민이 6촌을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기원전 57년에 그들이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 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위만 조선이 멸망한 후 경주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6개 마을을 통합하여 소국을 건설하였고, 이것이 점차 신라로 발전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신라에는 이 밖에도 석씨 계통의 석탈해 신화와 김씨 계통의 김알지 신화가 있어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위에 오른 사실을 알려 준다.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족과 연합하여 왕권을 유지하거나, 강력한 세력에게 왕권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그 후 내물왕 때에 이르러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되었다.

고대 국가로 성장하다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왕** 때에 이르러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내물왕은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고 왕호를 마립간으로 바꾸었다.

이 무렵 신라는 왜의 침입을 받아 큰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낙동강 동쪽의 가야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고구려를 통하여 선진 문물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군사적 간섭에 시달리다가, 백제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마립간
대군장이라는 뜻으로, 신라 왕권이 신장되고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진 5세기 전후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 황남동 고분군(경북 경주)
4세기 후반부터 조성된 신라 왕실의 무덤으로서, 무덤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부장품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해졌다. 신라의 왕권이 고대 국가에 걸맞게 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 호우명 그릇(호우총, 경북 경주)
경주의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으로 밑바닥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밀접하였음을 알려 주는 유물이다.

도움 글 신라 왕호의 변천

신라는 오랫동안 최고 지배자의 호칭을 독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고구려나 백제가 일찍부터 중국식 호칭인 '왕'을 사용한 것과 구별되는 점이다.

1대 박혁거세는 신라말로 왕 또는 귀인을 뜻하는 '거서간'을, 2대 남해는 제정일치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차차웅'을 사용하였다. 3대 유리부터는 연장자, 계승자를 뜻하는 '이사금'을 사용하였다가, 17대 내물왕 때부터 대군장 혹은 우두머리를 뜻하는 '마립간'을 사용하였다. 22대 지증왕 때에는 적극적으로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식 호칭인 '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최고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이 변화한 것은 신라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신라 금관(경북 경주 천마총)
신라의 왕은 특별한 행사와 장례 때 금관을 썼으며, 껴묻거리로 왕의 무덤에 묻기도 하였다.

2 신라의 발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러 갔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들도 사나웠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어 나무로 만든 사자를 앞세워 "만약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맹수를 풀어 모두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우산국 사람들이 두려워 항복하였다. - "삼국사기"

이사부가 정벌한 우산국은 지금의 어디인가?

학습 목표 | • 신라의 발전 과정과 외교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신라 정치 제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고대 국가를 완성하다

5세기 후반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추진하자 신라는 국경과 수도에 성을 쌓고, 백제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안으로는 수도의 행정 구역을 정비하고 시장을 설치하여 중앙에 전국의 물자와 사람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였다.

6세기에 들어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마립간 대신 '왕'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방을 주와 군으로 나누어 관리를 파견하였으며,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는 등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상대등을 설치하고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의 통일을 꾀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하고, 대가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어 금관가야를 병합하여 정복 국가의 길을 열었다(532).

상대등
귀족 회의인 화백의 의장이다.

▼ **월성(경북 경주)**
신라의 궁성으로 추정되며, 성이 반달 모양으로 축조되어 반월성이라고도 한다.

▼ **삼년산성(충북 보은)**
5세기 후반의 신라 성으로, 짓는 데 3년이 걸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영토를 크게 넓히다

신라는 6세기 중엽 **진흥왕**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진흥왕은 청소년 조직을 **화랑도**로 개편하고, 국가 사찰인 흥륜사와 황룡사를 완공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추진하였다.

진흥왕은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점령한 뒤, 다시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으며, 북쪽으로 함흥평야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서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벌하여 가야 전 지역을 병합하였다. 진흥왕은 각지에 순수비를 세워 자신의 정복 활동을 기념하였다.

▲ 마운령비(함남 이원)

▲ 황초령비(함남 장진)

▲ 북한산비(국립 중앙 박물관)

▲ 창녕비(경남 창녕)

▲ 단양 신라 적성비(충북 단양)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한 뒤 세운 비석이다.

▲ 신라의 최대 영토(6세기)
신라는 진흥왕 때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고,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진흥왕은 자신이 확장한 국경을 살펴보고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운령에 비를 세웠는데, 이를 진흥왕 순수비라고 한다. 순수는 원래 천자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산천에 제사를 지내고 지방 민심을 살피던 풍습을 말한다.

골품을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를 정비하다

신라는 6부가 연합하여 지배 집단을 이루었다. 신라가 중앙 집권화하면서 6부 귀족과 관료 조직은 점차 왕권 아래 통합되어 17관등으로 정비되었다. 한편 화백이라는 귀족 회의를 두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고유한 신분 제도가 있었다. 지방의 군장 세력이 중앙 귀족이 되면서 그 세력에 따라 골품을 받았는데, 성골, 진골과 6두품 이하의 귀족으로 구분되었다.

지방 행정 구역은 크기에 따라 나뉘었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가장 큰 구역인 주의 장관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군주였는데, 점차 행정적인 성격이 강한 도독으로 바뀌었다.

탐구 활동 신라의 골품제

신라는 골품에 따라 개인의 생활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골품은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귀족인 6두품, 5두품, 4두품으로 구분되었고, 3두품 이하는 소멸되어 평민이 되었다. 골품은 자손에게도 세습되었다.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 진골은 승진에 제한이 없어 중요한 관직을 차지할 수 있었으나, 6두품 이하는 승진에 제한을 받았다. 골품은 결혼, 집 크기, 의복 등 사회생활과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정치 활동에 제한을 받은 6두품 출신들은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신라 말에 등장한 호족들과 힘을 합치기도 하였다.

관등		골품				복색
등급	관등명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1	이벌찬					자색
2	이찬					
3	잡찬					
4	파진찬					
5	대아찬					
6	아찬					비색
7	일길찬					
8	사찬					
9	급벌찬					
10	대나마					청색
11	나마					
12	대사					황색
13	사지					
14	길사					
15	대오					
16	소오					
17	조위					

▶ 골품과 관등표

과제 1 각 골품별로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을 확인해 보자.

과제 2 골품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조사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신라는 진한의 소국 중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　　)

(2)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빨리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　　)

(3) 신라의 귀족들은 화백 회의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　　)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왕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보기: ㉠ 내물왕　㉡ 지증왕　㉢ 진흥왕

(1)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2)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였다.

(3)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순수비를 세웠다.

04 가야 연맹의 성립과 발전

1 가야 연맹의 성립

경남 사천 앞바다의 늑도에서 기원 전후 시기의 토기가 발견되었다. 이 토기는 굽다리가 붙은 사절판으로 다섯 종류의 음식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창원 다호리에서도 나오고 있다. 요즈음의 구절판과 비슷한 이 그릇을 통해 당시 가야 사람들의 풍요로운 식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가야 사람들은 어떤 활동으로 부를 쌓았을까?

학습 목표 | 가야 소국의 성립과 연맹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굽다리 사절판(경남 사천)

가야 소국이 성립하다

기원전 1세기 초부터 경남 김해와 창원 일대에는 한반도 서북부의 앞선 철기 문화를 가진 집단이 들어왔다. 이들은 낙랑 및 왜를 연결하는 해상 교역을 장악해 나갔다. 기원후 2세기 후반에는 낙동강 하구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 통합이 전개되어 김해 가야국 등 소국들이 출현하였다.

▶ 가야 초기의 쇠도끼와 세형 동검 칠기 검집(경남 창원)

사료 돋보기 | 가야의 건국 이야기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아홉 마을의 촌장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윽고 하늘에서 자주색 줄이 땅에 드리워져 닿았고 붉은 보자기 안의 금 상자에 황금알 여섯 개가 있었다. 알 여섯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가 왕위에 올라 나라 이름을 대가락국이라 하였다. - "삼국유사"

▲ 구지봉(경남 김해)

가야의 수로왕 신화에 따르면, 김해 지방에 있었던 아홉 명의 촌장이 하늘에서 구지봉에 내려온 황금알을 받아 이를 깨고 나온 수로를 왕으로 추대하여 가야국을 세웠다고 한다. 이는 이주민의 철기 문화와 토착 세력의 농경 문화가 결합하여 김해 지역에서 소국이 출현하였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전기 가야 연맹

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되다

2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 낙동강 유역의 변한 12개 소국들은 전기 가야 연맹을 형성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은 우수한 철기 생산 능력과 양호한 해운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교역하며 성장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의 중심 세력은 김해의 **금관가야**였다. 금관가야는 낙랑과 왜 사이의 중계 무역으로 발전하였으며, 변한 소국들을 통합하여 연맹장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였다.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다

가야와 활발히 교역하던 낙랑이 4세기 전반에 고구려에 멸망하자, 가야의 대외 교류는 한동안 위축되었다. 그러나 4세기 중엽 백제의 근초고왕이 교역로를 개척해 오자, 가야 연맹은 다시 백제와 왜 사이의 중계 무역 체제를 구축하였다.

4세기 말에 가야는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김해의 금관가야가 큰 타격을 입고 전기 가야 연맹은 해체되었다.

역사 가로지르기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한 가야

김해 대성동의 대형 덧널무덤들에서는 초기 가야의 유물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들어온 다양한 껴묻거리가 나왔다. 이 중에는 북방 계통의 청동 솥, 쇠 갑옷과 투구, 마구 등과 중국의 청동 거울은 물론, 일본 계통의 바람개비 모양 방패 꾸미개도 있다. 이것은 김해 지역이 여러 문화가 들어오는 국제 교류의 거점이었음을 말해 준다.

▲ 대성동 덧널무덤(경남 김해)
금관가야 시기의 고분이다.

◀ 청동 솥(경남 김해)
이 청동 솥은 '스키타이 케틀'이라고 하는데, 말에 걸고 다니면서 소나 양의 고기를 삶아 먹는 도구로 쓰였다. 이것은 북방 유목 민족들의 시조 신화에도 나오는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는 신령스러운 그릇으로 통한다.

▲ 바람개비 모양 방패 꾸미개(경남 김해)

▲ 청동 거울(경남 김해)

2 가야 연맹의 발전

미늘쇠는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신라, 가야 지역을 통틀어 제철이 행해지던 대구, 울산, 부산, 김해, 창원, 함안, 합천 일대에서 나타난다. 이는 철 소재인 덩이쇠의 한쪽 끝을 양쪽에서 구부려 나무를 꽂을 수 있는 홈을 만들고, 나머지 주변에 칼집을 내어 간단하게 구부리거나 둥글게 말아 모양을 낸 철기이다.

이 철기는 어디에 쓰이던 물건일까?

학습 목표 | 후기 가야 연맹의 성장과 외교 관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 미늘쇠(경남 김해)

가야 연맹을 복구하다

금관가야가 쇠퇴한 이후 가야 소국들은 한동안 침체에 빠져 있었다. 낙동강 동쪽 지역은 대부분 신라의 영향력 아래 놓여 가야의 영역이 크게 축소되었다.

가야 부흥의 진원지는 고령, 합천 등 경상 내륙 산간 지방이었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교통하기 불편하여 문화 발전이 더디었으나, 5세기 초부터 제철 기술이 유입되면서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고령의 **대가야**는 가야산의 철광 개발을 통해 크게 성장하여 가야 소국들의 중심이 되었다. 이로써 5세기 중엽에 이르러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되었다.

▲ 5세기 후반 가야의 최대 영역

후기 가야 연맹이 성장하다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 중국 남조의 제와 교류하였고, 백제와 함께 신라에 구원군을 보내 고구려의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는 후기 가야 연맹의 전성기였다. 서쪽으로는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유역에 세력을 뻗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삼아 신라와 대립하였다.

그 후 백제가 섬진강 하류를 통하여 왜와 직접 교역하고자 가야 연맹을 압박하였다. 결국 가야 연맹은 호남 동부 지역을 상실하고, 그 영역이 경남 일부 지역으로 축소되었다.

▶ 철제 판갑옷과 투구(경북 고령)

후기 가야 연맹이 멸망하다

대가야는 백제에 대항하고자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으나, 신라의 책략으로 가야 연맹에 분열 조짐이 나타났다. 신라가 무력시위를 통하여 금관가야 등의 소국들에게서 투항을 받아 내자, 백제도 군사를 동원하여 가야를 압박하였다.

6세기 중엽에 가야 연맹은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분열된 채 백제와 신라 양쪽의 위협에 시달렸다. 가야 연맹은 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단결하였으나, 성왕의 외교적 공세에 굴복하여 백제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야 연합군이 신라에게 패하자 가야 소국들은 점차 신라로 기울어 갔다. 그 후 고령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은 완전히 몰락하였다(562).

오랫동안 독자성을 유지하다

가야 연맹의 소국들은 상호 간의 서열에 따라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그중에서 가장 강한 소국의 지배자가 왕으로 행세하였다. 가야 연맹의 왕권은 점차 강화되어 각 소국 지배자들의 회의체를 만들어, 한때는 고대 국가처럼 기능하였다.

마지막 단계에 가야 연맹은 백제와 신라의 간섭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수백 년에 걸쳐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였고, 멸망 후에는 그 인원과 문화 능력이 신라에 융합되어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가야 군인의 모습(국립 중앙 박물관)
철제 투구와 갑옷, 칼로 무장하였다.

▲ 가야의 뿔 모양 토기(국립 중앙 박물관)

▲ 고령 고아동 벽화 고분(경북 고령)
널길을 갖춘 굴식 돌방무덤으로 축조 방식이 백제의 고분과 상통하고 있어 백제 문화의 영향을 보여 준다.

도움 글 삼국과 가야 발전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삼국과 가야는 모두 소국에서 출발하여 점차 영토를 넓히면서 발전하였다. 나라마다 발전 속도가 달라 고구려는 1세기 후반, 백제는 3세기 중엽, 신라는 4세기 후반 무렵에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가야는 그와 달리 끝까지 소국 연맹체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기도 하나,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의 후기 가야 전성기에는 중국 남조와 교류하고 신라에 구원군을 파견하였으며, 변경 지역에 성을 축조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초기 고대 국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한다.

고대 국가는 중앙과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들을 통제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해 관리들을 일원적인 관등제로 묶고,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6세기 전반 이전에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가야 연맹은 백제와 신라 두 나라의 압력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하지 못하고 6세기 중엽에 멸망하였다.

① 성립 단계의 고대 국가 ② 완성 단계의 고대 국가(중앙 집권 국가)

◀ **초기 고대 국가(①)에서 중앙 집권 국가(②)로**
고대 국가 성립 시기에는 각 부의 대표자가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였으나,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면서 왕이 권력을 독점하고 중앙과 지방을 다스렸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가야 연맹은 우수한 철을 생산하였다. ( )

(2) 금관가야는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다. (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금관가야는 낙랑군과 왜 사이에서 □□ □□을 하며 발전하였다.

(2) 전기 가야 연맹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은 □□□ 군대의 공격을 받아 해체되었다.

3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었다.
㉡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하였다.
㉢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을 형성하였다.
㉣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다.

4 가야 연맹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05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1 삼국과 가야의 문화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려 하자 귀족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흥왕은 이차돈을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차돈의 목을 베자 흰 피가 치솟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 "삼국유사"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고자 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삼국과 가야의 불교 예술과 고분 문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개성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다

삼국과 가야는 서로 다른 문화적 개성을 드러내면서 발전하였다.

고구려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융합하여 웅장하고 활기찬 문화를 창조하였다. 백제는 초기에 낙랑과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4세기 이후에는 중국 남조 문화를 받아들여 우아하고 세련된 문화를 이룩하였다. 신라는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아 투박하면서도 실용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 가야는 외래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단정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문화를 유지하였다.

◀ 고구려의 집 모양 토기(국립 중앙 박물관)

▲ 고구려의 네 귀 달린 토기(중국 지린 성 지안)

▲ 백제의 세발 토기(서울시립대 박물관)

▲ 신라의 기마 인물형 토기(국립 중앙 박물관)

▲ 가야의 수레 토기(국립 진주 박물관)

불교로 사상을 통일하다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다. 국왕은 “왕은 곧 부처이다.”라는 사상을 내세워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국가의 보호 속에 도읍과 인근 지역에 많은 불교 사찰이 세워졌다. 불교와 함께 중국과 서역의 학문과 음악, 공예와 건축, 미술 등도 전래되어 삼국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한편 삼국은 **도교**도 받아들였는데, 산천 숭배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백제의 금동 대향로에는 신선이 사는 이상 세계가 표현되어 있고, 고구려의 사신도 벽화에도 도교의 영향이 나타난다.

▲ 백제 금동 대향로(충남 부여)
향 그릇은 24개의 연꽃으로 장식하였고, 뚜껑에는 5개의 산봉우리에 도교적 이상 세계를 묘사하였다.

불교 예술이 꽃을 피우다

고대에는 불교가 발달하면서 신라의 황룡사와 분황사, 백제의 미륵사와 정림사 등 많은 사찰이 건축되었다. 황룡사에는 9층 목탑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으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은 신라 건축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준다. 미륵사 터에는 목탑 양식을 지닌 서쪽 석탑이 일부 남아 있다.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안정되고 경쾌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고구려는 주로 목탑을 건설하여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불상으로는 고구려의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백제의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 신라의 경주 배동 석조 여래 삼존 입상 등이 있다. 가야에도 이웃 나라인 백제나 신라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왕권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멸망하여 인상적인 불교 예술을 남기지 못하였다.

▶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경남 의령)

▲ 백제 서산 마애 여래 삼존상(충남 서산)

▲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경북 경주)
벽돌 모양의 돌로 쌓은 탑으로, 현재 3층까지만 남아 있다.

▲ 익산 미륵사지 석탑(전북 익산)
원래 한 기의 목탑과 두 기의 석탑이 있다가 서쪽 석탑만 남았으나, 현재 해체 복원 중에 있다.

▲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충남 부여)
백제 말기의 대표적인 석탑이다.

다양한 고분이 나타나다

▲ 고구려 장군총(중국 지린 성 지안)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다.

▲ 백제 무령왕릉(충남 공주)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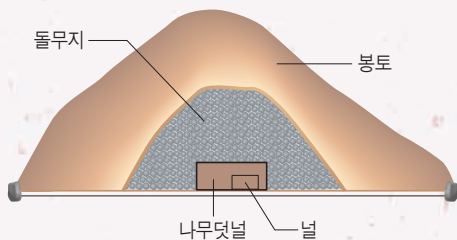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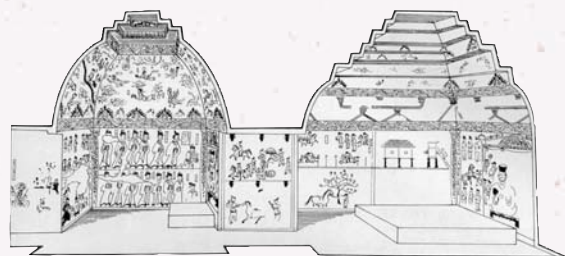
고구려에서는 초기에 돌무지무덤이 유행하다가, 후기에는 굴식 돌방무덤이 주로 축조되었다. 굴식 돌방무덤의 내부에는 **벽화**가 많이 남아 있다. 초기에는 생활 풍속을 표현한 벽화가 많았으나, 점차 연꽃무늬를 비롯한 장식 무늬와 사신도로 바뀌어 갔다.

백제는 초기 중심지인 한강 유역에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계단식 돌무지무덤을 남겼으나, 수도를 웅진으로 옮긴 후에는 주로 굴식 돌방무덤을 사용하였고, 중국 남조 계통의 벽돌무덤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사비 시대에는 굴식 돌방무덤을 조성하고, 그 내부에는 사신도를 그리기도 하였다.

신라는 황남 대총을 비롯한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을 주로 만들었으나,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가야의 고분도 전기에는 널무덤과 덧널무덤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기에는 돌덧널무덤에 거대한 봉토를 씌우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 지산동 고분군(경북 고령)
후기 가야를 대표하는 무덤들이다.

탐구 활동 돌무지덧널무덤과 굴식 돌방무덤의 차이

▲ 돌무지덧널무덤의 구조
지하에 구덩이를 파거나 지상에 목곽을 짜 놓고 돌무더기를 덮은 후, 다시 그 위에 흙을 입혀 다진 무덤이다. 신라의 황남 대총, 천마총 등이 대표적이다.

▲ 굴식 돌방무덤의 구조(덕흥리 고분)
지면과 수평으로 판 길로 통하는 널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쌓아 봉토를 만든 무덤이다. 널방의 벽이나 천장에 벽화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

과제 1 돌무지덧널무덤에 벽화가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

과제 2 굴식 돌방무덤의 벽화를 찾아 주제별로 정리해 보자.

그림과 음악을 즐기다

고구려인들은 굴식 돌방무덤의 내부에 죽은 이의 생전 모습이나 별자리 그림, 사신도 등을 그렸고, 백제는 능산리 고분에 세련된 솜씨의 사신도를 남겼다. 한편 신라의 그림으로는 하늘을 나는 말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천마도**가 있다.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

화가로는 황룡사 벽화를 그린 신라의 솔거, 일본에서 활약한 고구려의 담징 등이 유명하다.

음악과 무용은 종교 의식과 관련하여 발달하였다. 음악가로는 방아 타령을 지은 신라의 백결 선생, 거문고를 만든 고구려의 왕산악, 가야금 열두 곡을 지은 가야의 우륵 등이 유명하다.

▲ 부여 능산리 고분군 사신도(충남 부여)

▲ 안악 3호분 벽화(황해 안악)
무덤 주인의 생전 모습을 그린 4세기경의 고구려 벽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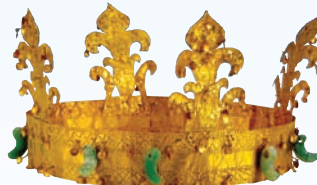
▲ 강서 대묘의 현무도(평남 강서)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도 중 하나이다.

▲ 천마도(경북 경주 천마총)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말다래에 장식된 그림이다. 최근에는 기린도로 설명되기도 한다.

도움 글 화려한 금속 공예

삼국과 가야에서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여 수준 높은 금속 세공품들이 제작되었다. 부여에서 출토된 금동 대향로와 미륵사지 석탑에서 나온 금동 사리호는 화려한 백제 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 준다.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에서는 금관과 각종 장신구가 출토되었고, 가야 지역에서도 금동관 등이 출토되었다.

▶ 미륵사지 석탑 사리호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 표면에 연꽃덩굴무늬와 연꽃잎무늬를 음각하였다.

▼ 신라의 금제 허리띠와 귀걸이

▲ 가야 금관(경북 고령)

▲ 백제 금제 관식(충남 공주)

한자를 사용하고, 유교를 보급하다

한자 사용의 증거
평양에서 1세기 중엽의 "논어" 목간과 낙랑군 호구 조사 목간이 발견되었고, 경남 창원에서는 기원전 1세기 후반 무렵의 붓이 출토되었다.

삼국과 가야는 일찍부터 한자를 사용하고 유학을 교육하였으며,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이나 이두를 만들어 썼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태학**을 세워 유학을 교육하였다. 광개토 대왕릉비에는 예서체의 한자가 새겨져 있어 문자 생활을 잘 보여 준다.

백제는 유학 교육을 담당하는 오경박사를 두었고, 세련된 문장의 사택지적비를 남겼다.

신라도 임신서기석을 비롯한 각종 문자 기록을 남겼다. 원광 법사는 화랑들에게 유교 윤리가 포함된 세속 5계를 가르치고, 수에 외교 문서를 보냈다.

▲ 경주 첨성대(경북 경주)
신라의 선덕 여왕 때 세워진 천체 관측 시설이다.

역사를 정리하고, 천문을 연구하다

고구려에는 역사서 "유기" 100권이 있었고, 영양왕 때 이문진은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백제에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하였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을 살펴 시간, 계절, 날씨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농사에도 활용하였다. 또 하늘의 움직임을 왕의 권위와 연결하려 하였다.

사료 돋보기 사택지적비와 임신서기석

갑인년 정월 9일 내기성의 사택지적은 나날이 몸이 늙어 감을 슬퍼하며 금으로 진귀한 불당을 짓고 옥으로 보배로운 탑을 세우니 …….

– 사택지적비

◀ 사택지적비(충남 부여)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해 기록한다. …… 나라가 편안하지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충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또한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세하였다. 즉 시경 · 상서 · 예기 · 춘추를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하되 3년으로써 하였다.

– 임신서기석

▶ 임신서기석(경북 경주)

사택지적비는 백제 말기의 대좌평인 사택지적이 늙어 가는 것을 탄식하여 불교 사찰과 탑을 세운다는 비문이다. 임신서기석에는 신라의 두 청년이 국가에 충성하고 유학을 힘써 배울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 삼국과 가야의 대외 교류

삼국 시대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일본 고류 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재료만 다를 뿐, 생긴 모습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신라와 일본의 불상 모습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삼국과 가야의 상호 교류 및 대외 교역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고구려, 서역과도 교류하다

삼국과 가야는 국가 상호 간은 물론 중국 및 일본과도 사신, 승려, 상인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삼국과 가야는 교류를 하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고구려는 중국 남북조와 교류하면서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고, 불교와 유학, 율령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와 교류하여 서역의 문화도 받아들였다. 고구려와 서역의 교류 사실은 각저총 벽화나 중앙아시아의 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는 이처럼 동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 씨름도(각저총, 중국 지린 성 지안)
씨름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의 고구려 사신(우즈베키스탄)

백제, 남조와 교류하다

백제는 중국 남조에서 불교와 도자기 등을 수입하고,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제도를 정비하였다. 무령왕릉에서는 남조의 영향을 받은 각종 유물이 출토되어 남조와의 교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 풍납 토성에서 출토된 청동 자루솥
중국 동진에서 수입된 작은 솥이다.

▶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중국 남조계 유물들
왼쪽부터 오수전, 청동 거울, 청자이다.

▲ 신라에 들어온 중앙아시아의 물품들

신라, 다양한 지역과 교류하다

신라는 주로 고구려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중국의 각종 청동 용기, 도자기, 금 세공술과 중앙아시아의 유리 제품, 칠보 장식 보검 등이 고구려를 거쳐 신라에 들어왔다. 또한 고구려의 청동 호우, 은합 등도 신라에 전해졌다.

6세기 이후에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토산물을 수출하고 중국의 불경 등을 수입하였다.

가야, 남부 지역을 거점으로 교류하다

가야는 일찍부터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낙랑, 왜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가야는 왜에 철과 선진 문물 등을 전해 주고, 그 대가로 왜의 노동력이나 군사력을 제공받았다. 후기 가야 연맹은 백제와 왜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야의 선진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삼국과 가야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다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의 문화는 국가나 지방 세력, 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가야는 해로를 이용하여 왜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왜는 5세기 후반까지도 스스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야의 납작도끼나 덩이쇠와 같은 재료를 수입하여 철기를 생산하였다. 또한 왜는 가야의 마구, 철제 갑옷 제작 기술을 받아들이고, 가야 토기의 영향을 받은 스에키를 생산함으로써 고대 문화 성립의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호류 사 5층 목탑(일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으로, 백제의 영향을 받아 세워졌다.

▲ 가야 토기(왼쪽)와 일본의 스에키(오른쪽)

백제는 앞선 학문과 사상 등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백제는 오경박사, 승려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국가 제도 정비에 필요한 한자, 유학, 불교, 역법 등을 전하였으며, 건축, 공예, 미술 분야의 기술자도 파견하였다.

고구려는 종이와 먹 제조 방법, 불교 등을 일본에 전하였다. 신라는 일본과 문화 교류가 적었지만, 배 만드는 기술과 불상 등을 전하였다.

이처럼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쳤다.

불상의 전래
일본의 국보인 고류 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삼국 시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외형이 거의 같아서 신라가 623년에 일본에 보냈다는 불상이 바로 그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역사 가로지르기 가야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

5~6세기 일본의 대형 고분들에서 대가야 계통의 금동관, 말머리 가리개를 비롯한 각종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또한 고령에서는 오키나와에서 생산된 야광패로 만든 국자와 일본계 청동 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 대가야 금동관(경북 고령)

▲ 일본 금동관(후쿠이 현)

▲ 가야의 철제 말머리 가리개 (경남 합천)

▲ 일본의 말머리 가리개 (와카야마 현)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불교와 도교 문화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

보기
㉠ 황룡사 ㉡ 사신도 벽화
㉢ 산수무늬 벽돌 ㉣ 백제 금동 대향로
㉤ 정림사지 5층 석탑
㉥ 금동 연가 7년명 여래 입상

(1) 불교문화:
(2) 도교 문화: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고구려 소수림왕은 □□을 세워 유학을 교육하였다.
(2) 신라에서는 황남 대총 등 거대한 □□□□□ 무덤을 만들었다.

3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나라를 쓰시오.

삼국과 가야의 문화는 □□에 전파되어 □□의 고대 문화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대단원 마무리

삼국의 성립과 발전

구분	성립	발전
고구려	• 압록강과 혼장 강 유역에서 건국 • 국내성으로 수도 천도	• 태조왕: 고대 국가 건설 • 소수림왕: 불교 수용, 율령 반포 • ❶ : 요동·만주 지역으로 영토 확장 • 장수왕: 남하 정책 → 한강 유역 차지
백제	고구려 계통 이주민과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 결합	• 고이왕: 왕권 강화, 남당 설치 • ❷ : 중앙 집권 체제 확립, 영토 확장 • 무령왕: 웅진에서 중흥의 기반 마련 • 성왕: 사비 천도, 관산성 싸움에서 전사
신라	진한 12국 중 사로국에서 출발	• 내물왕: 김씨 왕위 세습 확립, '마립간' 칭호 • 지증왕: '신라'로 국호 변경, '왕' 호칭 사용 • 법흥왕: 율령 반포, 불교 공인 • ❸ : 화랑도 개편, 한강 유역까지 확장

가야의 성립과 발전

〈 전기 가야 연맹 〉
- 변한의 소국들이 형성
- 중심 세력: 금관가야
- 발전: 중계 무역으로 발전
- 해체: 고구려 군대의 공격

〈 후기 가야 연맹 〉
- ❹ 를 중심으로 형성
- 중국과 교류, 신라와 대립
- 해체: 백제와 신라의 압박으로 위축 → 신라에게 멸망

삼국과 가야의 문화 및 대외 교류

구분	성립
불교	• 왕권 강화에 이용 • 불교 예술: 탑, 불상, 사원 건축
고분	• 고구려: 굴식 돌방무덤, 벽화 • 백제: 벽돌무덤 • 신라: ❺
학문	• 한자 보급, 유학 교육, 역사책 편찬 • 천문 연구: 신라의 첨성대

→

대외 교류
- 고구려: 중국, 중앙아시아와 교류
- 백제: 중국 남조와 교류(무령왕릉)
- 신라: 6세기 이후 중국과 직접 교류
- 가야: 왜와 백제 사이에서 중계 무역

- 삼국과 가야 문화가 일본에 전파
-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영향

생각의 열쇠

❶ 중국의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고 영토를 넓혔으며, 자신을 '태왕'이라 부르게 하였다.
❷ 황해도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고, 중국 남조와 교류하였다.
❸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추진하여 각지에 순수비를 세웠다.
❹ 가야산의 철광 개발로 성장하여 후기 가야 연맹의 중심이 되었다.
❺ 신라의 대표적인 고분 양식으로, 황남 대총, 천마총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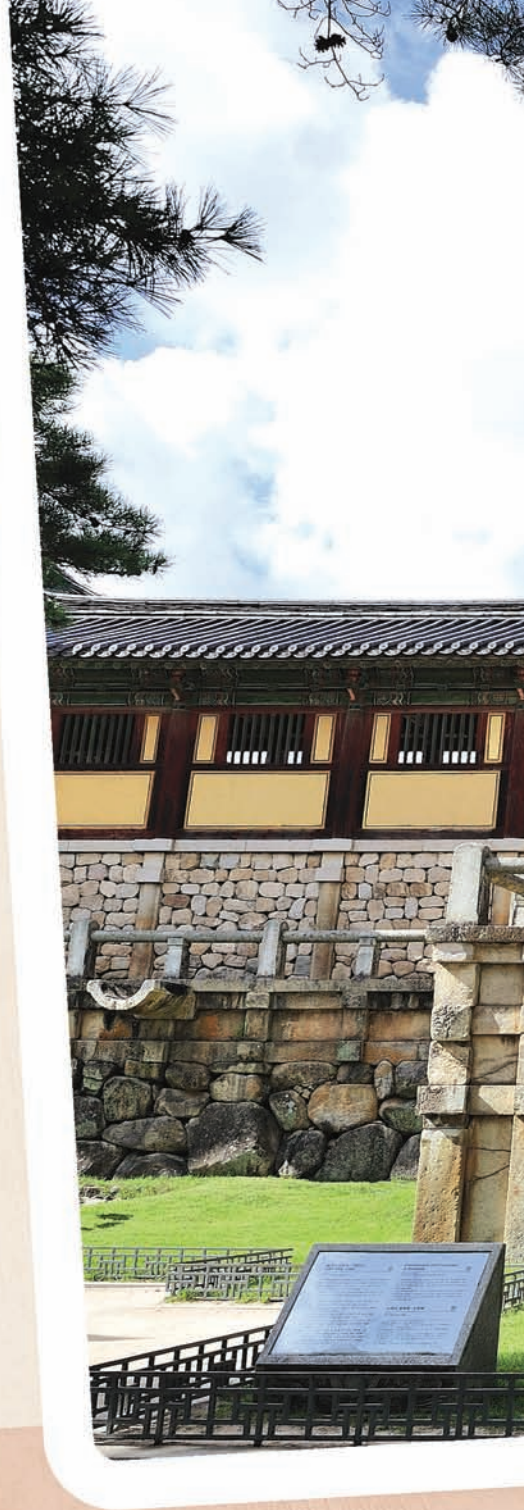
◎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지도를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자.

2 다음 단계에 따라 글을 써 보자.

① 위에 제시된 지도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② 선택한 지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국가의 왕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③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업적을 자랑하는 글을 쓴다.

III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고구려는 수·당의 연이은 공격을 막아 내고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민족 문화의 기틀을 다졌다. 고구려의 옛 땅에서는 발해가 건국되어 통일 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 통일 신라는 9세기 후반에 각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로 동요하다가,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되어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600년경	700년경
한국	612 고구려, 살수 대첩 660 백제 멸망 668 고구려 멸망 676 신라, 삼국 통일 698 발해 건국	
세계	610 무함마드, 이슬람교 정립 618 당 건국 645 다이카 개신	760 아바스 왕조 성립 771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 통일

경주 불국사(경북 경주)

800년경	900년경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900 견훤, 후백제 건국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875 당, 황소의 난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02 신라의 삼국 통일
03 통일 신라의 발전
04 통일 신라의 문화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01 고구려의 대외 전쟁

1 고구려와 수의 전쟁

관군이 전장에 도착했구나.
칼 들고 적을 치러 나선다지만
요동에 가면 헛된 죽음 당할 것을 깨달아라.

– 수의 왕박이 지은 시의 일부

수에서 위와 같은 시가 유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수의 등장으로 나타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고구려가 수를 물리친 과정과 관련 인물을 설명할 수 있다.

▲ 고구려의 비사성

동아시아에 새로운 진영이 형성되다

수가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면서 6세기 말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끼고 이를 견제하는 한편, 남쪽으로는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신라를 공격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을 받으며 한반도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였다. 이에 신라는 수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6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신라와 수를 연결하는 동서 세력과 고구려, 백제, 왜를 연결하는 남북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 6세기 말 동아시아 정세

을지문덕이 수의 공격을 막아 내다

고구려는 수의 세력 팽창을 막고자 전략적 요충지인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에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고자 군대를 보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퇴각하였다. 그 후 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제는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다시 공격해 왔다.

수의 군대는 요동성을 포위하였지만 쉽게 함락하지 못하였다. 결국 진격이 어려워진 **양제**는 별동대를 따로 편성하여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우중문이 이끄는 별동대가 진격해 오자 고구려의 **을지문덕**은 그들을 고구려 영토 깊숙이 유인하였다. 평양성 부근까지 도달한 수의 군대는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다. 이때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 수의 고구려 침입

>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원리를 꿰뚫었고
> 기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도다.
> 싸움에 이미 이겨 공이 높으니
>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을지문덕, '오언시'

수의 별동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자 을지문덕은 이들을 뒤쫓아 살수(지금의 청천강)에서 총공격을 가하여 대승을 거두었다(**살수 대첩**, 612).

그 후로도 수의 양제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수는 계속된 고구려 침략으로 국력을 소모하였고, 양제는 무리한 토목 공사를 벌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 결국 멸망하였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살수 대첩의 영웅, 을지문덕과 건무 장군

수의 양제가 압도적인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왔을 때, 고구려에는 뛰어난 전술을 구사한 영웅들의 활약이 있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을지문덕은 전쟁이 일어나자 수의 군대가 마을에서 식량을 구할 수 없도록 식량을 성안으로 옮기고 들판에는 불을 질렀으며,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도록 우물도 막았다. 그리고 백성들을 성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적을 유인하였다. 을지문덕은 수의 군대가 굶주린 것을 보고, 그들을 지치게 만들고자 싸울 때마다 일부러 패배하여 적을 점점 더 깊숙이 끌어들였다. 굶고 지친 수의 군대는 평양성에 도착하면 고구려인들의 식량을 약탈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을지문덕의 작전에 말려들어 성 주변에서 식량을 구하지 못한 수의 군대는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을지문덕의 작전이 성공한 배경에는 영양왕의 동생 건무 장군(훗날 영류왕)의 활약이 있었다. 수의 양제는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병력을 나누어 우중문이 이끄는 별동대는 육로로 진격시키고, 수군(水軍)은 배에 식량을 싣고 바다를 건너 평양성으로 향하게 하였다. 수의 수군이 대동강을 거슬러 들어와 평양성 부근에 상륙하자, 건무는 500여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매복해 있다가 수의 군대를 기습하여 격멸하였다.

건무의 활약으로 육군에게 식량을 보급하고 육군과 수군(水軍)이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려던 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은 을지문덕이 살수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 을지문덕 동상(서울 광진)

2 고구려와 당의 전쟁

▲ 고구려 벽화의 야철신(오회분 4호묘, 중국 지린 성 지안)

고구려인은 무덤 벽화에 농경신, 수레신과 함께 야철신을 그려 넣었다. 야철신은 철을 생산하여 도구를 만드는 신을 말한다. 이는 고구려가 철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고구려의 발달된 제철 기술은 대외 전쟁에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

학습 목표 | • 당의 등장 이후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 고구려의 대외 전쟁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다

수가 멸망한 이후 당이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정세는 안정되었다. 그러나 **당 태종**이 즉위하면서 국제 정세는 다시 변화하였다. 당 태종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보이며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국경에 **천리 장성**을 쌓아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개소문**이 세력을 키워 정변을 일으켰다. 그는 영류왕과 여러 대신들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세운 뒤, 최고 관직인 대막리지에 올라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연개소문은 당과 신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천리 장성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곽들을 서로 연결한 형태의 성이다.

고구려가 당의 공격을 물리치다

팽창 정책을 펼치며 고구려를 경계하던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 소식을 듣고 이를 고구려 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그리하여 연개소문을 징벌한다는 명분으로 고구려를 침략해 왔다.

고구려에 도달한 당 태종은 요동성, 백암성 등 고구려의 성을 차례로 함락해 갔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안시성**으로 진격하였다. 당의 군대는 약 90일간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안시성은 비록 작은 성이었지만 성주와 백성들이 단결하여 당의 공격을 버텨 냈다. 끝내 당 태종은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군대를 철수하여 당으로 돌아갔다(645). 이후 고구려는 뒤이은 당의 침입도 모두 막아 냈다.

▲ 고구려와 당의 전쟁

고구려가 한반도를 수호하다

중국을 통일한 수와 당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당시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끈질기게 침략하였다. 고구려는 수·당의 계속된 침략을 막아 내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바꾸어 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수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고구려는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또한 견고한 성곽과 이를 이용한 방어 전술, 백성의 단결된 저항 의식도 고구려의 승리를 뒷받침하였다.

사료 돋보기 안시성 전투의 승리

당 태종이 백암성을 함락하고 이세적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로 안시성은 성이 아주 험하고 군사가 강하며 그 성주가 재질이 용맹하여 막리지(연개소문)가 난을 일으켰을 때에도 성을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막리지가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 없어 성을 그에게 주었다 한다."라고 하였다.

당의 군대가 안시성을 공격하였는데 안시성 사람들은 황제의 깃발과 일산을 보고 즉시 성에 올라 북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 황제가 화를 내자 이세적이 성을 빼앗는 날 남자는 모두 구덩이에 묻어 버리기를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더욱 굳게 지키니 오랫동안 공격하여도 함락되지 않았다. - "삼국사기"

▲ 안시성으로 추정되는 영성자산성(중국 랴오닝 성 하이청)

요동성과 백암성 등 고구려의 여러 성들이 함락되었지만 안시성만큼은 마지막까지 함락되지 않았다. 당 태종도 이곳은 쉽게 정벌할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하였다. 고구려는 지형을 잘 이용하여 견고한 성을 쌓아 오랫동안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고 버텨 냈다. 또한 고구려 백성들의 용맹함과 강한 저항 의식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쓰시오.

(1) 수의 별동대를 살수로 유인하여 거의 전멸시켰다.

(2)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세운 뒤 스스로 대막리지가 되어 고구려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고구려는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 □□을 쌓았다.

(2) 고구려 군사와 백성들은 □□□에서 저항한 끝에 당 태종의 침입을 격퇴하였다.

깊이 있는 역사

고구려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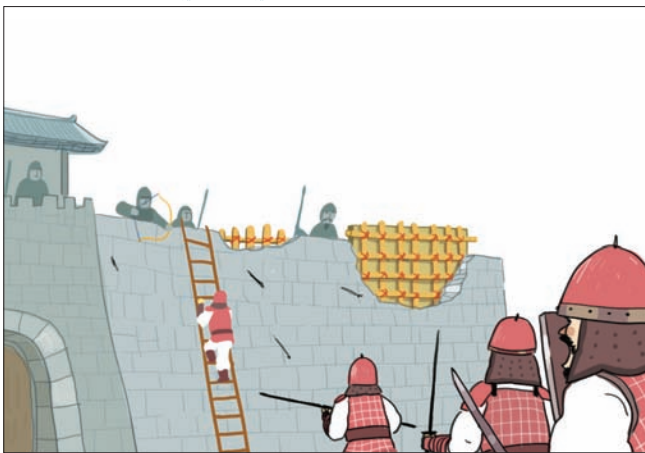
고구려는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경 지역과 적이 침입하는 주요 관문마다 성을 쌓았다. 이 성들은 적이 고구려의 영토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하였다.

산성의 발달

당의 기록에 "고구려는 산을 이용하여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정벌할 수 없다."라는 글이 있다. 고구려가 이민족의 침략을 막을 수 있었던 데에는 성곽의 역할이 컸다. 고구려는 산과 절벽을 이용하여 산성을 많이 쌓았는데, 돌을 잘 다루어 튼튼하게 지었다. 옛 고구려 영토에는 석성과 더불어 토성의 흔적도 있다.

백암성, 오골성, 비사성을 비롯한 많은 고구려 성의 흔적은 오늘날 중국과 북한 지역에 남아 있다.

▲ 백암성(연주산성, 중국 라오닝 성 덩타)
고구려의 성 중에서 그 모양이 비교적 잘 간직되어 있다.

성을 이용한 방어 전술

▲ 목책을 세워서 방어하는 모습

고구려는 주로 성을 지키면서 전쟁을 벌였다. 적이 성 밖에서 포차와 충차 등의 무기를 동원하여 성을 공격하면 성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무너진 성문과 성벽에 재빨리 목책을 세워 방어하였다.

▲ 큰 돌을 날려 성벽을 부수는 포차

▲ 성문을 밀어 무너뜨리는 충차

생각해 보기

01 고구려는 충차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성을 어떤 구조로 만들었을지 생각해 보자.

02 신라의 삼국 통일

1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의 부소산에는 낙화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백제의 멸망이 닥쳤을 때 궁녀들이 그 아래 백마강으로 뛰어내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떨어지는 궁녀들을 꽃에 비유하여 낙화암이라 불린다.

낙화암에 얽힌 이야기는 사실일까?

▲ 부소산 낙화암(충남 부여)

학습 목표 | • 신라가 당과 연합하게 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다

무왕의 뒤를 이은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를 거세게 공격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40여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신라에게 빼앗겼던 죽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면서 신라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대야성(경남 합천)
백제에서 신라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에 해당하는 요충지이다.

김춘추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계속되자 당으로 건너가 동맹을 추진하였다. 그는 신라와 당이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공격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구려 침공에 실패한 이후 고구려를 꺾을 기회를 노리던 당 태종은 대동강 이북의 땅을 얻는 조건으로 신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나·당 동맹**이 결성되었다.

▲ 신라 김춘추

▲ 고구려 보장왕

▲ 당 태종

▲ 나 · 당 연합군의 백제 공격

백제가 무너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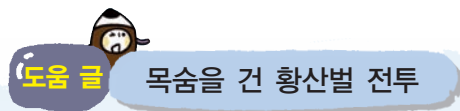
백제의 의자왕은 신라에 대한 공격에 성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귀족 세력의 반발을 가져와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이때 신라와 당이 백제를 향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신라의 김유신은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백제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백제의 **계백**은 5천 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이들을 상대로 잘 싸웠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황산벌에서 승리한 김유신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으로 향하였다. 이때 백제의 군사력은 분산되어 있었고 이미 방어할 힘이 약해져 있었다. 신라와 당의 군대가 사비성에 집결하여 공격하였고, 백제는 결국 멸망하였다(660).

고구려의 권력 쟁탈전
연개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 남생, 남건, 남산 사이에 후계자 쟁탈전이 벌어졌다. 쟁탈전에서 밀린 남생은 당으로 달아나 고구려 공격에 합세하였다.

고구려가 무너지다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 군사와 백성들은 연개소문의 지휘 아래 계속되는 당의 공격을 잘 막아 냈다. 하지만 고구려는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였고, 연개소문이 죽은 뒤 지배층의 분열로 체제가 약해졌다.

당은 이 틈을 타 고구려에 다시 쳐들어와 요동의 여러 성들을 차례로 빼앗았다. 그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어 동아시아를 주름잡았던 고구려는 멸망하고 말았다(668).

▲ 삼충사(충남 부여)
백제의 세 충신 성충, 흥수, 계백을 기리는 사당이다.

계백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한 나라 사람의 힘으로 당나라와 신라의 대군을 상대하게 되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 없구나. 내 집사람과 자식이 노비가 되어 치욕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라며 자기 손으로 아내와 자식을 죽였다. 결사적인 각오를 다진 계백과 백제군은 황산벌로 나아가 10배나 많은 신라군을 상대로 네 번을 싸워 모두 승리하였다.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번번이 패배한 신라 군사들은 사기가 크게 꺾였다. 이때 젊은 화랑 관창과 반굴이 백제의 진영으로 돌진하여 죽을 때까지 싸웠다. 이들의 희생은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 결국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2 부흥 운동과 나·당 전쟁

오늘날 경기도 연천의 대전리산성은 신라와 당이 전투를 벌인 매소성으로 보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김유신의 아들 김원술도 이 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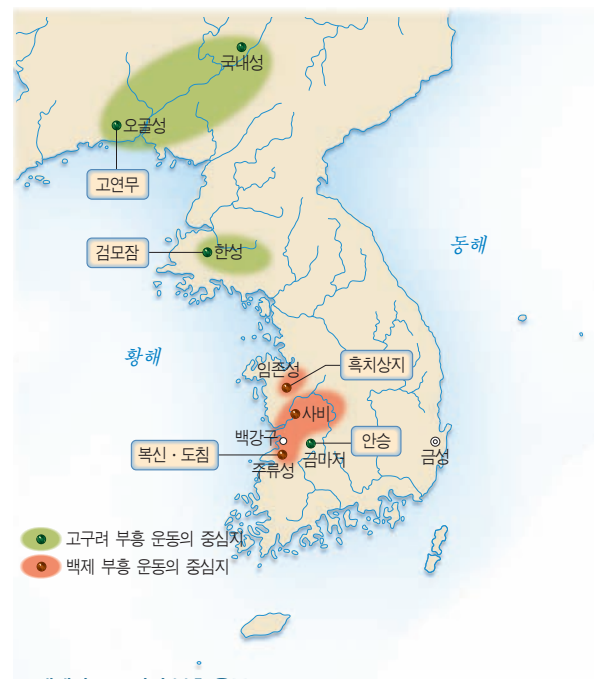
한때 동맹을 맺었던 신라와 당이 왜 다투게 되었을까?

학습 목표 | • 신라가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낸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신라의 삼국 통일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대전리산성(경기 연천)

백제 유민들이 부흥 운동을 전개하다

백제가 멸망한 후 유민들은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을 근거지로 군사를 모으고, 일본에 있던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삼아 왕조 부흥을 선언하였다. 왜는 백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한편 임존성에서는 흑치상지가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사비성을 공격하며 신라와 당에게 위협을 주는 큰 규모의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백제의 부흥 운동은 지도층 사이의 분열로 스스로 무너졌다. 결국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 맞선 **백강구 전투**에서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패배하면서 백제의 부흥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 운동

역사 가로지르기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 백강구 전투

신라와 당은 백제의 부흥 운동을 약화하고자 주류성에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이때 왜의 수군이 백제 부흥군을 도우러 왔다. 그리하여 지금의 금강인 백강 입구에서 백제와 왜의 연합군,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서로 격돌하는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왜의 군사는 크게 패배하였고 백제 부흥 운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한편 왜는 이 싸움에서 패한 후 당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곳곳에 산성을 쌓는 등 국내 수비를 강화하였다.

안승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하다가 당의 침입을 받자 신라로 망명하였다. 안승은 신라의 후원을 받아 금마저(전북 익산)에 보덕국을 세웠다.

도호부와 도독부
당이 점령 지역을 지배하고자 설치한 통치 기관이다. 도호부는 도독부를 관할하는 기관이다.

고구려 유민들이 부흥 운동을 전개하다

고구려의 유민들도 곳곳에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검모잠은 왕족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한성(재령)을 근거지로 삼아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장수 고연무는 오골성을 중심으로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부흥 운동은 지도부의 분열로 실패하였다. 이후 고구려 유민들은 대부분 신라로 들어가거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주민이 되었다.

나·당 전쟁이 시작되다

당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 전부를 차지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멸망한 백제 땅인 웅진 등에 도독부를 설치하였고, 신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한 뒤 문무왕을 도독으로 임명하였다. 또 옛 고구려 땅 곳곳에 여러 도독부를 설치하고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었다.

당이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당을 몰아내기 위한 공격을 시작하였다. 우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지원하여 고구려 유민 세력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비성에 있던 당의 군대를 몰아내고 웅진도독부를 없애, 옛 백제 땅을 차지하고 백제 유민들을 포섭하였다.

계속된 패배를 겪은 당은 20만 대군을 보내 반격에 나섰으나, 신라는 이를 **매소성**에서 크게 무찔렀다. 그 후 신라는 **기벌포**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써 당을 완전히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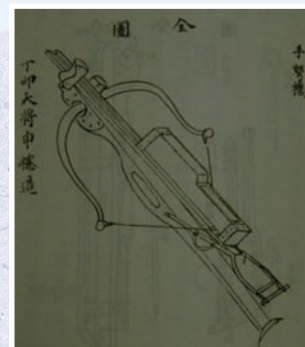
▲ 나·당 전쟁

도움 글 신라의 무기 제조 기술을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은 구진천

당은 신라에서 기술자를 데려와 신라의 무기인 쇠뇌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신라 기술자 구진천이 쇠뇌를 엉터리로 만들자, 당의 황제는 "너희 나라에서 만든 무기는 1,000보를 나간다고 들었는데 지금 만든 것은 30보밖에 나가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졌다.

구진천은 재료가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고 당은 신라에서 목재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하지만 구진천이 다시 만든 쇠뇌는 6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구진천은 또 추궁을 당하였고 "아마도 목재가 바다를 건너올 때 습기가 배어들었기 때문인 듯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에도 당 황제의 위협이 계속되었으나, 구진천은 끝내 신라의 기술을 알려 주지 않았다.

– "삼국사기"

▲ 쇠뇌("훈국신조기계도설")

삼국이 통합을 이루다

신라의 삼국 통일은 통일 과정에서 당의 세력을 이용하였고, 통일 후 차지한 영토가 대동강 이남에 그쳐 옛 고구려 땅 전부를 아우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신라는 스스로 당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하는 자주 의식을 보였다. 신라는 통일 과정에서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과 백제 유민들을 신라의 군대로 편입시켜 당을 상대로 함께 싸웠다. 그리하여 삼국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어 갔으며, 삼국 문화가 융합되어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함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와 백성이 오랜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탐구 활동 신라의 통일을 바라보는 자세

자료 1 김부식의 평가

무열왕(김춘추)께서 백성들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임금의 귀중한 몸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뵙고 친히 군사를 청하였다. 그 의도는 두 나라를 평정하여 전쟁을 영구히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혔던 원수를 갚고 백성들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함이다.

- "삼국사기"

자료 2 신채호의 평가

다른 민족을 불러들여 같은 민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끌어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 고구려가 망하여 발해가 되고, 백제가 망하여 신라에 합쳐졌으니, 이는 삼국이 합쳐져 두 나라가 된 시대이다. …… 이는 반쪽짜리 통일이지 전체적인 통일이 아니다.

- "독사신론"

과제 김부식과 신채호의 입장에서 삼국 통일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계백 • • ㉠ 나·당 동맹
(2) 김춘추 • • ㉡ 황산벌 전투
(3) 검모잠 • • ㉢ 백제 부흥 운동
(4) 흑치상지 • • ㉣ 고구려 부흥 운동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신라는 □□□ 부흥 운동을 도와 함께 당을 물리쳤다.

(2) 신라는 □□□과 □□□에서 당을 물리치고 통일을 완성하였다.

3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백제 멸망
㉡ 나·당 연합
㉢ 고구려 멸망
㉣ 매소성 전투

03 통일 신라의 발전

1 통일 국가의 체제 정비

▲ 대왕암(문무왕 수중릉, 경북 경주)

과인은 어지러운 때에 태어나 전쟁을 맞아 서쪽을 정벌하고 북쪽을 토벌하여 영토를 안정시켰고, ……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으며 백성이 어질고 장수하는 땅으로 이끌었다. 세금을 가볍게 하고 요역을 덜어 주니 집집이 넉넉하고 백성들이 풍요하며 민간은 안정되고 나라 안에 근심이 없게 되었다. – "삼국사기"

위의 글은 누가 남긴 유언일까?

학습 목표 | • 통일 후 신라의 통치 질서 변화와 왕권 강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통일 국가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된 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새로운 통치 질서가 수립되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었다. 그가 곧 진골 출신 중에서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태종 무열왕**이다. 무열왕은 삼국 통일의 길을 열었으며 그의 뒤를 이은 문무왕은 삼국 통일을 완성하였다. 통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다.

신문왕이 즉위하자 그동안 왕권에 눌려 있던 귀족들이 **김흠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신문왕은 반란을 진압하여 귀족 세력을 약화하고, 여러 제도를 개혁하여 정치를 안정시켰다.

김흠돌
막강한 세력을 지닌 귀족으로서, 신문왕의 장인이었다.

탐구 활동 만파식적 이야기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문왕 때 동해 가운데 작은 산이 생기고 그 위에 대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왕이 산에 가 보니 용이 나타나 대나무를 건네었고 신문왕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이 피리를 불면 적군이 물러나고 질병이 없어지며, 가뭄에는 비를 내리고 홍수 때에는 비가 그치며 거센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를 '거센 물결을 잠재우는 피리', 즉 만파식적이라 하였다. 이로써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고 나라가 안정되었다고 한다.

과제 만파식적 이야기에 담긴 의미를 말해 보자.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다

통일을 전후하여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의 정치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정치는 국왕의 직속 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귀족 회의 기구인 **화백 회의**의 기능이 축소되었다.

신라는 통일을 이룬 후 그에 걸맞은 제도를 갖추었다.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의 지배층을 수용하여 그들 중 일부에게 관직을 내렸다. 또한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다스리기 위해 지방 통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현을 두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다스리도록 하였다. 가장 작은 단위인 촌의 경우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전국 주요 지역에 특별 행정 구역인 **5소경**을 두었다.

수도와 왕궁을 담당하는 중앙군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옛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 등을 포함한 **9서당**을 편성하였다. 지방을 지키는 군대는 전국 각 주마다 하나씩 설치하였는데, 면적이 넓고 위험한 국경 지역인 한주에는 두 개의 정을 설치하여 총 **10정**의 지방군을 배치하였다.

▲ **9주 5소경**
5소경은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감시하고 다스리고자 설치하였다.

토지 제도의 개혁은 귀족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고 국가의 재정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신문왕은 관리들에게 복무의 대가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전에 지급하던 녹읍을 폐지하였다. 성덕왕 때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정전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조세를 바치도록 하여 국가의 수입을 늘렸다. 그러나 경덕왕 때에 와서는 녹읍이 부활되었다.

녹읍
관료들이 복무의 대가로 받은 토지로서, 세금뿐만 아니라 농민의 노동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정전
토지가 없는 15세 이상의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이다.

탐구 활동 백제와 고구려 유민에 대한 통일 신라의 정책

통일 후 신라는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에게도 관직을 내렸다.

옛 백제인과 고구려인을 포함하여 9서당을 편성하였다.

과제 통일 후 신라가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목적을 써 보자.

2 통일 신라의 활발한 대외 교류

우뚝 솟은 코, 귀 밑에서 턱으로 흐르는 덥수룩한 턱수염.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용(흙인형)의 모습이다. 이 토용은 우리 민족과 그 생김새가 매우 다른 서역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왜 신라 고분에 서역인의 모습을 한 토용이 있었을까?

학습 목표 | • 통일 신라가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음을 이해할 수 있다.
• 당과 교류하며 활동한 신라의 인물을 알 수 있다.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안정을 유지하였다. 통일 이후 찾아온 평화와 함께 상업이 발달하고 경제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선박을 만드는 기술과 항해술도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신라는 외국과 활발한 교역 활동을 하였다.

8세기에 들어 신라는 통일 과정에서 악화되었던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당과 교류하였다. 신라는 당항성을 중심으로 금은 세공품과 인삼 등을 당에 수출하였고, 당에서 비단, 서적, 문구류 등을 수입하였다.

당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산둥 반도와 창장 강 유역에는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방**이 생기고, 신라인들의 숙박 시설인 **신라관**이 들어섰다. 또 신라인들은 이곳에 **신라원**이라는 절을 지었으며 신라인들을 감독하는 관청인 **신라소**도 설치하였다.

▲ 통일 신라의 교류

신라는 일본과의 교류를 통해 직물 원료를 수입하였고, 일본은 금속 제품과 생활용품, 불경 등을 가져갔다. 이때 일본에 전해진 신라의 칼과 놋쇠 그릇은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신라 승려들이 쓴 책이 일본에서 널리 읽히면서 신라의 불교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

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울산항**이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특히 서역인들이 당을 통해 이곳까지 왕래하면서 보석, 향료 등이 들어오고, 멀리 서역에까지 신라가 알려지게 되었다.

서역
중국에서 중국의 서쪽 지역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지역을 가리킨다.

신라인들이 당에 진출하여 활약하다

당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벼슬을 얻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당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빈공과에 합격하여 당의 관리가 되기도 하였는데, 김운경, 최치원, 김가기, 최승우 등이 대표적이다.

빈공과
당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이다.

승려들도 당으로 건너가 불교를 배웠다. **의상**은 화엄종의 교리를 배우고 왔으며, **혜초**는 불교를 배우고 인도를 비롯한 서역 지역까지 순례하여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장보고는 당에서 활약하고 돌아와 전라남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그는 이곳을 군사 및 무역 기지로 삼아 해상 무역을 장악하였다.

▲ "왕오천축국전"
천축국으로 불린 인도의 다섯 나라와 서역 여러 지역의 종교, 풍속, 문화 등이 기록되어 있다.

도움 글 쇼소인에서 발견한 신라의 문화

일본 도다이 사의 쇼소인이라는 창고에는 일본 왕실의 유물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중에는 신라에서 건너간 물건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 이는 신라와 일본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보여 준다.

▲ 신라의 먹
'신라 양가에서 생산된 상급 먹', '신라 무가에서 생산된 상급 먹'이라고 새겨져 있다.

▲ 신라 안압지에서 출토된 가위(왼쪽)와 쇼소인 가위(오른쪽)

◀ 신라금
신라에서 제작한 가야금으로, 일본에서는 신라금으로 불린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무열왕 •   • ㉠ 청해진 설치
(2) 문무왕 •   • ㉡ 삼국 통일 완성
(3) 신문왕 •   • ㉢ 최초의 진골 출신 왕
(4) 장보고 •   • ㉣ 귀족 진압, 왕권 강화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신라는 옛 고구려인과 백제인을 포함하여 중앙군인 □□□을 편성하였다.
(2) 신라는 통일 후 전국을 □□로 나누고, 한쪽으로 치우친 수도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주요 지역에 □□□을 설치하였다.

04 통일 신라의 문화

1 사상의 발달

통일 신라 사람들이 탑을 돌며 '나무아미타불'을 정성스럽게 외고 있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 귀의합니다.'라는 뜻으로,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불을 깊이 믿고 의지한다는 기도문이다.

신라인들에게 위의 기도문을 널리 보급한 승려는 누구일까?

학습 목표 | 통일 이후 신라에서 유학과 불교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유학 교육을 확대하다

통일 후 신라는 왕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다. 유교는 왕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왕의 권위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유교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국가가 유교 진흥 정책을 펼침에 따라 뛰어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특히 강수, 설총과 같이 유교적 학식을 바탕으로 한 6두품 출신의 학자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이들은 관직에 등용되어 왕을 도우며 왕권 강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신문왕은 교육 기관인 **국학**을 정비하여 유학 교육을 진흥하였다. 8세기 말에는 유교 경전을 많이 익힌 사람을 관리로 선발하는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강수와 설총
강수는 뛰어난 문장으로 외교 문서를 잘 작성하였으며,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여 문자를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

독서삼품과
유학의 교양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던 제도이다. 국학에서 거둔 성적을 3품(상·중·하품)과 특품으로 구분하여 선발하였는데, 특히 우수한 자는 특품으로 우선 채용하였다.

국학

국학에는 15세에서 30세까지 입학이 가능하였으며 9년을 기한으로 공부하였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하여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사람은 퇴학시키고, 능력은 있으나 미숙한 자는 재학 기간을 연장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 국학에서는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논어"와 "효경"이 필수 과목이었다.

신라는 유교적 학식을 가진 인재를 관직에 등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국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성적에 따라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다.

불교 사상이 발달하고 널리 퍼지다

통일 신라 시기에는 많은 승려들이 당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으며, 여러 불교 경전이 신라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불교 철학에 대한 이해가 폭넓고 깊어졌다.

이 시기에는 전쟁을 겪은 백성을 위로하고 옛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의 상처를 씻어줄 정신적 치유책이 필요하였으며,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신앙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불교가 모든 계층과 전 국토에 전파되는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원효와 의상은 불교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승려이다. **원효**는 하나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종파를 익혔다. 원효는 여러 불교 경전의 교리들을 하나의 진리로 종합하는 사상 체계를 세웠다. 또한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누구든지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의상은 당에서 화엄종을 공부하고 돌아와 제자들에게 화엄종의 교리를 강의하였다. 그리고 왕실의 지원을 받아 부석사를 창건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신라 화엄종을 창시하였다. 의상은 어려운 처지에 있던 백성에게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관음 신앙**을 전파하였다.

▲ 낙산사 의상대(강원 양양)
의상이 14일 동안 기도를 하자 관음보살이 나타났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 같으면서도 다른 길을 걸었던 원효와 의상

원효와 의상은 서로 친하게 지내며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다. 이들은 당으로 유학을 떠나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다. 그러나 도중에 원효는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니 진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당으로 가지 않았다.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던 그들은 의상이 귀국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의 사상을 수용하면서 친분을 계속 이어 갔다. 이러한 두 승려의 우정은 각자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원효와 의상의 불교 대중화 노력으로 불교는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염불하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내세에 관한 희망을 담은 원효의 아미타 신앙과, 현실에서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의상의 관음 신앙이 함께 수용된 결과물이다.

▲ 원효 ▲ 의상

2 예술의 발달

김문량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왼손을 꼭 쥐고 펴지 않다가 7일째에 폈다. 손에는 금으로 만든 쪽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 이름을 대성이라 하고,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와 함께 봉양하였다. – "삼국유사"

이 설화에는 김대성이 환생하여 전생의 어머니와 현생의 부모를 위하여 각각 사찰을 건립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대성이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하여 세운 사찰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불교를 바탕으로 신라 예술이 크게 발전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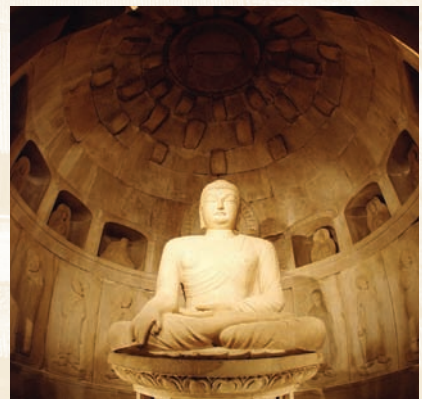
불교의 이상 세계를 꿈꾸며 예술의 꽃을 피우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통합하고 발전시켜 민족 문화의 바탕을 이루었다. 특히 불교가 널리 퍼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사원, 탑, 불상과 같은 건축과 조각이 많이 만들어졌다.

8세기 중엽에 창건된 **경주 불국사**는 '부처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사원이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부처가 사는 세계를 이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석굴암 석굴**은 정교하고 능숙한 솜씨의 건축·조각술을 바탕으로 만든 걸작으로 꼽힌다.

▲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안정된 느낌을 준다.

▲ **경주 불국사 다보탑**
독특한 모양을 지녔으며 화려하고 정교하다.

▲ **경주 불국사 전경**
입구에 놓인 계단을 오르면 부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이르게 된다. 이 문을 지나면서 불교의 이상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한 신라인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

▲ **경주 석굴암 석굴**
경주 토함산에 인공으로 조성된 석굴 사원이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우리나라의 종은 통일 신라 시기에 그 양식을 확립하였다. 상원사 동종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종이다. **성덕 대왕 신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종이며,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를 자랑한다.

통일 신라에서는 불교문화가 발달하면서 불경을 인쇄하기 위한 목판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하였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수리하던 중 그 내부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다.

▲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한편 신라 사람들은 향가를 지어 불렀다. 향가는 초기에 불교 가요로 많이 쓰이던 것이었는데, 점차 그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도움 글 성덕 대왕 신종

성덕 대왕 신종은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은 혜공왕이 완성하였다.

종을 매다는 고리는 용이 몸을 구부리고 약 20톤에 달하는 종을 물고 들어 올리는 듯한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옆에는 원통 모양의 음관 혹은 용통이 조각되어 있는데, 내부를 뚫어 종과 통하도록 연결하였다. 이는 소리의 울림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로 파악되며, 우리나라의 종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구조이다. 표면에 새겨진 비천상 무늬와 꽃무늬는 다른 종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작으로 꼽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강수 •   • ㉠ 아미타 신앙 전파

(2) 원효 •   • ㉡ 신라 화엄종 창시

(3) 의상 •   • ㉢ 6두품 출신의 유학자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신문왕은 교육 기관인 □□을 정비하여 □□ 경전을 익히도록 하였다.

(2) □□는 통일 신라 시대의 국가적 신앙으로서 신라 문화와 예술의 바탕이 되었다.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을 쓰시오.

(1) 김대성이 건축한 사찰로서 부처가 사는 이상적인 나라를 표현하였다.

(2) 경주 토함산에 인공으로 조성된 석굴 사원이다.

(3)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종으로 신비로운 소리에 담긴 전설로 유명하다.

(4) 불국사 3층 석탑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다.

걸어서 역사 속으로

천년의 수도, 경주를 찾아서 ……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대 도시이다. 경주에 가면 많은 왕릉과 유물이 신라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도시 전체가 노천 박물관인 경주! 그중에서도 시내 중심과 남산 지역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 보자.

▲ 황룡사(복원)

◀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고분군으로 미추왕릉, 황남 대총, 천마총 등 23여 개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다. 이 중 천마총에서는 금관, 금 허리띠, 금 신발 등과 함께 천마도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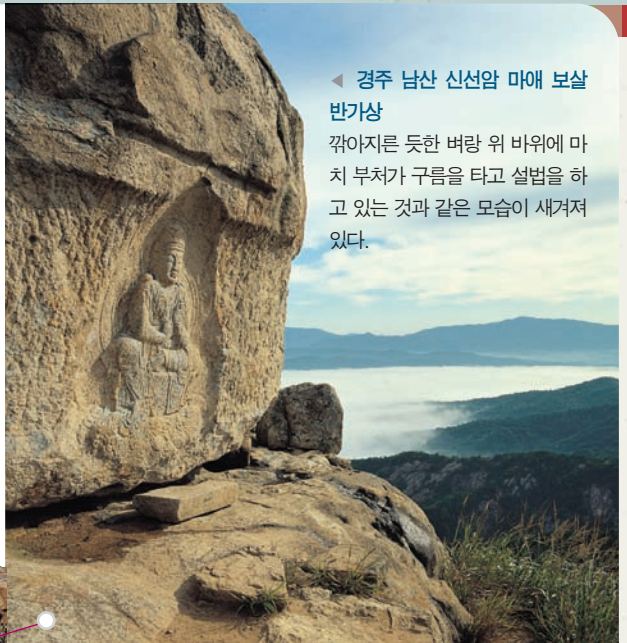
경주 시내는 신라 왕조의 왕궁이 자리했던 월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곳은 고대 도시로서 멋을 지님과 동시에 천년 전의 삶과 현대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

▼ **경주 황룡사지**
진흥왕 때 짓기 시작하여 선덕 여왕 때 완성한 사찰이다. 고려 시대 몽골의 침략으로 9층 목탑을 비롯하여 모두 불타 버리고 그 터가 남아 있다.

▲ **경주 첨성대**
선덕 여왕 때 축조되었으며, 천문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사각형과 원형을 적절히 배합하여 부드러운 곡선과 안정감을 이루고 있다.

▼ **경주 계림**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설화가 얽힌 곳이다. 울창한 느티나무와 버드나무 숲이 우거진 계림은 반월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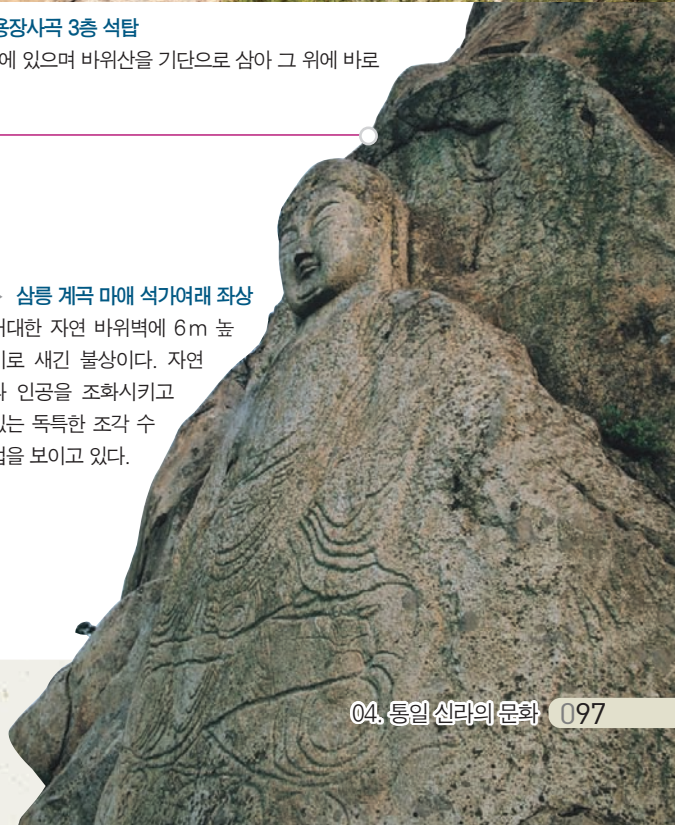
▼ **안압지**
문무왕 때 별궁 안에 인공으로 축조한 연못으로 신라의 궁궐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 불상군**
바위 면에 부조한 삼존불상과 그 앞의 돌 기둥에 부조한 4구의 불상 등 모두 7구의 불상이 있어 칠불암으로 불린다.

◀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 보살 반가상**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 바위에 마치 부처가 구름을 타고 설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새겨져 있다.

신라의 역사와 불교 정신이 녹아 있는 남산에는 골짜기와 등성이마다 사찰, 석불, 석탑 등 수많은 유산이 산재해 있다.

▲ **경주 남산 용장사곡 3층 석탑**
산봉우리 정상에 있으며 바위산을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바로 탑을 쌓았다.

▲ **경주 포석정지**
신라 왕실의 별궁으로 왕들이 연회를 베풀던 곳이다. 정자 등의 건물은 없어지고 흐르는 물 위에 술잔을 띄우던 석조 구조물만 남아 있다.

▶ **삼릉 계곡 마애 석가여래 좌상**
거대한 자연 바위벽에 6m 높이로 새긴 불상이다. 자연과 인공을 조화시키고 있는 독특한 조각 수법을 보이고 있다.

05 발해의 성립과 발전

1 발해의 성립과 영토 확장

▲ 발해의 청동 부절

연해주 지역에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부절이 발견되었다. 이 조각 뒷면에는 발해 관직 이름이 새겨져 있고 옆면에는 '합동'이라고 새겨진 글자가 반쪽으로 잘려 있다. 이것은 관리들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발해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청동 부절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였을까?

학습 목표 | • 발해의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발해의 통치 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다

발해의 국호
건국 당시 나라 이름을 '진국'으로 하였다가, 713년에 '발해'로 바꾸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당은 고구려 유민들의 저항을 막고 이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강제로 중국 곳곳에 이주시켰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지배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그중 요서 지방에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 거란족 등이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당의 수탈에 시달리면서 당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 이 일대가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타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요서 지방을 탈출하여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추격해 오는 당의 군대를 무찌르고 계속 이동한 끝에 만주의 동모산에 자리를 잡았다.

대조영은 이곳에 성을 쌓아 도읍으로 삼고 발해를 건국하였다(698).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되는 해에 그 땅에 고구려인이 다시 나라를 건설한 것이다. 이로써 남쪽에는 통일 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성립하였다.

▼ 동모산(중국 지린 성 둔화)

해동성국을 이루다

발해는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나갔다. 대조영의 아들인 무왕은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며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발해의 팽창에 위기를 느낀 당은 말갈을 이용하여 발해를 압박하려 하였고, 이에 무왕은 장문휴를 보내 당의 산둥 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

▲ 발해 전성기의 영역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발달된 당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으며, 신라와도 교류하였다. 문왕은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발해는 9세기 초 **선왕**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발해는 서쪽으로 요동 지방, 남쪽으로 대동강 이북과 함경도 대부분을 확보하였고, 북으로는 만주 일부와 연해주에 이르는 최대의 영토를 차지하였다. 당시 중국은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전한 발해를 가리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해동성국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다.

발해는 9세기 말에 이르러 지배층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926). 발해의 유민들은 상당수가 고려로 들어갔다. 일부는 후발해국, 정안국 등을 세우며 발해를 부흥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속초 발해 역사관

강원도 속초에는 발해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한 발해 역사관이 있다. 모두 2층으로 되어 있으며 발해의 유적지 모형이나 사진, 영상,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 가면 상경성이나 발해 탑의 축소 모형을 볼 수 있고, 발해인의 의복을 입어 볼 수도 있다. 정효 공주의 무덤을 그대로 복원한 공간에서는 벽화에 나타난 인물을 관찰하면서 발해의 문화와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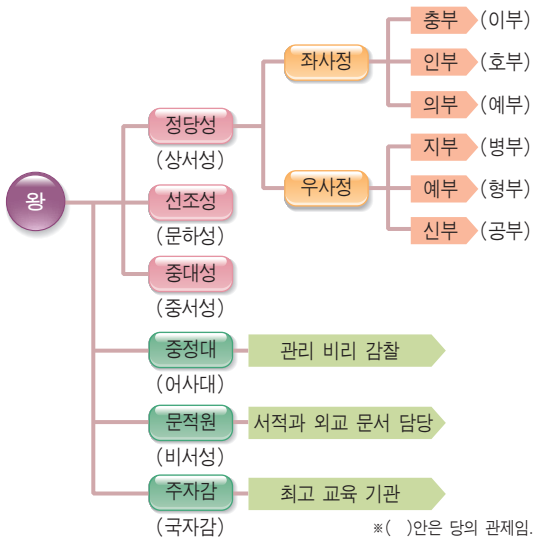
▲ 발해의 수막새 기와

▲ 역사관 내부

▲ 역사관 외부

▲ 정효 공주 묘 복원 모습

독자성을 갖춘 통치 체제를 마련하다

발해는 건국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였다. 발해왕은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였으며 '인안', '대흥', '건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꾸준히 사용하였다. 이것은 발해가 당과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발해의 중앙 통치 기구
당과 달리 6부를 이원적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발해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마련하였다. 중앙 통치 기구는 **3성 6부**를 중심으로 조직하였는데, 그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 **독자성**을 갖추었다. 3성은 최고 합의 기구인 정당성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귀족 관료들이 이곳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는 그 아래 6부에서 나누어 맡아 처리하였다. 6부의 명칭은 당의 제도와 달리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5경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거점으로서 주요 지역에 설치한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을 뜻한다.

발해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5경 15부 62주를 편성하였다. 지방의 요충지에 5경을 설치하고 전국을 15부와 그 아래 62주로 나누었다. 이곳에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으며, 가장 작은 행정 구역인 촌락은 그곳의 토착 세력이 다스리도록 하였다.

군사 조직으로 중앙에 10위를 두었고, 지방의 중요 지역에 별도의 부대를 두어 방어하도록 하였다.

탐구 활동 황제를 칭한 발해왕

- 정효 공주 무덤의 묘지석에는 공주의 아버지인 문왕을 '황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발해 왕비의 무덤에서는 무덤의 주인을 '황후'라고 적은 비문이 발견되었다.
- 발해 문왕은 일본에 문서를 보내면서 과거 고구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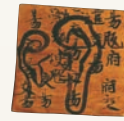
▲ 정효 공주 무덤의 묘비
(중국 지린 성)

과제 위 자료를 종합할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써 보자.

2 발해의 문화와 대외 관계

'견고려사'.
일본에서 발견된 목간에 새겨진 글자이다.
이것은 일본에서 발해에 보낸 사신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왜 발해를 고려(고구려)라고 표현했을까?

학습 목표 | •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 발해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와 교역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다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에 터전을 잡고 고구려 출신의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국가이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내세웠으며,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 자료와 여러 유물·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발해는 고구려를 뜻하는 '고려'를 국호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발해의 무왕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발해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풍속을 간직하였다고 하였으며, 문왕은 자신을 고구려 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일본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발해 왕을 고구려 왕이라고 기록한 외교 문서를 전달하였다.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왕의 성씨인 대씨를 비롯하여 고씨, 왕씨 등 고구려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많았다.

'고려' 국호
고구려는 '고려'라는 국호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훗날 고려 시대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서술하면서 '고구려'라는 국호로 통일하여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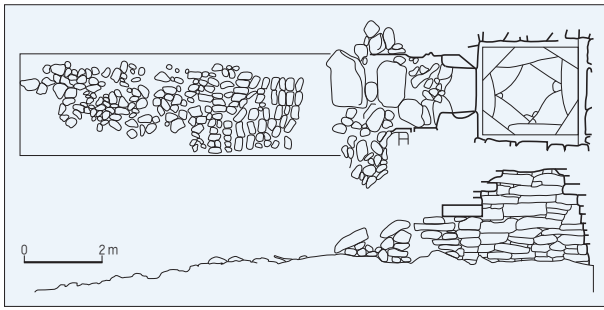
탐구 활동 발해에 대한 인식

•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 ㉠부여씨가 멸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가지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소유하여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 그 대씨는 누구인가. 곧 고구려 사람이었다.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어디였던가. 곧 고구려의 땅이었다.

▲ 유득공의 "발해고"

과제 1 ㉠~㉢이 각각 가리키는 나라와 ㉣이 가리키는 인물을 써 보자.

과제 2 유득공이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정하는 근거를 찾아보자.

▲ 모줄임 구조(천장 사진 구조도)
천장의 네 모서리에 계단식으로 돌을 쌓아 공간을 점점 좁히면서 올라가는 방식이다.

고구려 문화의 토대 위에 독자적 문화를 완성하다

발해의 집터 유적에서는 고구려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모양의 **온돌**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와지붕에 쓰이는 발해의 치미와 연꽃무늬를 새긴 막새도 고구려의 것과 그 모양이 거의 같다.

무덤은 고구려 양식을 따른 것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문왕의 딸 정혜 공주의 무덤은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에 고구려 방식의 **모줄임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다.

▲ 영광탑(중국 지린 성)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면서 당과 말갈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발해는 수도 상경의 구조를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계획적으로 조성하였다. 또 정효 공주 무덤의 벽돌로 벽을 쌓은 방식이나 영광탑의 건축 기법과 양식 등에서 당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이 주로 만든 흙구덩이무덤(토광묘)은 말갈의 문화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발해는 주변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냈다.

절터에서 발견된 불상, 석등, 연꽃무늬 막새 등에서도 발해의 수준 높은 건축 및 조각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발해에서도 당시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발해

▲ 고구려 막새(위)(국립 중앙 박물관)와 발해 막새(아래)(일본 도쿄대)
막새는 기와 지붕의 처마 끝 부분을 마무리하는 기와이다.

▲ 고구려 치미(복원)(백제 역사 박물관)(위)와 발해 치미(아래)(흑룡강 성 제9절 터)
치미는 건물의 끝을 장식하는 기와이다.

▲ 온돌 터
위는 고구려 아차산 보루 온돌 터이고, 아래는 발해 상경 온돌 터 유적이다.

활발한 교류의 길을 형성하다

발해는 수도 상경을 중심으로 뻗어 나가는 5개의 주요 도로망을 통하여 신라, 당, 일본, 거란 등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다.

발해는 당에 담비 가죽과 말, 약재 등을 수출하고, 당에서 비단, 서적, 공예품 등을 수입하였다. 당과의 활발한 교류로 발해 사신과 상인들의 왕래가 늘어나자 당의 산둥 반도에는 발해인의 숙소인 **발해관**이 설치되었다.

발해와 신라는 초기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점차 신라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신과 물자가 오고 가면서 교류가 활발해졌다.

발해는 일본과 빈번하게 교역을 하였는데, 일본은 발해 사신이 가져오는 진귀한 물건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특히 발해의 담비 모피는 일본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 발해 5도

주요 거점에 5경을 설치하여 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교류를 활발히 전개할 수 있었다.

도움 글 발해와 신라 유학생의 경쟁

당의 빈공과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쟁을 벌였는데 주로 신라의 유학생이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발해의 유학생 '오소도'가 신라의 유학생 '이동'을 제치고 장원으로 급제하는 일이 생겼다. 이것은 당시 신라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신라의 최치원도 이 소식을 듣고 "신라는 사방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신라의 수치로 영원히 남을 일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시간이 흘러 오소도의 아들 오광찬이 신라의 최언위와 빈공과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번에는 신라의 최언위가 더 높은 점수로 합격하여 오소도가 당에 항의를 하는 일이 생겼다. 이처럼 발해가 성장하면서 남북국은 외국에서도 학문을 두고 서로 경쟁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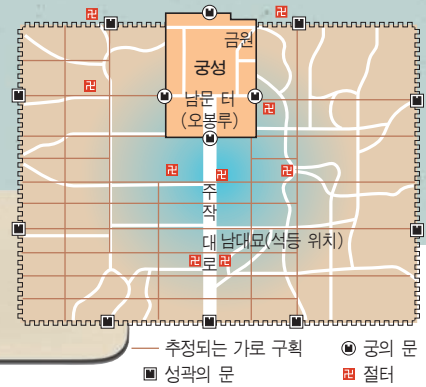
(1) 선왕 •   • ㉠ 발해 건국
(2) 무왕 •   • ㉡ 당의 산둥 지방 공격
(3) 문왕 •   • ㉢ 당과 친선 관계 수립
(4) 대조영 •   • ㉣ 최대 영역 확보한 전성기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발해는 □□□, 선조성, 중대성의 3성과 그 아래 □□를 두어 통치하였다.
(2) 정혜 공주의 무덤은 고구려 방식의 □□□□□ 구조를 이루고 있다.

걸어서 역사 속으로

발해의 상경성을 찾아서 ……

발해는 수도를 네 번 옮겼는데 그중 상경은 가장 오랜 기간 수도로서 번영한 곳이다.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과 같은 모양을 갖춘 계획도시였다. 현재 옛 상경성 자리에는 많은 궁전 터와 사찰 터, 집터 그리고 다양한 유물의 자취가 남아 있다.

▲ 상경성의 구조

▲ 팔보 유리정
우물은 8각형으로 돌을 둘러 만들었다. 우물 위의 정자는 후대에 지은 것이다.

▼ 용머리
궁전 건축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강하고 당당한 기풍을 보여 준다.

▲ 상경 용천부 표지석

⑤

◀ 왕궁 터

석등 ▶
높이 약 6.3m의 거대한 석등으로 기둥머리 받침에 장식된 연꽃무늬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06 신라 말의 사회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1 신라 말의 사회 혼란

신라 말의 학자 최치원은 '해인사 묘길상탑기'에 "전쟁과 흉년 두 재앙이 당에서 멈추자 신라로 왔다. 흉악한 것이 가득하고, 굶어 죽은 시체와 전사한 해골들이 들판에 별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썼다. 해인사 묘길상탑기는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이 절을 습격하자 이를 막다가 죽은 승려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

▲ 해인사 묘길상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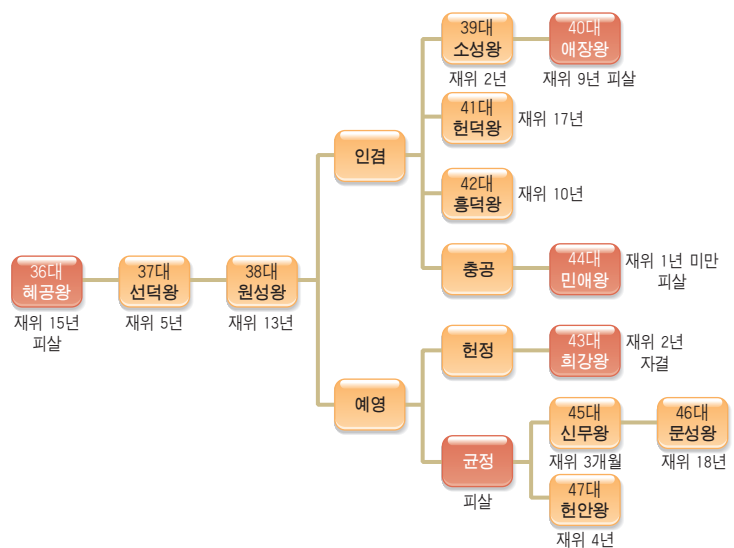
학습 목표 |
- 중앙 정계의 왕위 다툼이 신라 사회에 끼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난 배경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신라 말, 왕위 다툼에 휘말리다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신라는 8세기 말에 이르러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혼란을 겪게 되었다. 신라 사회를 지탱하던 골품제는 진골 귀족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리하여 중앙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경덕왕이 죽고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이들의 권력 다툼은 더욱 심해졌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많은 왕이 희생되었다. 그리하여 신라 말 150여 년 동안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편 지방에 거점을 둔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이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 일으킨 반란이었다(822).

김헌창
원성왕에게 왕위를 빼앗긴 김주원의 아들이다. 왕위를 다시 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켜 '장안'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였으나, 정부군에게 진압되었다.

▲ 혜공왕 이후의 왕위 쟁탈전

▲ 진성 여왕 초기의 반란

전국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다

9세기 후반 신라 왕실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귀족들은 농민을 수탈하고 농장을 확대하면서 자기 세력을 확장하였다. 특히 진성 여왕 시기에는 각종 부패로 세금이 제대로 중앙에 들어오지 않아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정부는 세금 납부를 독촉하게 되었고, 농민에 대한 지방 관리들의 수탈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때에 흉년이 들고 전염병까지 돌아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고달파졌다.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또 관리들의 수탈과 비참한 생활에 불만을 품고 전국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과 애노는 사벌주(상주)에서 농민들을 이끌고 대규모의 반란을 일으켰다(889). 그 밖에 북원(원주)에서 양길, 죽주(안성)에서 기훤, 완산주(전주)에서 견훤 등이 잇달아 반란을 일으키며 세력을 키웠다.

최치원은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자 진성 여왕에게 개혁안을 건의하였지만, 귀족들의 거센 반발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결국 농민들의 반란은 신라의 체제를 흔들어 놓았고 신라 왕실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최치원
6두품 출신으로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여 활약한 후 신라로 돌아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탐구 활동 신라 말 백성의 삶

자료 1 농민 반란

- 흥덕왕 7년(832): 백성들이 (가) 으로 굶주려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왕이 사자를 보내 위로하였다.
- 진성 여왕 3년(889): 국내 여러 주 · 군이 세금을 바치지 않아 나라 살림이 어려웠다. 왕이 사자를 보내어 독촉하자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나) , (다) 등이 사벌주(상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 "삼국사기"

자료 2 효녀 지은 이야기

지은은 한기부의 백성인 연권의 딸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나이 32세가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어머니를 보살피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품팔이도 하고, 구걸도 하여 봉양을 오랫동안 하니 피곤함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부잣집에 자청하여 몸을 팔아 노비가 되고 쌀 10석을 받았다.

– "삼국사기"

과제 1 자료 1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 보자.

과제 2 자료 2를 참고하여 신라 말 어려운 현실에 처한 백성들이 선택한 다양한 결정을 말해 보자.

2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후삼국의 성립

나라의 지원을 받아 당에 건너간 유학생들은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문성왕(839~857) 때 유학생들의 상당수가 신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신라 정부가 당에 이들의 귀국을 요청하는 일이 점차 늘었다.

유학생들이 신라 귀국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신라 말에 성장한 세력과 새로운 사상의 유행을 파악할 수 있다.
•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성립 과정과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호족이 성장하다

신라 말 중앙 정부가 어수선해지면서 지방에서는 호족 세력이 성장하였다. **호족** 중에는 지방에서 오랫동안 세력을 키운 촌주 출신이 많았다. 또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지방으로 내려간 몰락 귀족, 무역으로 성공하여 부와 군사력을 갖춘 해상 세력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거느려 군사권을 장악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지방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촌주
신라 시대 말단 행정 단위인 촌의 우두머리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세금 징수, 부역 동원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6두품은 신라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은 뛰어난 학식을 바탕으로 신라 정치에 기여하였으나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결국 이들 중 일부는 신분의 벽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은둔하거나, 골품제의 한계에 불만을 품고 신라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방의 호족 세력과 뜻을 함께하여 신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 견훤산성(경북 상주)
견훤이 쌓았다고 전해진다.

▲ 신라 말 호족의 성장

▲ 선종 9산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신라 말에는 선종과 풍수지리설, 유교 사상이 복합적으로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불교에서는 **선종**이 크게 유행하였다. 그동안 신라의 불교를 이끌던 교종은 경전과 교리를 중시하여 꾸준히 왕실과 귀족들의 호응을 받았다. 반면 선종은 경전의 이해보다는 수양을 통해 스스로 도를 깨우치는 것을 강조하여 백성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호족 세력의 지지를 받았다. 선종은 호족의 후원으로 전국에 사찰을 건립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이로써 신라 말에는 교종이 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종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승려 도선은 풍수지리설을 널리 보급하였다. **풍수지리설**은 신라의 도읍인 금성(경주)만 중심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고 지방 곳곳에 중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지방 세력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신라 말에는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발전하면서 호족에게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6두품의 유교 사상과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풍수지리설
산과 땅, 물의 기운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여 도읍지나 사원의 터를 정하는 데 이용되었다. 오늘날에도 거주지나 조상의 무덤을 정할 때 명당을 찾기 위해 풍수지리설을 이용하고 있다.

도움 글 선종의 유행으로 발달한 승탑과 탑비

신라 말에는 선종의 영향으로 승탑과 탑비의 제작이 활발하였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승탑과 탑비는 대부분 신라 말인 9세기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다.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신 탑이며, 탑비는 승려를 기리고자 그의 일대기를 새긴 비석이다. 선종은 특히 스승에 대한 지극한 예우를 중시하였다. 또한 스승의 업적을 후세에 전하고 종파를 이어 가기 위해 승탑과 탑비에 정성을 쏟았다. 신라 말기에 세련된 승탑과 탑비가 활발히 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호족 세력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 양양 진전사지 도의 선사탑(강원 양양)
최초로 선종을 도입하였다고 전해지는 도의 선사의 사리탑으로 추정된다.

▲ 보령 성주사지 낭혜 화상 탑비(충남 보령)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다

신라 말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 가운데 견훤과 궁예는 사회의 혼란을 틈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였다.

견훤은 서남 해안을 지키던 신라의 군인이었다. 그는 도적 떼를 토벌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고 서남해의 해상 세력을 규합하면서 군사를 키워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견훤은 무진주(광주)를 공격하여 점령한 후 완산주(전주)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다(900). 백제를 계승하였다는 의지를 내세우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 하였다. 후백제는 지금의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거의 장악하였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다

궁예는 신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왕족 출신이라고 한다. 그는 처음에 죽주(안성)에서 세력을 떨치던 기훤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이듬해 북원(원주)의 양길 밑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다 세력을 키워 자립한 후 양길의 군대를 물리치고 지금의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자신의 세력을 크게 넓혔다.

궁예는 왕건 부자를 비롯한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각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궁예는 영토를 확장하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마진으로 삼았다가, 후에 태봉으로 바꾸었다.

한편 신라는 힘을 잃어 그 영토가 경상도 일대로 축소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다시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는 후삼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 후고구려(태봉) 궁터(강원 철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신라 말 혜공왕이 피살되면서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심해졌다. (　　)

(2) 진성 여왕은 최치원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　　)

(3) 궁예는 후백제를 건국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 세력은 골품제를 비판하며 사회 개혁에 앞장섰다.

(2) 지방에서 성장한 □□은 군사권을 장악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을 통치하였다.

(3) 신라 말에는 선종과 □□□□□이 유행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6세기 말 동아시아

〈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의 대립 〉
- 남북 세력: 고구려-백제-왜
- 동서 세력: 신라-수

〈 고구려의 대외 전쟁 〉
- ❶ (612): 고구려 대 수
- 안시성 전투(645): 고구려 대 당

신라의 삼국 통일

❷ 체결 → 백제 멸망 → 고구려 멸망 → 나·당 전쟁 승리 → 삼국 통일

통일 신라의 발전

〈 통치 체제 정비 〉
- 중앙 정치: 집사부 중심, 화백 회의 약화
- 지방 행정: ❸
- 토지 제도(신문왕): 관료전 지급, 녹읍 폐지
- 당, 일본과의 교류 확대

〈 문화 〉
- 유학 교육의 확대
- 불교 사상의 심화, 불교의 대중화
- 불교 예술의 발달: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불국사 3층 석탑, 성덕 대왕 신종

발해의 성립과 발전

〈 성립과 발전 〉
- 대조영: 발해 건국(698)
- 무왕: 영토 확장, 당 공격
- 문왕: 당과 친선 관계 맺음, 제도 정비
- 선왕: 최대 영토 확보, ❹ 칭호

〈 문화 〉
- ❺ 문화 계승: 온돌, 정혜 공주 무덤
- 당과 말갈 문화 수용: 영광탑, 흙구덩이 무덤

통일 신라 말의 사회

〈 왕권의 약화와 사회 혼란 〉
- 진골 귀족 간의 권력 다툼
- 왕의 잦은 교체
- 농민 봉기 발생

〈 새로운 세력과 사상의 출현 〉
- 호족의 등장
- 6두품의 사회 비판
- ❻ , 풍수지리설 유행

〈 후삼국 성립 〉
- 견훤의 후백제 건국
-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

생각의 열쇠

❶ 수의 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이 수의 군대를 크게 무찌른 전투이다.
❷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을 받던 신라의 김춘추가 당과 맺은 동맹이다.
❸ 삼국 통일 후 신라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정비한 지방 행정 제도이다.
❹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바다 동쪽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이것으로 불렸다.
❺ 연꽃무늬 기와나 온돌 유적 등을 통해 발해가 이 나라를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❻ 신라 말에 백성과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 발전한 불교의 한 종파이다.

다음은 삼국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한 메모지이다.

① 전투에서 계속 패배한 당은 반격에 나섰으나,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을 크게 물리쳤다.

② 당은 요동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신라군과 함께 평양성을 함락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③ 계백과 백제군은 결사적인 각오로 전투에 나섰으나, 황산벌 전투는 신라의 승리로 끝났다.

④ 신라의 김춘추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당 태종에게 연합을 제안하였고, 당 태종이 이를 받아들였다.

⑤ 신라는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현을 두었다. 또 전국 주요 지역에 5소경을 설치하였다.

⑥ 신라의 김유신은 당의 군대와 함께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1 위의 메모지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

2 민형이는 제시된 메모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상 뉴스 대본을 작성하는 중이다. ㉠, ㉡에 알맞은 단어를 써 보자.

민형이의 대본

앵커: 속보입니다. 신라와 백제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불러 보겠습니다.

기자: 네. 여기는 ___㉠___입니다. 이미 전투가 한창 진행되었는데요. 양쪽 진영을 지휘하는 장군들과 각각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제 진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전투에 참여하였습니까?

___㉡___: 나라가 멸망하여 노비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마음에서 제 손으로 아내와 자식을 죽였습니다. 그만큼 결사적인 각오로 이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라 진영으로 옮겨 장군과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3 민형이처럼 메모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역사 신문을 만들어 보자.

IV

고려의 성립과 변천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발해 유민을 포용하면서 민족 통합과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 사회는 귀족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하여 신라보다 개방적인 성격을 지녔다. 12세기 후반 무신 정권이 들어섰고, 이후 고려는 몽골의 침입에 맞서 저항하였으나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원·명 교체기에 추진된 공민왕의 개혁은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상이 발달하였고, 귀족 중심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

	900년경	1000년경	1100년경
한국	918 고려 건국 936 후삼국 통일	1019 귀주 대첩	1107 윤관, 여진 정벌 1126 이자겸의 난 1170 무신 정변
세계	916 거란 건국 960 송 건국	1096 십자군 전쟁(~1270)	1115 여진, 금 건국

화순 운주사 석탑(전남 화순)

1200년경	1300년경
1231 몽골 1차 침입 1270 개경 환도	1388 위화도 회군
1271 원 제국 성립 1299 오스만 제국 성립	1337 백년 전쟁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02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01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신라 말 풍수지리설을 널리 퍼뜨린 도선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지세를 살피고 많은 예언을 남겼다. 도선은 송악산의 산세를 살피며 "이곳에서 반드시 고귀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 "고려사"

송악(개성)에서 태어난 인물이 이룬 업적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고려가 건국되다

후고구려(태봉)의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하며 이상 사회를 위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또 연호를 자주 바꾸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하를 자주 의심하고 살해하여 점차 민심을 잃어 갔다.

왕건은 송악 출신의 호족으로서 해상 활동을 통해 세력을 키우다가 궁예의 부하 장수가 되었다. 그는 수군을 이끌고 후백제를 위협할 수 있는 금성(나주)을 점령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며 시중의 지위에 올랐다.

궁예의 실정이 거듭되자 신하들은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국왕으로 추대하였다. 왕위에 오른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연호를 '천수'라 하였다(918). 그리고 이듬해에는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다.

왕위에 오른 태조는 정치 안정과 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배 체제를 안정시키고 본격적으로 후삼국 통일에 나설 수 있었다.

◀ **만월대 터(개성)**
개성 송악산 기슭에 있었던 고려 시대의 궁궐 터이다. 구릉에 위치하여 정전인 회경전을 중심으로 축대를 쌓고 계단식으로 건물을 배치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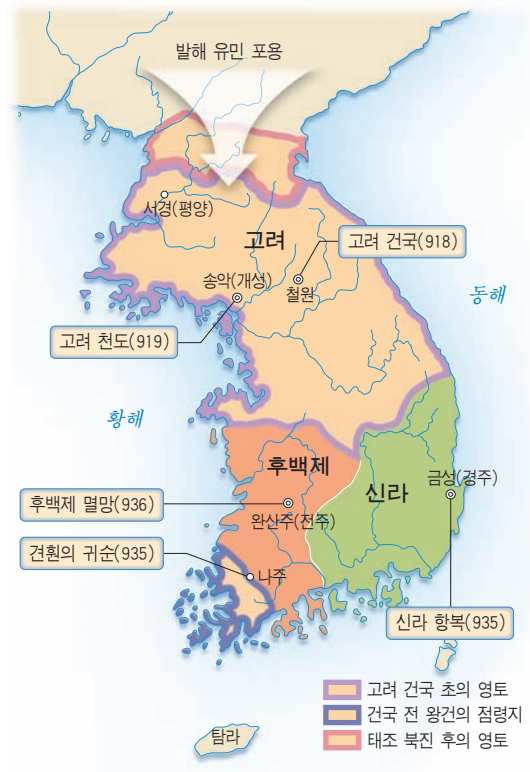
후삼국 중 가장 세력이 강하였던 후백제는 신라를 자주 공격하였다. 반면 고려는 위기에 처한 신라를 여러 차례 도우면서 신라인들의 지지를 얻었다. 고려는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기도 하였지만, 고창(안동)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후백제와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고려와 후백제가 대결하는 가운데 후백제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나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려에 귀순해 왔다. 이 무렵 신라의 경순왕은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고려에 나라를 넘겼다(935). 그 후 고려는 후백제를 정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고려의 후삼국 통일 기반
태조는 중국의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어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각 지역의 호족을 포섭하면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이룬 통일이었다.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통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실질적인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어 냈다. 이로써 고려는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려의 건국과 통일 과정에서 성장한 **지방 호족 세력**과 **6두품** 출신들은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되었다. 이로써 고려는 폐쇄적인 골품 체제에서 벗어나 한층 개방적인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 김제 금산사 일원(전북 김제)
견훤이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넘기려 하자 큰아들 신검이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었다.

▲ 고려의 후삼국 통일

태조 8 (925)	태조 10 (927)	태조 12 (929)	태조 17 (934)	태조 21 (938)	현종 21 (1030)	예종 11 (1116)
신덕(장군) 등 6,200여 명	오흥(공부경) 등 100여 명	정근 등 300여 명	대광현(왕자) 등 수만 명	박승(평민) 등 1,500여 명	거란·발해 유민 500여 명	발해 유민 40여 명

▲ 고려의 발해 유민 포용

2 태조의 정책

942년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낙타 50필을 바쳤다. 그러나 태조는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서 모두 굶겨 죽였다.

태조는 왜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를 굶겨 죽였을까?

학습 목표 | • 태조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 태조가 추진한 북진 정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을 포섭하다

태조는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민심을 얻는 데 노력하였다. 그는 즉위 초부터 군대의 규율을 엄격하게 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자 하였다.

태조는 호족과 그 자제를 우대하는 호족 포섭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는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호족에게 토지와 관직을 나누어 주었다. 또 유력한 지방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왕씨 성을 하사하였다.

한편 태조는 중앙의 고위 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 호족의 자제를 중앙으로 불러 기인으로 삼아 지역 사정에 대해 자문하게 하였다.

태조는 국가의 기반을 굳건히 하고자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고, 후대의 왕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훈요 10조'**를 지어 전하게 하였다.

-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할 것
-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이 다르므로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 것
- 서경을 중요시할 것
-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산·큰 강·용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소홀히 하지 말 것
-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읽어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할 것

▲ 훈요 10조(일부)

탐구 활동 태조의 호족 정책

(가) 태조 18년(935) 신라왕 김부(경순왕)가 항복해 오니 신라국을 없애고 경주라 하였다. 김부를 경주의 □□□으로 삼아 부호장 이하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게 하였다. 여러 공신들에게도 이를 본받아 각기 출신 고을의 □□□으로 삼았다. - "고려사"

(나)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개경에 인질로 삼고, 그 출신 고을의 사정에 대해 자문하게 하였다. 이를 기인이라고 한다. - "고려사"

▲ 경순왕릉(경기 연천)

과제 1 (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과제 2 태조가 (가)와 (나)의 정책을 실시한 목적을 알아보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태조는 건국 직후부터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내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태조는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한 발해의 유민들이 망명해 오자, 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북 지방에 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란의 남하를 막으려 하였다. 이 무렵 거란이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고자 사신을 보내왔다. 태조는 거란을 무도한 나라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후대의 왕들에게도 거란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성을 쌓고 이곳을 **서경**이라 부르며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이러한 적극적인 북진 정책의 추진 결과 태조 말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로 넓어졌다.

사료 돋보기 고려의 북진 정책

(가) 933년에 중국이 보낸 외교 문서에 이르기를 "고려국 왕건은 용맹스러운 자질에 지혜가 특출하며, 장한 포부를 품고 일어났다. 하늘이 신하를 주었고, 국토는 광활하다. 주몽이 건국한 전통을 계승하여 임금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나) 태조 17년(934),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무리 수만 명을 데리고 와서 귀화하였다. 그에게 왕계라는 성명을 주어 왕실 족보에 등록시켰다. 그리고 그에게 배주를 다스리게 하면서 자기 조상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 "고려사"

발해 유민

태조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고구려 계승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려는 고구려 계승을 자처한 발해가 거란에 멸망하자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그리고 발해 멸망 전후부터 12세기 초까지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곳을 쓰시오.

(1)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뒤 수도로 삼은 곳:

(2)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은 곳:

2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태봉 멸망	㉡ 신라 투항
㉢ 발해 멸망	㉣ 후백제 멸망

3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기인 • • ㉠ 중앙 고관에게 자기 고을의 일을 맡김.

(2) 사심관 • • ㉡ 지방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머물게 함.

4 태조 왕건이 지방의 호족 세력을 포섭하고자 시행한 정책을 간단히 쓰시오.

02 통치 체제의 정비와 대외 관계

1 통치 체제의 정비

고려 제4대 임금 광종은 스스로 '짐'이라 부르고 백성에게 '폐하'라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수도 개경을 황도라 부르게 하였으며, 공식 행사에서 천자만이 입는 황포를 입었다.

광종이 스스로 황제라고 부르게 한 배경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광종과 성종 시기의 왕권 강화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 고려 전기에 귀족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왕권을 안정시키다

혜종이 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힘 있는 호족 출신의 외척과 그들이 후원하는 다른 왕자들로부터 왕위를 위협받았다. 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종은 서경 천도를 추진하면서 왕권 강화에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광종이 즉위하면서 고려의 왕권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또 **과거제**를 시행하여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고, 공복 색깔을 정하여 관리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공신과 호족을 과감하게 숙청하였다.

노비안검법
본래 양민이었다가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민으로 해방하여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성종은 **최승로**의 개혁안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은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국자감을 정비하여 유학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사료 돋보기 최승로(927~989)의 개혁안

7조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지방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지방 세력가들이 공무를 사칭하고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어 백성이 견디지 못하니 청컨대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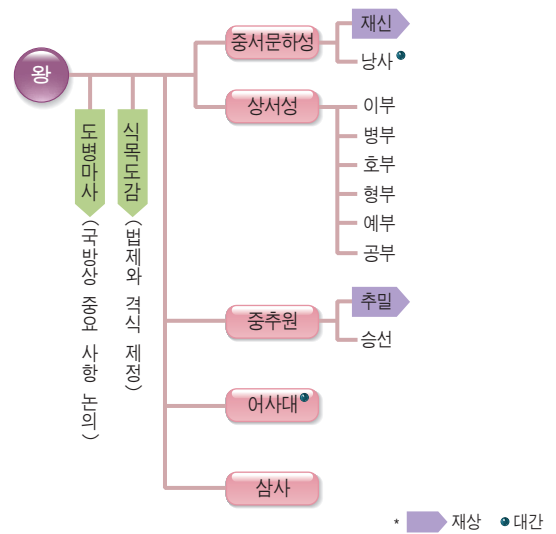
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일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 최승로, '시무 28조' 중

2성 6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다

고려의 중앙 관제는 **2성 6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최고 통치 기구인 중서문하성의 장관인 문하시중은 국정을 총괄하였다. 상서성은 6부를 거느리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또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중추원, 관리의 비리를 조사하는 어사대,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한 삼사 등이 국가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고려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참여하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귀족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중서문하성의 낭사는 왕의 잘잘못을 논하고, 어사대의 관원과 함께 관리의 임명에 동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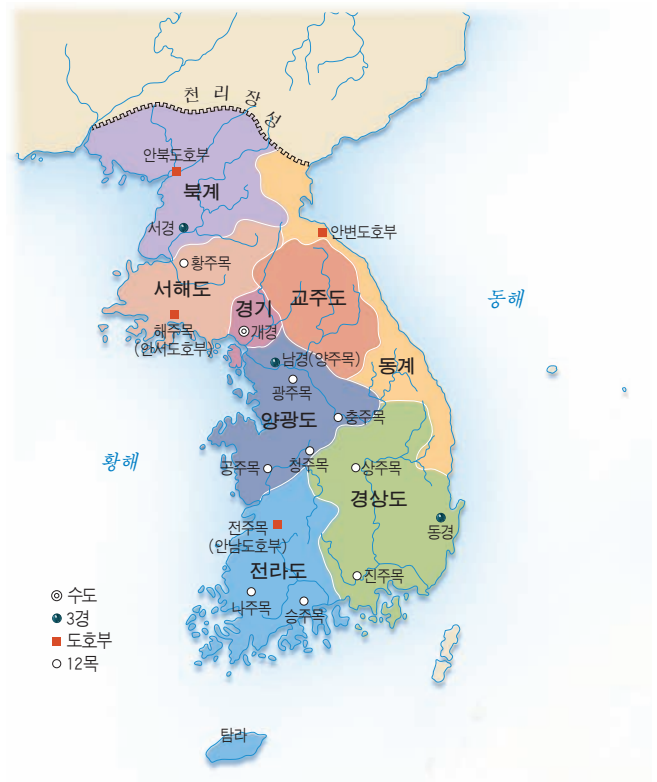
왕
도병마사 (국방상 중요 사항 논의)
식목도감 (법제와 격식 제정)
중서문하성 — 재신, 낭사
상서성 —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중추원 — 추밀, 승선
어사대
삼사
* 재상 ● 대간

▲ 고려의 중앙 정치 기구
고려는 옛 태봉과 신라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 기구를 운영하다가, 성종 때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이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 운영하였다.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다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지방을 직접 다스렸으나, 성종 때 지방 중심지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면서 지방 행정 조직을 갖추어 갔다. 현종 때에는 **경기**와 **5도 양계**의 틀이 정비되었다.

경기는 수도인 개경과 그 주변의 군, 현을 묶은 지역을 말한다. 고려 시대에는 개경과 함께 옛 고구려와 신라의 수도에 서경, 동경을 두어 3경 체제를 형성하였다.

5도는 일반 행정 구역으로 그 아래에 군, 현을 두었으며, 주요 지역에는 목을 설치하였다. 양계는 군사 행정 구역으로 북계와 동계로 이루어졌으며, 그 아래 주, 진 등 군사 행정 기구를 두었다. 그 밖에 군사 요충지에 도호부를 두었고,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 부곡, 소가 있었다.

고려 시대의 군, 현 중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 하였는데 주현보다 속현의 수가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주현의 수령은 속현과 특수 행정 구역까지 관할하였다.

▲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
고려 중기에는 동경(경주) 대신에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소문난 남경(한양)이 중시되었다.

▲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
광종 때부터 시행된 과거제는 실력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다. 무과가 없고, 승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과
식량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토지로서, 관등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되었다.

귀족 중심의 사회가 성립하다

성종 이후 유교적 정치 이념에 따라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새로운 지배층이 출현하였다. 이들은 고려 건국의 중심 세력이었던 호족과 6두품 출신의 자제 중에서 과거를 통해 중앙의 관리가 된 사람들이었다.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로는 과거와 음서 등이 있었다. 관리는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녹봉과 함께 전시과를 받았다.

5품 이상의 관리는 전시과 외에도 **공음전**을 받아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음서**는 왕족이나 공신, 그리고 5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특권이었다. 음서로 관리가 되면 일찍부터 벼슬을 시작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기 쉬웠다.

고려 전기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름 있는 귀족 가문이나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였다.

고려에서는 지방의 향리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과거를 통해 중앙 관리로 진출하여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사회는 엄격한 골품제가 운영되었던 신라 사회보다는 개방적이었다.

지배층의 화려한 생활

전라남도 강진군의 고려 시대 청자 가마터에서 특별한 청자 기와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청자 기와를 얹은 집에 살면서 청자 그릇이나 나전 칠기 등의 공예품을 사용하던 사람들은 고려의 귀족들이었다.

▲ **청자 기와(국립 중앙 박물관)**

고려 시대 귀족들은 주로 수도인 개경에 거주하면서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귀족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비단옷을 입고 금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그리고 별장이나 저택의 내부에 정원을 만들어 두고 연꽃을 감상하거나, 시를 짓고 그림을 즐겼다.

◀ **아집도 대련(호암 미술관)**
고려 시대 귀족의 이상적인 생활을 표현하였다.

2 북방 민족과의 관계

소손녕 너희는 신라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것인데 왜 넘보는가?

서희 아니다. 우리나라는 옛 고구려를 계승하여 나라 이름도 고려라 하였다. 국경으로 본다면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 영토를 침범한 것이다.

소손녕 그럼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 왜 바다 건너 송하고만 교류하는가?

서희는 소손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였을까?

▲ 서희의 외교 담판

학습 목표 | • 고려가 거란의 침입을 막아 낸 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 고려와 여진의 관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다

10세기 초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무렵 만주와 중국의 정세도 크게 변하였다. 만주에서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세력을 확대하였다. 중국에서는 송이 당 이후 전개되던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송과는 친선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물을 교류하였다. 이에 거란은 송과의 전쟁에 앞서 고려를 먼저 공격하였다(993).

▲ **강동 6주와 천리 장성**
고려는 거란의 1차 침입 때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강동 6주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후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국경선에 천리 장성을 쌓았다.

소손녕이 이끄는 거란군이 쳐들어오자 당시 고려에서는 서경 이북 지방을 내주고 화의를 맺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때 **서희**가 외교 협상에 나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주장하고, 여진이 차지한 압록강 동쪽의 땅을 돌려준다면 송과의 관계를 끊기로 약속하였다. 그 결과 거란이 물러났고, 고려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차지하였다.

거란의 1차 침입 이후에도 고려는 송과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때문에 다시 거란의 침입을 받아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으나, 양규 등의 활약으로 이를 물리쳤다. 그 후에도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때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귀주 대첩**, 1019).

▲ **강감찬 동상(서울 관악)**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으며, 거란이 침략하자 70세의 나이로 총사령관이 되어, 귀주에서 거란을 크게 물리쳤다.

고려는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거란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사신을 교환하였다. 이로써 동아시아에서는 송, 거란, 고려가 세력 균형을 이루어 평화가 유지되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 여진 등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쪽 국경 지대에 천리 장성을 쌓고, 개경에는 나성을 쌓는 등 국방을 강화하였다.

나성
강감찬의 제의로 1009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029년에 완성하였다. 개경 전체를 포위하듯 쌓았으며 현재 터만 일부 남아 있다.

여진이 사대를 요구해 오다

여진족은 평안도와 함경도, 만주 등에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들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말이나 짐승 가죽을 바치고 농기구와 식량을 받아 갔다. 하지만 때로는 고려의 국경을 넘어와 식량을 약탈하였다.

11세기 후반 거란(요)이 쇠퇴할 무렵 여진족이 완안부를 중심으로 통일하고 세력을 키워 고려의 국경을 자주 침입하였다. 고려군이 여진족에 맞서 싸웠으나 거듭 패하자,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별무반
여진 정벌을 위해 조직한 임시 군대이다.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으로 이루어졌다.

윤관은 예종 때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 장성을 넘어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다. 그 후 여진은 매년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동북 9성을 돌려 달라고 간청하였다. 고려도 동북 9성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설치한 지 1년 만에 여진에게 돌려주었다.

그 뒤 여진은 금을 세우고 날로 강성해졌다(1115). 금은 요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차지한 후 고려에 사대 관계를 요구하였다. 당시 인종과 여러 신하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였으나, 이자겸 등 집권 세력이 금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탐구 활동 동북 9성의 개척

(가) 윤관이 숙종에게 아뢰었다. "제가 이전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적들은 말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걸으면서 싸운 까닭에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을 편성하였다. - "고려사"

(나) 윤관이 여진을 몰아내고 의주 지역에 성을 쌓았다. 이미 쌓은 함주, 영주, 웅주, 길주, 복주, 공험진을 합하면 9성인데, 이곳에 남쪽 백성들을 옮겨 와 살게 하였다. - "고려사"

▲ 척경입비도(조선 후기 제작)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국경을 알리는 비를 세우는 장면이다.

과제 1 (가)의 빈칸에 들어갈 특수 부대를 써 보자.

과제 2 (나)에서 남쪽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한 이유를 알아보자.

3 고려의 대외 교류

조수가 들고 나니 오가는 배 머리와 꼬리가 잇대었구나.
아침에 이 다락 밑을 떠나면, 한낮이 채 못 되어 돛대는 *남만 하늘에 이르리.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남만: 중국 남쪽의 동남아시아 지역

이규보가 이 시의 소재로 삼은 항구는 어디일까?

▲ 벽란도(상상화)

학습 목표 | • 고려 시대에 개방적인 대외 교류가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벽란도를 중심으로 국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펴다

고려는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무역을 장려하는 등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주변 국가와 교류를 확대하였다.

고려는 송과 활발하게 교역하였다. 고려는 종이, 인삼 등 토산물을 수출하고, 비단, 차, 약재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였다.

고려는 사신, 학자, 승려 등을 송에 보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고려가 초조대장경을 간행하고 청자를 발전시킨 데에는 송 문화의 영향이 컸다.

고려는 거란이나 여진 등 북방 민족의 침입을 경계하면서도, 교류는 꾸준히 유지하였다. 고려는 이들로부터 말이나 모피 등을 수입하고, 식량이나 농기구를 수출하였다. 또 이들과 송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기도 하였다.

▲ 황비창천명 항해도무늬 거울(국립 중앙 박물관)
돛을 올린 배가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모습이 조각된 구리거울로, 고려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도움 글 해상 교류의 발달

고려 시대에는 해상을 통한 국제 교류가 활발하였으니 1975년에 발굴된 신안선이 이를 증명해 준다. 그리고 고려는 해상 운송로가 발달하였는데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배가 그 증거이다.

태안반도 주변 바다는 예로부터 연안 항해를 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조수가 빠르고 간만의 차가 커 침몰 사고가 잦았다.

▲ 신안선 복원 모형
1975년 발굴된 신안선은 중국에서 고려를 거쳐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으로 추정된다. 배에서 많은 도자기와 중국 동전이 발견되어 당시 국제 교역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 준다.

▲ 신안선 출토 동전

◀ 태안선 출토 상감 청자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고려청자와 화물을 실은 난파선이 발견되었다. 이 배는 전라도에서 개경으로 물건을 싣고 가다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

▲ **고려의 대외 교류와 무역품**

고려와 북송을 오가는 항로로 벽란도에서 산둥의 등주로 이어지는 무역로가 발달하였다. 남송 때에는 벽란도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남쪽의 흑산도에 이르러 중국의 명주로 가는 무역로가 이용되었다.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하다

벽란도는 중국, 일본,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벽란도는 수도 개경에서 가까운 예성강 입구에 있었다. 이곳은 수심이 깊어 지방의 조세와 공물을 운반하는 조운선과 국내외 상선이 드나들기에 편하였다.

일본과의 교류는 금주(김해)와 규슈 사이의 민간 교류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상인들은 수은, 향료를 가져와 식량, 인삼, 책 등과 바꾸어 갔다.

대식국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에 드나들며 무역을 하였다. 이들은 계절풍을 이용하여 고려를 찾았는데, 많게는 100여 명이 오기도 하였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벽란도를 통해 개경에 들어와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고 금, 비단 등을 사 갔다. 이들에 의해 고려는 **'코리아'** 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광종, 성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2) (과거, 음서)는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시험 없이 관리를 뽑는 제도이다.

2 다음 중 서로 관계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윤관 •　　　　• ㉠ 귀주 대첩
(2) 서희 •　　　　• ㉡ 별무반 편성
(3) 강감찬 •　　　　• ㉢ 강동 6주 회복
(4) 최승로 •　　　　• ㉣ 시무 28조 건의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고려에는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이 모인 □□□□, □□□□과 같은 회의 기구가 있었다.

(2) 고려는 □□ 때 12목을 설치하여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현종 때 경기와 □□, 양계의 행정 구역이 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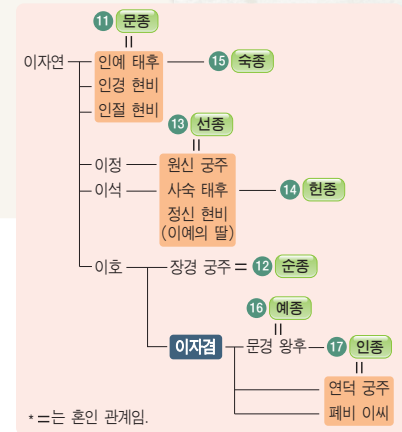
4 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국제 무역항으로서, 아라비아 상인까지 왕래한 곳의 명칭을 쓰시오.

03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

1 무신 정권의 성립

경원 이씨 가문은 오랫동안 왕실의 외척으로 권력을 독점하였다. 특히 이자겸은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 부르게 하였다. '절'이란 황제나 국왕의 생일에 붙이는 칭호였다.

이자겸이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과 권력 기구의 변화를 알 수 있다.

▲ 경원(인주) 이씨 가계도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 문벌 귀족인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에게 딸들을 시집보내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였다. 인종은 이자겸의 권력 확대에 위협을 느끼고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에 이자겸은 왕이 될 야심을 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1126). 이 과정에서 개경의 궁궐이 불에 타고 왕의 권위가 크게 추락하였다. **이자겸의 난**은 진압되었지만 문벌 귀족 사회가 흔들리면서 사회가 불안해졌다.

이자겸의 난으로 궁궐이 불타고, 금의 사대 압력이 거세지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였다. 이 틈을 타 묘청과 정지상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인종에게 서경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왕을 황제로 높여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할 것과 금을 정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짓고 자주 행차하였다.

하지만 개경 세력의 반대로 서경 천도가 어려워지자 묘청 등 서경 세력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 부르며 서경 천도 운동을 일으켰다(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 의해 1년 만에 진압되었다.

▲ 서경(평양)의 대화궁터 출토 유물

무신 정권이 성립하다

▲ 공민왕릉 문·무인 석상(개성)
고려 전기 무신의 최고 관직인 상장군, 대장군은 3품에 그쳤다. 2품 이상의 관직은 문신이 독점하였다. 왕릉에서 조차 무인 석상은 문인 석상 아래에 배치되었다.

고려 전기는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문신 관료에 비해 무신은 상대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 과거 시험에는 무신을 선발하는 무과가 없었고, 군대의 최고 지휘권은 문신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하층 군인도 군 복무의 대가로 받을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무신의 불만은 점점 쌓여 갔다.

문벌 귀족들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겪으면서도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의종은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향락 생활에 빠져들었다.

무신의 불만은 의종의 보현원 나들이에서 폭발하였다. 그동안 문신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던 무신들은 정중부, 이의방 등의 지휘 아래 정변을 일으켜 많은 문신을 제거하였다(1170). 무신들은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세워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 이후 고려에서는 100여 년 동안 무신 정권이 지속되었다.

무신 정권 초기에는 무신들의 집권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무신들은 문신 귀족이나 그들과 가까웠던 교종 계통의 승려들을 제압하고 권력을 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무신 사이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사료 돋보기 문신에게 모욕을 당하는 무신

의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놀러 다녔는데 경치가 좋은 곳에 이르면 수레를 멈추고 경치를 감상하면서 풍월을 읊었다. 어느 날 의종이 보현원으로 가는 도중 대장군 이소응 등에게 *오병 수박희를 시켰다. 이소응은 비록 무신이기는 하지만 늙고 힘이 약해 이기지를 못하였다.

이때 젊은 문신 한뢰가 앞으로 나서며, 이소응의 뺨을 때리니 이소응이 섬돌 아래로 넘어졌다. 이 모습을 보고 왕과 신하들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이에 정중부가 분노하여, "이소응은 비록 무인이지만 벼슬이 3품인데 어찌 그리 욕을 보일 수 있느냐."라며 한뢰를 나무랐다. - "고려사"

*오병 수박희: 다섯 명의 군사가 한 조가 되어 주로 손을 사용하여 겨루는 무예

▲ 수박희

의종은 즉위 초기에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문신들의 반발로 개혁이 좌절되자, 의종은 문신 관료와 더불어 향락에 빠졌다. 당시 무신들은 문신들의 호위병 노릇을 하며 모욕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최씨 무신 정권이 확립되다

무신 정권 초기에 전개된 권력 다툼은 최충헌이 이의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으면서 끝났다. 최충헌은 하층민의 봉기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고 강력한 독재 체제를 갖추었다. 이후 4대 60여 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유지되었다.

최충헌은 권력을 잡자마자 명종에게 '봉사 10조'라는 사회 개혁안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개혁안을 실천할 의지가 없었다. 최충헌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신변 경호를 위한 사병을 양성하고 농장을 넓혀 나갔다.

무신 정권 아래에서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하였다. 종래의 정치 기구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무신들이 설치한 권력 기구가 국가의 중대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신 정권 초기에는 중방이 정치를 담당하다가 최충헌이 집권한 이후에는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다. 한편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관리의 인사를 좌우하였고, 서방을 통해 문신을 정치에 등용하였다. 그리하여 행정 실무에 밝은 문인 관료들이 사대부 계층을 형성해 나갔다.

무신 집권자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병 조직을 두었는데, 이러한 사병 조직으로 **도방**이 있었다. 최씨 무신 정권 때 조직된 삼별초는 사병이면서도 도방과는 달리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중방
무신의 고관인 상장군과 대장군이 모여 군사 문제를 의논하던 기구이다. 무신 집권 초기에 통치 기구의 핵심으로 군사, 형벌을 비롯하여 관리의 인사 문제까지 처리하였다.

삼별초
최우가 설치한 야별초가 확대되어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었고, 여기에 몽골의 포로였다가 돌아온 병사들로 구성된 신의군이 추가되었다.

◀ **무신 정권의 지배 기구**
중방은 2군 6위의 상장군과 대장군의 회의 기구로서 무신 정권 초기에 막강한 정치 기구가 되었다. 그러나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이후 교정도감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무신 정권 시기에 등용된 문인들

이규보(1168~1241)
23살에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을 얻지 못하고 불우한 생활을 하였다. 최충헌을 칭송하는 시문을 지어 문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32세부터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동명왕편'이 수록된 "동국이상국집"과 "국선생전" 등을 저술하였고 다수의 시문을 남겼다.

최자(1188~1260)
1212년 문과에 급제한 이후 10년 동안 관직의 운이 없었다. 최우가 문인으로 뛰어난 인물을 묻자 이규보는 최자를 첫째로 추천하였다. 최자는 추천된 인물 중에서 열 번의 시험 중 다섯 번을 장원하였고, 실무 능력 평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등용되었다. 저서로 "보한집"이 있다.

최씨 무신 정권은 이전의 무신 집권자와는 다르게 문인을 등용하여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우는 서방을 설치하여 문장과 실무 능력이 뛰어난 문인을 등용함으로써 문신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등용된 대표적인 문인들로는 이규보, 최자 등이 있다.

2 농민과 천민의 봉기

노비 만적이 다른 노비에게 말하였다.
"무신이 정권을 잡은 이래 하찮은 노비 출신으로 공경대부가 된 사람이 많다.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누구나 때가 오면 할 수 있다. 어찌 우리만 채찍을 맞으며 힘들게 일해야 하는가?" - "고려사"

만적이 말한 '노비 출신의 최고 무신 권력자'는 누구일까?

학습 목표 | 농민과 천민들이 봉기를 일으킨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무신 집권으로 사회가 동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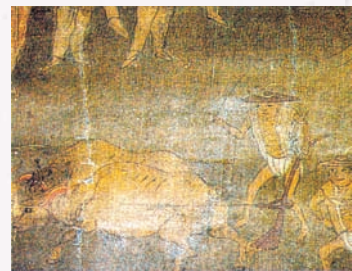
12세기 전반기에 백성들은 귀족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고리대에 시달렸으며, 여진 정벌 등을 이유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였다. 이 때문에 고향을 떠나 떠도는 사람이 많아졌다. 백성의 동요는 무신 집권 이후 더욱 심해졌다.

무신 정권 초기에 무신 상호 간의 권력 다툼이 전개되면서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무신 집권자가 불법으로 농장을 확대하고, 지방관은 이전보다 더욱 가혹하게 백성들을 수탈하여 하층민의 불만이 커졌다. 이와 더불어 하극상 풍조가 형성되어 신분 질서가 해이해졌다.

조위총의 난(1174)
서경 유수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정중부, 이의방을 타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서북 지방 농민들이 대규모로 반란에 가담하였다. 이후 무신 정권 내내 전국 곳곳에서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발생하여 사회가 크게 동요하였다.

탐구 활동 무신 집권 시기 농민의 생활

한평생 일해서 벼슬아치 섬기는 이것이 바로 농사꾼이다.
누더기로 겨우 살을 가리고, 온 하루 쉬지 않고 밭을 가노라.
볏모가 파릇파릇 자랄 때부터, 몇 번을 가꾸어 이삭이 맺었건만
아무리 많아야 헛배만 불렀지, 가을이면 관청에서 빼앗아 가는 걸.
남김없이 몽땅 빼앗기고 나니, 내 것이라곤 한 톨도 없어
풀뿌리를 캐어 목숨을 이어 가다가, 굶주려 마침내 쓰러지고 마는구나.
-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고려 불화에 나타난 농민의 생활 모습 (미륵하생경변상도 일부, 일본 신노원 소장)

과제 1 이규보가 살았던 시기의 집권 세력을 알아보자.

과제 2 무신의 집권 이후 농민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던 이유를 설명해 보자.

농민과 천민이 봉기하다

고려 시대에 부곡이나 소 등 특수 행정 구역 백성들은 일반 군현의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다. 공주 명학소의 주민들은 망이·망소이 형제의 지휘 아래 봉기하여 한때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운문의 김사미와 초전의 효심이 무리를 모아 봉기하여 큰 세력을 이루었다. 이들은 정부의 토벌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고 경상도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오랫동안 무신 정권에 저항하였다. 그 밖에 평양, 경주, 담양에서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각각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부흥을 주장하는 봉기가 일어났다.

무신 집권기에는 이의민과 같은 천민 출신이 관직에 오르고 출세하기도 하였다. 이에 최하층 신분으로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던 공·사노비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하였다.

▲ **무신 정권기 농민과 천민의 봉기**
하층민의 반발은 무신 정권 초기부터 몽골 침입 전까지 60여 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전주에서는 관노들이 가혹한 부역 동원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최충헌의 사노비였던 **만적**은 신분 해방을 주장하며 개경의 노비들과 함께 각자의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기로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인종 때 (이자겸, 김부식)은 왕이 될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2) 묘청 등 서경 세력은 (금 정벌, 금의 사대 요구 수용)을 주장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중방 • • ㉠ 최우가 설치한 사병 기구
(2) 정방 • • ㉡ 무신 정권 초기 회의 기구
(3) 삼별초 • • ㉢ 최충헌이 설치한 최고 기구
(4) 교정도감 • • ㉣ 무신 정권의 인사 행정 담당 기구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공주 □□□에서 망이·망소이 형제가 봉기를 주도하여 한때 충청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2) 경상도에서 운문의 □□□와 초전의 □□이 연합하여 큰 세력을 이루고 봉기하였다.

(3) 최충헌의 사노비 □□은 신분 해방을 주장하며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무신 집권기에 하층민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배경을 간단히 쓰시오.

04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1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항쟁

▲ 홍릉(인천 강화)
고려 고종(재위 1213~1259)의 능

임시 수도로서의 조건
1. 수전(水戰)에 약한 몽골군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
2. 개경과 가깝고 지방과의 연결 혹은 조운(漕運) 등이 매우 편리한 곳

이 같은 조건으로 당시의 집권자 최우가 수도로 옮긴 곳은 어디일까?

학습 목표 | 몽골과의 항쟁 과정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되다

13세기에 들어 칭기즈 칸이 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금을 공격하며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때 금에 복속되어 있던 거란이 몽골에게 쫓겨 고려에 침입하였는데, 고려는 몽골과 연합하여 강동성에서 거란을 물리쳤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몽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다루가치
관청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몽골어이다. 몽골은 점령지 또는 항복한 나라에서 공물을 거두고 정치에 간섭하였다.

하지만 몽골이 고려를 복속국으로 취급하고 지나치게 많은 공물을 요구하여 양국 사이에 갈등이 커졌다. 그러던 중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압록강 부근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양국의 국교가 끊어지고 긴장이 감돌다 결국 몽골이 고려에 침입하였다(1231).

몽골이 침입하자 귀주 등 서북 지역의 여러 성들이 필사적으로 항전하였다. 그러나 고려 정부는 개경이 포위되자 일단 몽골과 강화를 맺었다.

이어 당시 무신 집권자인 최우는 몽골과의 장기 항전에 대비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다(1232). 그리고 백성에게는 섬이나 산성으로 들어가 몽골에 대항할 것을 지시하였다.

▲ 고려의 대몽 항쟁

삼별초가 끝까지 항전하다

고려의 강화도 천도를 이유로 몽골이 다시 침입하자 승려인 김윤후가 처인 부곡민과 함께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하여 물리쳤다. 그 후 몽골군은 금을 정복한 다음 여러 차례 고려를 침략하였다.

전국을 휩쓴 몽골의 침략에 맞서 고려군과 백성은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하지만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많은 백성이 죽거나 끌려갔다. 또한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 판목과 경주의 황룡사 9층탑도 불타는 피해를 입었다.

대장경 판목
대구 부인사의 대장경판이 불타자, 최씨 정권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고자 강화도에서 새로운 대장경을 조판하였다.

오랜 전쟁에 지친 고려 조정에서는 몽골과 화의를 맺자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던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몽골과의 강화가 추진되었다. 결국 당시 태자였던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 고려의 독립 유지를 약속받고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였다.

몽골과의 전쟁은 중단되었으나 개경 환도는 무신의 반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무신 집권자가 피살되면서 고려 정부는 개경 환도를 결정하였다(1270).

▶ 강화성 동문

하지만 대몽 항쟁에 앞장섰던 **삼별초**는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삼별초는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 가며 치열하게 항전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다.

▲ 용장산성(전남 진도)과 항파두리 대몽 항쟁 기념비(제주도)
삼별초는 봉기한 후 왕족인 승화후 왕온을 왕으로 세우고 별도의 정부를 구성하였다. 삼별초는 한때 남부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세력을 크게 떨쳤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승병장 김윤후

1232년 몽골군이 침입하자 김윤후는 처인성(경기 용인)에서 부곡민을 이끌고 몽골군에 맞서 싸워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활로 쏘아 죽였다.

1253년 김윤후는 충주성의 별감으로 있었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다. 그는 성안의 식량이 떨어져 위태롭게 된 상황에서 “만일 힘을 다하면 귀천 없이 모두 관작을 제수할 것이다.”라고 하며 노비 문서를 불살랐다. 이에 모두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 마침내 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 처인성 전투 기록화

2 공민왕의 반원 자주화 노력

▲ 고려 후기 관리(이조년)의 초상화(경상대 박물관)

고려 후기 고위 관료들은 몽골의 풍속에 따라 머리를 깎고 원에서 유행한 모자인 발립을 썼다. 그리고 위아래를 따로 재단하여 붙인 철릭을 입었다.

고려 후기에 몽골의 풍속이 유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학습목표 | • 원 간섭기에 성장한 권문세족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공민왕이 전개한 반원 자주화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을 파악할 수 있다.

원에게 내정 간섭을 받다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국가 체제와 고유의 풍속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원의 내정 간섭으로 자주성이 크게 손상되었다.

고려는 원의 요구에 따라 일본 원정을 준비하고 동원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두 차례에 걸친 원의 일본 정벌은 실패하였지만, 전쟁을 위해 원이 설치한 **정동행성**은 계속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은 고려의 북부 지역에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설치하여 직접 다스리는 한편, 제주도에 탐라총관부를 두어 말 농장을 운영하였다.

원 간섭기에 고려의 왕자는 원에서 성장하였고, 원의 풍습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원의 공주와 결혼한 후 고려에 돌아와 왕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고려 왕실의 호칭과 중앙 관제의 격이 낮아졌다.

원 간섭기에는 고려와 원의 문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원의 궁중에서는 고려의 떡이 만들어지고 고려의 음악이 울려 퍼졌으며, 고려 지배층 사이에서는 몽골의 풍속이 유행하였다.

우리의 전통 혼례 때 쓰는 족두리나, 장사치 등 '치'가 들어간 용어는 몽골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왕실에서는 왕비가 원의 공주였기에 마마(궁중 어른의 존칭), 수라(임금의 음식), 무수리(궁녀)와 같은 몽골 어가 궁중 용어로 사용되었다.

◀ 철릭

▲ 족두리

△ 조랑말

고려는 원에 해마다 금, 은, 인삼, 매 등 특산물을 공물로 바치고 원이 요구하는 환관과 공녀를 보내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원에 들어간 공녀 중에는 원 순제의 황후가 되어 태자를 낳은 기황후가 있었다. 기황후는 고려의 정치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기철 등 기씨 세력의 권세가 고려 국왕을 능가할 정도였다.

공녀
원 간섭기에 원에 끌려간 여성을 말한다. 공녀들은 원에서 궁녀나 높은 관리의 시중을 드는 시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에 공녀로 끌려간 여자들 중 극히 일부는 원의 황실이나 고관의 부인이 된 경우도 있었다.

권문세족이 성장하다

원 간섭기에 원을 배경으로 출세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그들 중에는 몽골어 통역관이나 환관 혹은 매를 길러 바치는 응방의 관리들이 많았다. 그리고 원에서 고려의 왕자를 돕던 사람들도 귀국하여 높은 관직에 등용되었다. 이렇게 원 간섭기에 등장한 친원 세력은 전통적인 문벌, 무신 정권 시기에 등장한 가문 등과 함께 고려 후기의 새로운 지배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한다.

▶ 매사냥

권문세족은 세력이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을 맺었다. 이들은 음서를 통해 관직을 차지하였고, 도평의사사 등 정계의 요직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또한 권력과 부를 이용하여 거대한 농장을 경영하였다. 이 때문에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었고,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도평의사사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던 도병마사에서 이름을 바꾼 기구이다. 이전에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일을 다루던 것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고려 후기 최고 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충선왕과 충목왕은 권문세족의 횡포를 바로잡고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개혁 정치를 시도하였다. 이들의 개혁은 원의 간섭과 권문세족의 반발로 힘 있게 추진되지 못하였다. 결국 왕권을 뒷받침할 세력의 성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개혁은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진 관료가 성장해 나갔다.

사료 돋보기 권문세족의 대농장 확대

권문세족 중에는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노비를 시켜 물푸레나무로 때리고 땅을 빼앗는 경우가 많았다. 땅 주인이 비록 관가에서 인정한 정식 소유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항변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물푸레나무 몽둥이가 공식 문서와 같다고 하였다. - "고려사절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토지 문서가 불타 없어져 소유자의 확인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권문세족은 개간을 통해 토지를 늘리기도 하였지만,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것으로 꾸며 농민의 토지를 빼앗는 일이 많았다. 그 결과 고려 후기에 권문세족이 차지한 농장은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 공민왕의 영토 회복

▲ 공민왕릉(개성)
고려의 왕릉으로는 유일하게 쌍릉으로 조성되었다. 무덤 사이에서 '영혼의 길'로 여겨지는 주먹만 한 크기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공민왕의 왕비(노국 대장 공주)는 원의 공주였으나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공민왕이 반원 자주화 개혁을 추진하다

14세기 중엽에 이르러 원이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왕위에 오른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공민왕은 변발과 같은 몽골의 풍속을 금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원래대로 회복시켰다. 그리고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였다. 또 원의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동행성을 없앴으며,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였다.

공민왕은 내정 개혁에도 힘써 정방을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양인으로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고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할 신진 세력을 키우고자 성균관을 개편하였다.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백성의 환영을 받았으나, 땅과 노비를 빼앗긴 권문세족들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공민왕은 신돈의 권력이 왕위를 넘볼 정도로 커지자 그를 제거하였다. 이어 공민왕까지 시해당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고, 권문세족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었다.

탐구 활동 신돈,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신돈이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국에 알렸다.

"근래 기강이 무너져 탐욕이 풍속으로 되었다. 권세가들이 종묘, 학교 등의 토지와 백성들의 땅을 거의 다 빼앗았다. 이들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평민을 노비로 삼고 부역을 피해 도망한 농민을 노비로 삼고 있다. …… 이제 도감을 설치하고 바로잡고자 한다. …… 스스로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이 지나 일이 발각된 자는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며, 무고한 자는 그 벌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명령이 나오자 힘 있는 자들이 빼앗은 많은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므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 "고려사"

▲ 신돈

과제 1 신돈의 개혁으로 타격을 받은 세력을 써 보자.

과제 2 신돈이 실시하고자 한 개혁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

3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1383년 정도전은 동북면(지금의 함경도 함흥)에 있던 이성계를 찾아갔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대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합니다. 이런 군사를 가지고 무슨 일인들 못 하겠습니까?"

이성계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

학습 목표 | • 신진 사대부의 성장 배경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신흥 무인 세력이 등장한 배경과 위화도 회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다

고려 후기에는 유교적 지식을 갖춘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공민왕의 개혁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을 신진 사대부라고 한다.

신진 사대부는 대부분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의 자제들로서 자기 고향에 토지를 소유한 중소 지주였다. 이들은 주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원을 통해 들어온 **성리학**을 받아들여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고 고려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무렵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저지한 후 더욱 횡포를 부렸다. 심지어 이들은 신진 사대부들이 국가에서 받은 토지마저 빼앗기도 하였다. 이에 신진 사대부는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며 대립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대하고,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권을 잡은 후 개혁의 방향을 놓고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신진 사대부의 분열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몽주가 있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도전이 있다.

▶ 정몽주

◀ 정도전

▲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홍건적과 왜구가 침입하다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던 시기에 고려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홍건적은 원이 쇠약해진 틈을 타 일어난 한족의 반란군으로서, 원의 토벌에 밀려 두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한때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복주(경북 안동)로 피란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왜구는 쓰시마 섬과 규슈에 근거지를 두고 해안 지방에 자주 침입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왜구는 우왕 때 더욱 극성을 부려 충청, 전라, 경상의 해안가 백성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다. 또 조세 운송이 어려워지면서 국가 재정도 큰 타격을 받았다. 나아가 왜구는 개경을 위협하고 내륙 지역까지 침입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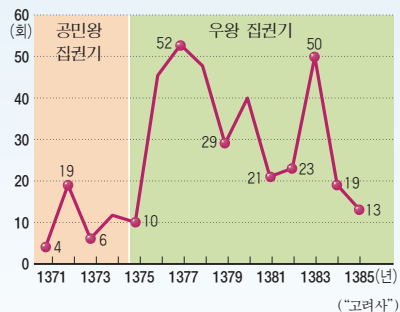
▲ 중국인이 묘사한 왜구의 모습(일본 도쿄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다

고려는 적극적으로 왜구 토벌에 나섰다. **최영**은 홍산(충남 부여)에서, **이성계**는 황산(전북 남원)에서 각각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금강 입구의 진포에서 왜구의 배 수백 척을 불태우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또 박위는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무인 세력 중에는 최영과 같은 명문가 출신도 있었지만, 이성계와 같이 변방에서 활약하다가 점차 중앙에 진출한 신흥 무인 세력이 많았다. 이들은 신진 사대부와 함께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며 고려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여·원 연합군의 원정 이후 정치가 혼란해졌다. 이 틈을 타 중앙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지방 세력과 무사들이 고려와 중국 연안을 침략하여 노략질을 하였는데, 이들을 왜구라고 한다.

왜구는 주로 세금을 운반하는 배와 곡식을 저장하는 조세 창고를 습격하였지만, 때로는 고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몸값을 요구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기기도 하였다. 왜선은 많게는 200척에서 500척의 규모로 고려의 해안을 침입하였다.

▲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

이성계,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14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명이 건국되어 원을 북쪽으로 몰아냈다. 이에 고려는 명과 친선 관계를 맺는 한편, 원에도 사신을 파견하며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후 우왕 때에는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 등이 친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문세족 및 최영 등과 대립하였다.

이 무렵 명은 고려가 원으로부터 되찾은 철령 이북 지역을 지배하겠다며 철령위 설치를 통보해 왔다. 우왕과 최영은 명의 요구를 거부하고 명이 차지하고 있던 요동 지방의 정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하였다.

결국 요동 정벌이 추진되어 이성계는 우왕의 명에 따라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향해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성계는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하였다. 이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한다(1388).

이성계는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제거한 후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후 이성계 일파는 정도전, 조준 등 급진파 신진 사대부와 손을 잡고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 위화도 회군
이성계 등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할 수 없으며, 여름철이라 전염병이 돌 수 있고, 농사에도 지장을 주며, 그 사이 왜구가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며 요동 정벌에 반대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원 간섭기에 친원파인 (권문세족,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였다.

(2) 공민왕은 (신돈, 정도전)을 등용하여 토지와 노비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최우 • • ㉠ 강화도 천도

(2) 김윤후 • • ㉡ 위화도 회군

(3) 이성계 • • ㉢ 처인성 전투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원 간섭기에 등장한 개혁 세력을 □□ □□□라고 한다.

(2) 공민왕은 반원 자주화 개혁을 시도하며 □□□□□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 지역을 회복하였다.

(3) 왜구와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 세력이 성장하였다.

4 최씨 무신 정권이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고자 조판한 것을 쓰시오.

05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1 불교와 다양한 사상의 발달

▲ 파주 용미리 마애 이불 입상(경기 파주)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는 거대한 절벽을 몸체로 한 17m 크기의 석불이 있다. 이 불상은 바위를 다듬어 만든 것으로서, 바위 면에 몸체를 새기고 몸체 위에는 목과 머리, 갓을 따로 만들어 올렸다. 인체 비례는 맞지 않으나 웅장하고 당당한 느낌을 준다.

고려 시대에 거대한 불상을 조성하였던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고려 시대 불교 사상의 변화와 불교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고려에 성리학이 도입된 과정과 역사서의 서술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의천(전남 순천)
의천은 이론 연구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주장하였다.

불교 사상이 발전하다

고려 초기 불교계는 교종과 선종이 함께 발전하는 가운데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하였다. 이에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다.

무신 정변 이후 문벌 귀족의 후원을 받던 교종이 쇠퇴하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선종이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고려 후기 송광사를 중심으로 조계종이 크게 일어났다.

고려 시대에는 도교나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이 유행하였다. 국가는 도교 행사인 초제를 지내며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또한 풍수지리설이 크게 유행하여 수도나 집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일반 백성은 마을을 지키는 서낭당이나 무당을 통해 현세에서 복을 받고자 하였다.

▲ 송광사(전남 순천)
선종의 중심 사찰이 되었다.

◀ 지눌(전남 순천)
지눌은 참선과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불교문화가 발전하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폈고, 왕실과 귀족들이 불교를 후원하여 다양한 불교문화가 꽃피었다. 국가에서는 연등회를 비롯한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지방 문화가 발달하여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같은 웅장한 분위기의 거대한 석불이 많이 만들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호족 세력의 후원으로 대형 철불이 제작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불화도 많이 제작되었다.

▲ 안동 봉정사 극락전(경북 안동)

석탑은 신라의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다각 다층탑**이 등장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송의 영향을 받아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건립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세워졌다. 그리고 선종이 유행하면서 고승들의 묘탑인 **승탑**이 많이 제작되었다.

13세기 이후에 건축된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목조 건축물은 고려 전기에 유행한 배흘림기둥 양식을 계승하여 안정감이 뛰어나며, 주심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배흘림기둥 양식
건물 기둥의 중간을 굵게 하고 위와 아래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한 기법이다.

주심포 양식
건물 기둥머리 위에만 공포를 얹어서 지붕의 무게가 기둥에 집중되도록 한 건축 양식이다.

▲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 (국립 중앙 박물관)

▲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국립 중앙 박물관)

▲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강원 평창)

▲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충남 논산)

▲ 안향

유교로 나라를 다스리다

고려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는 가운데 유교는 국가 통치 이념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 교양을 갖춘 자를 관리로 등용하면서 유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성종은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사상으로 삼고, 개경에는 국자감을 세우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쳤다.

원 간섭기에 충렬왕을 따라 원에 갔던 **안향**은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소개하였다. 충선왕은 원의 수도에 만권당을 세워 고려와 원의 학자가 서로 교류하게 하였는데, 이제현은 이곳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이색이 성균관에서 정몽주, 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에게 성리학을 전하여 널리 확산시켰다.

▲ "삼국사기"

역사서를 편찬하다

유학의 발달은 역사서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왕조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인종 때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무신 집권기와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민족적 자주 의식이 반영된 역사서들이 편찬되었다. 이규보는 주몽의 일대기를 다룬 '동명왕편'을 썼고,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서술하였다.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단군 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기록하였다.

고려 시대의 역사 서술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삼국사기"는 묘청의 난 이후 인종 때 유학자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삼국의 정치와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록한 역사서이다. 설화나 신화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으며 신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삼국유사"는 충렬왕 때 승려 일연이 고조선부터 삼국까지 신화와 전설, 불교와 관련된 내용 등을 개인적으로 저술하였다. 또 단군 이야기를 서술하였고 가야와 발해의 역사도 다루었다.

과제 1 김부식이 설화나 신화를 다루지 않은 이유를 말해 보자.

과제 2 "삼국유사"가 편찬될 당시 고려의 상황에 대하여 발표해 보자.

2 예술과 과학의 발달

송의 사신 서긍은 고려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고려인은 빛깔이 푸른 것을 비색이라고 한다. 근년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색깔이 더욱 좋아졌다." - "고려도경"

중국에서도 명품으로 인정되던 고려청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

학습 목표 | • 고려 시대 귀족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고려 시대 인쇄술과 과학 기술의 발전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청자 투각 칠보문 뚜껑 향로(국립 중앙 박물관)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하다

▲ 감지금니 대방광불 화엄경 사경(호림 박물관)
최고급 감색 종이에 금가루로 화엄경을 쓴 것이다.

고려 시대에는 귀족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와 공예품이 발달하였다. 세련된 귀족 문화를 보여 주는 공예품으로는 옻칠을 한 바탕에 얇은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내는 나전 칠기와 비취색의 청자가 대표적이다.

고려청자는 귀족 사회의 전성기인 11세기에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순청자로 발전하였다. 12세기 중엽에는 상감 기법을 도입하여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상감 청자가 발달하였다. 고려 말기에는 짙은 녹갈색이나 청록색을 띤 소박한 분청사기가 유행하였다.

고려 귀족 문화의 특징은 한문학과 미술, 음악, 그림 등의 예술 분야에서도 잘 드러났다. 고려 귀족들 사이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불경을 베껴 쓰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 고려 후기에 그려진 불화는 귀족들이 꿈꾸던 이상 세계를 호화롭고 정교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다.

도움 글 **상감 청자의 발달**

도자기에 상감 기법을 사용한 것은 고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상감'이란 건조된 그릇의 표면에 무늬를 새겨 파내고 다른 색의 흙으로 정교하게 메워 색과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이다. 전라도 강진과 부안 지역에서 생산된 상감 청자는 강화나 개경 등 중앙으로 보급되었다. 청자로 만든 것으로는 찻잔, 주전자, 화병, 항아리 등 일상용품이나 향로, 정병 등 불교 의식 도구, 벼루나 연적과 같은 문방구 등이 있다.

▶ 고려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간송 미술관)
상감 기법을 사용하여 구름과 학 무늬를 넣었다. 매화를 꽂는 화병으로 이용되었다.

인쇄술이 발달하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와 유교가 발달하면서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다. 또한 과거가 실시되면서 유교 교육에 필요한 서적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목판 인쇄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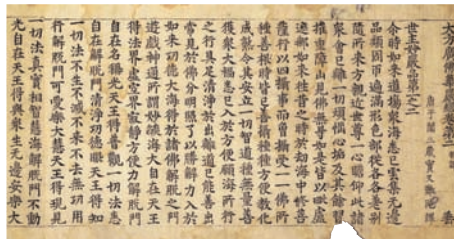
고려 시대에는 국가가 불교를 장려하면서 불경도 활발하게 간행되었다. 특히 불경을 모아 편찬한 대장경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경**은 고려 시대에 발달한 목판 인쇄술의 최고 수준을 보여 준다.

고려 시대에는 거란, 몽골 등 외적의 침입으로 대장경을 비롯한 여러 서적이 불타 없어졌다. 이에 강화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다양한 책들을 새로 편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목판 인쇄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가 발명되었다. 금속 활자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하는 측면에서 목판보다 유리하였다.

한편 인쇄술의 발달과 더불어 종이와 먹을 만드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고려의 종이와 먹은 중국으로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초조대장경 인쇄본(호림 박물관)과 팔만대장경판

▶▶ 팔만대장경(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여 개의 경판으로 이루어져 팔만대장경이라 부르며,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여 재조대장경이라고도 한다.

고려의 금속 활자

고려 시대에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인쇄한 최초의 책은 몽골과의 전쟁 기간 동안 간행된 "상정고금예문(1234)"이다. 이 책은 서양의 금속 활자 인쇄본보다 200여 년 앞선 것이었으나 현재 전해지지는 않는다.

대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 "직지심체요절"(프랑스 국립 도서관)

화약을 제조하고 목화를 재배하다

고려 말에는 왜구가 자주 침입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최무선**은 왜구를 물리치고자 화약 제조법을 익히고, 화통도감의 책임자가 되어 화약과 화포를 만들었다. 이때 만든 화포는 작고 빠른 왜구의 배를 격퇴하는 데 적합하였다. 최무선은 이 화포를 이용하여 진포(금강 하구)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쳤다.

▲ 대장군포(복원품, 육군 사관 학교)
최무선은 화포를 사용하여 진포에서 왜선 500여 척을 격파하였다.

한편 고려 말 **문익점**은 공민왕 때 원에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가져와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다. 목화는 모시나 삼베를 입던 백성들의 환영을 받아 널리 퍼져 나갔다.

사료 돋보기 목화의 전래

문익점이 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화를 보고 씨 10개를 따서 가지고 왔다. 1364년 진주에 와서 절반을 장인인 정천익에게 주어 심어서 기르게 하였으나 단 한 개만 살아남았다. 가을에 정천익이 그 씨를 따니 100여 개나 되었다. - "태조실록"

목화 열매에는 가는 털 모양의 솜이 있다. 이 솜을 물레를 이용하여 실로 가공하고, 이 실을 베틀에서 옷감으로 짜면 무명이라 부르는 면포가 된다. 면포는 땀을 잘 흡수하고 보온성이 뛰어나 의복 재료로 사랑을 받았다.

▲ 목화 열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김부식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편찬하였다.

(2)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이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의천 • • ㉠ 목화 전래
(2) 지눌 • • ㉡ 천태종 창시
(3) 문익점 • • ㉢ 화통도감 설치
(4) 최무선 • • ㉣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고려 후기에는 원의 영향을 받아 개성 □□ □□ □□ 석탑이 제작되었다.

(2) 12세기 중엽 고려에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 청자가 발달하였다.

(3) 원 간섭기에 충선왕은 원의 수도에 도서관인 □□□을 세워 고려와 원의 학자가 교류하게 하였다.

4 고려 후기 원에서 전래되었으며, 신진 사대부가 수용하면서 널리 확산된 유학의 갈래를 쓰시오.

대단원 마무리

고려의 후삼국 통일

〈 고려의 건국 〉
- 궁예의 강압 정치 → (❶)이 왕으로 추대
- 후삼국 통일: 발해 유민 포용, 민족 재통합

〈 태조의 정책 〉
- 민심 수습: 세금 경감
- 호족 포섭: 관직·성씨 하사, 혼인 정책
- 북진 정책: 평양 중시, 북쪽 영토 회복

통치 체제 정비와 대외 관계

〈 통치 체제 정비 〉
- 광종: 노비안검법, 과거제
- 성종: 중앙 집권 체제 정비

〈 통치 체제 〉
- 중앙: 2성 6부, (❷), (❷)
- 지방: 5도 양계

〈 대외 관계 〉
- 거란: 서희의 담판, 귀주 대첩
- 여진: 별무반, 동북 9성
- 벽란도: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

무신 정권과 하층민의 봉기

〈 무신 정권 〉
- 문벌 귀족 사회 동요 → 무신 정변
- 최씨 무신 정권: (❸), 정방 설치

〈 농민, 천민의 봉기 〉

김사미·효심의 봉기, 망이·망소이의 난, 만적의 신분 해방 운동

대몽 항쟁과 반원 자주화 노력

〈 몽골과의 항쟁 〉
- 강화도 천도
- 팔만대장경 조판
- 하층민의 저항
- (❹)의 항쟁

〈 원 간섭기의 고려 〉
- 내정 간섭: 정동행성
- 권문세족 성장
- 공민왕의 개혁: 몽골풍 금지, 쌍성총관부 회복

〈 새로운 세력의 성장 〉
- (❺): 성리학 수용, 개혁 주장
- 신흥 무인 세력: 홍건적, 왜구 격퇴 과정에서 성장

불교문화와 귀족 문화

구분	내용
사상	• 불교: 교종과 선종 통합 노력 → 의천(천태종), 지눌(조계종) • 유교: 국가의 통치 이념, 국자감·향교 설립, 성리학 수용
역사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연의 “삼국유사”
예술과 과학	• 귀족 문화: 청자 발달(순청자, 상감 청자), 한문학 발달, 불화 유행 • 인쇄술: 목판 인쇄술(팔만대장경), 금속 활자(“ ❻ ”) • 화약 제조와 목화 재배: 최무선(화통도감), 문익점(목화 도입)

생각의 열쇠

❶ 송악 출신의 호족으로 궁예의 밑에서 활약하다가 고려를 건국하였다.
❷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이 모여 회의를 통해 국가의 주요 업무를 결정한 두 개의 기구이다.
❸ 최충헌이 만든 것으로 최씨 무신 정권 이후 최고 권력 기구가 되었다.
❹ 무신 정권의 사병 기구였으나 몽골에 맞서 끝까지 항전하였다.
❺ 고려 말 새롭게 진출한 관료로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며 개혁을 추진하였다.
❻ 1377년 청주에서 간행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다.

◎ 다음은 '고려의 대외 항쟁'을 주제로 작성된 가상의 역사 신문이다.

역사 신문

강동 6주를 획득하다!

거란의 소손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가) 는 외교 협상을 주장하였다.
결국 (가) 의 외교 담판으로 고려는 압록강 동쪽의 강동 6주를 차지하였다.

동북 9성 축조

여진족이 국경을 자주 침입함에 따라 (나) 은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예종 때 (나) 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고 국경을 알리는 비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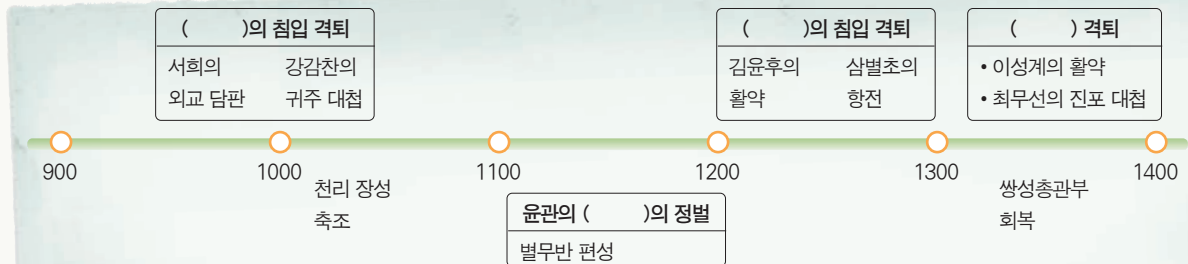
몽골군을 물리치다!

몽골군이 침입하자 승병장 (다) 는 농민군을 이끌고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활로 쏘아 죽였다. 그 후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였을 때에도 이들을 무찔렀다.

왜구 토벌의 일등 공신

1380년 (라) 는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찔러 이후 왜구의 침입이 크게 줄었다. 1577년 이 전투를 기념하고자 황산 대첩비를 세웠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파괴되었다가 1977년에 다시 복원하였다.

1 (가)~(라)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을 써 보자.

2 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고려의 대외 항쟁 관련 연표이다. 빈칸을 채우고 고려의 대외 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발표해 보자.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여러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등 민족 문화가 발달하였다. 16세기에는 사림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붕당 정치가 실시되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확립되었다. 16세기 말 이후 조선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혼란에 빠졌으나 이를 극복하였다.

	1300년경	1400년경	1500년경
한국	1392 조선 건국 1394 한양 천도	1446 훈민정음 반포 1485 경국대전 완성	1592 임진왜란(~1598)
세계		1405 정화의 항해 시작(~1493) 1453 비잔티움 제국 멸망	1517 루터의 종교 개혁 1590 일본, 전국 시대 통일 1526 인도, 무굴 제국 성립

경복궁 근정전(서울 종로)

1600년경

1623 인조반정　1627 정묘호란　1636 병자호란

1616 후금 건국　1618 독일, 30년 전쟁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02 민족 문화의 발달

03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

0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

1 조선의 건국

▲ 서울 흥인지문(서울 동대문)

옛날에는 양주 고을이여, 새 도읍의 지세와 풍경이 빼어나도다.
개국 성왕께서 태평성대를 이룩하셨도다.
도성답도다! 지금의 경치가 참으로 도성답도다!
임금께서 만수무강하시니 온 백성의 기쁨이로다.
앞은 한강수요, 뒤는 삼각산이라.
덕이 많으신 이 강산 사이에서 만세를 누리소서. – 정도전, '신도가'

사대부 세력이 새로 도읍을 정한 곳은 어디일까?

학습 목표 | • 사대부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유교에 따라 조선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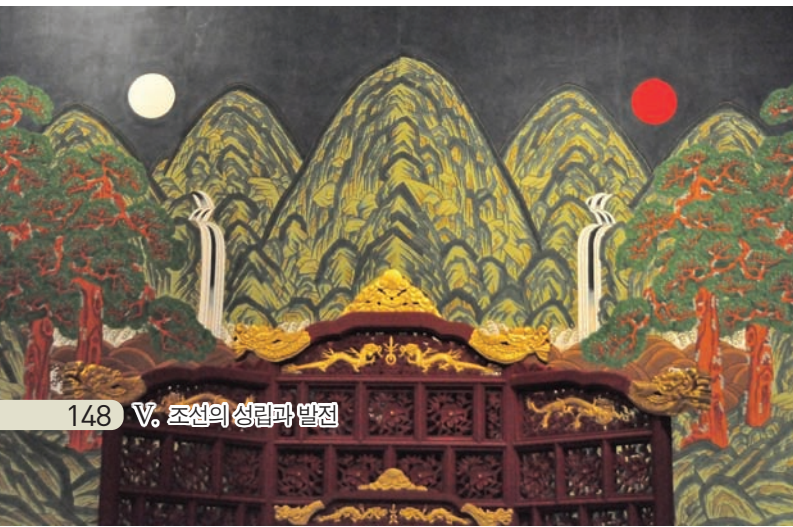
조선이 건국되다

정도전과 조준 등 급진파 사대부는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손을 잡고 위화도 회군 이후 고려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과전법**을 실시하여 권문세족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새 왕조의 개창을 주장한 급진파 사대부는 정몽주 등 고려 왕조에 충성을 맹세한 온건파 사대부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1392).

과전법
경기 일대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을 관료들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태조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교통과 국방의 요지인 한양에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와 사직, 관아, 시전 등 여러 시설을 건설하여 도읍의 기틀을 다졌다.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사대부들은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왕에게 덕치를 강조하였으며, 백성들에게 유교적 생활 규범을 따를 것을 권장하였다.

◀ 일월오봉도
주로 용상 뒤에 놓인 그림으로서 왕권을 상징하며,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뜻에서 제작되었다.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

태종은 정도전 등 개국 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사병을 없애 군사 지휘권을 장악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강화하였다. 나아가 **호패법**을 실시하고, 토지를 측량하여 조세 징수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세종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추구하였다.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국왕이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는 의정부에 맡겨 재상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또한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 세종 대왕 동상(서울 종로)

수양 대군(세조)은 나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계유정난).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집현전을 폐지하고 경연을 열지 않았으며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였다. 또한 조세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늘리고 군사 제도를 고쳐 국방을 강화하였다.

경연
왕과 신하가 모여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정책을 협의한 제도이다. 유교 정치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실시하였다.

성종은 건국 이후의 문물제도를 정리한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또한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열어 유교 정치에 입각한 통치 체제의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탐구 활동 국가 재정의 확보

자료 1 양전(토지 측량) 실시

> 지난날 각 도에서 토지를 측량한 것이 고르지 못하여 수확이 있는 곳은 조세를 면하고, 수확이 없는 곳이 도리어 조세를 바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도의 토지를 모두 측량하여 묵은 땅과 개간된 땅까지 모두 장부를 만들어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토지 측량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한 관리는 그 죄를 논하도록 하소서. - "태종실록"

자료 2 호패법 실시

- 호패를 나누어 줄 때 '어느 면, 어느 리, 호주명 누구'라 하고 장부에 올리게 하라.
- 호패를 받은 뒤에 차지 않은 자와 호패를 잃어버린 자는 몽둥이 50대를, 빌려서 찬 자와 빌려 준 자는 모두 곤장 80대를 때리게 하라.
- 나이 16세 이상은 관청에 알려 호패를 받는 즉시 호적에 등록시켜라. - "세조실록"

▲ 호패
오늘날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지녀야 했다.

과제 1 조선 정부가 양전 사업을 실시했던 이유를 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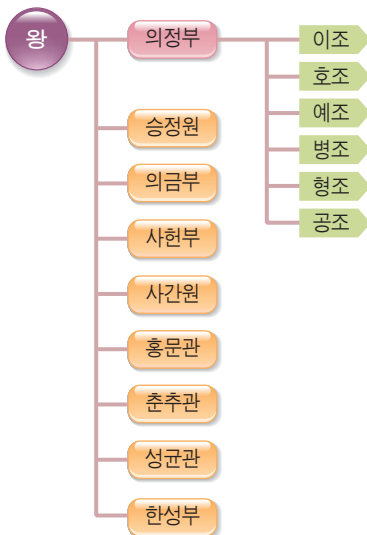
과제 2 조선 정부가 호적을 작성하고 백성에게 호패를 착용하도록 한 목적을 알아보자.

2 통치 체제의 정비

▲ 1890년대 광화문과 육조 거리

하늘 높이 솟은 궁궐 깊숙하기도 하고
별들이 벌여 있듯 새 관청들 많네.
사헌부와 의정부는 그중에도 맑고 화려해
마주 서서 보는 모습 우람하고 높구나. – 권근, "동국여지승람"

사헌부와 의정부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

학습 목표 | •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중앙 정치 제도가 정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가 고려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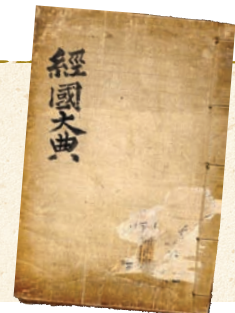
의정부와 6조를 설치하다

조선의 중앙 정치 제도는 **의정부**와 6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이루어진 3정승이 합의하여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관부였다. 6조는 국가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정부와 의논하였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으로 이루어진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여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였다. 의금부는 왕명으로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고, 승정원은 왕의 명령을 발표하거나 상소문을 왕에게 전달하였다.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였으며, 성균관은 유학 교육을 담당하였고,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맡았다.

사료 돋보기 3사의 역할

• 사헌부는 모든 관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밝히는 일을 관장한다.
• 사간원은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잘못을 논박하는 일을 한다.
• 홍문관은 궁궐 내의 경전과 서적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하는 임무를 맡는다. – "경국대전"

▲ "경국대전"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3사의 관리는 '언관'이라고 불렸다. 이들이 행정 관청을 견제하며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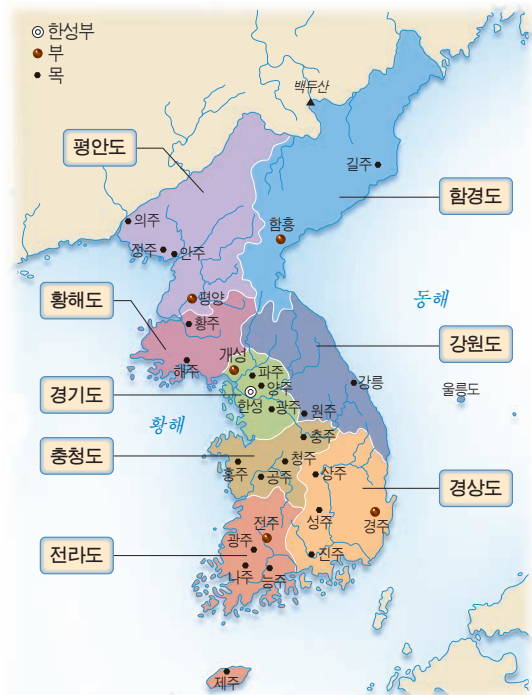
이들은 특히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로 연합하여 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올렸고, 왕이 이를 직접 듣도록 간청하기도 하였다. 3사의 관리들은 모두 학식과 덕망이 두터운 자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두었다. 그리고 고려 때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도에는 관찰사를 파견하여 군현의 수령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조선은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는데, 수령은 지방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갖고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각 지방 관청에는 6방 조직을 설치하였고, 향리들이 세습하면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수령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아전으로 지위가 낮아졌다.

한편 각 군현에서는 그 지방의 양반들이 향촌 자치 조직인 **유향소**를 운영하였다. 유향소는 수시로 향회를 열어 지방의 여론을 모으고 백성을 교화하였으며, 수령에게 자문을 하고 향리의 비리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였다.

▲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

도움 글 교통 및 통신 제도(봉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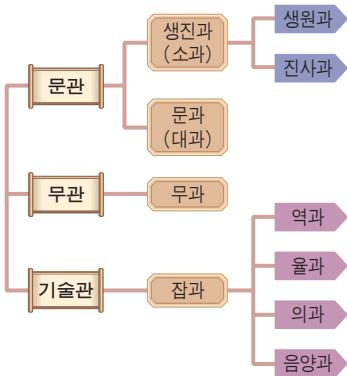
조선에서는 전쟁이나 반란과 같이 급박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봉수제를 운영하였다. 당시에는 전국 곳곳의 전망이 좋은 산꼭대기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낮에는 연기를, 밤에는 횃불을 올려 긴급한 사항을 중앙에 알렸다. 보통 하나의 봉수대에는 다섯 개의 봉화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상황의 긴급한 정도에 따라 피워 올리는 연기나 횃불의 수를 조절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봉화가 올라오면 전쟁이 벌어진 방향과 침입한 적의 수를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변란이 일어난 지역의 지방관은 봉수를 올린 다음 관리를 시켜 상세한 내용을 중앙 정부에 직접 보고하였는데, 이때에는 역원을 이용하였다. 역원은 행정 업무를 갖고 여행하는 관리들에게 말과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조선은 도로를 기준으로 대략 30리(12 km)마다 역과 원을 설치하였다.

▲ 봉수대(서울 남산)

▲ 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고려대 도서관)

학교를 세워 관리를 양성하다

▲ 성균관 대성전

조선 시대 초등 교육 기관은 서당이었다. 서당에서는 양인의 자제에게 "천자문"과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을 가르쳤다. 중등 교육을 담당한 교육 기관으로는 4학과 향교가 있었다. 4학은 서울에 설치되었으며, 양반이나 서민의 자제들이 입학하여 "소학"을 비롯한 유교 경전을 학습하였다. 향교는 군현마다 설치되었으며, 성현의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 교화를 담당하였다.

성균관은 국가에서 설립한 고등 교육 기관이었다. 이곳에는 생원과 진사가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었고, 일부 양반의 자제들에게도 입학이 허용되었다. 교육 내용은 4서 5경을 기본으로 심화된 유학서와 역사서를 학습하였다.

▲ 조선의 과거제

관리는 주로 **과거**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과거 시험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으며,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 시험과 수시로 시행하는 특별 시험이 있었다. 과거는 천민을 제외하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일반 백성이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탐구 활동 조선의 교육 제도와 과거제

자료 1 교육의 진흥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서울에는 성균관과 5부 학당(후에 4부 학당으로 개편)을 설치하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교육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자가 오히려 정원에 차지 않으니, 교육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6조에서는 교육을 진흥할 방법을 연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또한 지방의 수령 중에는 향교의 생도들에게 글 쓰는 일을 시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동원하여 생도들이 공부할 수 없게 하는데, 지금부터는 일절 이를 금지한다.
– "세종실록"

자료 2 과거의 규정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전 해 가을에 초시를, 그 해 초봄에 *복시와 *전시를 보게 한다. 문과의 경우에는 통훈대부 이하의 관리(당하관)에게도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며 …… 죄를 범해 영영 등용되지 못하는 자, 탐관오리의 아들 등에게는 문과와 생원 및 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경국대전"

* 복시: 초시 합격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 전시: 복시 합격자의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다.

과제 1 자료 1에서 조선 정부가 교육을 진흥하려고 노력한 내용에 밑줄을 그어 보자.

과제 2 자료 2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과거 응시를 제한했던 이유를 말해 보자.

16세 이상이면 군대에 가야 한다

조선 시대에 16~60세의 모든 양인 남자들은 군역의 의무를 졌다. 이에 따라 남자들은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전투에 참가하는 정군이 되거나, 군인이 되는 대신 정군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이 되었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편성되었다. 중앙군은 서울과 궁궐을 수비하는 **5위**로 구성되었다.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각각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이들을 통솔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변방의 중요한 지점에 영과 진을 설치하여 군대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으로 변방의 수비가 무너지면 그 다음 대책이 없었다. 이에 세조는 지방의 각 군현을 단위로 하여 수령이 지방군을 통솔하게 하는 진관 체제를 실시하였다.

16세기 이후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고 그 규모가 커지자 군현 단위의 진관 체제로는 이를 막아 내지 못하였다. 이에 제승방략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체제는 각 군현의 수령이 군대를 이끌고 방어 지역으로 가면,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이 군대를 통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양인
노비와 같은 천한 신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양인은 국가에 조세를 납부하고 군역을 담당하는 등 국가 재정 및 국방의 근본이었다.

5위
각 위는 5개의 부를 거느리고 각 부에 4통이 속하여 중앙군은 5위 25부 100통 체제로 정비되었다. 5위를 지휘·감독하는 최고 군사 기관으로는 5위도총부를 두었다.

▶ 고창 읍성(전북)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태조 • • ㉠ 한양 건설
(2) 태종 • • ㉡ 집현전 설치
(3) 세종 • • ㉢ 호패법 실시
(4) 성종 • • ㉣ "경국대전" 완성

2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였다. ( )
(2) 사간원은 실록을 편찬하였다. ( )
(3) 홍문관은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 )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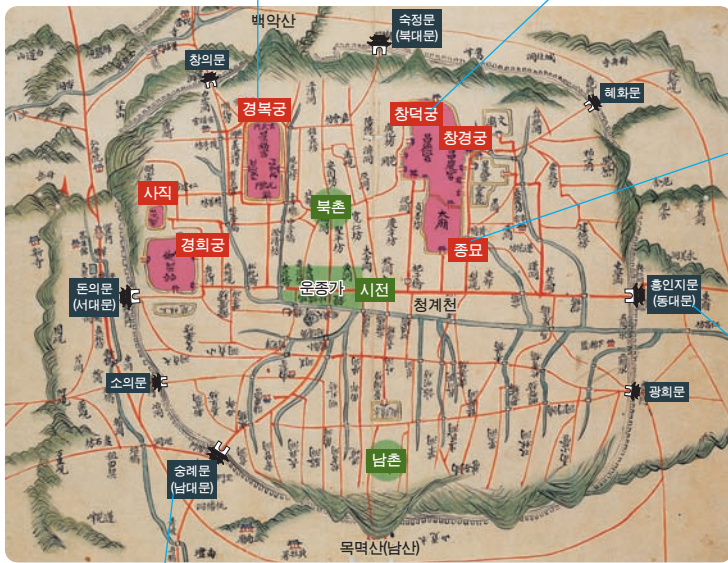
(1) 고등 교육 기관인 □□□에는 양반 자제들이 입학하여 유학을 공부하였다.
(2)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를 파견하여 군현의 수령들을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3) 조선은 각 군현에 향촌 자치 조직인 □□□를 두어 백성을 교화하고 수령에게 자문을 하게 하였다.
(4) 조선의 16~60세의 양인 남자들은 직접 군대에 가는 □□이 되거나, 이들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이 되었다.

걸어서 역사 속으로

조선의 도성, 한성을 찾아서 ……

한성은 조선이 건국된 후 도읍으로 결정된 한양의 새로운 이름이다. 본래 한양은 한강의 북쪽이라는 의미이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한성의 도회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성의 도성을 쌓고 네 개의 대문을 설치하였다.

◀ **경복궁**
조선의 정궁으로, 태조 때 건립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불탔으며, 흥선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었다.

▲ **창덕궁**
경복궁의 별궁으로 지어졌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조선의 정궁 역할을 하였다.

▲ **종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서, 종묘 제례악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 **흥인지문**
한성의 동문으로, 유교 사상에 따라 한성의 네 개의 큰문과 누각에 인, 의, 예, 지, 신의 명칭을 넣었는데 흥인지문이 그 첫 번째이다.

◀ **숭례문**
한성의 남문으로, 흥인지문과 더불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서문은 돈의문, 북문은 소지문 혹은 숙정문이라 하였다.

02 민족 문화의 발달

1 훈민정음의 창제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나날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 "훈민정음" 서문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까닭은 무엇일까?

▲ "훈민정음 언해본"

학습 목표 | •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훈민정음 보급을 위한 노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우리글, 훈민정음이 창제되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국의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말과 글이 다른 데에서 오는 불편이 많았다. 교육을 받은 일부 계층을 제외한 서민이나 부녀자들은 한자 해독이 어려웠다.

서민들은 경제생활이 개선되면서 문자 사용의 욕구가 커졌고, 지배층도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서민에게 글자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한자는 배우기가 매우 까다로웠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사용한 이두로는 우리말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문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세종은 **집현전**의 학자들과 더불어 음운과 문자를 연구한 끝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하였다(1446).

▲ 집현전의 모습(상상화)

도움 글 한글의 현대화

한글은 언어를 표기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얻으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 한글 문양의 상품

한글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볼 수 있는 한글 문양 개발도 늘어나고 있다. 의류 산업계에서 한글을 소재로 한 의류 종합 상표가 생겨나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문양이 담긴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소개되고 있다.

◀ 한글 문양을 적용한 의상과 휴대 전화

훈민정음 보급에 힘쓰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이다. 배우기 쉬운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서민과 부녀자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한문으로 쓰인 고전들이 훈민정음으로 출간되어 백성의 교양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훈민정음은 국가의 정책이나 법률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데에도 효과적이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는 행정 실무를 담당하며 백성들과 직접 대면하는 서리나 향리에게 훈민정음을 배우도록 하였다. 국가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교서도 한문과 훈민정음으로 동시에 작성하여 내렸다.

서리
중앙 관청에서 문서를 처리하고 업무를 연락하는 임무를 맡았던 하급 관리를 일컫는다.

세종 때에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을 훈민정음으로 간행하였다. 또한 "소학"과 "삼강행실도" 등 유교 윤리서가 훈민정음으로 편찬되었다. 세조 때에도 불경을 비롯하여 농서와 병서 등이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졌다.

▲ "용비어천가"
'해동의 여섯 용이 날으시어'로 시작하는 조선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알린 책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훈민정음의 창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집현전 학자 중 최만리 등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글자를 사용하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유리하다며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였다.

연산군 이후에 일부 유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속된 글이라는 뜻의 '언문'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사료 돋보기 삼강행실도

▲ 충신 ▲ 효자 ▲ 열녀

1428년 진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세종은 엄벌에 앞서 세상에 충신, 효자, 열녀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간행하여 백성들이 항상 읽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충신 112명, 효자 110명, 열녀 94명의 이야기를 담아 책으로 펴냈다(1434). 성종 때에는 이를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언해본이 간행되어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기록 문화의 발달

세종 때 편찬한 서적은 종이의 품질이 매우 좋을뿐더러 인쇄도 지극히 정교하여, 예나 지금이나 책으로서 아름다움이 이보다 나은 것이 없었는데, 그 뒤에는 점점 예전과 같지 않다. 지금은 종이가 탁하고 먹이 더러우며, 책 만들기도 게을리하여 서적을 볼품없게 만드니, 내가 매우 한탄스럽게 생각한다. - "중종실록"

세종 때 편찬한 서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종이와 먹

학습 목표 | • 조선 시대의 인쇄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조선 정부가 역사서 편찬에 힘을 기울인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인쇄술이 발달하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건국 초부터 각종 서적을 활발하게 편찬하였다. 편찬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활자 인쇄술과 제지술도 발달하였다.

태종은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제작한 계미자를 만들었다. 계미자는 활자를 밀랍으로 판에 고정시켰기 때문에 글자가 흔들리는 단점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세종 때 제작된 **갑인자**이다. 갑인자는 네모반듯하게 제작되어 활판에 조립식으로 고정할 수 있어 글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또한 글자체도 아름답고 부드러웠다.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종이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태종 때에는 전문적으로 종이를 생산하는 관청인 조지소를 설치하였다. 세종 때 이르러 서적 편찬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재질이 우수한 많은 종류의 종이가 생산되었다.

▲ 복원된 계미자
조선 시대에는 인쇄에 사용하는 먹물도 기름먹에 아교를 진하게 섞어 만든 유연먹을 사용하였다. 최상급 먹물을 사용함으로써 글자가 더욱 선명해지고 깨끗하게 인쇄할 수 있었다.

도움 글 갑인자 제작

세종 16년(1434) 갑인년에 이천, 장영실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구리로 된 활자를 제작하였다. 갑인자는 이전의 활자보다 훨씬 정교한 모양을 갖추었는데, 이는 당시의 천문 기기 제작 기술자들이 활자 제작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갑인자가 서적 편찬에 활용되면서 하루에 찍어 낼 수 있는 인쇄량이 5~6장에서 40여 장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적 보급이 원활해져 학문 발달과 유교 이념의 전파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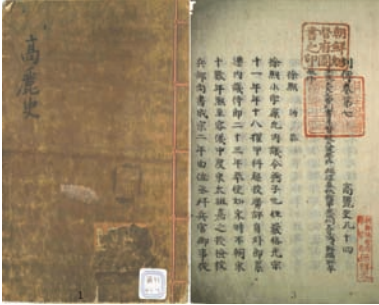
資治通鑑綱目第十九下
丙戌 顯宗成皇帝咸和元年
夏四月後趙石生寇汝南執內
史祖濟 六月以郗鑒爲徐州
刺史

▶ 갑인자로 인쇄된 서적

역사서를 편찬하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조선의 지배층은 새로운 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또한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정착시키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서 편찬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태조 때 정도전은 "고려국사"를 편찬하여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세종은 자주적 관점에서 고려의 역사를 재정리하고자 "고려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문종 때 김종서 등은 "고려사절요"를 편찬하였다.

"고려국사"
고려 왕조를 비판하고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유교 윤리를 옹호하는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 "고려사"
훌륭한 군주와 충직한 신하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유교적 관점에서 서술된 역사서이다. 세종 때 편찬을 시작하여 문종 때 완성되었다.

성종 때 서거정 등은 왕명을 받아 "동국통감"을 편찬하였다.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였다.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를 대등한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한 국가에 치중하였던 이전의 역사서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조선은 실록의 편찬을 매우 중시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한 왕대의 기록을 정리하여 후대의 정치적 모범이 되도록 한 것으로, 조선 역사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도움 글 조선왕조실록의 제작과 보관

① 왕이 죽으면 실록청을 설치한다.

② "춘추관정기", "사초" 등 자료를 모아 정리한다.

③ 수집된 자료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간추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

④ 기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정리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쓰인 종이를 자하문 밖 시냇물에서 씻어낸다.

◀ 오대산 사고(강원 평창)
⑤ 화재나 전쟁으로 실록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전국 곳곳에 사고를 설치하여 보관한다.

지리서, 농서 등이 간행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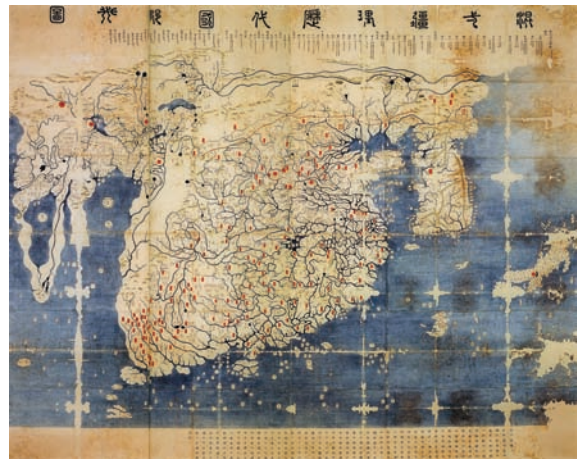
조선 초기에는 중앙 집권과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지리서와 지도 제작에 힘썼다. 태종 때에는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세계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세종 때에는 전국 지도인 팔도도가 만들어졌고, 세조 때에는 동국지도가 완성되었다. 16세기에 제작된 조선방역지도는 전국을 8도로 구분하고 지방 행정 구역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표시하였다. 이는 당시의 지도가 행정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지리서로는 세종 때 편찬된 “신찬팔도지리지”와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각 군현의 역사와 지리, 인물, 풍속, 교통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은 중국의 농업 기술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농법을 정리하였다. “농사직설”에는 씨앗의 저장법, 토지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농민들이 실제 경험한 농사법이 종합되었다.

의학에서도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때 병의 증세와 약재의 처방, 침술 등을 정리한 **“향약집성방”**과 의학의 일반 이론을 다룬 백과사전인 “의방유취”가 간행되었다.

▲ 조선방역지도(국사 편찬 위원회)

탐구 활동 농서의 간행

태종께서는 옛 농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모아 이두로 주를 붙이고 간행하여 널리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도록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하께서도 여러 지방의 풍토가 같지 않아 심고 가꾸는 방법이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옛 농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에 각 도의 관찰사들에게 명령하시어, 주와 현의 나이 많은 농부들을 방문하여 그 땅에서 몸소 시험한 결과를 자세히 듣고 이를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에 중복된 것은 버리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취하여 한 편의 책을 만들어 제목을 “(가)”이라 하였다.

– “(가)” 서문

과제 1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책의 제목을 써 보자.

과제 2 세종이 (가)를 편찬하도록 한 의도를 말해 보자.

3 과학 기술과 예술의 발달

▲ 앙부일구

모든 시설에 시각을 알리는 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밤에는 경루(물시계)가 있으나 낮에는 알기 어렵다. 구리로 부어서 그릇을 만들었으니 모양이 가마솥과 같고, 지름에는 둥근 송곳을 설치하여 북에서 남으로 마주 보게 하였다. …… 눈금을 안에 그었다. 길옆에 설치한 것은 보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이다. - "세종실록"

조선 시대에 시각을 알려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학습 목표 | •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과학 기술 발달을 파악할 수 있다.
• 양반 중심의 문예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 천상열차분야지도
제일 윗부분에 원을 그려 하늘을 나타내고, 그 안에 1,464개의 별들을 새겨 놓았다. 태조 때 제작되었으나 돌이 닳아서 잘 보이지 않자, 1687년 숙종 때 거의 같은 모양으로 다시 만들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조선 초기의 집권층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하여 과학 기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과학 기술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다.

조선은 우리나라의 전통 과학을 바탕으로 서역과 중국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천문학을 발달시켰다. 태조 때에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세종 때에는 혼천의와 간의를 제작하여 천체를 관측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고자 물시계인 자격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를 제작하였다. 특히 자격루는 정밀 기계 장치와 자동 시보 장치를 갖춘 시계였다. 세종 때 만들어진 역법서인 **"칠정산"**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측정하여 만들어졌다.

조선은 농업과 관련된 기구들도 제작하였다.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만들어 전국의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인지의와 규형은 토지 측량과 지도 제작에 활용하였다.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각종 무기 제조 기술도 발달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바퀴 달린 화차, 전투선인 거북선 등이 제작되었다.

▲ 화차
화약을 이용하여 신기전 100~200개를 잇따라 발사할 수 있었다.

▲ 측우기
빗물을 그릇에 담아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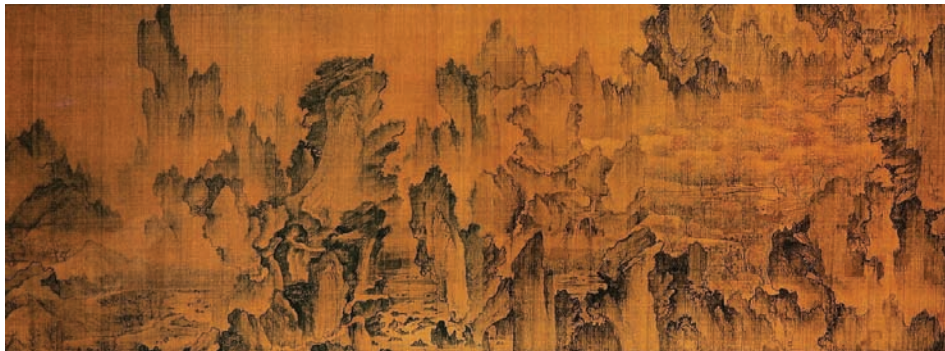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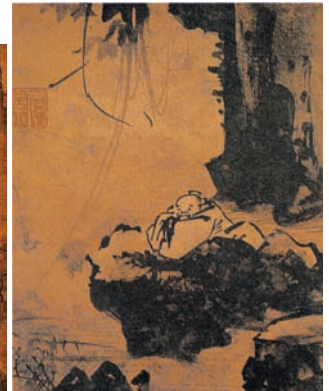
▲ 자격루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스스로 소리를 나게 하여 시간을 알려 주었다.

양반 중심의 문예 활동이 활발해지다

조선 시대 양반들은 한시를 짓고 문집을 만들었다. 서거정은 삼국 시대 이래의 유명한 시문을 뽑아 “동문선”을 간행하였고, 김시습은 소설 “금오신화”를 썼다.

조선 전기 궁중이나 관청에서는 분청사기나 백자가 사용되었다. **분청사기**는 소박하고 천진스러운 무늬로 우리의 멋을 잘 나타내고 있다.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된 **백자**는 청자보다 깨끗하고 담백하며 순백의 고상함을 풍겨 선비의 취향에 어울렸기에 널리 애용되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서민을 중심으로 자기보다 투박한 옹기그릇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화가로는 안견과 강희안이 있었다. 안견은 화원 출신으로 몽유도원도에서 환상적인 이상 세계를 표현하였다. 강희안은 문인 출신으로 고사관수도와 같이 시적 정서가 담긴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다.

▲ 분청사기(위)와 백자 항아리(아래)

▲ 몽유도원도(안견)

▲ 고사관수도(강희안)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태종은 조지소를 설치하였다. (　　)

(2) 16세기부터 분청사기가 애용되었다. (　　)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동국통감” • 　　• ㉠ 지리서

(2) “향약집성방” • 　　• ㉡ 의학서

(3) “동국여지승람” • 　　• ㉢ 역사서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의 □□□□이 창제되어 서민과 부녀자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졌다.

(2) 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을 편찬하여 후대의 정치적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

(3)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를 돌에 새겼다.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강화

1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

조광조가 아뢰기를,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할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매우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꼭 과거 시험에만 국한하여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를 본받아 현량과를 실시하여 덕행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인재를 찾으십시오."

– "중종실록"

조광조가 천거하려고 한 인재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학습 목표 | •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림과 훈구 사이의 갈등으로 사화가 발생하였음을 파악한다.

▲ 조광조

훈구 세력이 형성되다

문종이 일찍 죽고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김종서 등 재상과 집현전 출신의 관료들이 단종을 대신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에 수양 대군이 왕권의 약화를 우려하여 김종서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계유정난).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그를 도운 공신들이 권력을 차지하였는데, 이들을 훈구 세력이라고 한다. 한명회, 신숙주 등 훈구 세력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사육신 등을 몰아내고 세력 기반을 더욱 넓혔다.

이들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권력을 집중해 나갔다. 공신들은 높은 관직을 독차지하고 국가에서 지급된 토지와 노비를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정치를 주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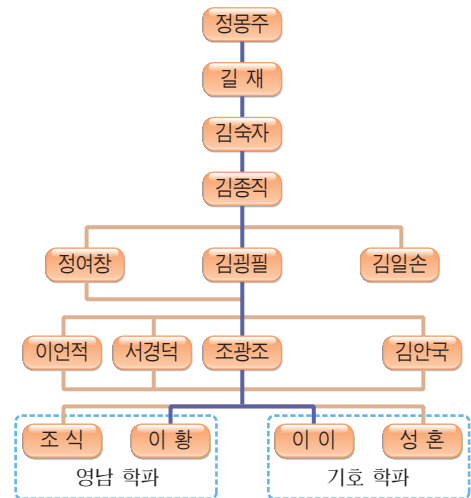
도움 글 사육신과 생육신

▲ 사육신 묘(서울 동작)

집현전의 젊은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성삼문, 박팽년 등은 한명회, 신숙주, 권람 등 훈구 세력이 정권을 독점하며 국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가자 이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성삼문 등은 1456년(세조 2)에 단종 복위를 내세우며 거사를 계획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발각되었다. 이 사건으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유성원, 이개 등이 사형을 당하고,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은 관직을 버리거나 아예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 은둔 생활을 하였다.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다

사림은 조선의 건국에 협력하지 않고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썼던 길재 등 온건파 사대부를 계승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지방의 중소 지주로서 향촌 자치 및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향촌 사회에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사림은 세조 때 김종직을 시작으로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였다. 성종도 훈구 세력의 횡포를 막고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사림을 적극 등용하였다. 사림 세력은 주로 3사 등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이로써 중앙 정계는 사림과 훈구가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내몰렸다.

▲ 사림의 계보

사화가 발생하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유교적 정치 이념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국가 재정을 낭비하였다. 연산군은 언관직에 있던 사림 세력이 자신을 비판하자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였다.

이런 가운데 훈구 세력은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사림 세력을 공격하였다. 이때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사림이 죽임을 당하였다(무오사화). 그 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인 폐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하였다(갑자사화).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투서가 잇따르자 성균관을 폐쇄하고, 한글 사용을 금지하였다. 결국 훈구 세력 중 일부가 정변을 일으켜 연산군을 내쫓고 중종을 왕위에 앉혔다(중종반정).

조의제문
'의제를 애도하는 글'이라는 뜻으로서, 중국 초의 항우가 어린 의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사실을 비판하였다. 훈구 세력은 이 글이 수양 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을 비판한 글이라 주장하며 사림 세력을 공격하였다.

예림 서원과 김종직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예림 서원은 1567년 김종직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졌다. 김종직은 길재의 제자였던 김숙자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직접 유학 교육을 받았다. 그는 성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를 키워 내 사림 세력을 이끌었으며, 사림들도 모두 김종직의 제자임을 자처하였다. 그러나 김종직은 무오사화 때 반역죄로 몰려 *부관참시를 당하였고, 그의 글들은 대부분 압수되어 소각되었다.

*부관참시: 죽은 뒤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려진 형벌로서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 시체를 베거나 목을 잘라 거리에 내걸었다.

▶ 김종직을 기리고자 세운 예림 서원

유교적 이상 정치를 펼치다

중종은 조광조 등 사림 세력을 등용하여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사림들은 조광조가 건의한 현량과를 통하여 대거 중앙 관직에 등용된 후 주로 3사의 언관직에 진출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광조**는 경연을 활성화하고 소격서를 폐지하였으며, 향약을 실시하고 "소학"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였다.

소격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도교 의식인 초제를 거행한 기관이다.

조광조는 중종반정에 참여한 일부 훈구 세력이 지나치게 공을 인정받았다며 그 관직과 포상을 빼앗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훈구 세력은 조광조 일파가 중요한 관직을 독차지하고 왕을 속이고 있다며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급진적인 개혁과 지나친 도덕 정치에 부담을 느낀 중종은 결국 조광조를 처형하고 그를 따르던 세력을 몰아냈다(기묘사화).

▲ 조광조 추모비(전남 화순)

향촌에서 재기를 꿈꾸다

중종의 뒤를 이은 인종이 일찍 죽자, 나이 어린 명종이 즉위하였다. 이때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외척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사림이 또다시 희생되었다(을사사화).

사림은 연이은 사화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몰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주자가례", "소학" 등 성리학적 실천 윤리서를 보급하면서 향촌 사회를 유교적으로 재편하였다. 그리하여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한 사림은 서서히 중앙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탐구 활동 조광조의 도학 정치

자료 1

무릇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 뜻을 알고 백성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잘 다스리는 방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정암집"

자료 2

언로가 통하면 나라가 평안하게 다스려지며,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합니다. 임금이 언로를 넓히기에 힘써 위로 3정승부터 아래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진실된 말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간관을 두어 그 일을 맡게 하는 것이니, 그 말이 혹시 지나치더라도 마음을 비워 놓고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함은 혹시 언로가 막힐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 "중종실록"

과제 1 자료 2를 바탕으로 조광조가 중시한 중앙 관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자.

과제 2 자료 1, 2를 토대로 조광조가 이루고자 한 이상 정치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2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

잘못된 행동의 사례로 100여 가지를 들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부모를 보고도 내리지 않은 자, 부모의 상을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술을 마신 자, 상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바깥에서 상전을 욕한 자, 하인으로서 양반을 보고도 절하지 않은 자 등이 있다. - "해주향약"

향약에서 삼강오륜과 같은 윤리를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목표 | • 서원이 성리학 확산에 이바지하였음을 설명할 수 있다.
• 향약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서원이 세워지다

서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선비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리학을 연구하며 그 지방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는 곳이었다. 사림들은 서원을 통해 자신들의 학통을 이어 갔으며,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기반을 확장해 나갔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 때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주세붕은 풍기 군수로 재직할 때 고려의 유학자 안향의 제사를 지내고자 서원을 설립하였다. 그 후 사림들은 전국 각지에 서원을 설립하였다.

조선 정부는 서원이 학문 연구와 교육에 크게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고 서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갔다. 서원은 사림이 정계의 주도권을 갖게 된 선조 이후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방 문화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서원 건축
16세기에는 서원 건축이 활발하였다. 서원은 학문 연구에 알맞은 환경을 고려하여 산과 하천 등 자연의 빼어난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곳에 지어졌다. 대표적인 서원으로는 경주의 옥산 서원과 안동의 도산 서원이 있다.

사료 돋보기 | 최초의 사액 서원, 소수 서원

풍기 군수 이황이 삼가 글을 올립니다. 이 고을에 백운동 서원이 있는데, 전 군수 주세붕이 창건하였습니다. 이 고을은 문성공 안향이 살던 곳입니다. 묘를 두어 안향을 봉향하며, 유생들이 노닐고 강독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수많은 서적을 사서 간직해 두었습니다. 주세붕의 창건이 비록 위대하다 하더라도 임금의 명령을 거치지 않고 국가 문서에 실리지 아니하면 한 나라의 본받을 만한 제도가 되지 못하여 영구히 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 "퇴계전서"

▲ 소수 서원 강학당과 현판

백운동 서원은 명종 때 풍기 군수 이황의 건의로 국왕으로부터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았다. '소수'는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뜻이다.

국왕으로부터 현판을 받은 서원은 사액 서원이라 하였다. 사액 서원은 국가에서 토지, 노비, 서적 등을 지급받았다.

향약이 보급되다

사림은 향촌 사회를 자신들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향약을 조직하였다. 향약은 조광조가 처음 시도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향약은 전통적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면서, 삼강오륜 등 유교 윤리의 확산에 이바지한 향촌 자치 규약이었다.

삼강오륜
유교 도덕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과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를 말한다. 조선이 건국될 때부터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기본 윤리로 강조되었다.

처음에는 중국의 여씨향약을 본받아 활용하였으나, 점차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 나갔다. 향약은 군, 현이나 마을 단위로 시행되었는데, 향약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에는 이황과 이이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향약은 조선 사회의 **풍속 교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향촌 사회의 질서 유지와 함께 치안까지 담당하는 등 향촌의 자치 기능을 맡았다. 향약의 보급으로 향촌 사회에서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과제 1 (가)~(라)를 바탕으로 향약이 향촌 사회에 미친 영향을 말해 보자.

과제 2 향약의 내용 중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는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3 붕당 정치의 시작

이준경이 죽으면서 글을 올렸다. "붕당의 사사로운 의견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잘못한 과실이 없고 또 법에 어긋난 일이 없더라도 자기와 한마디만 서로 맞지 않으면 배척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함께 어울려도 의심하지 마시고, 소인은 저희 무리와 함께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선조실록"

이준경은 왜 붕당의 사사로운 의견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을까?

▲ 이이의 묘가 있는 자운 서원(경기 파주)

학습 목표 | • 붕당 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붕당 정치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림이 정치를 주도하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화로 큰 피해를 본 사림들은 향촌 사회에서 서원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학문적 입장을 넓혀 나갔다. 선조 즉위 이후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훈구 세력은 점차 그 세력이 약화되어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 갔다.

사림은 중앙 정계를 장악한 후 점차 분열하여 **붕당**을 형성하게 되었다. 선조 초에는 외척 세력인 심의겸의 도움으로 관직에 진출한 선배 사림과 새로이 관직에 나아간 후배 사림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 사림 간의 갈등은 결국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동인과 서인의 붕당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조 전랑
3사의 관리에 대한 임명을 좌우할 수 있었고, 자기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었다.

동인과 서인의 분화

선조 5년(1572), 이조 전랑 오건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효원을 추천하였다. 김효원은 이황, 조식의 문인으로 문과에 장원 급제한 수재였다. 그런데 인순왕후(명종 비)의 동생인 예조 참의 심의겸이 오건의 추천을 반대하였다. 이때부터 심의겸과 김효원의 갈등이 깊어졌다.

그 후 1574년 김효원은 심의겸의 반대에도 이조 전랑에 임명되었다. 자신의 후임자를 결정할 수 있는 이조 전랑에 앉은 김효원은 심의겸의 동생 심충겸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사림은 김효원을 지지하는 세력(동인)과 심의겸을 지지하는 세력(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

붕당이 형성되다

정계에 새로 진출한 사림들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하였으며 동인을 형성하였다. 이에 선배 사림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들을 포함하여 서인이라는 붕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었다.

정여립 모반 사건
정여립은 본래 서인이었으나 이후 동인의 편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그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전라도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정여립은 사람들을 모아 반역을 꾀한다는 의심을 받아 관군에 잡히기 전에 자살하였다. 이로 인해 동인이 박해를 당하였다.

붕당 정치 초기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온건한 남인과 급진적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남인이 집권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한편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동안 3사의 언관직과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지도자인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과 향교**가 지방 사족의 여론을 모으는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이황과 이이

이황은 고향 안동에 낙향하여 저술 활동과 제자 교육에 힘썼다.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왕이 스스로 인격을 수양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왕권이 강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이는 조정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며 사회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현명한 신하가 왕의 수양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하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훈구 세력은 향약을 조직하였다. ( )
(2) 사림은 전국 곳곳에 서원을 세웠다. ( )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무오사화 • • ㉠ 폐비 윤씨
(2) 갑자사화 • • ㉡ 조의제문
(3) 기묘사화 • • ㉢ 외척 간의 갈등
(4) 을사사화 • • ㉣ 조광조의 개혁 정치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사림 세력은 주로 □□ 등의 언관직을 차지하고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하였다.
(2) 사림은 지방의 중소 지주로 향촌 □□ 및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 □□를 강조하였다.
(3) 사림 간의 갈등은 □□ □□의 임명 문제로 사이가 벌어져 동인과 서인의 붕당으로까지 발전하였다.

04 국제 관계의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

1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

천자총통은 조선에서 사용한 화포 중 가장 큰 것이었고, 지자총통은 그 다음이었다. 천자총통은 길이가 130 cm, 구경은 13 cm나 되었다. 이 화포에 쓰이는 발사물을 대장군전이라 하는데, 대장군전은 240 cm의 길이에 무게가 30 kg에 이르렀고, 발사 거리는 약 1.4 km였다. 대장군전은 주로 적의 성문, 함선, 진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로 추정된다.

조선이 화포를 개량하는 데 공을 들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 천자총통과 대장군전

학습 목표 | • 조선이 명과 실리 외교를 가졌던 이유를 말할 수 있다.
• 조선이 일본과 여진에 실시한 외교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명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여 정권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태조 때에는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 정벌 문제로 양국 간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종 이후 조선은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조선과 명은 매년 여러 차례 사신을 교환하였는데, 명으로 가는 사절단에는 유학생과 상인들도 포함되었다. 조선이 말, 인삼, 화문석 등 특산물을 조공하면 명은 답례품으로 비단, 서적, 도자기 등을 보냈다. 이처럼 조선은 명과의 사신 교환을 통하여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 조선 초기의 국제 관계

4군 6진을 개척하다

조선은 여진에 대해서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여진족은 조선 초기부터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자주 침범하였다. 이에 세종 때에는 여진족을 몰아내고 압록강 유역에 4군을 두고, 두만강 유역에 6진을 설치하였다.

▲ 4군 6진

조선은 국경 지역에 무역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을 달래기도 하였다. 또한 귀순한 여진족에게는 관직을 주거나 토지와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조선은 여진족의 침입을 막고 국경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사민 정책을 실시하여 삼남 지방의 일부 주민들을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토착민을 토관으로 임명하여 민심을 수습하려 하였다.

왜구를 물리치다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도 강경책과 회유책을 번갈아 사용하였다. 조선은 수군을 강화하여 고려 말부터 해안 지방을 괴롭혀 온 왜구를 격퇴하였다. 조선은 성능이 뛰어난 전함을 대량 건조하였으며, 총통과 같은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전함에 장착하였다.

세종은 이종무를 시켜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이후 일본이 평화적인 교류를 요구하자 **3포**를 개항하여 일본인의 왕래와 무역을 허락하였다. 이곳에서는 일본인이 가져온 구리, 황, 향료와 조선의 쌀, 의복, 서적 등이 교환되었다.

3포
제포(창원), 부산포, 염포(울산)의 3개 항구를 열었다.

조선 초기에는 류큐, 시암, 자와 등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교류하였다. 이들은 조공 형식으로 각종 토산물을 가져와 조선의 옷, 옷감, 문방구 등과 교환하여 갔다. 특히 류큐는 조선에서 불경, 유교 경전, 범종, 부채 등을 가져갔는데, 이는 류큐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류큐
일본 오키나와 현에 있었던 나라이다. 15세기에 통일 왕국을 세웠으나, 19세기 후반 일본의 침략을 받아 오키나와 현이 되었다.

사료 돋보기 이종무의 쓰시마 섬 정벌

상왕(태종)이 도체찰사 이종무에게 이르니, "예로부터 군사를 일으켜 도적을 치는 뜻이 죄를 묻는 데 있고, 많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니라. …… 오직 경은 나의 지극한 생각을 헤아려 힘써 투항하는 대로 모두 나에게 오게 하라. 또한 왜놈의 마음이 간사함을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이긴 뒤라도 방비가 없다가 혹 일을 그르칠까 함이 또한 염려되는 것이며, 또 생각하니 7월에는 으레 폭풍이 많으니, 경은 그 점을 잘 생각하여 오래도록 해상에 머물지 말라."
– "세종실록"

쓰시마 섬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협에 위치하여 두 나라의 교역에 중요한 곳이면서 동시에 왜구의 소굴이었다. 이에 조선은 태조 때부터 쓰시마 섬의 왜구를 토벌하였는데, 특히 세종 때 이종무가 큰 전과를 세웠다.

2 임진왜란의 극복

통제사 이순신이 임진년에 배와 군사를 지휘하여 바닷길을 가로막아 왜선을 격파하고 수많은 왜군을 베어 냈다. 왜군은 이순신을 두려워하여 다시는 해로를 통해 서쪽으로 오지 못하였다. 조선 왕실을 회복시킨 것은 모두 그의 힘이었다. - 이수광, "지봉유설"

왜군이 서쪽으로 오지 못하게 한 것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학습 목표 | •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해할 수 있다.

▲ 이순신 동상(전남 진도)

동아시아 정세가 변하다

16세기에 들어와 사림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양반 사회가 분열되었다. 또 조세 제도와 군역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이 몰락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력도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중국에서는 명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환관들이 정치를 좌우하면서 그 폐해가 날로 심해졌다. 거기에 북쪽에서는 몽골족이, 남쪽에서는 왜구가 노략질을 일삼아 농민들의 삶이 매우 곤궁해졌다.

일본은 세종 이후 세 항구를 통한 무역에 의존하였는데, 그 무역량이 제한되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중종 때에는 3포 왜란, 명종 때에는 을묘왜변을 일으켰다. 한편 100여 년간에 걸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지방 세력가인 다이묘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조선 침략을 계획하였다.

3포 왜란
3포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규정을 어기는 일이 많아지자 중종 때 이를 엄격히 통제하였다. 그러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은 이때 폭동을 진압하고 3포를 폐쇄하였다.

역사 가로지르기 일본의 통일과 조선 침략

16세기 후반 일본의 전국 시대는 오와리의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미한 가문 출신임에도 오다 노부나가를 계승하였다. 오사카를 거점으로 한 도요토미는 대부분의 다이묘를 굴복시키고 전쟁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일본의 전국 시대는 끝났다.

그 후 도요토미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다이묘들에게 새로운 영지를 약속하고 대외 침략 전쟁을 준비하였다. 경제적 이득을 약속받은 다이묘들은 도요토미에게 충성을 약속하며 2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이들이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다.

△ 도요토미 히데요시

▲ 관군과 의병의 활동

의병과 수군이 왜군을 물리치다

일본은 명을 치러 가는 길을 열어 달라는 이유를 대고 조선을 침략하였다(1592).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다. 선조는 의주로 피란하였고, 일본군은 이를 뒤쫓아 평양을 점령하고 함경도까지 침략하였다. 선조가 명에 원군을 요청하자, 명은 일본이 중국까지 침략할 것을 우려하여 5만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조선과 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되찾고 일본군에 반격을 가하였다. 전국 각지에서는 유생, 승려, 농민들이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이들 의병의 항전은 조선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최대의 원동력이었다.

해전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일본 수군을 한산도 등에서 무찌르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일본군은 보충 병력과 군수품 조달이 끊겨 곤경에 처하였다.

조선이 전쟁에서 승리하다

일본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경상도 일대로 후퇴한 후 조선과 명에 휴전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휴전 협상은 결렬되었고, 일본군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였다(정유재란). 이에 조·명 연합군이 육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이순신이 명량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을 격침하였다(명량 대첩).

전세가 불리해진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비밀리에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과 명군이 합세하여 노량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7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다.

일본군은 육군이 먼저 경상도로 진격하고, 해군이 곡창 지대인 전라도를 점령한 후 서해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면서 함께 북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 전라도 해안을 담당하던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여 거북선을 건조하고 수군을 훈련시키면서 군량을 비축하였다. 또한 판옥선에 비격진천뢰와 신기전을 장착하여 막강한 화력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조선 수군은 일본 해군을 격퇴하였으며, 이로써 일본군의 북상 속도를 늦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 남해 해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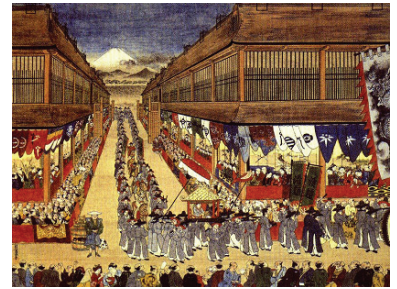
국토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감소하다

▲ 사명 대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이끌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건너가 강화 교섭을 하고 포로 3,500명을 데리고 귀국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지만 큰 피해를 보았다. 토지가 황폐해지고 인명이 손상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일부는 노예로 팔려 가기도 하였다. 문화적 손실도 컸는데, 경복궁과 불국사, "고려왕조실록"과 "조선왕조실록"이 불탔으며, 수많은 문화재들이 약탈당하였다. 또한 토지 대장과 호적이 사라져 국가 재정도 크게 어려워졌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고 실력자가 되어 에도에 막부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약탈해 간 활자, 서적, 도자기, 그림 그리고 납치한 유학자와 도공 등을 통하여 문화를 발전시켰다. **에도 막부**는 조선에 다시 국교를 맺을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은 일본에 사명 대사 등을 사절로 보내 일부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고 외교 관계를 맺었다. 그 후 조선은 일본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한편 조선에 원군을 파견한 명은 이 전쟁에서 수만 명의 인명 손실을 보았고, 군비를 지출하였다. 이 틈을 이용하여 만주족이 성장하였다.

▲ 국서누선도(국립 중앙 박물관)
통신사 일행이 탄 배가 국왕의 국서를 들고 오사카 근처 해안을 지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 통신사가 에도를 방문한 모습을 재현한 그림

역사적 인물 이야기 강항과 김충선(사야카)

강항은 과거 급제 후 관직에 있던 중 임진왜란을 맞았다. 당시 강항은 조·명 연합군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다. 1597년 3월 일본의 2차 침략이 시작될 때 강항은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강항은 승려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 후 강항은 조선으로 돌아왔고, 세이카는 에도 시대 주자학의 거목이 되었다.

▲ 김충선

사야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에 회의를 품었던 인물이다. 그는 가토 기요마사 군의 선봉에 섰지만, 1592년 조선 침략 직후 조선에 투항하였다. 그는 조선군으로 종군하면서 일본군과 싸워 공적을 남기고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선은 이처럼 투항하여 공적을 세운 일본인에게 이름과 함께 관직을 수여하였다.

3 병자호란과 북벌 운동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 김상헌

김상헌이 고국을 떠나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즉위한 **광해군**은 전후 복구에 힘을 쏟았다.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리하여 국가 재정을 늘렸으며,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조선과 명이 약해진 틈을 타 여진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였다. 강성해진 후금은 명에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이 후금을 공격하고자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원군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후금을 자극하지 않도록 강홍립으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하였다. 결국 강홍립은 항복하여 후금을 자극하지 않았다. 강홍립이 항복하자 후금은 조선에 국서를 보내 조선이 명에 원군을 보낸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광해군도 후금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답서를 보냈다. 후금은 강홍립 등 10명을 제외한 포로 전원을 석방하였다. 이처럼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을 전개하였다.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명이나 후금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허준(許浚) 등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들을 모아 집성하고, 실제 체험을 통한 치료 방법을 모아 놓은 한의학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1596년 선조는 허준과 정작, 양예수 등에게 명하여 의서를 편찬하게 하였다. 정유재란으로 편집이 중단되었다가 난이 끝난 뒤 허준이 광해군의 명을 받아 단독으로 진행하여 1610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후금의 공격을 받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결국 광해군은 서인 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났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표방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이에 정봉수와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후금에 저항하였다. 보급로가 끊긴 후금은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물러났다.

▲ 호란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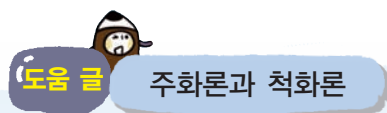
병자호란이 일어나다

후금은 요서 지역과 내몽골 지역을 장악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친 후 조선에 군신 관계와 조공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에 청의 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자호란, 1636).

청군이 한양을 점령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가운데 조선의 조정은 척화와 주화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군신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세자를 비롯하여 청과의 전쟁을 주장하였던 삼학사, 김상헌 등 신하들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으며, 수많은 여자들이 공녀로 보내졌다.

▲ 남한산성 수어장대(경기 성남)

주화론과 척화론

청의 침입을 받자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앞세운 척화론자와 현실적 실리를 앞세운 주화론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북벌 운동이 일어나다

조선은 오랑캐로 여기던 여진족이 세운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현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반감과 문화적 우월감을 내세운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청에 복수한다는 북벌 정책은 호란 후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돌아와 왕위에 오른 효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효종은 척화론에 섰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중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북벌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백성은 늘어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거듭된 흉년과 재해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 여기에 청의 국력이 강성해지고 문화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북벌을 단행하기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18세기 후반 청의 문화가 전성기에 다다르자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는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북학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 유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청에 반대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 효종의 한글 편지(국립 중앙 박물관)
효종이 봉림 대군 시절 청에 인질로 가 있을 때 쓴 편지이다. 김상헌의 어려운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 만동묘(충북 괴산)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고자 지어졌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조선은 (강경책, 회유책)으로 3포를 개항하여 일본인의 왕래를 허락하였다.

(2) (인조, 효종)은/는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명 •   • ㉠ 4군 6진
(2) 여진 •   • ㉡ 사신 파견
(3) 일본 •   • ㉢ 쓰시마 섬 정벌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은 승려와 농민들을 규합하여 □□을 조직하여 싸웠다.

(2) 임진왜란이 끝난 후 즉위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 □□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3) 청이 침입하자 조선 조정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과 실리를 따르자는 □□□으로 나뉘었다.

깊이 있는 역사

정승과 장군이 본 임진왜란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의병과 수군의 전승, 명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특히 당시 재상이었던 유성룡의 지략과 남해안과 서해안을 지켰던 이순신의 활약은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 거북선(복원)

유성룡

임진년 4월, 비변사의 관리들도 매일 대궐에 모여 대책을 강구했으나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했다.

"적들이 창칼을 잘 사용하는데, 우리 병사들은 갑옷도 없이 대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을 이용하여 갑옷을 만들어 입는다면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나는 아니다 싶어 말했다.

"적과 싸울 때에는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병법을 쓰므로 빨리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껍고 무거운 갑옷을 입는다면 그 무게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 유성룡, "징비록"

유성룡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병조 판서로서 군사를 총괄하였으며, 이후 영의정이 되어 선조의 피란을 도왔다. 평양성 탈환에 공을 세웠으며, 일본과의 화의에 반대하면서 군대를 충원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데 큰 힘을 쏟았다. 이순신이 탄핵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천거하는 대가로 자신은 관직에서 물러났다. 전쟁 후에는 공신의 지위를 받았다.

이순신

무과를 거쳐 관직에 오른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전쟁 전에 이미 거북선을 건조하여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다. 1592년 7월에는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하여 일본 수군의 전의를 상실하게 하였다(한산도 대첩). 1597년 1월에 모함으로 탄핵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해 4월 백의종군하였다. 이때 일본 수군이 서해로 진출하기 위해 진도 앞바다로 들어오자 13척의 함선으로 적선 200여 척과 맞서 싸워 승리하였다(명량 대첩).

정유년 9월, 적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이미 어란포 앞바다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약속했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고 했으니 지금 우리를 두고 한 말이다." …… 여러 배들이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진격하였다. 지자포와 현자포를 쏘고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 대니 그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다. 적선 30척이 깨어지자 적선들이 달아났다. - 이순신, "난중일기"

생각해 보기

01 위에 제시된 인물 이외에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인물을 조사해 보자.

대단원 마무리

건국과 체제 정비

〈체제 정비〉
- 유교적 이상 사회 추구
- 태종: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강화
- [❶]: 재상 중심의 정치
- 성종: "경국대전" 완성

〈중앙〉
- 의정부와 6조 중심으로 운영
- 3사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권력 독점과 부정 방지

〈지방〉
- 8도: 관찰사 파견
- 부·목·군·현: [❷] 파견
- 향·부곡·소를 일반 군현으로 승격
- 유향소: 지방 양반의 향촌 자치 조직

민족 문화의 발달

[❸]	• 세종과 집현전 학자의 음운 연구 결과 • 서민과 부녀자의 문자 생활 가능	과학 기술	•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 목표 • 자격루, 앙부일구, 측우기 제작
기록 문화	• 인쇄 기술 발달: 활자 제작 • 역사서, 지리서, 농서 등 간행	양반 중심의 예술	• 분청사기, 백자 제작 • 한시와 문집 간행, 문인 화가 활동

사림의 성장

훈구 세력	사림 세력	사화 발생	성리학 질서 강화
• 정치권력 집중 • 대토지 소유	• 향촌 자치, 왕도 정치 강조 • 3사에 주로 등용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❹]과 향약 → 사림의 성장 기반

양난의 극복

〈동아시아 정세〉
- 중국: 명의 약화
-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 통일
- 조선: 국방력 약화, 양반 사회 분열

〈임진왜란〉
- [❺]과 수군의 활약 → 일본 격퇴
- 국토 황폐화, 인구 감소, 문화재 소실
- 통신사 파견

〈병자호란〉
- 광해군의 [❻] 정책 → 성리학자의 불만 초래 → 인조반정
- 친명 배금 정책 → 청의 침략 → 군신 관계 맺음
- 북벌론 대두

생각의 열쇠

❶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❷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갖고 조세와 공물을 징수하였다.
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졌다.
❹ 덕망이 높은 선비에게 제사를 지내고 지방 양반 자제들을 교육하였다.
❺ 곽재우 등 유생과 사명 대사와 같은 승려, 농민들로 구성되어 일본군과 싸웠다.
❻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디에도 기울어지지 않는 정책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과제 풀어가기

1 다음은 광해군 때 있었던 궁중 회의의 한 장면을 가상으로 그린 것이다. 해당하는 국가의 이름을 써 보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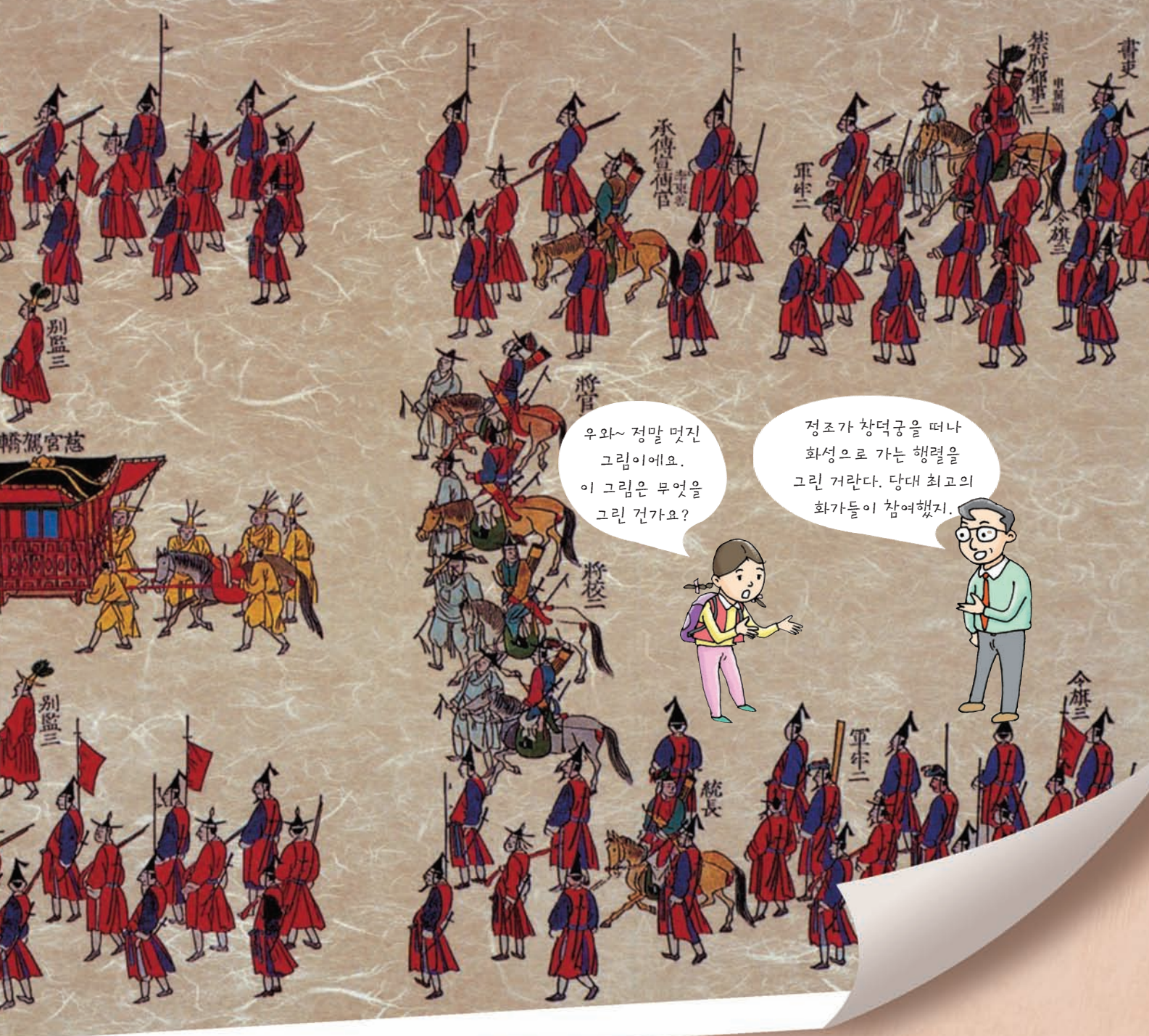
2 위 그림에서 (㉠)은/는 (㉢)의 침략을 받자 조선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럴 때 조선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는지 각자의 의견을 써 보자.

VI

조선 사회의 변동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 가운데 흐트러진 통치 질서를 바로잡고자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다. 또한 탕평책을 실시하여 붕당 정치의 폐단을 줄이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동요하는 등 사회 변화가 일어나자 사회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고,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문화적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세도 정치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농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와 동학이 민중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었다.

	1600년경	1700년경	
한국	1678 상평통보 주조	1708 대동법 전국 실시 1725 탕평책 실시	1750 균역법 실시 1776 규장각 설치
세계	1688 영국, 명예혁명		1776 미국, 독립 선언 1789 프랑스 혁명

정조 대왕 능행 반차도(복원도)

1800년경		
1811 홍경래의 난	1860 최제우, 동학 창시	1862 임술 농민 봉기
1814 빈 회의 개최	1851 태평천국 운동	
1840 아편 전쟁	1858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61 미국, 남북 전쟁

01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

1 통치 구조의 변화

▲ "비변사등록"
비변사에서 가졌던 회의 내용을 일기체로 기록한 것

요즈음 비변사에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처리합니다. …… 이름은 변방의 방어를 담당하는 것이라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왕비와 후궁의 간택까지 모두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 "효종실록"

비변사의 기능에는 그 밖에 어떤 것이 더 있었을까?

학습 목표 | •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조선 후기 군사 제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비변사가 최고 권력 기구가 되다

중종 때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임시 기구로 설치하였던 비변사는 16세기 중엽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자 상설 기구로 변모하였다. 그 후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자 조선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비변사를 전시 최고 회의 기구로 활용하였다.

비변사의 구성
시기마다 약간씩 달랐으나 대체로 의정부의 정승, 공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와 참판, 각 군영의 대장, 대제학, 한성 판윤, 강화 유수 등이 참여하였다.

비변사는 북벌 운동 이후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그 권한이 더욱 확대되었다. 비변사는 군사와 관련된 사무뿐만 아니라 수령의 임명, 조세의 운반, 군영의 설치, 공물의 진상, 충신과 효부의 표창 등 대부분의 국정 사무를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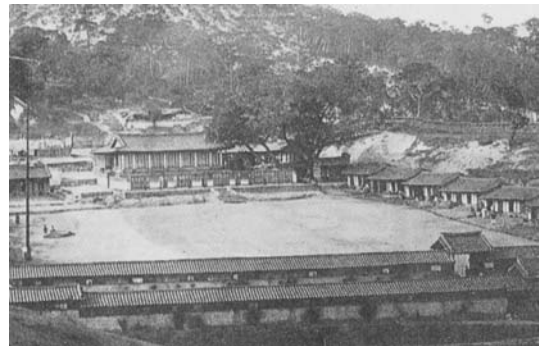
비변사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종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의정부의 기능은 약화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6조의 기능도 축소되었다. 이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변사는 흥선 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킬 때까지 존속되었다.

5군영이 성립하다

정부는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의무병이 아닌 직업 군인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삼수병
조총을 다루는 부대인 포수, 칼이나 창을 쓰는 부대인 살수, 활을 쏘는 부대인 사수로 구성되었다.

그 후 국내 정세와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군영이 더 설치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어영청이 설치되었고,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총융청과 수어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숙종 때 금위영이 설치되어 5군영 체제가 갖추어졌다.

군영은 특정 붕당의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은 다른 붕당의 도전을 막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장악하는 군대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군영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장악하였다.

▲ 창의문 밖에 설치된 총융청
1880년대의 모습으로, 총융청은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의 방어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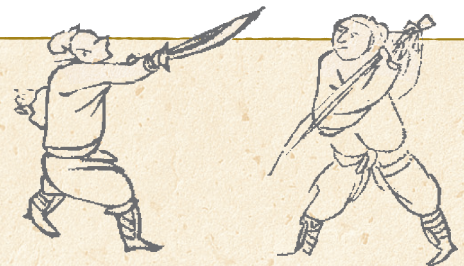
속오군이 편제되다

조선의 지방 방어 체제는 진관 체제에서 제승방략 체제로, 그리고 임진왜란 중에 속오법 체제로 바뀌었다. 속오법에 따라 편제된 속오군은 양반을 비롯한 양인과 천인을 모두 포함하여 편성되었다.

속오군은 겨울철 농한기에 군사 훈련을 받았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을 지키다가 적이 침입해 오면 전투에 참가하도록 조직되었다. 그러나 양반들이 천민과 함께 속오군에 편제되는 것을 꺼려 평민과 천민만 남게 되었다. 나중에는 속오군에서 평민들마저 빠져나가 지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져 갔다.

사료 돋보기 훈련도감의 설치

"요즘 적의 기운이 매우 염려되는데 전부터 일을 처리하는 것이 느슨해져 적의 난리를 겪는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기계 하나를 수리한 것이 없었다. …… 이제 나의 생각에는 따로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합당한 인원을 뽑아서 장정들로 하여금 날마다 활을 익히기도 하고 포를 쏘기도 하여 모든 무예를 훈련시키도록 하고 싶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라."

- "선조실록"

▲ 검술 수련 모습
1610년 훈련도감의 책임자로 있던 최기남이 지은 병서에 그려져 있다.

임진왜란 초반 조선군이 왜군에게 참패를 당하자, 조선은 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예 부대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었다. 1593년 조선은 명의 도움으로 포수를 양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수와 살수를 더하여 훈련도감을 만들었다. 급료를 받는 군인을 모집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였는데, 훈련도감은 그중 우수한 자를 가려 뽑았다.

2 붕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붕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성리학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편 사람들을 모두 역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반대편 사람들을 멀리 유배 보내니 이들 중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 "영조실록"

붕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을까?

▲ 영조 어진

학습 목표 | •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영조와 정조가 추진한 탕평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붕당 정치가 전개되다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북인은 광해군의 정책을 뒷받침하며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북인은 왕권 강화에 주력하였고, 상공업 진흥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후 서인은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북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며, 남인을 국정에 참여시켰다.

서인과 남인은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면서 **상호 비판**과 **상호 공존**의 붕당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때 정치적 여론은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모아져 중앙 정치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여론을 주도한 것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각 붕당의 산림이었다.

산림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뛰어난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붕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였던 학자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인 세력의 송시열과 남인 세력의 허목이 있었다.

붕당 정치는 현종 때까지 서인과 남인이 연합하여 공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친 **예송 논쟁**이 벌어지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뚜렷이 부각되었다.

도움 글 예송 논쟁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자 서인과 남인은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를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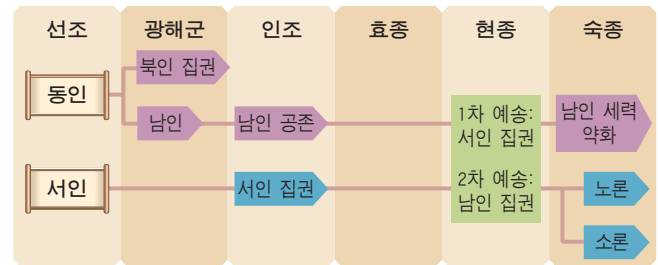
예송 논쟁은 단순히 예법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두 붕당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되다

붕당 정치는 숙종 때 이르러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갔다. 여러 차례의 환국을 겪으면서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남인은 정권에서 밀려났다. 서인은 정책 수립과 상대 붕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이때부터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환국
집권 세력이 급격히 교체되는 상황으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이 집권한 경신환국과 서인이 물러나고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 등이 있다.

붕당 정치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3사와 이조 전랑은 정국이 급격히 변할 때마다 자기 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정치적 비중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력이 고위 관료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의 합의 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숙종은 붕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탕평책을 처음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특정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 정권을 위임하는 정책을 거듭하여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숙종 말기에는 붕당이 왕위 계승 문제에까지 개입하면서 왕권을 위협하였다.

▲ 붕당 정치의 전개

탐구 활동 붕당 정치의 폐해

자료 1 노론 처벌 상소

삼강 중 군위신강이 으뜸이 되며 오륜의 첫머리는 군신유의인데 이들의 무너짐이 오늘날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의 신하 된 자라면 마땅히 임금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몇몇 노론 신하들이 이를 어겼습니다. 노론 대신들을 모두 처단하십시오.

- "경종실록"

자료 2 붕당의 대립 격화

경종 1년 이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각 당파가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골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이중환, "택리지"

과제 1 자료 1에서 붕당 정치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자.

과제 2 자료 2를 바탕으로 붕당 정치의 변질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 보자.

▲ 성균관 입구에 세워진 탕평비
영조는 탕평비를 세워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탕평비에는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평무사한 마음이요, 치우쳐서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고 새겼다.

탕평책을 실시하다

붕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에 의리를 세워야 한다면서 붕당을 없애자는 논의에 동의하는 신료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영조는 붕당의 본원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으며,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였다. 또 형벌 제도를 고쳐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였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영조는 자주 궁 밖에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책이 붕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붕당 간의 다툼이 강력한 왕권에 눌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붕당 정치의 희생양, 사도 세자

“(세자의 정신)병이 점점 깊어 바라는 것이 없사오니 소인(영빈)이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보호하고 세손(정조)의 안녕과 왕실을 편안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결단을 내리소서.”

– 혜경궁 홍씨, “한중록”

◀ 융릉(위)과 건릉(아래)(경기 화성)
사도 세자(장조)와 헌경 왕후(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융릉, 정조와 효의 왕후를 합장한 건릉을 합쳐서 융건릉이라고 한다.

1762년 사도 세자가 역모를 꾀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그 후 사도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까지도 영조에게 사도 세자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영조는 사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하였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정신병을 앓는 사도 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노론과 소론의 정쟁이 깔려 있다.

노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와 달리 사도 세자는 소론과 가까웠다. 노론은 이런 사도 세자를 부담스러워하였다. 여기에 탕평책에 대한 영조와 사도 세자의 시각 차이, 외척 간의 갈등 등이 더하여져 사도 세자의 비행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국 사도 세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강력한 왕권을 꿈꾸다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더욱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정조는 그동안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소론과 남인도 정권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규장각**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정조는 이곳에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게 하였다.

▲ 규장각
정조는 자신을 달, 백성들은 물에 비유하여 달이 물에 비추어짐으로써 왕과 백성이 하나라는 주장을 폈다.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허용하고 상공업을 진흥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재정 수입을 늘렸다.

한편 정조는 수령에게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였다. 이로써 향촌 사회와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정조의 탕평책으로 정치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의 정책으로 강해진 왕권을 견제할 붕당 세력이 사라졌고, 이는 결과적으로 세도 정치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은 직업 군인인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2) 영조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 제도를 부활시켰다.

(3) 정조는 친위 부대인 □□□을 설치하고, 수원에 □□을 건설하여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숙종 •   • ㉠ 환국
(2) 영조 •   • ㉡ 규장각 설치
(3) 정조 •   • ㉢ 균역법 실시

3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간단히 쓰시오.

(1) 비변사:

(2) 예송 논쟁:

02 사회 변화와 실학의 등장

1 실학의 발생 배경

▲ 김홍도 자리짜기(국립 중앙 박물관)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까닭인지 근래 이것이 문란해져 상민과 천민이 마치 조정의 관리나 선비처럼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 진실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 "일성록"

어째서 상민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었을까?

학습 목표 | •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변화된 사회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 변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사회 개혁론이 등장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 모내기(경직도, 독일 게르트루드 클라센)

농촌 사회가 변하다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보급되면서 김매기에 드는 일손이 줄어들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부 농민들은 밭에 인삼, 담배, 채소, 약재, 목화 등을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에 따라 재산을 축적하는 농민들도 있었으나, 대다수 농민들은 날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도시로 이주하여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자가 되는 농민도 생겨났다.

경제력의 향상과 함께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부를 축적한 농민 중에는 양반 신분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으로 행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기존의 양반 중에는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거나 심한 경우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탐구 활동 농민층의 노동자화

자료 1

빈농층 가운데 어떤 자는 농지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임노동자가 되어 타인에게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한다. - 이대규, "농포문답"

자료 2

돈 많은 장사꾼이 재물을 내어 일꾼을 모집하면 땅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이 광부가 되려고 몰려올 것입니다. - 우정규, "경제야언"

과제 어떤 처지에 놓인 농민들이 자료 1의 임노동자와 자료 2의 광부가 되었는지 말해 보자.

상공업이 발달하다

조선 후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던 수공업이 쇠퇴하고, 점차 민간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부 수공업자들은 유기, 도자기, 나전 칠기, 농기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였다.

▲ 상평통보

▲ 대장간(김홍도)

지방의 장시는 18세기 중엽에 대략 1천여 곳이나 열렸다. 보부상들은 장시를 돌면서 활발한 상업 활동을 벌였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대상인들도 생겨났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이에 따라 상품의 매매는 물론이고 품삯의 지불이나 세금·지대 납부 등에 동전이 이용되었다.

▲ 등짐장수(권용정)

사회 개혁론이 등장하다

왜란과 호란 등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사회 질서는 크게 변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 질서가 동요하였다. 일부 지배층은 이러한 변화를 무시하고 성리학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신분 질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 이념인 성리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17세기 후반부터는 성리학이 이론과 형식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수용된 양명학을 받아들인 학자들도 이론보다는 실천을 강조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은 청을 통해 들어온 천주교와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아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양명학
중국 명대 왕수인이 정리한 유학의 한 분파로, 앎과 행함이 일치해야 한다는 지행합일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일부 유학자들은 성리학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사료 돋보기 성리학에 대한 비판

오늘날 성리학을 하는 자는 …… 성낸 기운으로 목 줄기를 붉히며 스스로 천하의 오묘한 이치를 다 깨달았다 하여, 동쪽을 두드리고 서쪽으로 부딪히며, 머리는 빠뜨리고 꼬리만 잡으며, …… 텅 빈 뱃속에 마음만 높아 거만스럽게 자기만 옳은 체한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정약용

조선 후기에 들어 성리학은 오로지 과거를 위한 학문, 출세를 위한 도구, 선비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이는 당시의 성리학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르지 못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학문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2 실학의 등장

▲ 박지원

영남 어린이들이 새우젓을 모르고, 평안도 사람들이 감과 귤을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은 오로지 멀리 운반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사방이 겨우 몇천 리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백성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무엇일까? - 박지원, "열하일기"

박지원은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였을까?

학습 목표 | • 실학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실학자들이 이루고자 하였던 사회 모습을 말할 수 있다.

실학이 나타나다

17세기에 들어와 현실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탐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중국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경제, 군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백성의 생활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학문의 경향을 **실학**이라고 한다.

18세기에 청에서 고증학이 전해지면서 실학 연구는 깊이를 더하였다. 실학자들 중에는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목표로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고증학
성리학이나 양명학이 도덕의 문제에 편중하는 것을 비판하고, 유교 경전을 설명하는 데 고전을 철저히 분석하여 증거를 찾고자 했던 유학의 학풍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학문 연구 경향을 보인다.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다

일부 실학자들은 제도 개혁을 통하여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조선의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자영농의 몰락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 제도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형원은 농촌에 살면서 학문 연구에 주력하였고, 신분별로 차등 있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노비 세습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익은 모든 백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해 주자고 하였다. 그리고 노비 매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토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생산물의 공동 분배를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며,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 "반계수록"
유형원이 쓴 책으로서, 국가 운영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담았다.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다

실학자 중에는 상공업 진흥과 기술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토지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상공업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유수원은 상공업을 진흥시켜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청에 다녀와서 기술 혁신, 신분제 철폐, 성리학 극복 등을 주장하였다.

박지원은 청의 문물을 소개하고, 수레와 선박 이용을 늘릴 것과 화폐를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반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박제가는 여러 차례 청에 다녀온 후 "북학의"를 써서 청과의 통상 강화, 소비를 늘리기 위한 생산력 확대, 상공업 진흥 등을 주장하였다.

"북학의"
박제가가 청에 다녀온 후 쓴 기행문이다. 박제가는 당시 유학자들과 달리 청의 문화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다. '북학'은 선진 문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북경(베이징)의 학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학자는 당시 유학자 중 일부였으며, 중앙 정치와도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그들의 개혁안이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은 조선 후기의 주체적 문화 발달에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청과 통상을 강화하자는 생각은 19세기의 개화사상으로 이어졌다.

청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한 박제가

대체로 재화란 우물과 같습니다. 퍼낼수록 가득 차지만 뚜껑을 덮어 놓으면 말라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지 않으면 비단 짜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베 짜는 여인의 솜씨도 사라질 것입니다. …… 나라 안에 보배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날로 부유해지는데 우리나라는 날로 곤궁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 "북학의"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벼농사에서 □□□□이 전국으로 보급되어 김매는 데 일손이 줄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2) 18세기 중엽 전국적으로 설치된 장시를 무대로 □□□들이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였다.

(3) 임진왜란 전후에 수용된 □□□을 받아들인 학자들은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하였다.

2 다음 실학자의 주장을 정리한 표를 완성하시오.

구분	학자	주장
농업 중심	유형원	신분별 토지 분배
	이익	노비 매매 금지
		토지의 공동 소유
상공업 중심		직업적 평등화
	박지원	수레와 선박 이용
		소비 권장

03 조선 후기 문화의 새로운 변화

1 과학 기술의 발전과 국학 연구

학문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제일인 양 여기며 살아왔다. 다른 문물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배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 박지원, "연암집"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라로부터 새로운 문물을 접하였을까?

학습목표 | 국학 연구와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과 성과를 설명할 수 있다.

▲ 청에서 들여온 자명종

과학 기술이 발달하다

17세기에 들어와 청에 다녀온 사신들이 서양의 과학 서적과 자명종, 화포, 천리경 등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서양 과학 기술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가 전해지면서 중국 바깥에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기존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홍대용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아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지전설**을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벗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한편 효종 때 정부는 김육 등의 주장에 따라 청에서 사용하던 달력인 시헌력을 들여왔다.

지전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학설로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 비판에 이바지하였다.

시헌력
태음력을 중심으로, 태양력을 일부 채용하여 만든 달력이다. 17세기 중엽에 도입된 후 1895년 태양력이 채택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탐구 활동 곤여만국전도

오른쪽 지도는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를 바탕으로 1708년 관상감에서 만든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이다(보물 제849호). 조선 후기에는 세계 지도가 많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지도의 등장으로 서양 여러 나라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곤여만국전도(서울대 박물관)

과제 1 지도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

과제 2 세계 지도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리 지식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말해 보자.

의학과 농학이 발전하다

조선 후기에는 의학과 농학이 발전하였다. 17세기 초 허준은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을 저술하여 의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19세기에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에서 체질에 따른 치료법을 정리하였다.

농업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농서도 여러 권 편찬되었다. 신속은 "농가집성"에서 모내기법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박세당은 "색경"을 저술하여 채소, 과수, 양잠 등에 관한 기술을 정리하였다.

▲ 대동여지도

국학 연구가 활기를 띠다

우리 역사와 지리,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고,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제자인 안정복은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종휘는 고구려 역사를 정리한 "동사"를 저술하였고, 유득공은 **"발해고"**를 지어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보았다. 한치윤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기록을 활용하여 "해동역사"를 저술하였다.

▲ "동사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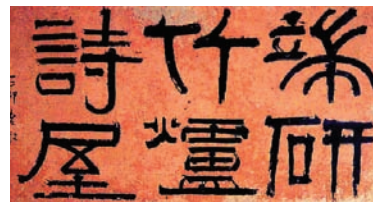
지리 분야에서도 우리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중환은 여러 지방의 자연환경과 풍속을 정리한 **"택리지"**를 썼다. 정상기는 백리척을 이용하여 동국지도를 만들었고, 김정호는 기존 지도를 바탕으로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한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전개되어 신경준이 "훈민정음운해"를 저술하였으며, 유희는 "언문지"를 편찬하였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김정희

김정희는 독특한 필체로 이름난 추사체를 완성하였다. 추사체는 삼국 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나라의 필체와 중국 서예가들의 장점을 두루 연구하여 만든 것으로, 서예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는 또 "금석과안록"을 지어 북한산 순수비가 신라 진흥왕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처음 밝혔으며,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탐구한다는 내용의 '실사구시'를 주장하였다.

▲ 김정희

▲ 추사체
'단연죽로시옥'이라고 쓴 김정희의 서예 작품이다. 벼루와 차를 끓일 수 있는 도구, 시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작은 집만 있어도 만족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 서민 문화 발달과 예술의 새 경향

심 봉사 할 수 없어, 여봐라 청아. 너 오기를 기다리다 못하야, 더듬더듬 나가다가, 이 앞의, 개천물에 빠져, 꼭 죽게 되었는데, 아 뜻밖에 스님이 날 보고 하는 말이, 공양미 삼백 석만 시주하면, 3년 안에 눈을 꼭 뜬다 하더구나.

– 심청가

위와 같은 판소리는 어떤 계층이 좋아하였을까?

학습 목표 | • 조선 후기에 발달한 서민 문화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우리 고유의 자연과 정서에 맞는 예술 작품이 등장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서민 문화가 발달하다

조선 후기에는 서민층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서민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서민들은 문예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사회의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글 소설과 판소리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판소리
조선 후기에 등장한 특색 있는 창법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인기가 높았다.

한글 소설은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거나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균은 “홍길동전”에서 서얼 차별과 탐관오리를 비판하였다. 신분의 차별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는 남녀를 주인공으로 한 “춘향전”도 널리 읽혔다. 그 밖에 민간에서 전승되던 야담이나 민담을 소설화한 “사씨남정기”, “구운몽”, “콩쥐팥쥐전”, “장화홍련전”이 등장하였다.

이야기를 가창과 사설로 엮은 판소리도 유행하였다.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등은 매우 인기가 높은 판소리 작품으로, 조선 후기 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탈을 쓰고 공연하는 연극인 탈놀이와 서민들의 의식을 표현한 **민화**도 나타났다. 탈놀이는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많았으며, 민화는 서민의 일상이나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소재로 하였다.

◀ 탈놀이

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하다

조선 후기에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박지원은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의 한문학 작품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였다. 중인들도 시사를 조직하여 시집을 간행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미술 분야에서는 **진경산수화**가 등장하였다. 이 화풍을 주도한 정선은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를 그려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를 화폭에 담았다.

김홍도는 서민의 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그가 그린 밭갈이, 추수, 대장간 등의 작품은 농촌의 일상을 그리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소박하게 묘사한 것으로 지금까지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신윤복은 주로 도회지 양반의 풍류 생활과 부녀자의 풍습, 그리고 남녀 사이의 애정을 묘사하였다.

▲ 인왕제색도(정선)
바위산은 선으로, 흙산은 먹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구사하는 등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도자기 공예에서는 형태가 단순하고 꾸밈없는 백자가 유행하였다. 특히 흰 바탕에 푸른 색깔로 그림을 그린 **청화 백자**가 많이 만들어졌다. 건축 분야에서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보은 법주사 팔상전 등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남아 있다. 정조가 세운 수원 화성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성곽이다.

도움 글 김홍도와 신윤복

▲ 서당(김홍도)

▲ 쌍검대무(신윤복)

김홍도와 신윤복은 조선 후기 미술계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김홍도는 해학과 풍자를 조화시킨 서민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주로 그렸으며, 그림 속 배경보다는 풍속 자체에 역점을 두고 표현하였다. 신윤복은 기생, 주점 등을 중심으로 남녀 간의 애정을 즐겨 다루었으며 사실적인 표현에 치중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정선 •   • ㉠ 추사체
(2) 김정호 •   • ㉡ "발해고"
(3) 김정희 •   • ㉢ 진경산수화
(4) 유득공 •   • ㉣ 대동여지도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안정복은 "□□□□"을 저술하여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2) 이중환은 여러 지방의 자연환경과 풍속을 정리한 "□□□"를 썼다.
(3) 허균은 "□□□□"에서 서얼 차별과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였다.

깊이 있는 역사

민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민화

조선 후기에는 이름 없는 화가들이 그린 민화가 서민 사이에 유행하였다. 민화는 세련미나 격조가 다소 떨어지지만, 서민들의 정서와 해학을 담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자료 1 문자도

문자도에는 일상생활의 도덕이나 윤리 규범이 담겨 있다. 문자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보급되어 당시 서민 대중을 유교적 도덕관으로 교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자료 2 모란 · 물고기 · 게 · 백동자

모란이나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와 게, 그리고 백동자 등이 많이 그려진 것은 부귀영화나 자손 번성과 같은 민간의 소박한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자료 3 책거리

책이나 벼루, 먹, 등의 문방구류를 그린 책거리 그림에는 학문 존중의 뜻이 담겨 있다.

자료 4 화조화

장식용으로 많이 그려진 화조화는 꽃이나 새를 그린 것으로, 화려한 채색이 특징이다.

생각해 보기

01 조선 후기에 민화가 널리 보급된 배경을 알아보자.

02 민화를 그린 화가들은 주로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알아보자.

걸어서 역사 속으로

수원 화성을 찾아서 ……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 세자의 묘 근처에 1796년에 쌓은 성이다. 둘레가 5.7km에 달하는 이 성에는 문루, 수문, 장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동서양의 군사 시설 이론을 잘 배합한 독특한 성이다.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 거중기

▲ 화서문과 서북 공심돈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쪽 문이다. 화서문 옆에 자리 잡은 서북 공심돈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건물로, 초소로 쓰인 곳이다. 공심돈 안에는 계단이 있어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으며, 층마다 바깥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장안문
북서적대
서북 공심돈
북포루
북서포루
화서문
북동포루
화홍문
(북수문)
북암문
동북포루
(각건대)
동북 공심돈
정조대왕 동상
동북각루
(방화수류정)
동암문
동장대
(연무대)
서북각루
화령전
동북 노대
서노대
화성행궁
서암문
서장대
수원천
창룡문
서포루
치성
(동일치)
서남암문
남포루
봉돈
서남각루
(화양루)
팔달문
동남각루

▲ 장안문

화성의 북쪽에 자리 잡은 문이다. '장안문'이라는 이름은 중국 여러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장안'이라는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화성이 장안성처럼 번화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정조의 마음이 담겨 있다.

▲ 팔달문

화성의 남문이다. 돌로 쌓은 무지개 모양의 문이 있고, 성문을 보호하고자 만든 옹성이 남아 있다.

▲ 방화수류정

원래 동북각루라고 부르던 정자이다. 화성에는 모두 네 개의 각루가 있다. 각루는 비교적 성곽의 높은 위치에 있어 주변을 감시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사회 모순의 심화와 새로운 종교의 등장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널리 민중을 구제하라.

– 최제우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는 말은 어떤 종교의 가르침일까?

학습 목표 | • 조선 후기 농민 의식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 동학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삼정이 문란해지다

19세기에 들어 안동 김씨 등 국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전개되었다. 정치를 좌우하던 소수의 세도가들은 벼슬자리를 팔아 재물을 모으는 등 여러 가지 부정을 일삼았다. 돈을 주고 벼슬에 오른 지방관들은 갖가지 이름을 붙여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써 백성의 원성을 샀다.

세도 정치
조선 후기에 나타난 정치 형태로, 왕실의 외척 세력을 중심으로 한 몇몇 유력 가문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 헌종, 철종 때까지 60여 년 간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등의 세도 가문이 국가 정책을 좌우하였다.

부정부패한 관리들은 어린아이와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백성들을 괴롭혔다. 당시 농민들은 농토에 부과된 지세와 군역 대신 납부하는 군포, 춘궁기에 곡식을 빌렸다가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환곡 등을 부담하였는데, 이를 삼정이라 한다. 탐관오리들은 세금의 액수를 마음대로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추가하여 **삼정**이 **문란**해졌다.

지방관의 횡포가 심해지자 농민들은 세금을 피하여 산간벽지로 도망가거나, 도시나 포구, 광산촌 등으로 흘러들어가 품팔이로 살아가기도 하였다.

▲ 전세의 문란

▲ 군역의 문란

▲ 환곡의 문란

예언 사상이 유행하다

19세기에는 부정부패한 관리들 때문에 세금 운영이 문란해졌을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가뭄, 전염병도 잦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지에 도적이 출몰하여 민심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백성들 사이에는 곧 왕조가 교체될 것이라는 내용의 비기와 도참이 유행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씨 왕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적힌 **"정감록"**이었다.

비기 · 도참
비기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법을 적은 책이며, 도참은 앞날의 길흉을 예언하는 책이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며 고통과 불안에 허덕이는 민중을 현혹하는 무리도 나타났다. 농민들은 쌓인 불만을 해소하고 희망을 얻기 위하여 미륵불을 믿거나 무속 신앙에 의지하였다.

▲ 미륵불(경기 안성)
미륵불은 석가모니 다음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할 미래의 부처를 말한다. 백성들은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전해지는 미륵불이 나타나기를 염원하면서 여러 곳에 미륵불상을 만들었다.

천주교가 확산되고 동학이 창시되다

17세기에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소개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학문의 하나로 받아들여 '서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8세기에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곧 여러 계층에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천주교는 모든 사람이 신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제사 의식을 거부하여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특히 순조가 즉위한 후 정부는 천주교를 크게 탄압하였다(신유박해, 1801).

이러한 가운데 경주 지방의 몰락한 양반 출신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1860).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우고 인간 존중과 평등 의식을 강조하였다.

최제우
유교 · 불교 등을 종합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어지러운 나라를 구하고자 하였다.

동학이 농촌 사회로 확산되어 가자 정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는 이유로 최제우를 처형하고 동학을 탄압하였다. 최제우에 이어 2대 교주가 된 최시형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지어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정비하였다. 이로써 동학은 더욱 널리 퍼져 나갔다.

정감록

"정감록"은 조선 왕조를 개창한 이성계의 조상 이심이라는 사람이 정감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았다는 대화를 써 놓은 책이다. 이 책에는 이씨가 왕이 된 후 몇백 년이 지나면 정씨가 왕이 되어 새로운 왕조를 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성들은 지배층의 횡포가 심해질수록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에서 정씨 성을 가졌다는 새로운 지배자가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2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 정주성 싸움

정치는 모든 면이 부패하였고, 서북 지역 사람에 대한 차별도 심했다. 이를 바로잡고자 주먹을 쥐고 옷소매를 떨치며 집을 떠났다. 여러 해를 두고 돌아다니며 근거지를 물색한 끝에 박천의 다복동을 거점으로 삼고 화약과 병기를 제조하며 군사를 훈련시키다가 기근을 맞이하여 일어나니 이에 호응하는 자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 "개벽", 1923년 9월호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자 일어섰다는 사람은 누구일까?

학습 목표 |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배경과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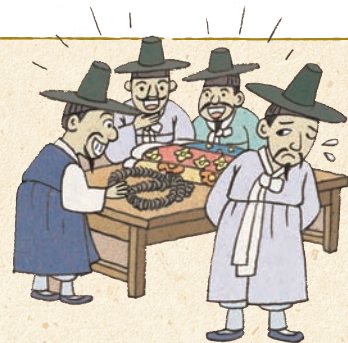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다

부정부패로 고통을 겪고 있던 농민들은 담벼락에 관리들을 비판하는 글을 써 붙이거나 세금 납부를 거부하였다. 또 세금 징수를 공평하게 하라고 관청에 직접 요구하거나 향회를 열어 지방관에게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향회
지방의 양반들이 지방 행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조선 후기에 부유한 상민들이 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지방관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그 자문 기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평안도의 몰락 양반인 홍경래는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과 세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 평안도 가산군에서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홍경래의 난**, 1811). 이 봉기에는 농민, 중소 상인, 광산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들은 청천강 이북 여러 지역을 장악하여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관군에게 밀려 점차 그 세력이 위축되더니 정주성 싸움에서 5개월 만에 진압되었다.

사료 돋보기 농민의 생활

어느 늙은 관리가 대궐에서 퇴근하여 처자식에게 한탄하며 말하기를, "요즘 이름 있는 관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랏일에 대한 계획이나 백성을 위한 걱정은 전혀 없어. 오로지 어느 고을에서 보내오는 뇌물이 많거니 적거니, 좋으니 나쁘니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단 말이야. 이름 있는 관리들이 이렇게 뇌물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고, 지방관들은 그 뇌물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으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 정약용, "목민심서"

세도 정치기에 권력자들은 지방관들에게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일이 많았다. 지방관들은 농민들에게 돈을 거두어들여 뇌물을 마련하였다. 뜻있는 학자들과 관리들은 이를 우려하고 하루빨리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삼정의 문란은 바로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철종 때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다. 진주 지방에서는 무거운 세금에 불만을 가진 농민들이 아전과 양반 지주의 집을 공격해 불태우고, 진주성까지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농민 봉기는 이웃 마을로 퍼진 후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다(임술 농민 봉기, 1862).

이처럼 농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지방관의 부정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19세기의 농민 봉기

탐구 활동 임술 농민 봉기의 원인을 조사한 관리가 왕에게 제출한 보고서

진주에 도착한 후 관리와 농민들을 불러 심문하였습니다. 진주 백성들은 병마절도사 백낙신이 저지른 부정에 항의하기 위해 봉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낙신은 부임한 이래 백성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백성이 내야 할 환곡의 금액을 부풀려 2~3배나 더 많이 받아냈습니다. …… 백성들이 오랫동안 개간해 온 땅을 국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적인 토지라고 멋대로 분류하고, 그 주인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또 세금을 물어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을 매겨 무려 6만 냥이나 거두어들였습니다. - "임술록"

과제 위 자료를 보고 당시 농민들이 민란을 일으킨 이유를 말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서학은 인내천 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다. ( )

(2) 정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세금 운영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

(3) 몰락 양반인 홍경래는 세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진주에서 민란을 일으켰다. (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19세기에 국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 □□가 전개되었다.

(2) 삼정이 문란해지고 사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정씨 왕조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이 담긴 "□□□"이 유행하였다.

대단원 마무리

정치 변화

〈 붕당 정치의 변질 〉

- 통치 구조 변화: 비변사가 최고 권력 기구로 성장
-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 등장 → 붕당이 왕권 위협

〈 탕평책의 실시 〉

- 숙종: 인사 관리를 통한 세력 균형 유지 → 정국의 혼란 초래
- ❶ : 탕평파 중심으로 정국 운영, 왕권 강화
- 정조: ❷ 및 장용영 설치, 화성 건설

실학의 등장

〈 농업 중심 〉

- 유형원: 신분별 토지 분배
- 이익: 생계 유지를 위한 토지 확보
- ❸ : 토지의 공동 소유, 공동 경작

〈 상공업 중심 〉

- 유수원: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 홍대용: 기술 혁신, 신분제 철폐
- 박지원: 수레와 선박 이용 강조
- ❹ : 소비를 통한 생산력 확대

문화의 변화

과학 기술 발달	• 서양의 과학 기술 소개 • 곤여만국전도 → 중국 중심의 세계관 변화
국학 연구	• 역사: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이해, 고구려와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파악 • 지리: 우리 땅에 대한 관심 증가, ❺ 제작
서민 문화와 예술	• 한글 소설, 탈춤: 양반의 위선 비판, 사회 풍자 • 진경산수화: 정선이 창시, 우리나라의 실제 경치 그림 • 풍속화, 민화: 당시 사람들의 실생활 표현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

세도 정치	농민 생활	새로운 사상 유행	농민 봉기
• 외척 세력의 권력 독점 • 관료의 부정과 부패	삼정의 문란	• 비기와 도참 유행 • 동학과 천주교 전파	• ❻ : 세도 정치 부패 비판 • 임술 농민 봉기: 전국적으로 확산

생각의 열쇠

❶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❷ 정조가 설치한 정치 기구로,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❸ “여유당전서”에서 성리학을 비판하였고,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❹ 소비와 생산을 우물물에 비유하여 소비의 미덕을 강조하였다.
❺ 김정호가 기존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전국 지도이다.
❻ 평안도의 몰락 양반이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대우와 세도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며 일으킨 난이다.

1 다음은 조선 후기의 실생활을 표현한 그림이다.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간략히 써 보자.

배경 :

배경 : 조선 후기 정부가 주도하는 수공업이 쇠퇴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활기를 띠었다. 일부 수공업자들은 도자기, 농기구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였다.

배경 :

배경 :

2 위 그림을 토대로 자신이 당시에 살았던 실학자라고 가정하고 상소문을 써 보자.

전하!
지금 우리 조선의 사회 질서는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개혁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VII

통일 제국의 등장

고대 문명이 형성된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통일 제국이 등장하였다. 중국에서는 진·한 제국이 성립되어 중국 문화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 시기에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다.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서아시아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하나로 통일되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동서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였다. 그리스 세계에서는 자유롭고 인간적인 문화가 발전하였고, 로마 제국은 여러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그리스 문화와 함께 서양 문화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로마 제국 시기에 성립한 크리스트교는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해 나갔다.

	기원전 800년경	기원전 400년경	기원전 200년경	기원전 100년경	기원전후
세계	770 춘추 시대 시작	492 페르시아 전쟁	221 진의 중국 통일	27 로마, 제정 수립	
한국				108 고조선 멸망	삼국 성립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유적

100년경	200년경	300년경
184 중국, 황건적의 난 발생	220 중국, 한 멸망	
		313 고구려, 낙랑군 축출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

01 중국 통일 제국의 형성과 유교의 성립

1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변화

▲ 우경도(한대 화상석)

중국에서는 기원전 7세기경부터 밭갈이에 사람 대신 소를 이용하여 쟁기를 끌게 하였다. 그 결과 이전보다 적은 일손으로도 짧은 시간에 많은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확량도 크게 늘어났다. 또한 넓은 평원을 개척하여 농지로 만들어 갔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학습목표 | • 춘추 · 전국 시대의 사회 · 경제적 발전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제자백가의 등장 배경과 대표적인 사상을 설명할 수 있다.

정치 혼란이 심각해지다

기원전 8세기경 춘추 시대가 되자 주 왕실의 권위를 대신하려는 유력한 제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제후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전국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주 왕실의 권위는 무시되었다. 제후국들은 힘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투면서 주변의 약한 제후국을 점령하였다. 그 때문에 많은 제후국이 사라지고 강력한 제후국만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처럼 **춘추 · 전국 시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혼란하였다. 그러나 제후국들이 국력을 키우고자 경쟁하고 창장 강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화가 점차 확대되었다.

춘추 · 전국 시대
춘추 시대(기원전 770~403)는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 제목에서 비롯되었다. 전국 시대는 진(晋)이 한, 위, 조의 세 나라로 나뉜 기원전 403년부터 진(秦)이 중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의 시기로, "전국책"이라는 책 제목에서 비롯되었다.

▲ 춘추 · 전국 시대의 영역
상 · 주 시대에 비하여 중국의 영역이 남북으로 더욱 넓어졌다.

◀ 춘추 시대 제후의 청동기(허난 성 출토, 높이 118 cm)
춘추 시대의 제후들은 주 왕실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화려한 청동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철기가 보급되어 사회가 크게 변화하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사회·경제 면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촉진한 가장 큰 계기는 **철기의 사용**이었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함으로써 소를 이용한 농사(우경)와 밭의 깊이갈이 등 새로운 농사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광대한 황토 지대가 농경지로 변하여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

▲ 춘추·전국 시대의 철제 농기구
① 철제 괭이와 보습의 사용 ② 철제 낫과 거푸집

농업의 발달은 수공업과 상업이 융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 지역에서 여러 모양의 금속 화폐가 널리 사용되었고, 큰 시장과 도시가 발달하였다.

한편 철제 무기를 사용하여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의 규모가 더욱 커졌고, 제후들은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 춘추·전국 시대의 화폐
① 도전(칼 모양) ② 포전(쟁기 모양) ③ 원전(둥근 모양) ④ 의비전(새겨진 문자가 개미 머리 모양과 비슷함)

도움 글 전국 시대의 생활 모습

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 항아리의 표면에는 당시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여러 장면이 새겨져 있다. 활쏘기, 길쌈, 사냥, 음식 준비, 악기 연주, 전쟁 등 다양한 소재들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는데, 당시의 다른 무덤에서 해당 실물들이 발견되어 그 사실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 전쟁 모습

▲ 연회 모습

▲ 전국 시대의 청동 항아리 (쓰촨 성 출토, 높이 40.6 cm)

▼ 전국 시대의 악기(후베이 성 증후을묘 출토)
전체 길이 747 cm인 3층짜리 걸이에 55개의 청동제 악기가 걸려 있는데, 무게가 2.5톤이 넘는다.

▲ 전국 시대의 철제 무기와 복원된 군사 모형 (후베이 성 증후을묘 출토)
전국 시대에 사용된 칼, 창, 화살촉 등 주요 철제 무기들은 청동기보다 단단하고 예리하였다.

제자백가가 다양한 주장을 펼치다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들은 부국강병을 꾀하면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인재를 두루 등용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을 통일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을 주장하는 다양한 사상가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제자백가**라고 한다.

제자백가
'제자(諸子)'는 공자, 맹자, 노자 등과 같은 여러 사상가(스승)를 말하며, '백가(百家)'는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 여러 학파를 뜻한다. 공자·맹자는 유가, 노자·장자는 도가, 한비자는 법가, 묵자는 묵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이다.

제자백가의 주장은 서로 달랐지만 그 사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따지는 합리적인 생각도 함께 발전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현실을 바꾸고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제자백가의 사상은 이후 중국의 학문과 사상의 골격이 되었으며, 정치와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의 학문 발달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탐구 활동 '통일되고 부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제자백가의 주장

• 다음 가상의 대화를 통하여 대표적인 제자백가의 사상을 알아보자.

▲ 유가 대표 공자

모름지기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도덕적 수양에 기초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에 따라 정치를 해야만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을 위하여 도덕적인 정치를 펼칠 때 사회의 혼란은 사라질 것입니다.

▲ 법가 대표 한비자

도덕으로 될까요? 무릇 인간은 도덕적으로 순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혼란도 인간의 이러한 사악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엄격한 법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만 사회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 도가 대표 노자

정말 한심한 말씀이군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도덕이나 법으로 자기만 옳다고 다투는 것이 혼란의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모든 인위적인 도덕이나 제도를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묵가 대표 묵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절실한 조건입니다. 내 가족, 내 나라를 따지지 않고 차별 없는 사랑을 널리 실천해야 합니다. 내 것, 네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제 1 유가, 법가, 도가, 묵가에서 각각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과제 2 내가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라면 어떠한 주장을 선택하였을까? 그 까닭을 말해 보자.

2 진 · 한 통일 제국의 성립

1974년 여름, 진의 시황제릉에서 동쪽으로 1.5 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발굴이 이루어졌다. 진흙으로 만든 실물 크기의 병사와 말, 전차들이 8,000개 이상 땅속에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지하 군단을 만들었던 시황제는 어떻게 중국을 통치했을까?

학습 목표 | • 진 · 한이 통일 제국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알 수 있다.
• 진 · 한 제국에서 나타난 정치 · 사회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 진의 지하 병마용

진의 시황제가 통일 제국을 이루다

진은 전국 시대 중반부터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군주 중심의 국가 체제를 이루었다. 마침내 진은 다른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중국 최초로 통일 제국을 건설하였다(기원전 221).

시황제는 통일을 완성하고자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다.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를 도모하며 봉건제를 폐지하고,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을 직접 다스리는 **군현제**를 실시하였다.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사상의 통일을 꾀했으며, 지방마다 달랐던 문자, 화폐, 도량형 등을 통일하였다. 또한 북쪽에서 침입하는 흉노를 막고자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시황제는 무리한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여 백성의 부담을 가중했고, 강압적인 통치로 백성의 원성을 샀다. 그리하여 그가 죽은 후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진은 통일을 이룬 지 불과 15년 만에 망하였다.

▲ 문자의 통일
춘추 · 전국 시대에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되던 '마(馬)' 자가 통일된 사례다.

화폐(반량전)

저울추

되(말)

▲ 화폐와 도량형(度量衡)의 통일
시황제는 화폐(반량전)와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기본 단위를 통일하였다.

◀ 만리장성
시황제는 흉노의 침입을 막으려고 전국 시대에 각 제후국이 만들었던 북방의 성벽을 연결하여 만 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았다. 만리장성은 북방의 유목민과 중원의 농경민을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였다. 사진은 명대에 다시 만들어진 장성의 모습이다.

한의 무제가 중앙 집권 정치를 펼치다

소금과 철의 전매 제도
소금은 생활의 필수품이고, 철은 무기와 농기구의 재료였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독점 판매하여 큰 이익을 남겼다.

진이 멸망한 후 중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이 서로 대립하다, 유방(고조)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여 한 제국을 세웠다(기원전 202).

고조는 장안을 도읍으로 정하고 통일 과정에서 공적을 세운 세력을 통치 질서 안으로 포용하였다. 이에 진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 대신 군국제를 실시하였다. 군국제는 중앙에는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에는 제후를 두어 다스리는 봉건제를 절충한 것이다.

▼ 흉노를 밟고 있는 말 조각상 (산시 성 셴양 마오링 박물관)

무제는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유학**을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삼아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국가의 수입을 늘리려고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흉노를 물리치고 **비단길**을 개척하여 서역과 활발히 교류하며 영토를 크게 넓혔다.

무제가 죽은 이후, 한은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타 외척인 왕망이 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세웠다. 그러나 얼마 후 신이 멸망하고 한 제국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를 후한이라 한다.

진의 최대 영역
한의 최대 영역
장건의 서역 여행로

▲ 진·한대의 영역
진대에 비해 한대의 영역은 서쪽과 남쪽으로 크게 넓어졌다. 한 무제 때에는 동쪽으로 고조선의 일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남쪽으로 베트남 북부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비단길의 개척자, 장건을 만나다

▲ 장건의 서역 출사도(둔황석굴 벽화)

기자: 고생을 무릅쓰고 서역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장건: 황제(무제)께서는 대월지와 손잡고 흉노를 물리치고자 대월지에 사신을 보내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밀사로 가게 되었지요.
기자: 서역으로 간 목적은 이루셨나요?
장건: 천만에요. 출발하고 얼마 가지 못해 흉노의 포로가 되어 10년 동안이나 잡혀 있었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13년이란 세월이 흘렀더군요.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서역을 오가며 보고 들은 정보는 우리 나라의 대외 정책뿐만 아니라 서역과의 문물 교류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했답니다. 황제께서 탐내던 서역의 준마를 우리 나라에 들여온 것도 제 덕분이지요.
기자: 중국과 서역을 오간 길을 후대에 '비단길'이라 한 것도 당신의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로군요.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하다

한대에는 경제가 발전하여 향촌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호족**이 나타났다. 이들은 향촌의 질서 유지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의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러나 호족 세력의 횡포가 심해지면서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어렵게 살게 되었다. 후한 말에는 농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황건적의 난** 등 농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때 지방의 호족들이 자립하면서 후한은 마침내 위에 멸망하였다(220).

▲ 한대 호족의 부인이 사용하던 칠기 화장품 통(후난 성 창사 마왕두이 출토)

황건적의 난
후한 말에 장각이 수십만의 신도를 모아 일으킨 농민 반란으로서, 머리에 노란 두건을 썼기 때문에 '황건적(黃巾賊)'이라고 불렸다.

탐구 활동 호족이 사회에 미친 영향

자료 1

3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같이 관리하며, 자손들이 아침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드리는 것은 공경대부의 집과 같았다. …… 농토는 300여 경(頃)이나 되었고 저택은 모두 고층 건물이었다. …… 재산이 굉장히 많아 가난한 친척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혜택은 마을 전체에 두루 미쳤다. - "후한서" '번굉전'

자료 2

부자는 땅을 수만 경(頃) 이상이나 갖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송곳 하나를 꽂을 땅조차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 "한서" '식화지'

자료 3 한대 호족의 생활

▲ 한대 호족의 대규모 저택 모습(화상석, 쓰촨 성 청두 출토)

당시 호족이 살았던 집에는 큰 정원은 물론, 곡식과 물품을 보관하던 대형 창고와 집을 지키고자 설치한 높은 망루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화상석은 그림을 그리거나 새겨 넣은 돌로, 당시의 풍속과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호족의 곡식 저장 창고와 높은 망루(모형)

과제 1 자료 1을 읽고 한대에 호족이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해 보자.

과제 2 자료 2, 3을 토대로 호족의 성장이 농민 생활에 끼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3 유교 사상과 문화의 발전

▲ 한대의 유교 학습 모습(화상석)

한의 통치자는 진의 멸망에서 엄격한 법률과 형벌이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나라를 안정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어진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유가의 주장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의 통치자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였을까?

학습 목표 | • 한에서 이루어진 문화적 발전과 그 특징을 알 수 있다.
• 진·한 제국이 후대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유교를 내세워 나라의 질서를 갖추다

한 무제는 유학을 모든 학문의 중심으로 삼았다. 가족의 윤리와 충성을 중시하는 유가 사상이 황제의 지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유학은 학문의 중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뽑는 기준이 되었으며, 일상생활의 근본이 되었다. 이렇게 발전한 유가 사상을 **유교**라고 부른다.

유교는 중국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렸다. 또한 한의 세력이 뻗어 나감에 따라 동아시아 각지에도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통치 체제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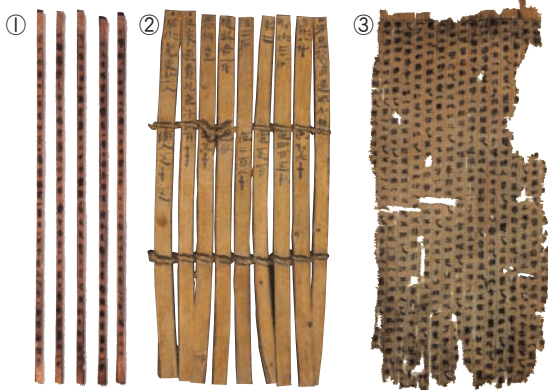
중국 전통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다

한은 춘추·전국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달했던 문화를 종합하여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대에는 유학이 발전하면서 유교 경전의 정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전의 해석에 힘쓰는 **훈고학**이 발전하였다. 역사서로는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등이 편찬되었다.

“사기”와 “한서”
“사기”는 전설 시대부터 한 무제 때까지를 본기와 열전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한서”는 “사기”의 체제를 이으면서 한대의 역사만을 기술하였다.

후한 때 채륜은 종이 만드는 방법을 개량하였다. 당시 글을 쓰는 데 이용되었던 대나무나 나뭇조각, 비단 등은 부피가 너무 크거나 가격이 비쌌다. 이에 글을 쓰는 데 편리한 종이가 사용되면서 지식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학문과 사상이 더욱 발전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도 발달하여 해시계, 지진계 등이 발명되었다.

▲ 대나무(①)·나뭇조각(②)·비단(③)에 쓴 글
종이가 사용되기 전에는 대나무나 나뭇조각, 비단 등에 글을 썼다.

▶ 앉은 채 발로 밟아서 천을 짜는 베틀(화상석)

베틀이 발명되기 전에는 손으로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선 채로 실을 엮어 천을 짜는 기구를 사용하였다.

서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다

한대에는 비단길을 이용해 서역과 활발히 교류하여, 중국으로 진기한 물품들이 많이 들어왔다. 비파, 공후 등의 악기와 포도, 호두 등의 음식은 물론, 서역의 풍습과 불교 등의 정신문화도 전래되었다.

한이 서역에 수출한 가장 중요한 물품은 비단이었다. 한대에는 앉아서 천을 짜는 베틀이 발명되어 더욱 질 좋은 비단을 만들어 냈다. 또한 염색 기술과 자수법이 발달하여 비단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탐구 활동 진 · 한 제국의 유산

▲ 진의 청동 마차

진 제국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황제(皇帝)'라는 칭호는 이전의 정치적 통치자(왕)를 넘어서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이후 청이 멸망할 때까지 황제는 절대 권력자로서 중국을 통치하였다. 한편 진에서 실시한 군현제는 중앙 집권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방 통치 제도가 되었다. 이러한 지배 체제는 주로 농경 세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진 제국 때 만들어진 만리장성은 이후 오랫동안 농경 세계와 유목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

한 제국 때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유교가 확립되면서, 실제의 제도는 법가적 원리를, 통치의 이념은 유가적 원리를 따르는 체제가 갖추어졌다. 한편 채륜이 개량한 종이는 필기 재료를 획기적으로 변혁시켰으며, "사기", "한서" 등은 후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역사서를 편찬하는 데 모범이 되었다.

▶ 사마천과 "사기"

과제 1 진 · 한 제국이 후대 중국 역사에 끼친 영향을 정치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자.

과제 2 한 제국 때 이루어진 문화적 발전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는 춘추 · 전국 시대에 활약했던 사상가들과 학파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 한의 □□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며, 소금과 철에 대한 전매 제도를 실시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장건 •	• ㉠ "사기" 저술
(2) 채륜 •	• ㉡ 비단길 개척
(3) 시황제 •	• ㉢ 제지법 개량
(4) 사마천 •	• ㉣ 만리장성 축조

02 인도 통일 왕조의 등장과 불교의 발전

1 마우리아 왕조와 불교의 확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세 번째 왕인 아소카는 정복 전쟁을 벌여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그 후 아소카 왕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희생에 대하여 반성하고 불법(佛法)에 따른 통치를 내세웠다.

아소카 왕은 어떤 방법으로 불법에 따른 통치를 실시했을까?

학습 목표 | • 불교의 성립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 마우리아 왕조의 통일과 불교의 발전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불교가 평등과 자비를 가르치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갠지스 강 유역에서는 정복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와 정치를 담당한 크샤트리아와 생산 활동에 종사한 바이샤 계급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카스트제 내에서 브라만보다 지위가 낮았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카스트제에 의해 고정된 직업과 신분 간의 차별이 심해지자 하층민의 불만이 높아져 갔다. 이에 브라만교와 카스트제를 비판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가모니는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불교**를 창시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올바른 수행을 하면 세상의 고통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나아가 그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만인 평등과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 주는 자비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당시 브라만 계급의 횡포와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의 지지를 받아 널리 퍼져 나갔다.

윤회
인생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전생의 삶이 다음 생의 모습을 결정짓는다는 관념이다.

해탈
깨달음을 얻어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 편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고행하는 석가모니의 모습(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석가'는 부족 이름이고 '모니'는 성자라는 뜻으로서, '석가족의 성자'라는 의미이다.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다. 작은 왕국의 왕자로 태어난 그는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수행의 길로 나섰다.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하다

불교가 창시될 무렵 인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군이 인더스 강 유역에 침입하였다. 이 무렵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 지역을 통일하여 사회 혼란을 수습하였다.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손자인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하였고, 각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를 파견하는 등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저수지와 같은 관개 시설을 만들고 농토를 개간하는 등 농민 생활의 개선에도 힘썼다. 그러나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급격히 쇠퇴하여 기원전 2세기 전반에 멸망하였다.

▲ 마우리아 왕조의 영역

아소카 왕의 지원으로 불교가 발전하다

통일을 이룩한 아소카 왕은 무력 대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를 다스릴 것을 선언하고, 그 내용을 새긴 돌기둥을 전국에 세웠다. 또한 불경을 정리하고 곳곳에 불탑을 세워 백성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한편, 외국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불교의 국외 전파에도 힘썼다. 이 무렵에 유행한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로, 인도 전역과 실론(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되었다.

▲ 산치 대탑

스투파(탑)는 원래 무덤을 뜻한다. 아소카 왕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시고자 스투파를 만들었다.

도움 글 인도의 상징이 된 아소카 왕의 돌기둥

아소카 왕이 세운 돌기둥의 머리 부분에 있는 조각상은 현재 인도 정부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조각상 위에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자 네 마리가 등을 맞대고 있고, 아래에는 불교의 진리를 의미하는 수레바퀴와 함께 코끼리 · 황소 · 말 · 사자가 새겨져 있다.

▲ 돌기둥의 머리 부분 조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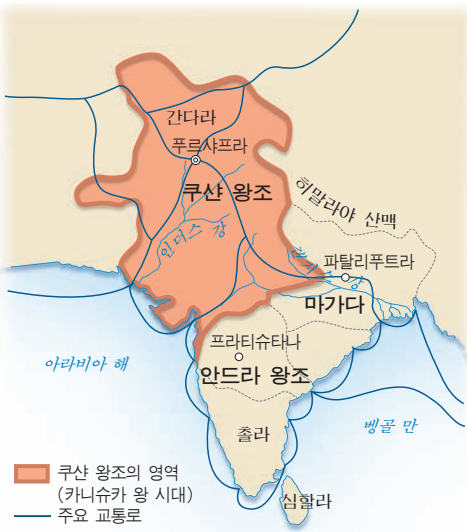
▲ 인도 지폐의 뒷부분

▲ 인도 국기

2 쿠샨 왕조와 대승 불교의 발전

인도 쿠샨 왕조에서는 한쪽 면에 카니슈카 왕을 새기고, 다른 면에는 부처를 새긴 동전을 주조하였다.

동전의 양면에 왕과 부처의 모습을 새긴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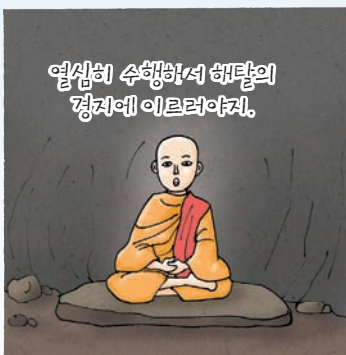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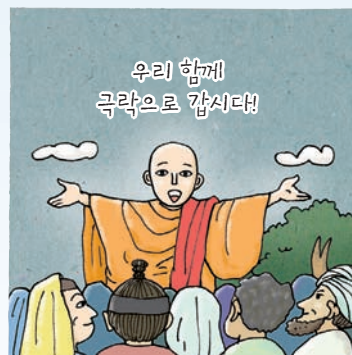
학습 목표 | • 쿠샨 왕조 시기 불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간다라 미술의 특징과 전파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 쿠샨 왕조의 영역

쿠샨 왕조에서 대승 불교가 발전하다

마우리아 왕조가 무너진 이후 인도에서는 여러 왕국이 등장하여 서로 경쟁하였다. 그 가운데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쿠샨족이 1세기 중엽 북인도를 장악하면서 쿠샨 왕조를 세웠다.

카니슈카 왕은 중국과 인도, 서아시아로 통하는 동서 교역로의 중심지를 차지하며 쿠샨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이 무렵 상좌부 불교에 반발하여 대중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 불교**가 등장하였다. 카니슈카 왕은 불교 경전 정리와 사원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대승 불교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간다라 미술과 대승 불교가 동아시아로 전파되다

쿠샨 왕조 때 간다라 지방에서는 그리스 문화와 인도의 불교문화가 만나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였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상이 제작되었다.

▲ 상좌부 불교

▲ 대승 불교

불교 성립 초기에는 엄격한 수행을 통한 해탈을 강조하는 상좌부 불교가 유행하였다. 하지만 대중은 해탈을 하려면 가족, 재산 등 속세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려웠다.

이에 소수의 수행자만이 아니라 대중을 구제해야 한다는 대승 불교가 등장하였다. 대승 불교는 부처를 믿고 선행을 베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극락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다.

불교 성립 초기에는 부처의 모습을 직접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부처를 다양한 상징으로만 표현하였다. 그런데 1세기경부터 간다라 지방에서는 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간다라 미술과 대승 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비단길**을 따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동아시아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 부처를 표현한 초기의 여러 상징물(부처의 발자국, 수레바퀴)

▶ 간다라 불상(일본 도쿄 국립 박물관)
간다라 불상은 물결 모양의 머리카락과 깊은 눈언저리, 높은 콧대 등에서 고대 인도인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옷의 주름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탐구 활동 불교의 전파

과제 1 (가)와 (나)에 해당하는 불교를 써 보자.

(가): ________ 불교

(나): ________ 불교

과제 2 지도를 참고하여 다음의 표를 완성해 보자.

구분	(가)	(나)
발달 시기(왕조)		쿠샨 왕조
주요 전파 지역	실론, 동남아시아	
특징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석가모니는 불교를 창시하고 만인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였다. ( )

(2)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최초로 북인도를 통일하였다. ( )

(3) 카니슈카 왕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 )

2 인도 전역에 불교의 가르침을 새긴 돌기둥을 세우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 왕을 쓰시오.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① □□□의 조각 문화 + 인도의 불교문화
=② □□□ 미술

03 서아시아 통일 제국의 등장과 페르시아 문화

1 페르시아 제국의 발전

페르세폴리스의 왕궁 터에서 발견된 은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쐐기 문자로 새겨져 있다.

"이것이 내가 차지하고 있는 왕국이다. 소그디아나를 건너 스키타이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신드에서 사르디스까지. 이것을 가장 위대한 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위대한 왕인 나에게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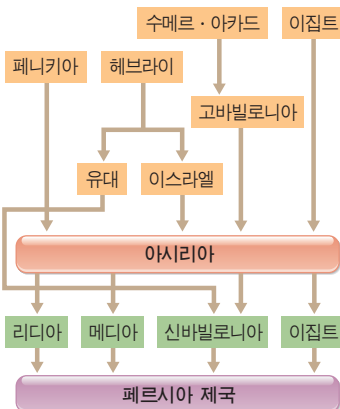
이처럼 거대한 영토를 확보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제국을 어떻게 통치하였을까?

학습 목표 |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서아시아를 통일하다

기원전 7세기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아시리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서아시아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하였다. 아시리아는 정복지의 주민들을 무거운 세금과 가혹한 형벌로 다스렸다. 이 때문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아시리아는 오래가지 않아 멸망하였고, 서아시아는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

분열된 서아시아를 다시 통일한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는 서아시아에서 이집트, 인더스 강 유역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다.

▲ 아시리아의 전사(영국 박물관)

▲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

◀ 페르시아 제국의 영역과 왕의 길
왕의 길은 수사에서 사르디스에 이르는 길로서, 총 길이가 2,400 km이다. 곳곳에 역을 설치하고 숙소와 말을 제공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앙 집권 체제**와 **이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바탕으로 200여 년간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켜 점차 쇠퇴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4세기 말에 알렉산드로스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제국의 부활을 꿈꾸다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이후 서아시아에서는 이란계 민족이 파르티아를 세웠다. 파르티아는 비단길을 이용한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으나, 3세기 초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꾀하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멸망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 유역에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동서 교역의 중심지를 차지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여러 차례 로마 제국의 침입을 물리쳤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전쟁으로 점차 쇠약해져, 결국 7세기 중엽에 이슬람 세력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 로마 제국의 황제를 사로잡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황제(이란 나크시 에 로스탐)
말 위의 샤푸르 1세가 무릎을 꿇은 로마 황제의 항복을 받고 있다.

도움 글 제국 통치의 모범이 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방식

통일 제국이 다양한 언어와 풍속을 가진 여러 민족을 통치하려면 중앙 집권 체제와 강력한 군대, 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한 경제권, 이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 등 여러 제도와 정책들이 필요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은 전국을 20개의 주로 나누고 총독을 보내 다스렸으며, 총독을 감시할 목적에서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전국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역참제를 정비하였다. 최정예 부대인 왕실 사수대를 유지하였으며,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여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였다. 한편 페르시아 제국은 정해진 세금만 내면 이민족의 고유한 언어, 풍습, 종교 등을 그대로 존중하였다.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들은 이후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등장한 여러 제국들의 통치 방식에 모범이 되었다.

▲ 다리우스 1세의 모습이 새겨진 화폐

▲ 왕실 사수대(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항상 1만 명을 유지한 정예 부대로서, '불사조'라 불리기도 하였다.

2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어느 종교의 신도가 '영원한 불'을 모시는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원한 불'은 이 종교의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를 상징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배화교(拜火敎)라고도 불린 이 종교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조로아스터교가 페르시아의 정치와 후대 종교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조로아스터교가 서아시아 지역으로 퍼져 나가다

기원전 7세기경 서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던 예언자 조로아스터는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자신이 조로아스터교의 최고 신인 아후라 마즈다에게서 권력을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린다고 주장하며, 조로아스터교를 제국을 통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의 대결, 구세주의 등장,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등을 교리로 삼았다. 이는 훗날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주었다.

◀ 조로아스터교 사원(이란 야즈드)
현재 인도,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을 중심으로 15만여 명의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탐구 활동 비시툰 부조

▲ 비시툰 부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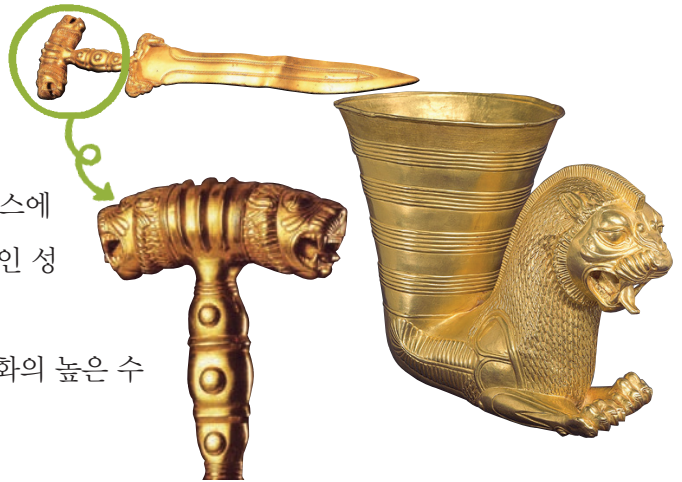
비시툰 부조는 다리우스 1세가 아후라 마즈다의 축복 아래 신하들의 호위를 받으며 반란군의 우두머리를 밟고 서 있고, 그 뒤로 8명의 포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절벽에 새긴 것이다.

여기에는 "왕이 말하노라. 나, 다리우스 왕은 위대한 왕, 왕 중의 왕이다. 광명의 신, 아후라 마즈다의 높은 뜻에 따라 왕이 되었다. 아후라 마즈다는 페르시아를 나에게 주셨다." 라는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과제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국제적 문화가 발달하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이민족에 대한 포용 정책을 펼쳐 여러 민족의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 문화**가 발전하였다. 제국의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에 남아 있는 유적과 유물은 페르시아 문화의 국제적인 성격을 잘 드러낸다.

또한 금을 가공한 세련된 공예품도 페르시아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 스키타이 동물 장식의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 제국의 금제 단검과 뿔잔 (이란 국립 박물관)

도움 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수도, 페르세폴리스

다리우스 1세 때 건설된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시아 인의 도시'라는 뜻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외교 중심지였다. 페르세폴리스의 궁전은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등 여러 지역의 문화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건축 양식을 보여 준다. 이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은 기원전 330년 알렉산드로스의 침략을 받아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후 2200여 년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 있다가, 1931년부터 발굴·복원되어 그 웅장함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페르세폴리스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페르시아 제국 관료들의 행렬

페르세폴리스 각 구역의 계단과 난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와 군인, 주변 나라에서 보낸 사절단, 국왕과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 공물을 바치러 온 각국의 사절단

▲ 페르세폴리스 유적 전경

▲ 아파다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거나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다. 높이가 20 m에 이르는 기둥이 72개나 세워져 있었는데, 기둥머리의 연꽃 장식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만국의 문

외국의 사절단이 들어오던 문이다. 인간의 머리를 한 황소 모양 조각은 아시리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은제 접시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동서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여러 지역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페르시아의 전통과 융합하여 독특한 문화로 발전시켰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는 건축과 조각, 금속 세공술과 유리 공예, 직조 공예 등이 발달하였다.

한편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이 시대에는 조로아스터교에 불교와 크리스트교의 요소가 더해진 **마니교**가 성립하였으나 탄압을 받았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문화는 비단길을 거쳐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일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졌다.

역사 가로지르기 동아시아로 전해진 페르시아의 문화

▲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은제 물병과 유리잔 ▲ 경주의 신라 고분과 탑에서 출토된 유리 제품 ▲ 일본 쇼소인에 소장되어 있는 유리병과 유리잔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수도 크테시폰을 중심으로 동서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문물이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해졌다. 연꽃무늬나 포도무늬, 석류나무, 악기인 비파 등은 페르시아를 거쳐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래된 대표적인 예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아시리아는 철기를 바탕으로 서아시아를 처음 통일하였다. (　　)

(2)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　　)

(3)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중계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다. (　　)

2 아시리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이민족 통치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통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친 종교를 쓰시오.

4 페르시아 제국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목적을 쓰시오.

- '왕의 눈', '왕의 귀' 파견
- 도로와 역참제 정비
- 화폐와 도량형 통일

04 고대 지중해 세계와 크리스트교의 성립

1 고대 그리스의 사회와 문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 이 신전에는 아테나 여신이 태어나는 모습, 아테나 여신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테네의 지배권을 두고 싸우는 모습 등이 섬세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1호인 이 신전은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고 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이 신전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에게 문명이 발생하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고대 문명이 발달하던 시기에 에게 해의 크레타 섬과 그리스 본토,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서는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에게 문명**이 발생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에 크노소스를 중심으로 크레타 문명(미노스 문명)이 발생하였고, 기원전 1400년경에는 미케네, 트로이 등을 중심으로 미케네 문명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200년경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도리아 인에게 파괴되었다.

▲ 고대 그리스 세계

▲ 크노소스 궁전 유적

▲ 크노소스 궁전의 벽화(그리스 크레타 섬)
크노소스 궁전의 벽과 천장에는 궁정 풍속, 동식물, 새, 물고기 등이 그려져 있다.

▲ 사자의 문(그리스 미케네)
미케네의 성문으로서, 문 위에 두 마리의 사자를 조각하였다.

폴리스가 발전하다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에서는 폴리스라 불리는 독립된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다. 그리스는 산지가 많고 굴곡이 심한 해안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여러 폴리스로 나누어져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섬기면서,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열어 결속을 강화하며 지중해를 무대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폴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였다.

▲ 그리스 중장 보병의 모습(영국 박물관)
부유해진 평민들은 투구, 가슴 덮개, 다리 덮개, 긴 창, 큰 방패를 마련하여 중무장하였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를 이끌다

아테네에서는 처음에 왕정이 행해졌으나 점차 귀족 정치로 바뀌었다. 그러나 무역과 상공업이 발달하고 대외 전쟁에서 스스로 무장하여 참여한 평민의 역할이 커지면서 귀족 정치가 흔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의 차이에 따라 참정권을 부여하는 개혁이 이루어져 평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평민과 귀족 모두가 이 개혁에 반발하여 사회는 더욱 혼란해졌다. 이를 틈타 독재자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였다.

도움 글 폴리스의 모습

폴리스는 여러 촌락이 외적을 막으려고 지리적·군사적으로 중심이 되는 언덕에 함께 모여 살면서 나타났다. 폴리스는 하나의 도시와 주변의 농촌으로 구성되었다. 폴리스의 중심에는 종교적·군사적 거점인 신전(①)과 아크로폴리스(②)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집회와 상거래가 이루어진 아고라(광장, ③)가 있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민회 회의장(④)이 있었는데, 민회에는 여자, 외국인, 노예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기원전 6세기 말에는 도편 추방제 등이 도입되어 민주 정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크게 번성하였고,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민주 정치가 더욱 발전하였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부에 도리아 인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폴리스였다. 스파르타는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다수의 피정복민을 다스렸다. 이 때문에 시민에게 어려서부터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다.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 세력에 승리하여 그리스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도 하였다.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오랜 내분으로 점차 쇠퇴하다가 기원전 4세기 중엽 마케도니아에 정복되었다.

◀ **도편 추방제에 사용된 도기 파편**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에게 도기 파편에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 하여, 6,000표 이상 나온 사람은 10년 동안 외국으로 추방하였다.

▶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 사람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쳐서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 등에서 페르시아를 물리쳤다.

탐구 활동 아테네와 스파르타

자료 1 아테네의 민주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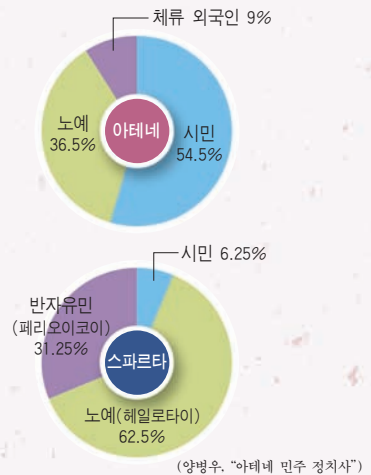
소수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지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체제는 민주 정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 우리 시민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모든 정치 문제들을 신중하게 토론한 후, 결정합니다.

\- 페리클레스의 전몰자를 위한 추도사

자료 2 스파르타식 교육

스파르타 시민의 아들은 7세가 되면 집을 떠나 공동 교육소에서 20세가 될 때까지 엄격한 통제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 주된 교육 내용은 글 읽기, 음악뿐만 아니라 무기 사용법을 포함한 군사 훈련, 정신력 강화였다. 이들은 30세까지는 결혼을 했어도 병영에서 공동생활을 하였다. 그 결과 스파르타는 막강한 육군을 보유하게 되었다.

자료 3 인구 구성비(기원전 5세기 중엽)

(양병우, "아테네 민주 정치사")

과제 1 자료 1을 토대로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을 말해 보자.

과제 2 스파르타가 자료 2와 같은 교육을 실시한 까닭을 자료 3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 **원반 던지는 모습**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 종목에는 달리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레슬링, 복싱, 판크라티온(격투기) 등이 있었다.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다

그리스 인들은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12신을 숭배하였다. 올림픽 경기와 연극도 처음에는 신을 경배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리스 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한 신들이 죽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인간과 같은 모습과 감정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의 철학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기원전 5세기경에 소피스트가 나타나 철학의 관심을 인간과 사회로 확대하였다. 소피스트들은 실용적 지식을 강조하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삶에는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와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졌다.

문학에서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써서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한 신과 영웅의 웅장한 이야기를 전하였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를 담은 "역사"를 써서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다. 그리스 인들이 남긴 건축과 조각은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파르테논 신전이 대표적이다.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보여 준 그리스 문화는 헬레니즘 시대와 로마를 거쳐 오늘날 **서양 문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도움 글 그리스의 신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자신이 초대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에리스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힌 황금사과 하나를 연회장에 던졌다. 그러자 황금사과를 둘러싸고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가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 호메로스, '일리아드'

그리스 신화에서 보이듯 그리스 사람들은 신도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감정을 지녔다고 믿었다.

▲ 인간의 모습을 한 그리스의 신 포세이돈 (그리스 아테네 고고학 박물관)

2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

이란의 어느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여신상은 고대 이집트의 여신인 이시스를 표현한 것이다. 이 여신은 고대 그리스의 여성복을 입고, 왼손에는 고대 그리스의 행운의 여신인 티케의 상징을 들고 있다. 또한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은 사랑을 상징하는 고대 이집트의 신 하토르의 것이다.

이집트의 여신이 그리스풍의 의상을 입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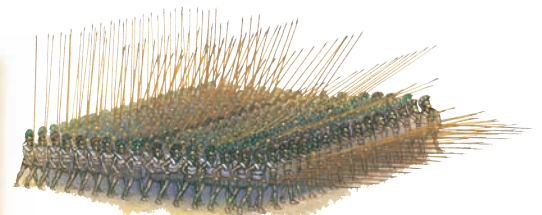
학습 목표 | • 헬레니즘 세계의 성립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헬레니즘 문화의 특색을 말할 수 있다.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건설하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에 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까지 정복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고자 동방의 전제 군주제를 받아들였다. 그는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여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스 인과 페르시아 인의 혼인을 장려하는 등 동서 융합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제국은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 등으로 분열되었고, 이들은 기원전 1세기 후반까지 모두 로마에 정복되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이후 약 300년간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른다.

▲ **알렉산드로스(이탈리아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싸우는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으로서, 폼페이에서 출토된 모자이크화의 일부이다.

▲ **팔랑크스(밀집 장창 보병대)**
팔랑크스는 6m 정도의 창으로 무장한 보병이 50cm 간격으로 밀집한 부대이다. 기병과 함께 전쟁에서 무적을 자랑하였다.

◀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역**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최대 영역은 마케도니아에서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인더스 강까지 이르렀다.

헬레니즘 문화가 일어나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 인들을 옮겨 살게 하여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리하여 '그리스 문화와 같은 문화' 라는 뜻의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였다.

헬레니즘 문화는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철학에 반영되어 금욕적 생활을 강조하는 스토아학파와 정신적 쾌락을 주장하는 에피쿠로스학파가 등장하였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자연 과학이 발달하여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 등 뛰어난 학자가 나왔다. 조각으로는 라오콘 군상과 밀로의 비너스가 대표적이다. 헬레니즘의 조각은 북인도에 전파되어 **간다라 미술**이 성립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는 공중목욕탕에서 '물속의 물체는 그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라는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다.

◀ 유클리드(이탈리아 두칼레 궁전)
유클리드는 도형 및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학을 대성하여 '기하학의 아버지' 라고 불린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기하학을 쉽게 배우는 방법을 묻자, 단호하게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도움 글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 이야기

그리스 조각이 조화와 균형의 이상적인 미를 추구했다면,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은 인간의 고뇌하는 모습이나 인체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 라오콘 군상(바티칸 미술관)
라오콘은 아폴로를 섬기는 트로이의 신관이었다. 그는 트로이 전쟁 때 그리스 군의 목마를 트로이 성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사,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의 뱀에게 두 자식과 함께 졸려 죽었다. 이 조각은 큰 뱀에게 감겨 죽음을 맞이하는 라오콘과 두 아들의 마지막 고통과 격노를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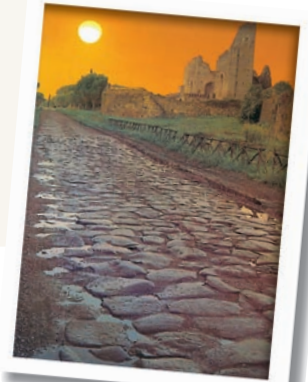
▲ 승리의 여신, 니케(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승리의 여신 니케가 뱃머리에 발을 디디려는 순간, 바람에 날개가 펄럭이고 옷이 하늘거리는 모습을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스 사모트라케 섬에서 발견되었다.

▶ 밀로의 비너스(프랑스 루브르 미술관)
밀로 섬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 근처에서 밭을 갈던 한 농부가 발견한 것으로서, 헬레니즘 미술을 대표하는 조각이다. 밀로의 비너스는 상체가 1, 하체가 1.618의 비율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비율이라고 한다.

3 로마의 발전과 크리스트교의 성립

아피아 가도는 로마와 이탈리아 남부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포장도로이다. 이 길은 양 옆에 배수로를 파고 가장자리에 돌을 세운 후 모래, 자갈, 다듬어진 돌 등을 차례로 덮어 만들었다. 로마 제국은 정복지 곳곳에 이러한 도로를 건설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생겼다.

로마 제국이 이러한 도로를 건설한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로마 공화정과 제정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크리스트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로마 공화정이 발달하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라틴 인이 테베레 강 하류 지역에 세운 나라이다. 처음에는 왕이 통치하다가 기원전 6세기 말에 귀족들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웠다.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들이 관직과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평민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정복 전쟁에 참여하면서 세력을 키우자, 귀족들은 기원전 5세기 초에 평민회 창설과 평민을 대표하는 **호민관**의 선출을 허용하였다. 또한 **12표법** 등 여러 법이 제정되면서 기원전 3세기 초에는 평민도 귀족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 로마 원로원의 모습(이탈리아 마다마 궁)
귀족으로 구성된 원로원은 군대 지휘와 행정을 맡은 2명의 집정관에게 조언을 해 주고, 외교와 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탐구 활동 평민의 지위 변화

(가) 12표법(기원전 451)

제4표 아버지는 아들을 감금, 매매 또는 노동을 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토록 갖는다.

제8표 주먹으로 자유인에게 골절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벌금 300페니를 지불해야 하고, 노예에게는 150페니를 지불해야 한다.

제11표 평민과 귀족의 혼인은 금지한다.

(나) 리키니우스 법(기원전 367)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할 것을 규정하였다. 로마는 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을 평민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호르텐시우스 법(기원전 287)

평민회의 의결은 원로원의 승인 없이 그대로 국법이 되어, 귀족을 포함해 모든 로마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과제 1 (가)를 바탕으로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을 말해 보고, 이 법의 역사적 의미를 조사해 보자.

과제 2 (가)~(다)의 과정을 통해 평민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발표해 보자.

▲ **포에니 전쟁**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세 차례 일어난 전쟁이다. 2차 전쟁 때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는 칸나에 전투에서 로마를 크게 이겼다. 그러나 로마의 스키피오가 자마 전투에서 카르타고를 격파하면서 포에니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다.

로마 공화정이 혼란에 빠지다

로마는 기원전 3세기 전반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이어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에게 승리하여 서지중해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계속하여 기원전 2세기 중엽에는 지중해 전역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정복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로마에서는 자영 농민층이 몰락한 반면, 귀족들은 대농장(**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호민관인 그라쿠스 형제는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두 형제 모두 반대파에게 암살되어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그 후 로마는 혼란에 빠졌고, 카이사르,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등 군인 정치가들이 정권을 잡았다.

▶ **라티푼디움에서 일하는 노예들의 모습**
포에니 전쟁 후 부호들은 국유지를 탈취하고 사유화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토지를 넓혀 나갔다. 이들은 주로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아 광대한 농장(라티푼디움)을 경영하였다.

사료 돋보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이탈리아를 배회하는 야수조차 잠들 동굴이 있지만, 이탈리아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은 공기와 빛밖에 가진 것이 없으며, 집도 안식처도 없이 가족을 이끌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 많은 로마 인은 어버이의 재단이나 무덤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부귀와 사치를 위해 싸우고 죽어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계의 정복자라 불린다고 해도 그들은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

▲ **그라쿠스 형제**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는 자영 농민이 몰락하여 중장 보병을 유지할 수 없었다. 또한 빈부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사치와 향락을 좇는 해이한 생활 기풍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에 그라쿠스 형제는 부유층의 공유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를 빈민에게 분배하여 자영 농민을 육성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은 원로원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로마 제국이 번영하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정권을 잡았다. 그는 기원전 27년에 **아우구스투스**(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군대 지휘권과 중요 관직을 독점하여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었다. 이때부터를 제정 시대라고 한다.

그 후 약 200년 동안 5현제 등 훌륭한 황제들이 나와 ‘로마의 평화’가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가 최대로 확대되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들이 번영하였다. 로마 시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검투사의 혈투나 전차 경주와 같은 구경거리를 즐겼다.

▲ 아우구스투스(바티칸 미술관)

로마 제국이 흔들리다

로마 제국의 번영은 3세기 초에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군인들이 권력 다툼을 벌여 사회가 혼란해지고, 이민족의 위협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속된 전쟁과 약탈로 농촌이 피폐해지고, 도시와 상공업도 쇠퇴하였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로 옮기고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점점 쇠퇴하여, 결국 동서로 분열되었다. 이후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제국)은 약 1000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멸망하였다(476).

▲ 로마 시민의 구경거리(에스파냐 마드리드 국립 고고학 박물관)
로마 시민들은 거대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의 결투를 보거나 대전차 경기장에서 전차 경주를 관람하였다.

▲ 로마 제국의 영역
2세기경 로마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 분할 통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가 나누어 각각 통치하도록 하였다.

로마 인이 실용적인 문화를 남기다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특히 법률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로마의 법률은 로마 시민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에서 제국 내의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로마 인들은 도로, 교량, 수도 등 토목과 건축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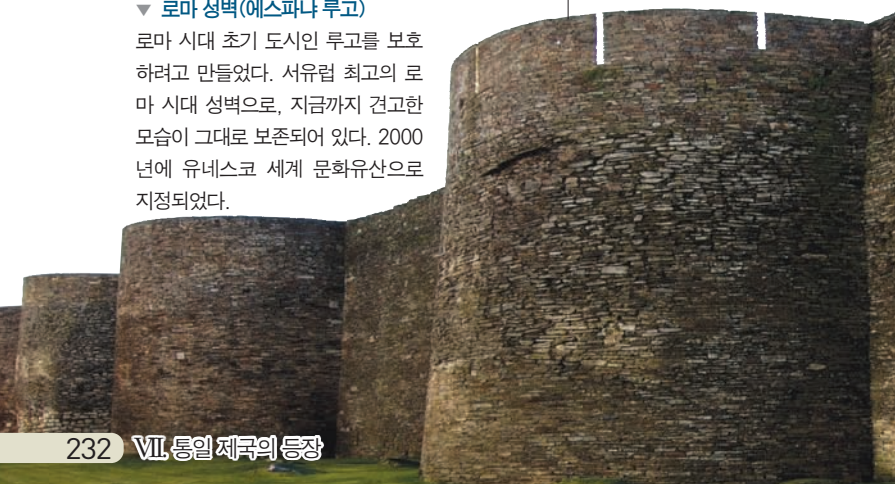
▼ 수도교(프랑스 가르)
산에서 물을 끌어오다가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아치형의 수도교를 만들었다. 맨 위층이 수로이며, 1층과 2층은 사람과 말의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 수도교의 구조

▲ 콜로세움(이탈리아 로마)
대리석으로 장식한 외벽에는 로마의 건축 양식인 아치를 사용하였다. 콜로세움은 5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 로마 극장(시리아 보스라)
최대 1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으로서, 오늘날까지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로마 성벽(에스파냐 루고)
로마 시대 초기 도시인 루고를 보호하려고 만들었다. 서유럽 최고의 로마 시대 성벽으로, 지금까지 견고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로마 신전 유적(튀니지 두가)
아치형 진입로 뒤로 로마의 신인 주피터, 주노, 미네르바를 위해 건립한 신전이 있다.

크리스트교가 성립하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팔레스타인에서는 예수에 의해 크리스트교가 성립되었다. 그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구원, 평등 등을 설교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 내에 널리 퍼졌다.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여러 신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탄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자, 신자들은 탄압을 피해 카타콤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다.

▲ 최후의 만찬(이탈리아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예수와 열두 제자의 만찬 모습이다.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계속 늘어나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였다(313). 그 후 크리스트교는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았고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 크리스트교의 전파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각지에 교회가 세워졌다.

▲ 카타콤(지하 묘지)과 벽화
카타콤에는 복잡한 미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벽에는 성서와 관련된 벽화가 그려져 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기원전 6세기 말에 클레이스테네스는 도편 추방제를 제정하여 민주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

(2)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개인주의적 경향의 철학이 발달하였다. (   )

(3) 아우구스투스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여 로마 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헬레니즘의 조각 양식은 북인도에 전파되어 □□□ 미술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2) 로마의 □□□□ 형제는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3) 로마는 넓은 제국을 통치하고자 토목, 건축,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대단원 마무리

중국

〈 춘추 · 전국 시대 〉

- 철기의 보급
  - 농업 생산력 증대 → 상업의 발달
  - 전투력 향상
- (❶)의 등장

〈 진 〉

-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
- 시황제의 정책
  - 군현제 실시
  - 화폐 · 도량형 · 문자 통일
  - 만리장성 축조

〈 한 〉

- 무제의 정책
  - 전국으로 군현제 확대
  - 유교의 국교화
  - (❷) 개척
- 중국 전통문화의 기틀 마련

인도

구분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전성기	아소카 왕	(❸)
불교	상좌부 불교	대승 불교, 간다라 미술
전파 지역	실론,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

- 중앙 집권 체제 마련
  - 지방관, 감찰관 파견
  - 도로 · 역참제 정비
  - 이민족에 대한 관용 정책
- 여러 민족의 문화 융합 → 국제적 문화
- (❹)의 성립

〈 사산 왕조 페르시아 〉

- 페르시아 제국 계승
- 조로아스터교의 국교화
- 중계 무역으로 번영
- 다양한 문화와 페르시아의 전통 융합
  - 금속 공예, 유리 공예 발달
  - 마니교 등장

지중해 세계

〈 고대 그리스 〉

- 아테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 민주 정치 발달
- 스파르타: 강력한 군대 양성, 스파르타식 교육
- 문화: 인간 중심적

〈 알렉산드로스 제국 〉

-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 건설
- 동서 문화 융합 정책
  → (❺) 문화 성립

〈 로마 〉

- 공화정 → (❻) → 대제국 건설
- 실용적 문화 발달: 법률, 건축 등
- 크리스트교 공인

생각의 열쇠

❶ 춘추 ·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들로서, 공자, 한비자, 노자 등이 대표적이다.
❷ 장건이 개척한 동서 교통로로서, 한은 이 길을 통해 서역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❸ 동서 교역로의 중심지를 차지하였으며, 대승 불교의 확산에 이바지한 왕이다.
❹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통치에 이용하였으며,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에 영향을 준 종교이다.
❺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성립한 문화로서, '그리스 문화와 같은 문화'라는 뜻이다.
❻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으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차지하였다.

과제 풀어가기

다음은 고대의 통일 제국에서 실시한 정책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가 만일 통일 제국을 다스리게 된다면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지 칙령의 형식으로 발표해 보자.

언어와 문자

아시리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은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던 언어를 공용어로 삼았다. 중국의 진은 나라마다 달랐던 문자를 통일하였으며,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그리스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교통과 통신

로마는 제국 곳곳을 연결하는 길을 정비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수사에서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하였다.

보편적인 종교

고대 통일 제국이 성립될 즈음 불교, 크리스트교, 조로아스터교, 유교 등 세계적인 종교가 등장하거나 정비되었다.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와 쿠샨 왕조를 거쳐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에서는 유교가 발전하여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군대와 행정 제도

통일 제국에서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 등을 갖추었다. 또한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거대한 왕궁을 갖춘 수도를 건설하여 제국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짐은 오늘날 통일된 나라를 다스리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 바이오.

VIII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세계 각 지역은 다양한 교류와 접촉을 통해 공통의 문화 요소를 가진 지역 세계를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베트남이 유교와 불교, 한자, 율령 제도 등을 공유하며 그에 기반을 둔 문화가 확산되었다. 인도에서는 굽타 왕조가 성립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며 여러 나라가 일어나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의 영향 아래 독자적인 지역 세계를 이루었다. 서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제국의 확대에 따라 이슬람 세계가 형성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봉건제와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세계와 강력한 황제권에 바탕을 둔 중앙 집권 체제와 그리스 정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유럽 세계가 각각 성장해 나갔다.

	300년경	400년경	500년경	600년경	800년경
세계	320 인도, 굽타 왕조 성립 375 게르만족 이동 시작	439 중국, 남북조 시대의 성립		622 헤지라	800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제국 황제 대관
한국		427 고구려, 평양 천도	538 백제, 사비성 천도	676 신라, 삼국 통일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

900년경	1000년경	1300년경
907 당 멸망 962 신성 로마 제국 건국	1096 십자군 전쟁 시작	1337 백년 전쟁(~1453)
918 고려 건국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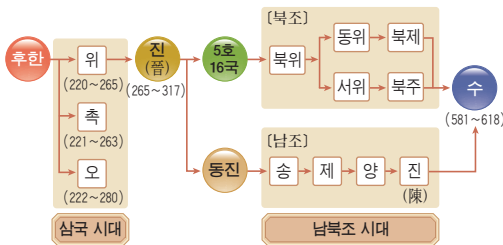
01 중국의 재통일과 당 제국의 문화

1 중국이 분열된 남북조 시대

▲ 북위 군대의 진격 모습(둔황석굴 벽화)

만리장성 너머 초원 지대에 살던 유목민은 한대 말부터 점차 중국 땅으로 들어와 살았다. 한이 멸망한 이후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들은 점차 힘을 키워 마침내 중국 북부에 있던 한족을 몰아내고 여러 나라를 세웠다.

중국 북부 지역에서 쫓겨난 한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학습 목표 | •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의 정치 변화를 알 수 있다.
• 남북조 시대 귀족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위·진·남북조 시대
삼국 시대의 위, 삼국을 통일한 진, 남조와 북조가 대립하던 시기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5호는 흉노, 선비, 저, 갈, 강의 다섯 이민족을 가리킨다.

▲ 남북조의 대립(5~6세기)
북쪽에는 유목 민족의 왕조(북조)가, 남쪽에는 한족의 왕조(남조)가 들어서 서로 대립하였다.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다

2세기 말 황건적의 난으로 후한이 약해지자,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 자립하여 서로 경쟁하였다. 그 결과 후한이 멸망하고, 중국은 위·촉·오의 **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유비, 관우, 장비와 함께 제갈량이 조조, 손권 세력과 싸우는 것을 다룬 소설 “삼국지연의”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삼국 가운데 화북 지방을 차지했던 위가 가장 강력하였으며, 위의 뒤를 이은 **진(晉)**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이 무렵 북방에서 성장한 유목 민족이 점차 화북 지방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리하여 진은 남쪽으로 쫓겨 가, 창장 강 하류 유역에 동진을 세웠다.

화북 지방에서는 유목 민족(5호)이 세운 나라가 흥망을 거듭하다가 **북위**에 의해 통일되었는데, 이때부터를 북조라 한다. 북위는 한족의 언어와 복장,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남쪽에서는 동진의 뒤를 이어 한족이 세운 여러 왕조(남조)가 성립하였다. **남조** 시기에는 화북 지역의 앞선 농경 기술이 보급되어 창장 강 하류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갈려 대립하던 분열기는 수에 의하여 통일될 때까지 약 15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귀족 사회가 형성되다

남북조의 오랜 분열은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위·진에서는 후한 이래 강해진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자 추천을 통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호족들이 관리로 추천되어 중앙 관직을 차지하였고, 이로써 유력한 가문이 관직을 대대로 독점하여 **귀족**으로 성장하였다. 귀족은 여러 특권을 유지하면서 정치와 문화를 주도하였으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꽃피웠다.

▲ 남조의 귀족(고개지의 '여사잠도' 일부)
귀족들은 사회적 우월감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개성과 품위를 표현하려고 남자들도 느슨한 옷을 입고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였다.

남북조 시대에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유행하다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혼란이 지속되어 백성들이 안정을 바라는 가운데 여러 사상과 종교가 유행하였다. 세속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평온한 생활을 이상으로 삼았던 죽림칠현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노장사상과 청담 사상이 크게 유행하였다. 또한 노장사상과 민간 신앙이 융합된 **도교**가 성립하였다. 도교는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비는 종교로 중국인의 종교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널리 보급되었다. 특히 북조에서는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크게 융성하였다. 국가의 후원을 받아 대규모로 만들어진 윈강석굴과 룽먼석굴, 둔황석굴은 이때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이다.

▲ 죽림칠현(난징 서선교 남조 묘 출토)
세속을 떠나 숲에서 은둔하였던 죽림칠현 가운데 세 사람이다. 이들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였는데, 특히 형식화된 유교 예절을 비판하였다.

도움 글 '왕은 곧 부처'를 상징하는 윈강석굴의 불상

북조의 왕들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자신들을 변방의 오랑캐로 취급하는 유교보다 민족적 편견이 없는 불교가 통치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왕은 곧 부처이고, 귀족은 부처의 제자인 보살'이라는 논리로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특히 북위의 왕들은 부처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거대한 석굴 사원을 만들었다.

중국 산시 성 다퉁에 있는 윈강석굴은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 부근에 조성된 석굴 사원이다. 동서로 1km에 이르는 바위 절벽에 크고 작은 53개의 석굴을 파고, 5만 개 이상의 불상과 다양한 조각상을 만들었다. 이 석굴에는 당시 황제의 모습을 본떠 만든 불상이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 윈강석굴 제20굴의 대불(높이 13.7m)

2 수 · 당 제국의 중국 재통일

어느 날 당 태종은 신하들을 모아 놓고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유지하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더 어려운지 물었다. 여러 신하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지만, 태종은 나라를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주장에 찬성하였다.

당은 나라를 잘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시행하였을까?

학습 목표 | • 수와 당이 중국을 재통일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수·당에서 실시되었던 여러 제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당 태종

▲ 수대에 건설된 대운하
강남의 물자를 화북으로 쉽게 운반할 목적에서 만들었다. 폭 30~40 m, 총 길이 2,000여 km이다. 대운하는 지금도 중국의 교통과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오늘날의 대운하(장쑤 성 쑤저우)

수가 중국을 다시 통일하다

수는 삼국 시대 이후 약 360년간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589). 수 문제(양견)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토지 제도와 군사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의 뒤를 이은 양제는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이를 통해 물자의 유통을 원활히 하여 사회적인 통일을 이루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토목 공사, 고구려 침략과 같은 무리한 군사 활동이 계속되어 백성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양제가 피살되었다. 결국 수는 중국을 통일한 지 30여 년 만에 멸망하였다.

▲ 당대의 세력권
당은 점령한 변경 지역에 도호부를 두어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하면서 이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였다.

당이 대제국을 이룩하다

이연(고조)은 수 말의 혼란을 수습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 당이라 하고 장안을 수도로 정하였다(618). 고조의 뒤를 이은 태종은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 정복에 나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고종 때에도 대외 정복이 계속되어, 당은 최대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은 서쪽으로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하여 비단길을 확보하였고, 동쪽으로는 신라와 발해,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당대에는 중앙 정치, 토지, 조세, 군사 등의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율령**으로 규정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주변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제도 정비와 아울러 경제적 발전도 이루어졌다. 강남 지방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고 면화 재배가 시작되었다. 또한 수공업과 상업이 발전하여 비단, 도자기가 대량으로 생산되었으며, 오늘날의 어음과 같은 비전이 사용되었다. 국제 무역도 활기를 띠었는데, 특히 비단길을 따라 이슬람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율령(律令)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령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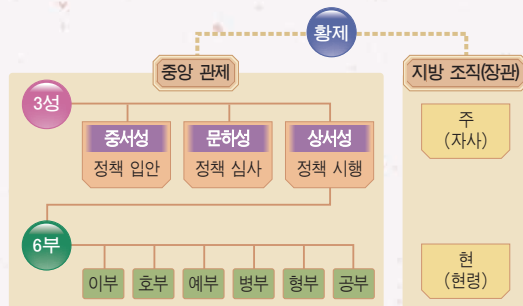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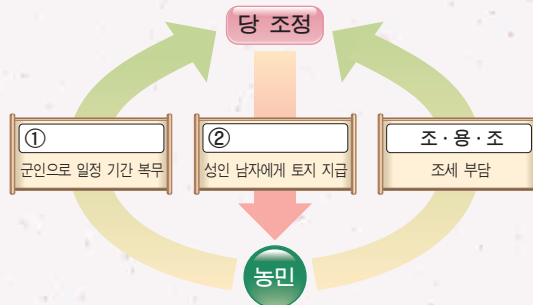
당 중기 이후 사회가 변화하다

당 중기부터 일부 사람들이 토지를 독차지하면서 많은 사람이 토지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등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졌다. 8세기 중반 **안·사의 난**을 계기로 당의 국력은 기울기 시작하였다. 중앙의 정치가 혼란해지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난립하자, 황소의 난이 일어나 당은 더욱 쇠약해져 망하였다(907).

절도사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고 이민족의 침입을 막으려고 국경 지역의 요지에 설치한 관직이다. 안·사의 난(755~ 776)은 동북 지역의 세 절도사를 겸했던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연이어 일으킨 반란이다.

탐구 활동 동아시아의 모범이 된 당의 통치 제도

당은 중앙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3성 6부를 두었고, 지방은 주, 현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또한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균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다.

당은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하고(균전제), 조세와 병역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즉 토지를 받은 성인 남자는 매년 곡물을 내고〔조(租)〕,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이를 대신한 물자를 내며〔용(庸)〕, 가정별로 직물을 내야 했다〔조(調)〕. 이들은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전쟁에 동원되었다(부병제). 이와 같은 당의 제도는 후대 중국 왕조에 모범이 되었으며, 신라와 발해, 일본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료 2 당의 여러 제도

과제 1 위의 글을 참조하여 자료 2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과제 2 당과 발해·고려의 중앙 관제를 비교해 보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 ☞ 100, 119쪽 참조

3 당 제국 문화의 특징

9세기 무렵 당의 어느 선비는 “귀한 사람들의 음식상에는 모두 이민족의 먹을거리를 차렸고, 여자들은 이민족의 옷을 즐겨 입었다. 또한 사람들은 이민족의 춤을 추었으며, 이민족의 머리 모양이 유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국적인 풍물이 유행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당에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당 제국 문화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이민족의 춤을 추는 모습 (산시 성 소사욱묘 출토)

당에서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다

당 초기에는 남북조 이래 귀족들의 가문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점차 귀족들도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됨으로써 과거 출신의 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당 후기까지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서 세력을 떨쳤다. 이에 따라 당의 문화도 **귀족적**인 색채를 띠었다.

귀족의 취향에 따라 시와 그림, 글씨 등이 발달했는데, 이백, 두보, 백낙천 등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이다. 한편 귀족들의 사교 활동에 차가 필수적으로 등장하여 차를 마시는 풍습도 크게 유행하였다.

▲ 차 마시는 풍습의 유행(궁락도, 타이완 국립 고궁 박물관)
당대 궁궐의 시녀들이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다.

불교는 귀족 사회에 보급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현장과 같은 승려들은 인도에서 직접 불교 경전을 구해 와 번역하였다.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아 발전하였으며, 각지에 도교 사원이 세워졌다. 한편 유학에서는 한대 이래 훈고학의 전통을 이은 “오경정의”가 편찬되어 과거의 기준이 되었다.

사료 돋보기 한 편의 시에 귀족의 심경을 담다

무릇 세상이란 만물이 잠깐 들렀다 가는 여관일 뿐이고
시간이란 긴 세월에 잠깐 지나쳐 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네.
뜬구름 같은 인생은 꿈과 같으니, 즐거운 날이 얼마나 되겠는가?
옛사람들이 촛불을 밝히고 밤새도록 논 것도 정말 이유가 있구나.
– 이백, ‘춘야연 도리원 서(봄날 밤 정원에서 연회를 하며 지은 시)’

당의 귀족들은 술과 차를 마시면서 시를 짓고 연회를 즐겼다. 시는 귀족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시 짓기는 귀족의 일상생활이 되었으며, 시의 소재나 내용, 형식도 무척 다채로웠다.

▲ 술잔을 들고 시를 짓는 이백

국제적 성격을 가진 문화가 발전하다

당은 대외적으로 개방적인 정책을 펼쳐 동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서역의 여러 나라와도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하였다. 당대 귀족들 사이에서는 서역의 풍속이 유행하였다. 당삼채라는 화려한 도자기는 당 문화의 **국제적** 성격을 보여 준다. 당의 국제적 문화는 유라시아의 동서를 잇는 문화 교류의 산물이었으며,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당삼채(산시 성 시안 선우 정회묘 출토)
녹색, 갈색, 흰색의 세 가지 색깔을 넣어 구운 당대의 도자기이다. 낙타에 올라탄 상인의 모습에서 서역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도움 글 '장안'의 화제는 국제적 관심사!

당 문화의 국제적 성격은 수도 장안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장안은 '세계의 도시'라고 할 만큼 웅장한 도시 계획 아래 만들어졌다. 당시 장안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외국인으로 붐볐으며, 서아시아에서 들어온 조로아스터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경교), 이슬람교 등의 사원이 번성하였다.

▲ 장안에서 발견된 비잔티움(왼쪽)과 이슬람(오른쪽)의 금화

▲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의 성심루

▲ 당대 경교의 활동을 기록한 비석(비림 박물관)

▲ 장안성의 구조
장안은 바둑판처럼 반듯한 구조였다. 바깥쪽 성벽의 길이는 동서 9.8 km, 남북 8.7 km이고 주위에 12개의 성문이 있었다. 성안은 동서와 남북으로 곧게 뻗은 도로를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다.

▲ 당을 방문한 외국 사신들(장회 태자 묘 사신도)

▲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한 대안탑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수 양제는 □□□를 건설하였다.

(2) 당대에는 귀족적이고 □□적인 문화가 발전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조세 제도 •   • ㉠ 부병제

(2) 토지 제도 •   • ㉡ 균전제

(3) 병역 제도 •   • ㉢ 조 · 용 · 조

02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과 발전

1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타이완의 공묘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

오늘날에도 공자를 모시는 사당에서는 정해진 시기에 공자를 기리는 성대한 제사가 거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동아시아 지역 세계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화 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당대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 사이에 광범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나타나다

당대에 이르러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 당의 개방적인 정책과 광범한 교류로 당의 문화는 통일 신라, 발해, 일본, 베트남 등 주변 국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로써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 등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적 특성이 갖추어졌으며, 동아시아 지역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한편, 여러 나라는 지역마다 자신들의 독자적인 문화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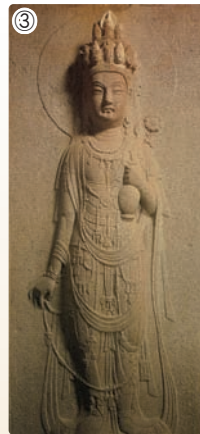
불상의 형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동아시아에 전래되면서 주로 대승 불교의 특징을 나타냈다. 인도에서 등장한 불상(①)이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중국(②), 통일 신라(③), 일본(④) 등에서 다양한 보살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그러한 예이다.

①
▲ 간다라 불상

②
▲ 둔황 제45굴 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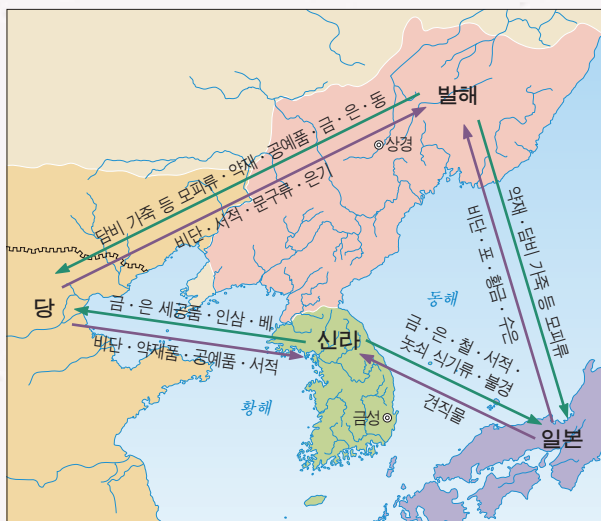
③
▲ 석굴암 십일면관음보살상

④
▲ 나라 시대의 관음보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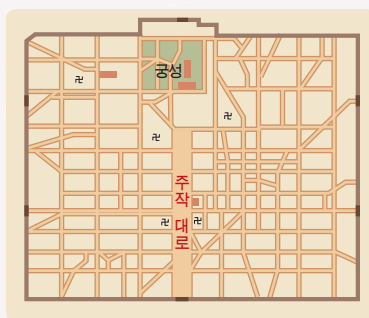
탐구 활동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활발한 교류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제도 등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는 대체로 중국에서 성립되어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문화 전파는 중국과 이웃 나라 사이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필요에 따라 선진 문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자료 1 당의 문화

당대의 유학은 국가 권력과 결합되어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유교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불교도 중국적인 성격으로 정착되어 동아시아 나라들의 불교 수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대에 율령(법률)으로 정비된 제도들은 주변 나라에 수용되어 각국의 통치 체제를 만드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자는 동아시아의 국제 문자 역할을 하면서, 각 나라들이 독자적 문자를 만드는 데에도 이바지하였다.

자료 2 동아시아 각국의 교류

자료 3 8~10세기 무렵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수도 구조

신라, 발해, 일본의 수도는 당의 장안성과 비슷한 구조로 정비되었다. 동서와 남북으로 곧게 뻗은 도로를 만들고 각 구역에 궁성과 관청 등을 배치하였다.

▲ 신라의 금성(경주)

▲ 발해의 상경 용천부

▲ 일본의 헤이조쿄

과제 1 자료 2와 90쪽을 참고하여 동아시아의 활발한 교류를 뒷받침한 해상 세력을 찾아보자.

과제 2 자료 1과 자료 3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화 요소의 내용을 정리하고, 당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2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 고구려 수산리 고분의 벽화(왼쪽)와 일본 다카마쓰 고분의 벽화(오른쪽)

3세기 후반에서 7세기 사이, 한반도에서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들을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도래인(渡來人)'이라고 불렀다.

도래인은 일본의 고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학습목표 | • 일본 고대 국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일본 고대 문화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이센 고분(오사카)
야마토 조정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다. 이 고분의 전체 길이는 486m, 높이는 35m이다.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성장하다

일본 열도에서는 곳곳에서 작은 나라들이 힘을 겨루다가, 3세기 무렵 야마토 지역에 있던 나라가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손잡고 세력을 키웠다. 5~6세기에는 **야마토 조정**을 중심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고 중국과 한반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전반에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아스카를 중심으로 일본의 고대 문화가 발전하였다. 또한 불교와 함께 사원 건축, 불상과 공예품, 종이와 먹 등 다양한 문물이 한반도에서 전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쇼토쿠 태자는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펴는 한편, 불교를 장려하여 국왕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다.

7세기 중엽에는 당의 제도를 본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려는 **다이카 개신**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당의 율령을 받아들여 율령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 체제를 수립하였다. 그 후 도읍을 헤이조쿄(나라)에 정하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나라 시대).

▲ 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

▼ 도다이 사(나라)
일본 국왕이 불교의 힘을 빌려 권력을 강화하고자 745년에 세운 절이다. 에도 시대에 복원된 전각 안에는 높이가 16 m에 이르는 큰 청동 불상이 있다.

일본의 고유문화가 발전하다

8세기 중엽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실과 귀족 세력 간의 대립이 심해졌다. 8세기 말 수도를 헤이안쿄(교토)로 옮긴 후부터는 귀족과 외척의 정치 개입이 심해지면서 왕권이 더욱 약화되었다(헤이안 시대). 그 사이 지방에서 호족과 사원이 장원을 확대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가자, 더 이상 율령에 의한 정치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이후 당이 쇠퇴하고, 중국, 한반도와의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헤이안 시대
8세기 말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긴 후부터 11세기 후반 가마쿠라 막부가 들어설 때까지를 말한다.

도움 글 국풍(國風) 문화와 가나 문자

일본은 8세기 후반에 신라와 국교를 끊고, 9세기 말에는 당에 보내던 사절단(견당사)마저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일본 사람들은 그들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귀족들은 집 안의 정원에 연못이나 작은 산을 만들고 실내에는 짚으로 만든 돗자리를 깔았다. 의복에서는 당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일본의 독특한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문학이 발전하면서 일본 사람의 감정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 사용하던 한자의 모양을 이용하여 '가나'라는 일본 고유의 문자도 만들었다.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일본에서 나타난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국풍 문화라고 한다. 국풍 문화는 오늘날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 헤이안 시대 귀족의 집
집 안에 연못을 만들고 실내에 칸막이를 쳐서 돗자리(다다미)를 깐 형식은 일본 고유의 주택 양식이 되었다.

한자	阿	伊	宇	江	於	加	幾	久	介	己
가나	ア 아	イ 이	ウ 우	エ 에	オ 오	カ 가	キ 기	ク 구	ケ 게	コ 고

▲ 일본의 가나 문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야마토 조정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대한 고분을 만들었다. (   )

(2) 쇼토쿠 태자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자 율령을 받아들이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

(3) 국풍 문화는 견당사를 통해 수입된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 (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7세기 중엽 일본은 □□□ □□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2) 헤이안 시대에는 한자를 빌려 □□라는 일본 문자가 만들어졌다.

3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네 가지 쓰시오.

03 인도와 동남아시아 세계의 전개

1 굽타 왕조와 인도 고전 문화의 확립

인도의 갠지스 강 중류에 있는 알라하바드에서는 12년마다 힌두교 최대의 행사인 쿰브멜라가 열린다. 1월 초부터 4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수천만 명의 순례자가 찾아와 죄를 씻는 의식으로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한다.

인도의 민족 종교인 힌두교는 어느 왕조 때 성립하였을까?

학습 목표 | 굽타 왕조 때 인도의 고전 문화가 확립되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굽타 왕조가 북부 인도를 통일하다

쿠샨 왕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 쇠퇴한 이후, 인도 북부 지역에는 여러 왕국이 등장하였다. 이 가운데 4세기 초에 등장한 굽타 왕조는 인도 북부 지역을 대부분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농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동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로마 제국,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 교역하면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였다. 그리고 비단길을 통해 인도를 드나든 승려들도 지역 간 문화 교류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굽타 왕조는 5세기 말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과 북방 유목 민족의 침입으로 점차 약화되어 갔다.

굽타 왕조의 최대 영역
쿠샨 왕조의 영역
불교 유적지
쿠샨 왕조
인더스 강
마투라
바라나시
알라하바드
파탈리푸트라
갠지스 강
날란다
굽타 왕조
아잔타
아라비아 해
데칸 고원
벵골 만
촐라
체라
판디아
심할라

▲ 굽타 왕조의 영역

힌두교가 성립하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브라만교에 민간 신앙과 불교 등을 결합한 **힌두교**가 성립하였다. 굽타 왕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힌두교를 후원하였다. 이에 따라 힌두교는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로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제가 인도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반면에 불교는 점차 쇠퇴하여 힌두교의 일부로 여겨졌다.

힌두
인더스 강을 가리키는 페르시아 어로, '신두'에서 유래하였다. '인도'와 같은 의미이다.

인도 고전 문화가 꽃피다

굽타 왕조 시대에는 당시 지배층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 어로 쓰인 문학 작품이 유행하였다. 그동안 입으로만 전해 내려오던 신화와 설화들이 산스크리트 어로 기록되었는데, 인도의 2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라마야나'가 완성되었고 '샤쿤탈라'와 같은 희곡도 등장하였다.

수학과 천문학 등 자연 과학 분야도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이 무렵 인도인들은 '0(영)'의 개념을 발견하고 10진법을 사용하였다. 인도 숫자는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 아라비아 숫자의 기원이 되었다.

미술 분야에서는 인물의 얼굴이나 옷맵시에 인도 고유의 특징을 잘 표현한 **굽타 양식**이 나타났다. 아잔타 석굴 사원의 불상과 벽화로 대표되는 굽타 양식은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영향을 주었다.

▲ 굽타 양식의 불상(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간다라 양식의 불상과는 달리, 얼굴과 옷맵시에서 인도 고유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탐구 활동 굽타 왕조와 힌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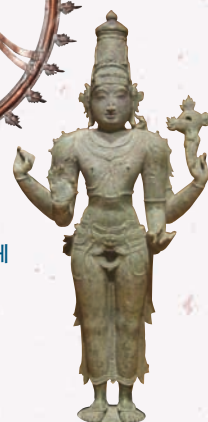
자료 1 힌두교의 신들

힌두교는 브라만교의 전통과 불교 및 민간 신앙을 융합한 다신교로서, 창조의 신 브라흐마, 유지의 신 비슈누, 파괴의 신 시바를 비롯한 다양한 신들을 숭배한다. 힌두교에서는 하나의 신이 다른 신이나 인간, 동물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믿는데, 이를 화신(化身, 아바타르)이라고 한다.

힌두교는 이러한 '화신' 개념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에서 숭배하던 여러 신과 불교의 부처까지도 힌두교의 신으로 흡수하였다. 이 가운데 유지의 신 비슈누는 인간을 돕고자 다양한 화신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굽타 왕조의 왕들은 스스로를 비슈누의 화신으로 여겼다.

▲ 시바 신상(프랑스 기메 미술관)

자료 2 힌두교와 카스트제

힌두교에서는 전생에서의 행동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카스트가 무엇이든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다음 삶에서는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낮은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비슈누 신상(미국 호놀룰루 미술관)

과제 자료 1, 2를 바탕으로 굽타 왕조가 힌두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한 까닭을 발표해 보자.

2 이슬람교의 인도 전파

비리야니는 일종의 볶음밥으로, 인도의 전통 음식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인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비리야니에 양고기가 주요 재료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원래 양고기는 돼지고기를 금지한 이슬람 문화권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다. 양고기가 들어간 비리야니에는 인도와 이슬람의 음식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학습 목표 | 인도에서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었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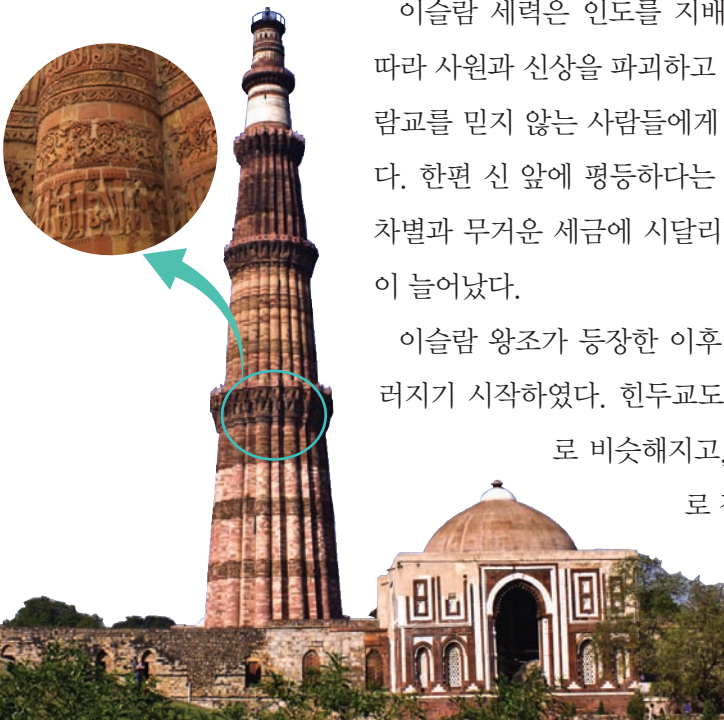
▲ 북부 인도의 이슬람화

인도 북부에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다

굽타 왕조가 멸망한 후, 바르다나 왕조가 잠시 갠지스 강 일대를 장악하였으나 다시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아시아의 이슬람 세력이 8세기경부터 인도 서북 지방을 침입하기 시작하여 점차 갠지스 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13세기 초에 델리를 중심으로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였다. 이후 300여 년 동안 다섯 **이슬람 왕조**가 잇따라 들어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통치하였다.

인도에 이슬람 문화가 확산되다

이슬람 세력은 인도를 지배하면서 우상을 금지하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라 사원과 신상을 파괴하고 힌두교와 불교를 탄압하였다. 그러나 점차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들의 신앙을 허용하였다. 한편 신 앞에 평등하다는 이슬람교의 교리가 전파되자,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과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던 인도인 가운데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슬람 왕조가 등장한 이후 인도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전통이 어우러지기 시작하였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절차가 서로 비슷해지고, 이슬람의 모스크를 인도의 전통적인 연꽃무늬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쿠트브 미나르(델리)
인도 최초의 이슬람 사원인 쿠와트알 이슬람 사원에 있는 탑이다. 이 탑은 인도에 최초로 이슬람 왕조를 세운 쿠트브 아이바크를 기념하여 '쿠트브 미나르'라 불린다. 탑에는 아라베스크 무늬와 쿠란의 구절이 새겨져 있다.

3 동남아시아 각국의 성립과 발전

인도차이나 반도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인도차이나'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두 나라는 어디일까?

학습 목표 |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말할 수 있다.

토착 문화 위에 인도와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다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이다. 일찍부터 반도 지역의 크메르족, 참족, 비엣족, 섬 지역의 말레이족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였다.

이 지역 사람들은 벼농사를 바탕으로 독특한 의식주와 생활 양식을 발전시키고,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동남아시아는 이러한 문화적 바탕 위에 인도와 중국 등 여러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나라를 세우고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 동남아시아의 여러 왕조와 성립 시기

베트남 북부 지역에 중국 문화가 전파되다

남월이 한에 멸망한 후, 베트남 북부 지역은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10세기경에 독립하였다. 그 후 나라 이름을 대월국이라 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대립하였으나 한자와 유교, 대승 불교, 과거제 등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13세기에 성립한 쩐 왕조는 베트남의 민족사를 정리하고, **쯔놈 문자**를 제정하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

▶ **쯔놈 문자**
한자의 요소를 독특하게 결합하여 만든 베트남 문자이다.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 **하노이 문묘(베트남)**
공자를 모신 사당으로 1070년에 세워졌다. 베트남의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남과 참파가 등장하다

2세기경 캄보디아와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서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부남 왕조와 참파 왕조가 각각 등장하였다. 부남 왕조는 6세기경 진랍국에 멸망하였으나, 참파 왕조는 베트남 북부의 왕조들과 오랫동안 대립하였다.

9세기 초 진랍국을 계승한 앙코르 왕조는 이후 크게 번영하여 앙코르 와트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다.

▲ 미선 유적(베트남)
참파 왕조가 세운 힌두교 사원 유적이다.

미얀마와 타이가 불교 국가로 발전하다

중국 남서부 지방에서 미얀마와 타이 지역으로 남하한 미얀마족과 타이족은 그곳의 원주민 세력을 누르고 각각 파간 왕조와 수코타이 왕조를 세웠다. 두 나라는 고유 문자를 제정하고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나라들이 오늘날 미얀마와 타이의 기원이 되었다.

미얀마 지역은 13세기 후반 몽골의 침입으로 파간 왕조가 멸망하면서 분열되었다. 타이는 14세기 중반에 수코타이 왕조에 이어 아유타야 왕조가 발전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갔다.

▲ 수코타이 왕조의 불상(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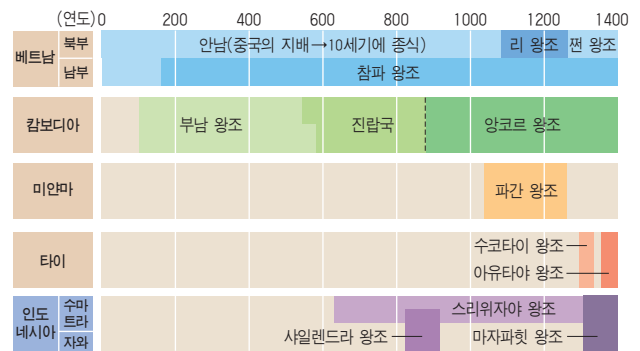
▼ 앙코르 와트(캄보디아)
12세기에 완성된 앙코르 와트는 본래 왕의 사후 평안을 기원하려고 만든 힌두교 사원이었으나, 후에는 불교 사원으로 사용되었다. 동서 1,500 m, 남북 1,300 m의 바깥벽 안에 설치된 해자를 건너면 정문이 나온다. 정문 안에 세 겹의 복도가 있고, 그 중앙에 비슈누 상을 모셨던 65m 높이의 탑이 솟아 있다. 각 복도에는 인도의 서사시나 힌두교의 신화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앙코르 와트의 건축 양식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건물의 형태나 장식 등은 앙코르 왕조의 독자성을 보여 준다.

▲▶ 캄보디아 국기(위)와 앙코르 와트의 구조(오른쪽)

동남아시아의 섬 지역에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다

동남아시아는 인도와 중국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하였다. 7세기 경부터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성장한 스리위자야 왕조는 동서 무역의 요충지인 믈라카 해협을 장악하여 번영을 누렸다.

▲ 동남아시아 국가의 변천

8세기 초 자와 섬에서는 샤일렌드라 왕조가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승 불교가 발전하여 보로부두르 불탑과 같은 뛰어난 건축물이 세워졌다. 14세기에는 힌두교에 기반을 둔 마자파힛 왕조가 등장하여 인도네시아 전역을 지배하였으나 이슬람 세력의 진출로 몰락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 반도 지역에서는 이슬람 왕조들이 성장하였다.

도움 글 보로부두르 불탑

8~9세기경에 샤일렌드라 왕조에서 세운 보로부두르 불탑은 부처에게 바친 우주의 모형이라고 한다. 언덕을 깎고 그 위에 돌을 쌓아 9층의 복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부처가 되기 전의 석가모니가 산 아홉 전생을 나타낸 것이다. 5 km나 이어져 있는 복도에는 2,000여 개의 다양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또한 다양한 모습을 한 400여 개의 불상이 있는데, 이는 대승 불교의 설화를 간직한 것이라고 한다. 이 불상들은 모두 돌로 된 덮개로 덮여 있다.

이러한 건축 기법은 인도의 양식을 따른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새겨진 농민, 상인, 직물업자, 선원, 무희 등의 얼굴과 옷차림, 장식물 등은 모두 자와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

▲ 보로부두르 불탑(인도네시아 자와 섬)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한 정사각형의 탑 모양을 하고 있다. 한 변의 길이가 111.5 m로, 단일 불교 유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굽타 왕조 시대에는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한 힌두교가 성립되었다. (　　)

(2) 굽타 왕조 시기 인도인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들어온 10진법을 사용하였다. (　　)

(3) 13세기 초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였다. (　　)

2 다음 유적이 위치한 현재의 나라 이름을 쓰시오.

(1) 앙코르 와트:

(2) 보로부두르 불탑:

(3) 아잔타 석굴 사원:

3 베트남의 쩐 왕조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례를 간단히 쓰시오.

04 이슬람 세계의 형성

1 이슬람교의 성립과 발전

이 휴대 전화는 방위 표시와 나침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메카의 방향을 알려 준다. 또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음성과 문자로 동시에 제공하며, 하루에 5번 기도할 시간을 알려 주기도 한다.

이 휴대 전화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판매될까?

학습 목표 | • 이슬람교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슬람 제국의 발전 과정을 말할 수 있다.

▲ **6세기 교역로의 변화**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대립으로 육상 교역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지자, 홍해를 거쳐 아라비아 해에 이르는 새로운 교역로가 개척되었다.

▲ **카바 신전(사우디아라비아)**
카바 신전은 원래 '정방형의 건물'이라는 뜻으로서, 쿠란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기초를 닦았다고 한다. 이슬람교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성지이다.

무함마드, 이슬람교를 정립하다

사막이 대부분인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아랍 인들이 여러 신을 섬기며 유목 생활을 하였다. 6세기경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는 새로운 교역로가 이용되면서, 메카, 메디나 등이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수 귀족들이 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한데다 교역로를 둘러싸고 여러 부족의 다툼이 잦아지면서 백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시기에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는 스스로 신의 예언자라고 하며, 유일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를 정립하였다. 그는 다신교를 반대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나, 다신교를 믿던 귀족들은 무함마드를 탄압하였다. 이에 무함마드는 신자들을 이끌고 메디나로 피신하였는데, 이를 성스러운 이주라는 뜻의 '헤지라'라고 한다(622).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이슬람 공동체를 건설하였다. 그 후 세력을 키워 메카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이슬람 제국이 성립하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네 명의 칼리프가 차례로 선출되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었다. 이때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한다. 이 시기에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 이집트 등을 정복하였다. 그러나 칼리프 선출을 둘러싼 대립으로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한 후,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면서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하였다(661).

칼리프
'뒤따르는 자' 라는 뜻으로, 무함마드의 뒤를 이어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이자 종교 지도자이다.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정복 전쟁을 통해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동쪽으로는 인도, 당과 국경을 맞대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우마이야 왕조는 이슬람교도 가운데 아랍 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였고 관직 진출에도 차별을 두었다. 이는 모든 이슬람교도는 평등하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많은 사람의 불만을 샀다.

▲ 이슬람 군대(미국 뉴욕 그레인저 컬렉션)

여러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다

8세기 중엽 아바스 가문이 우마이야 왕조를 몰아내고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750). 아바스 왕조는 세금 납부와 관리 등용 등에서 민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폐지하였다. 또한 탈라스 전투에서 당에 승리한 이후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수도 바그다드는 세계적인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한편 몰락한 우마이야 왕조의 일파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후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다.

▲ 이슬람 세력의 확대

도움 글 이슬람교의 두 갈래, 수니파와 시아파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4대 칼리프 알리가 암살당한 후, 알리를 정통으로 생각하던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이란 지역으로 피신하였다. 이들은 무함마드의 혈통 중에서 칼리프를 추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마이야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 이들을 시아파라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신자는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후대에 수니파로 발전하였다.

▲ 4대 칼리프 알리

탐구 활동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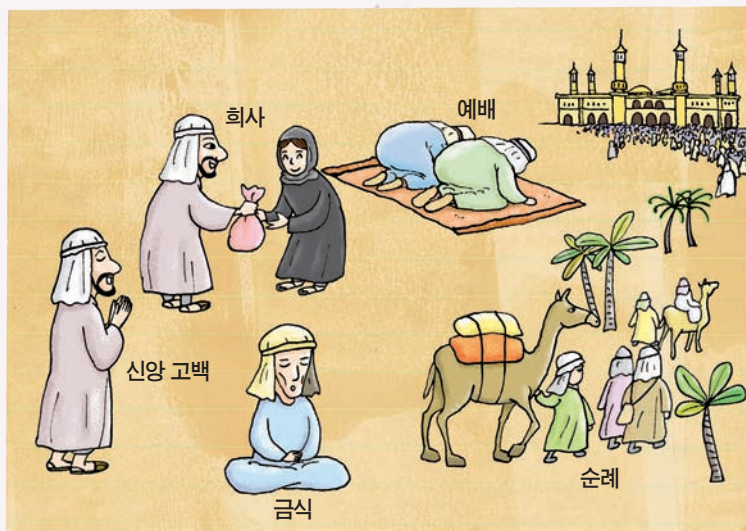
자료 1 쿠란

쿠란은 알라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내렸다는 계시를 아랍어로 기록한 이슬람교 최고 경전인 동시에 상속, 매매, 혼인, 형벌 등 이슬람교도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원리이다.

이슬람교에서는 아랍 어로 쓰인 쿠란이 다른 언어로 완전하게 옮겨질 수 없기 때문에 쿠란을 번역이 불가능한 경전이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아랍 어가 이슬람 세계의 공용어가 되었고,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통일성이 강화되었다.

▶ 쿠란

자료 2 이슬람교도의 다섯 가지 의무

이슬람은 '신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슬람교도를 '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무슬림이라고도 부른다.

신앙 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
예배	매일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 절한다.
희사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을 위해 베푼다.
금식	일정 기간 낮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순례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한다.

▲ 이슬람교도의 다섯 가지 의무

자료 3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

쿠란과 성경에는 우상 숭배 거부, 유일신의 존재,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 예수의 탄생과 그가 행한 각종 기적 및 승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24명의 이야기도 쿠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쿠란은 예수가 위대한 예언자일 뿐 신의 아들은 아니라고 본다.

이슬람교에서는 불교의 승려나 크리스트교의 목사, 신부와 같은 성직자가 따로 없으며, 일반 신도 중에서 누구나 예배를 이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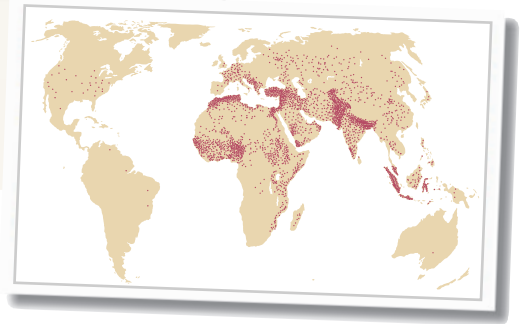
▼ 오늘날 모스크에서 예배하는 모습
과제 1 이슬람 세계가 높은 수준의 문화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자.

과제 2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2 이슬람의 사회와 문화

오른쪽 지도는 오늘날 이슬람교도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이슬람교도가 많을수록 진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슬람교가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이슬람 세계에서 상업이 발달한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슬람 문화가 세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슬람 문화가 세계로 퍼져 나가다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이슬람 문화가 여러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쿠란**은 종교와 사회생활의 기본 규범이 되었으며, 아랍 어는 이슬람 세계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이슬람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세금(인두세)을 면제해 주었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슬람 문화의 확산에는 이슬람 상인들의 역할도 컸다. 이들은 각 지역으로 진출하여 동서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슬람 상인의 활동으로 이슬람 문화가 세계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각 지역의 우수한 문화가 이슬람 세계로 전해졌다. 상인들의 교역로를 따라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이 도시들은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다.

▲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선물한 물병**
원래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바스 왕조가 프랑크 왕국이나 비잔티움 제국과 활발히 교역했음을 보여 준다.

▲ **아라베스크 무늬가 새겨진 물병**
아라베스크 무늬는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중국에 전해져, 당초무늬를 탄생시켰다.

▲ **낙타를 타고 가는 이슬람 상인들(프랑스 국립 도서관)**

▲ **이슬람 상인의 활동**
이슬람 상인들은 육지에서는 낙타를 이용한 캐러밴(대상) 무역을 하였으며, 바다에서는 목재 범선인 다우 선을 타고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하여 무역에 종사하였다.

▲ **이슬람 상선(프랑스 국립 도서관)**

이슬람 세계에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하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 등의 영향을 받아 천문학과 의학, 화학, 수학 등 **자연 과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슬람 세계의 자연 과학은 중국의 제지법, 인쇄술, 나침반, 화약과 함께 유럽에 전파되어 유럽의 근대 과학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 모스크(아래)와 아라베스크 무늬 돔(위)
이란 이스파한에 있는 셰이크로트폴라 모스크이다.

한편 이슬람 상인이 교역 활동을 활발히 하고 이슬람교도가 메카를 순례하는 과정에서 지리학이 발달하였다. 문학도 발달하였는데, 세계 여러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한 "아라비안나이트"가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꼽힌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건축물은 높고 뾰족한 탑과 둥근 지붕(돔)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이다.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였기 때문에, 모스크를 장식할 때에는 사람이나 동물의 구체적인 형상 대신 추상적인 아라베스크 무늬를 사용하였다.

도움 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이슬람의 과학

▲ 이슬람 천문대(터키 이스탄불 대학교 도서관)
천문을 관측하여 지구 구형설을 증명하고 지구의 공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 환자를 진료하는 이븐 시나(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11세기에 이븐시나가 쓴 "의학 전범"은 17세기까지 유럽의과 대학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구분	변화 내용									
인도 숫자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८	९	०
아라비아 숫자	١	٢	٣	٤	٥	٦	٧	٨	٩	٠
현대 숫자	1	2	3	4	5	6	7	8	9	0

▲ 아라비아 숫자의 완성 과정
이슬람 학자들은 인도에서 발전시킨 10진법과 '0'의 개념을 받아들여 아라비아 숫자를 완성하였다.

아랍 어	영어
al-kuhul	alcohol(알코올)
al-qili	alkali(알칼리)
al-kimiya	• alchemy(알케미, 연금술) • chemistry(케미스트리, 화학)

▲ 아랍 어에서 나온 화학 용어들
연금술이나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려는 실험 과정에서 화학이 발달하였다.

▲ 이슬람 과학자들의 실험 모습

역사 가로지르기 우리나라와 이슬람 세계의 만남

자료 1 이슬람 세계에 소개된 신라와 고려

◀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에 나타난 신라**
1154년 이드리시가 그린 세계 지도에는 신라가 여러 개의 섬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한국의 역사가인 라시드웃딘은 "집사"에서 고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제3의 성은 카울리(Kao-li)와 카오 카울리(Kao Kao-li)로 구성된다. 이 국가들은 국경 변방에 위치하는 왕국의 정체를 갖고 있다. 그곳에서는 임금을 왕(Wank)이라 부른다. 세조(쿠빌라이 칸)가 공주를 그곳 왕에게 시집보냈다. - 라시드웃딘, "집사"

자료 2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특히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슬람 국가 터키와의 만남, 중동 건설 시장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이슬람교도는 점차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교도는 약 4만 명 정도이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이슬람교도는 약 14만 명으로 추정된다.

▶ **이슬람 중앙 성원(서울 용산)**
1976년 개원한 한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를 허용하였다. ( )

(2) 이슬람의 발달된 자연 과학은 유럽 근대 과학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 ( )

(3) 이슬람의 모스크는 뾰족한 탑과 둥근 지붕을 특징으로 한다. ( )

(4) 이슬람 세계에서는 쿠란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널리 전파하였다. ( )

2 무함마드 이후 이슬람 공동체를 통치하던 최고 권력자이자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을 쓰시오.

3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 헤지라　　㉡ 아바스 왕조 성립
㉢ 정통 칼리프 시대　　㉣ 우마이야 왕조 성립

05 중세 유럽의 형성과 발전

1 서유럽 봉건 사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10세기 프랑크 왕국의 대주교 아달베롱은 “우리가 하나라고 믿는 신의 집은 셋으로 나뉘어 있나니, 이 세상에는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있도다. 이들 셋은 하나로 뭉쳐 있나니, 서로 떨어짐을 견디지 못하리라.”라고 하였다.

중세 유럽에서 기도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각각 누구일까?

학습 목표 | • 유럽 세계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서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게르만족의 이동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유럽 세계가 성립되다

게르만족은 원래 발트 해 연안에서 수렵, 목축, 농경 생활을 하며 살았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자 로마 제국의 영토로 이주하여 군인이 되거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4세기 말경 아시아에서 훈족이 밀고 들어오자, 흑해 연안의 게르만족이 밀려나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약 200년 동안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은 로마 제국의 영토 곳곳에 여러 왕국을 세웠다.

게르만족이 세운 많은 왕국 중에서 갈리아 지방의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때 이베리아 반도와 브리튼을 제외한 서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카롤루스 대제는 크리스트교의 보급에 힘써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800). 이로써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 게르만족의 전통이 융합된 새로운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프랑크 왕국에서는 자손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났다. 두 차례에 걸쳐 영토를 조정한 끝에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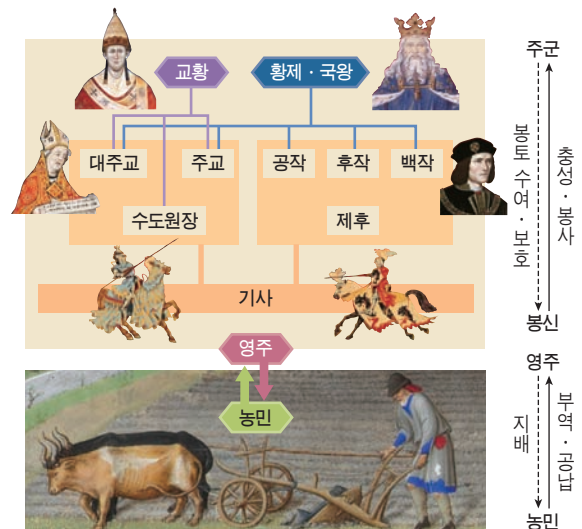
▲ 카롤루스 대제의 교회 공사 현장 방문(프랑스 국립 도서관)
카롤루스 대제는 로마 교회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려고 많은 교회를 지었다.

한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노르만족은 9세기부터 유럽 각지를 침략하여 여러 나라를 세웠다. 영국에는 노르만 왕조, 프랑스 북부에는 노르망디 공국, 지중해에는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다. 그리고 일부는 러시아로 들어가 슬라브족을 지배하고 나라를 세워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을 이루었다.

▲ 노르만족의 이동
노르만은 '북쪽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명 바이킹이라고도 불렸다.

봉건 사회가 성립하다

9~10세기 사이 유럽 사회는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족 등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력을 갖춘 기사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외적을 막으며, 농민을 지배하였다.

기사는 자기보다 힘이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길 것을 맹세하고, 주군은 그 기사를 봉신으로 삼고 봉토를 주어 보호함으로써 주종 관계가 성립되었다. 주군과 봉신의 주종 관계는 위로는 왕에서부터 아래로는 하층 기사에 이르기까지 지배층 모두에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주군과 봉신이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한 **쌍무적 계약 관계**였다. 그러나 봉신은 점차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재판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등 자신의 봉토를 직접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 봉건제의 구조

사료 돋보기 주종 관계의 성립

> 타인의 권력에 몸을 의탁한 자로서 …… 나의 봉사와 공로에 따라 당신은 내게 음식과 의복을 내려 나를 돕고 부양해야 한다. …… 만일 우리 둘 가운데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그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어야 할 것이며, 그로써 우리 둘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할 것이다. - 카롤루스 왕조 시대의 계약서

주종 관계는 일정한 의식을 거쳐 성립되었다. 먼저 봉신이 주군에게 부하로서 충성을 서약하면, 주군은 손에 쥐고 있던 흙 한 줌을 땅에 뿌렸다. 이때 흙은 봉신에게 주는 봉토를 의미한다. 이로써 의식은 끝나게 된다.

그러나 봉신이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주군이 가신을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종 관계는 무효가 되었다.

▲ 충성의 맹세

장원이 발달하다

주군이 봉신에게 주는 봉토는 장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장원은 보통 한 촌락과 그 주변의 토지로 이루어졌다. 장원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농민은 농노였다. 이들은 영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다. 농노는 평생 동안 장원을 떠날 수 없었으며,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고대의 노예와는 달리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다.

이처럼 지배층이 토지를 매개로 주종 관계를 맺고, 봉토를 받은 봉신이 장원의 영주로서 농민을 지배하는 중세 유럽의 사회 질서를 **봉건제**라고 한다.

탐구 활동 중세 농노의 생활

자료 1 농노의 일상

그는 아내, 세 명의 자식과 함께 작은 목조 집에서 살았고, 영주의 토지를 빌려 생계를 유지하였다. 일주일에 사흘은 반드시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일하였으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다. 오늘은 영주에게 닭과 달걀을 바치고 왔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자, 곧 작은 포도밭을 돌보았으며 저녁에는 양털로 천을 짜는 일을 하였다.

– 아일린 파워, "중세의 사람들"

자료 2 장원의 구조

자료 3 농노의 사계절

▲ 밭 갈고 씨 뿌리기(봄)

▲ 양털 깎기(여름)

▲ 포도 따기(가을)

▲ 장작 패기(겨울)

(그림: 프랑스 콩데 미술관 소장)

과제 1 자료 1을 바탕으로 영주에 대한 농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과제 2 자료 2, 3을 보고 장원에서 농노의 생활 모습이 어떠했을지 이야기해 보자.

과제 3 중세의 농노와 고대의 노예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자.

로마 가톨릭이 서유럽을 지배하다

로마 교회는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였으며, 봉건 사회가 발달하자 그 권위가 더욱 강화되었다. 교회는 유럽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지배하였다. 한편 교회는 왕이나 영주에게서 토지를 기증받거나 개간하여 대토지를 소유하며 영주와 마찬가지로 농민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권력과 부가 늘어나면서 성직 매매를 비롯한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이 심해졌다. 이에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10세기 초에는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성직 매매의 금지 등을 요구하였다.

클뤼니 수도원의 개혁 운동이 성공하면서 교회와 교황의 지위가 강화되자, 성직 임명권을 둘러싸고 교황과 세속 군주의 대립이 심해졌다. 11세기 후반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황제가 가지고 있던 성직 임명권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반발하자 교황은 그를 파문하였다. 결국 하인리히 4세는 카노사에 있던 교황을 찾아가 가까스로 용서를 받았다(**카노사의 굴욕**, 1077). 그 후 13세기에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영국의 존 왕을 굴복시키는 등 교황권이 절정에 달하였다.

▲ 카노사의 굴욕(바티칸 도서관)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의 성주와 클뤼니 수도원장에게 교황과의 화해를 주선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도움 글 수도원 생활

6세기 초 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운 베네딕트는 수도사들에게 청빈, 정결, 복종을 서약하게 하고, 매일 일정 시간 기도와 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사는 하루 4~5시간 기도하고,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위해서 매일 여러 시간 노동을 하였다. 또한 독서에 필요한 책들을 베끼는 일도 하였다.

수도사는 종교 서적은 물론, 라틴 어 습득에 필요한 고대 그리스·로마의 세속적인 작품과 의학, 법학에 관한 책을 베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일은 고전을 보전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고대의 문화유산이 근대에 전해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 고전을 베끼는 모습

▲ 노동하는 모습

2 비잔티움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한 손에는 군기를, 다른 손에는 십자가가 세워진 공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한 조각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학습목표 | 비잔티움 제국과 중세 서유럽의 정치·경제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비잔티움 제국이 번영을 누리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요새로서 게르만족의 침입을 피할 수 있었다. 또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하여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번영을 누렸다.

6세기 중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국가와 교회의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영토를 크게 넓혀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로마법을 집대성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로마법 대전)"을 편찬하였으며, 강력한 전제 정치를 실시하였다.

◀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모습(하르트만 쉐델, 1493)**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인구가 한때 약 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 유럽에서 가장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였다.

▲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 변화**

▲ **그리스의 불(에스파냐 국립 도서관)**
'그리스의 불'은 비잔티움 제국의 군대가 사용하던 화기를 말한다. 이 불은 물로 잘 꺼지지 않고 수면에서도 계속 타오르는 특성이 있어서, 비잔티움 제국의 해군이 바다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죽은 후 비잔티움 제국은 이탈리아 대부분을 상실하고, 이슬람 세력과 슬라브족 등의 거듭된 침입에 시달렸다. 11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은 셀주크 튀르크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으며, 13세기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가는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국력이 더욱 약해져 쇠퇴하다가 결국 오스만 제국에 멸망하였다(1453).

▲ 십자군의 공격을 받는 콘스탄티노폴리스(프랑스 국립 도서관)

▲ 약탈당한 비잔티움 양식의 금은 향로(이탈리아 베네치아)

탐구 활동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자료 1 정치와 종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정치적·군사적으로 최고 지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수석 대주교를 임명하는 권한과 종교 교리상의 논쟁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자료 2 경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전 세계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아라비아 상인은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료, 페르시아의 양탄자 등을 가지고 들어왔으며, 러시아 상인은 흑해를 건너 가죽, 모피 제품 등을 가지고 왔다.

▲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이탈리아 산 비탈레 성당)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운데)가 왼쪽에 관리와 군인, 오른쪽에 성직자를 거느리고 있다.

과제 자료 1, 2를 읽고 비잔티움 제국과 중세 서유럽을 비교한 다음의 표를 완성해 보자.

구분	정치	경제	종교
중세 서유럽	봉건제	장원 발달	
비잔티움 제국			그리스 정교

3 크리스트교 문화의 발달

중세 유럽 사람들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장례를 치렀으며, 마을의 각종 모임이나 축제를 열었다. 또한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고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였다.

중세 유럽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을 지배한 종교는 무엇이었을까?

학습 목표 |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 문화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크리스트교가 신학과 예술을 이끌다

중세 유럽 문화는 크리스트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학이 중시되면서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였다.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저술하였다.

중세 초기의 교육 기관은 교회나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가 중심이었다. 12세기 이후에는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각지에 **대학**이 설립되어 교육과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중세 유럽의 건축, 미술 등은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문학에서는 기사들의 활약이나 크리스트교의 가르침을 담은 '롤랑의 노래', '니벨룽겐의 노래', '아서왕 이야기' 등이 유행하였다.

▲ 중세 대학의 강의 모습
학생들은 라틴 어로 신학, 법학, 의학 등을 배웠다. 강의가 끝나면 달리기, 공놀이, 사냥 등을 하면서 지냈다.

▼ 쾰른 대성당(독일)
서유럽에서는 중세 사람들의 신앙심을 반영한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발달하였다. 고딕 양식은 높고 뾰족한 탑, 날렵하고 가벼운 기둥, 밝은 스테인드글라스 등이 특징이다.

▲ 성당 내부의 아치
뾰족한 아치를 만들어 높이를 더 올릴 수 있었다.

▲ 스테인드글라스
성당 내부를 밝게 하고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림의 소재는 대부분 성서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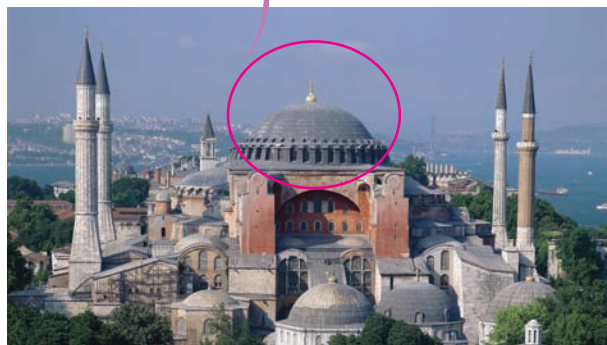
비잔티움 문화가 동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 서유럽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그리스의 고전을 보전하여 연구하였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에 **영향**을 주었다.

비잔티움 양식의 교회는 정사각형의 건물 위에 원형의 돔을 올려놓은 형태로 지어졌는데, 내부는 유리와 돌 조각을 사용한 모자이크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이러한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세워진 성 소피아 대성당이다.

게르만족이 이동한 후에 동유럽에 정착한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들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정교와 그리스 어 등을 받아들였다. 특히 러시아 지역의 키예프 공국은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고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삼는 등 비잔티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 성 소피아 대성당에 그려져 있는 성모와 아기 예수(모자이크화)

▲ 키릴 문자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키릴 문자는 성서를 번역하여 슬라브족에게 그리스 정교를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 성 소피아 대성당(터키)
성 소피아 대성당을 완공하였을 때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솔로몬이여! 나는 그대를 능가했노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스만 제국 때 4개의 첨탑을 세워 이슬람교 사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용하고 있다.

도움 글 동서 교회의 분열,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우두머리를 겸하고 있었다. 726년에 레오 황제가 그림이나 조각으로 된 예수와 성인들의 성상을 우상으로 간주하여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리자, 로마 교황은 이에 반대하였다. 성상은 게르만족에 포교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로마 교황이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크리스트 교회는 로마 교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다. 그 후 1054년에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로 갈라섰다.

▲ 성상을 지우고 있는 모습(러시아 국립 역사 박물관)

4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비잔티움 제국이 이민족의 침략으로 위협을 받자,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예루살렘은 환희의 낙원이며 젖과 꿀이 넘치는 곳이다."라고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하여 3만 명에 이르는 군대가 조직되어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교황의 제창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조직된 군대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십자군 전쟁 이후 나타난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권이 쇠퇴하다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는 크리스트교도의 예루살렘 순례를 통제하였으며, 비잔티움 제국과 지중해 무역권을 두고 경쟁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로마 교황에게 순례자를 보호해 달라는 명목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로마 교황이 성지 탈환을 호소하자 많은 영주와 농민이 호응하여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1096).

▲ 십자군 전쟁
제1회 십자군은 종교적 열정을 앞세워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으나, 제4회 십자군은 상인과 영주들의 조종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였다.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한때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기도 하였으나 끝내는 실패하였다. 십자군 전쟁이 성지 탈환이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떨어졌고, 유럽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다

11세기 서유럽의 농촌에서는 개간으로 경작지가 늘어나고 농사짓는 방법이 개선되어 잉여 농산물이 생겼다. 이를 교환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각지에 시장이 들어섰는데, 교역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로 발전하였다.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으로 교통로가 확대되어 동방과의 무역이 활발해지자, 도시와 시장은 더욱 발달하였으며 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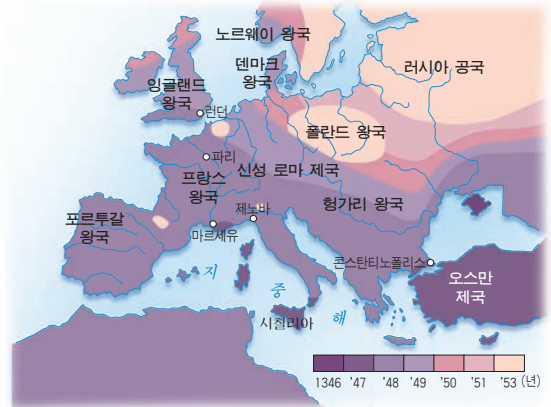
▼ 중세 도시의 모습이 남아 있는 프랑스 카르카손

처음에 도시들은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점차 무력으로 대항하거나 돈으로 자치권을 획득해 나갔다. 각국의 국왕들은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도시를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중세 도시는 **자치 도시**가 되었고, 그 구성원은 자유민이 되었다. 중세 도시의 경제 활동은 수공업자와 상인의 동업 조합인 **길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길드를 통해 영업을 독점하였다.

▲ 석공과 목수를 감독하고 있는 주인
수공업자와 상인은 직종별로 조합을 만들고 규약을 정하여 생산과 판매 활동을 통제하였으며, 비조합원의 영업을 금지하였다.

장원이 붕괴하다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고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서 장원에서도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영주는 농민에게 직영지를 빌려 주고 소작료를 현물이나 화폐로 받았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무거운 부역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농노의 신분에서 점차 해방되었다.

한편 14세기 중엽에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어,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였다. 자연히 장원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대우를 개선해 주었다. 이에 따라 농민의 지위는 더욱 향상되어,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영 농민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농민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와트 타일러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 흑사병의 확산
흑사병은 치사율이 높아, 1300년경에 약 7,300만 명이었던 유럽의 인구가 1400년 무렵에는 4,500만 명으로 줄었다.

사료 돋보기 와트 타일러의 난

우리의 요구

- 모든 사람은 부역과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 사람의 농노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잉글랜드 왕국 내 모든 주·시·정기 시장 등에서 매매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 농노 보유지, 영주 직영지는 1에이커 당 4펜스의 지대를 내고 경작할 수 있다. 또 전부터 그 이하의 지대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액수를 올려서는 안 된다.

\- 와트 타일러

▲ 와트 타일러의 난(영국 도서관)

와트 타일러의 난 때 정신적 지도자였던 신부 존 볼은 "아담이 경작하고 이브가 길쌈할 때 누가 귀족이고 누가 평민이었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와트 타일러는 국왕 리처드 2세를 만나 농노 해방을 요구하였다.

왕권이 강화되다

▲ 영국의 모범 의회 개최를 기념한 그림
에드워드 1세가 소집한 모범 의회는 신분제 의회의 기초가 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교황권이 쇠퇴하면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왕은 관료와 군대를 두어 국가의 토대를 다지려고 하였다. 도시의 시민들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받고자 국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은 도시의 시민들과 손을 잡고 통일 국가를 이룩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헌장이 선포되었다(1215). 그러나 국왕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귀족과 성직자, 시민의 대표가 모여 국정을 논의하였는데, 이로써 영국 의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4세기에는 영국의 의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 양원제 의회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4세기 초 필리프 4세가 성직자, 귀족, 시민으로 구성된 삼부회를 창설하였다. 그는 삼부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황을 굴복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백년 전쟁**이다. 처음에는 영국이 유리하였으나, 결국 잔 다르크가 활약한 프랑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도움 글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영국과 프랑스는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였던 플랑드르와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영국 왕이 프랑스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여 두 나라 사이에 백년 전쟁이 일어났다.

▲ 백년 전쟁((1337~1453)

▲ 긴 활로 무장한 영국군 (프랑스 국립 도서관)

▲ 잔 다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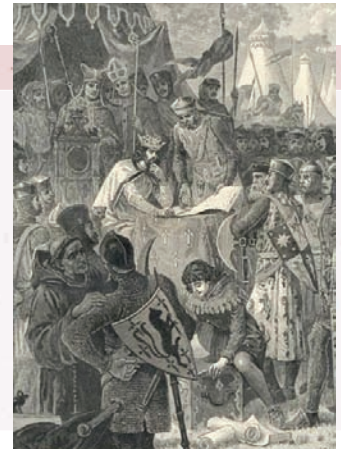
전쟁 초기에는 긴 활(장궁)로 무장한 자영농 출신의 영국 보병 부대가 프랑스의 중무장(60~80 kg)한 전통적인 기사군을 격파하는 등 영국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잔 다르크가 영국군에 포위된 오를레앙을 구원하고, 국민이 일치단결하면서 영국군을 차례차례 격파하여 프랑스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 후 영국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두고 장미 전쟁이 일어나 귀족들이 몰락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백년 전쟁을 계기로 귀족들이 몰락하고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가 들어섰다.

한편 15세기 후반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에스파냐 왕국과 포르투갈 왕국이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 두 왕국은 **신항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외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며 번영하였다.

▲ **에스파냐 왕국의 통일**
15세기 후반에 카스티야와 아라곤이 합쳐져 에스파냐 왕국이 성립하였다. 그 후 에스파냐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 국가를 완성하였다.

탐구 활동 대헌장(마그나 카르타)

제1조 짐은 영국 교회가 자유로우며 그 권리를 축소하거나 침해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12조 군역 면제금과 보조금은 짐의 왕국 전체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 부과되지 않는다.
제39조 자유민은 누구나 ……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금, 추방되거나 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침해당하지 않는다.

▲ 대헌장에 서명하는 영국의 존 왕("잉글랜드의 역사" 수록, 1902)

과제 1 위 문서에서 입헌 정치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과제 2 대헌장은 어떠한 사람들의 특권을 인정하려는 것인지 알아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내용이 맞으면 ○표, 틀리면 X표를 하시오.

(1) 중세 서유럽의 농노는 다른 장원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었다. ( )
(2)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다. ( )
(3)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 전쟁을 계기로 중앙 집권화가 촉진되었다. ( )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프랑크 왕국의 □□□□ □□는 교황에게서 서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
(2) 중세 도시에서 상인과 수공업자는 □□를 조직하였다.
(3) □□□ 전쟁으로 교황권은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대단원 마무리

중국

〈 남북조 시대 〉
- 화북에는 유목 민족 왕조, 강남에는 한족 왕조 성립
- 추천에 의한 인재 등용 → (❶) 중심의 사회 성립
- 노장사상 · 청담 사상 유행, 도교 성립, 불교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융성(북조)

〈 수 〉
- 중국 재통일
- 과거제 실시, 토지 제도와 군사 제도 정비
- (❷) 건설
- 대규모 토목 공사, 무리한 군사 활동으로 30여 년 만에 멸망

〈 당 〉
- 율령 체제의 성립
  - 3성 6부제
  - (❸) 실시: 조·용·조, 부병제
- 귀족적, 국제적 문화 발달
- 동아시아 문화권의 요소: 유교, 불교, 한자, 율령 등

인도와 동남아시아

인도	• 굽타 왕조: 인도 고유의 문화 발달, (❹) 성립 • 8세기경 이슬람 세력 침입 → 이슬람 문화의 확산
동남아시아	인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독자적인 문화 수립

서아시아 세계

- 이슬람교의 성립: 유일신 신앙, 우상 숭배 배격, 만인 평등 주장
- 이슬람 세계의 확대: 무함마드의 아라비아 반도 통일 → (❺) → 우마이야 왕조(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반도 진출) → 아바스 왕조(민족 차별 폐지)

유럽 세계

〈 봉건 사회의 성립 〉
- 정치: 지방 분권적 사회, 주군과 봉신의 주종 관계
- 경제: (❻) 발달
- 문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 봉건 사회의 변화 〉
- (❼) 이후 교황권 쇠퇴
- 도시와 상업 발달
- 장원의 붕괴: 소작료의 현물·화폐 납부, 흑사병에 따른 인구 감소 등
- 왕권 강화,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의 출현

생각의 열쇠

❶ 남북조 시대의 사회 계층으로서, 유력한 가문이 대대로 관직을 독점하면서 등장하였다.
❷ 화북 지방과 강남 지방을 연결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물자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❸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한 제도이다.
❹ 브라만교에 민간 신앙과 불교 등이 결합된 종교이다.
❺ 무함마드 사후 네 명의 칼리프가 차례로 선출되어 이슬람 공동체를 이끈 시대이다.
❻ 보통 한 촌락과 그 주변의 토지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일하는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다.
❼ 로마 교황이 성지 탈환을 호소하자 많은 영주와 농민이 호응하여 일어난 전쟁이다.

과제 풀어가기

다음은 유럽의 장원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묘사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 중 한 명을 선택하여 그의 하루 생활을 알 수 있는 가상 일기를 써 보자. 이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의무, 사회적 역할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중세 시대의 생활을 재구성해 보자.

▲ 주군에게 충성 서약을 하는 봉신

▲ 중세 장원의 구조

▲ 농작물을 수확하는 농노

▲ 예배를 이끄는 성직자

10△△년 △월 △일

IX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세계 여러 지역은 다양한 문화권을 형성해 갔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하면서 전통 사회를 발전시켰다. 특히 몽골 제국이 성립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로 묶여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명·청 제국과 조선, 일본의 에도 막부가 발전하였으며, 인도에서는 무굴 제국이 번영하여 인도·이슬람 문화가 꽃피었다. 서아시아의 오스만 제국은 관용 정책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서유럽 각국은 신항로 개척에 앞장서 국제 무역과 문화 교류 증대에 이바지함으로써 유럽 세계가 팽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00년경	1000년경	1100년경	1200년경	1300년경
세계	960 송 건국		1115 금 건국	1299 오스만 제국 성립	1368 명 건국
한국	918 고려 건국	1019 귀주 대첩	1170 무신 정변		1392 조선 건국

카라코룸에 남아 있는 몽골 제국 유적

1400년경	1500년경	1600년경
1492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 발견	1526 무굴 제국 성립	1644 청, 중국 정복
1446 훈민정음 반포	1592 임진왜란	1636 병자호란

01 중국 전통 사회의 발전과 동서 교류

1 송의 경제 발전과 서민 문화의 발달

▲ 황제 앞에서 전시를 치르는 모습

송대에는 과거 시험을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답안을 쓴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하였다. 또한 과거 시험의 합격자를 관리로 임명하고자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였다.

송대에 과거 시험을 거쳐 관료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

학습 목표 | • 송대 문치주의 정책이 가져온 영향을 알 수 있다.
• 송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서민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문치주의 정책으로 왕권을 강화하다

5대 10국
당 멸망 이후 각지의 절도사들이 잇달아 나라를 세워 서로 대립하며 분열했던 시기이다.

조광윤(태조)은 당이 망한 이후 5대 10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송을 세웠다(960). 태조는 지방 절도사들의 세력을 누르고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문신 중심의 정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문치주의 정책**으로 송의 군사력이 크게 약해져 북방 민족의 침입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상 왕안석은 새로운 법을 실시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부유한 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하고, 가난한 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2세기 초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켰다. 곧이어 금은 송을 강남으로 쫓아내고 화북 지방을 차지하였다. 송은 임안(항저우)을 도읍으로 삼고 남송을 세웠다. 남송은 금을 무너뜨린 몽골 제국에 멸망하였다(1279).

▲ 송 건국 무렵의 동아시아
송의 수도인 변경(카이펑)은 창장 강과 황허 강을 연결하는 대운하가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하였다.

사대부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지다

송대에는 종래의 가문을 중시하던 귀족 사회에서 실력을 위주로 한 **사대부 중심 사회**로 바뀌었다. 사대부는 유교 지식을 갖추고 대토지(장원)를 소유했으며, 과거 시험을 거쳐 관료가 되었다.

이들은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주자학)을 발전시켰다. 성리학은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여 인간 행동의 기준을 찾으려 하였다. 또한 군신 사이의 의리와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을 써서 역사 서술의 모범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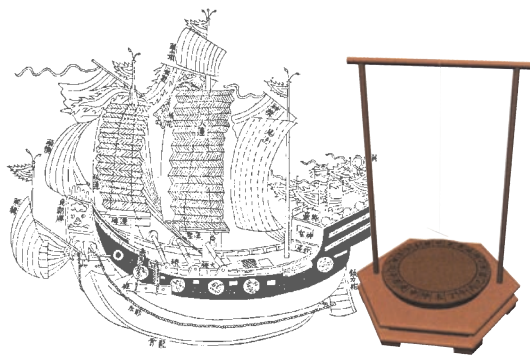
한편 그림에서는 사대부와 승려들이 즐겨 그린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자치통감"
사마광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날짜별로 기록하였다(편년체). 이러한 서술 방법은 "사기"와 같이 분야별로 기록하는 기전체와는 대조되는 방식이다.

경제가 발전하여 서민 문화가 발달하다

송대에는 강남 지방의 개발이 두드러져,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강남 지방의 경제력이 밭농사가 중심인 화북 지방의 경제력을 앞서게 되었다. 또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상업 도시가 성장하였고, 도시에서는 상인과 수공업자의 동업조합이 성행하였다. 이에 따라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져 동전과 함께 지폐가 사용되었다.

산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서민층**이 **성장**하였다. 서민들이 즐기는 산문이 발달하여 가사, 소설, 수필 등 서민 문학이 발전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도 두드러졌다. 활판 인쇄술의 등장으로 서적이 널리 보급되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화약과 나침반이 발명되어 무기 제조 방법과 항해술이 발전하였다. 특히 화약과 나침반은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져 이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 송대의 상선과 나침반
송대에는 과학 기술 발달에 힘입어 해상 교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조선술이 발달하여 원양 항해용 선박이 만들어졌는데, 이들 선박은 나침반을 갖추고 있어 험난한 항해에도 정상적인 항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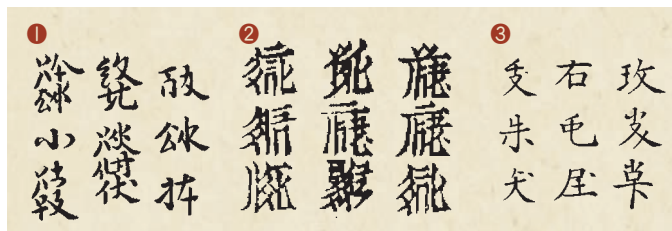
▲ 송의 도읍 변경의 모습(청명상하도의 일부, 베이징 고궁 박물원)
송대 화가인 장택단의 그림으로, 청명절 변경(카이펑)의 활기찬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변경은 전국에서 모인 물자를 바탕으로 대규모의 소비형 상업 도시가 되었다.

2 몽골 제국과 동서 교류의 확대

▲ 몽골 군대의 진격

만리장성 북쪽 초원 지대에서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은 오로지 소, 양, 말 등의 가축을 이용하여 음식을 비롯한 생활의 대부분을 해결해야 했다. 이들은 중국에 침입하여 농경지에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지배하기도 하였다.

중국에 들어온 유목민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인을 지배하였을까?

학습 목표 | • 요 · 서하 · 금 · 원 등 북방 민족이 중국을 통치한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 몽골 제국 시기의 동서 교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북방 민족의 문자
① 거란 문자, ② 서하 문자, ③ 여진 문자

북방의 유목 민족이 성장하다

10세기 초 야율아보기는 거란을 세웠다. 이후 태종 대에는 국호를 요로 바꾸었다. 요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화북 지방에 진출하여 송과 대립하였다. 한편 요는 유목 민족에 대해서는 고유의 부족제를 유지하면서 농경민은 군현제로 다스리는 **이중 정책**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거란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11세기 무렵에는 탕구트족이 서하를 세웠다. 서하는 비단길의 길목에 위치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하였으며,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다. 또한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처럼 유목 왕조는 문자를 제정하거나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면서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금이 화북 지역을 지배하다

12세기 초 아구다는 여진족의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금을 세웠다. 금은 송과 동맹하여 요를 멸망시킨 후, 송을 공격하여 강남 지방으로 몰아냈다. 이로써 금은 만주 일대를 비롯하여 화북 지방과 몽골 고원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금은 여진족에 대해서는 고유의 부족제를 유지하였고 한족은 군현제로 다스렸다. 그리고 여진 문자를 만들어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차츰 중국 문화에 동화되면서 군사력이 약화되어 13세기에 몽골 제국에 멸망하였다.

▲ 금의 팽창과 송의 이동

칭기즈 칸이 몽골 제국을 세우다

몽골 고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은 테무친에 의해 강력한 통일 제국으로 성장하였다. 테무친은 유목 생활로 단련된 뛰어난 기병을 이끌고 여러 부족을 통일한 후, 부족장 회의에서 '위대한 군주'라는 뜻의 **칭기즈 칸**으로 추대되었다(1206). 그는 유목 민족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서하를 정복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칭기즈 칸이 죽은 후에도 몽골 제국의 정복 사업은 계속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금과 아바스 왕조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동부 유럽 일대까지 점령하여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과 점령 지역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관습에 따라, 몽골 제국은 원과 킵차크한국, 차가타이한국, 일한국으로 나뉘었다.

한국(汗國)
한(汗; Khan)은 '칸'과 같은 뜻으로, 군주 곧 왕을 뜻한다. 한국은 '칸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다.

▲ 몽골 제국의 최대 영역
몽골 제국은 칭기즈 칸의 후손들이 세운 네 나라가 원을 중심으로 느슨한 정치적 결합을 이루었다.

▲ 칭기즈 칸(1162년경~1227)의 즉위식
테무친은 '최고의 쇠로 만든 사람'이라는 뜻으로, 몽골족의 한 족장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모진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변의 부족들을 무찌르고 세력을 회복하여, 마침내 몽골족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도움 글 몽골의 기마병

몽골족의 기마병 군단은 한 명의 병사가 하루에 70km를 이동할 수 있는 말을 여러 마리 끌고 다니며 교대로 갈아타서 말의 피로를 덜었다. 병사들은 달리는 말 위에서 사정거리 300m가 넘는 단궁을 쏠 수 있었다. 이들은 동물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과 무기를 합친 무게가 겨우 7kg 정도였다.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은 갑옷 안에 비단옷을 입어 화살이 깊이 박히지 못하게 하였다.

이들은 고기를 다져서 말린 전투 식량(보르츠)을 말 안장에 달고 다녔는데, 보르츠 하나로 10명의 군사가 3주일 동안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말을 탄 채 활을 쏘는 몽골 기마병들의 뛰어난 기동력 앞에, 온몸을 철갑으로 무장한 유럽의 기사들은 제대로 싸워 보지도 못하고 몰살당했다.

▲ 말을 타고 활 쏘는 몽골의 기마병

▲ 쿠빌라이의 사냥 모습(원세조출렵도의 일부)
칭기즈 칸의 손자인 쿠빌라이는 일찍부터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 한족 출신 유학자들을 신하로 두고 가까이 지냈다. 사냥에 나선 쿠빌라이가 중국식 옷에 몽골식 모피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원이 중국을 지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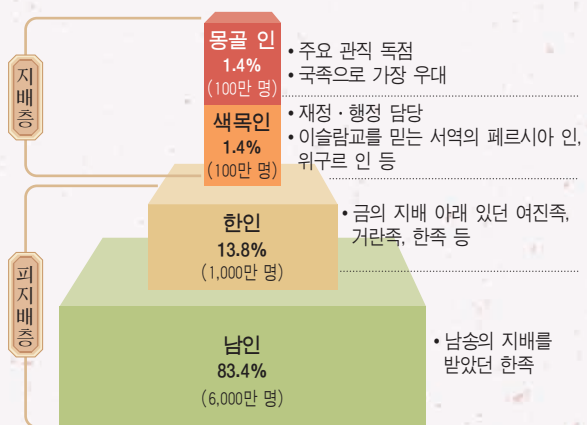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인 쿠빌라이(세조)는 중국의 대도(베이징)로 도읍을 옮긴 후 국호를 원이라 하였다(1271). 그리고 남송을 멸망시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다.

원은 한족을 지배하기 위하여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워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몽골인의 고유 전통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민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원 말기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귀족의 사치와 부패, 교초의 남발로 경제적 혼란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차별 대우에 반발한 한족이 반란을 일으켜, 원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탐구 활동 원의 민족 차별 정책

몽골은 대외 정복 과정에서 전쟁에 협력한 정도에 따라 각 민족을 차별 대우하였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면 대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민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었다. 원이 몽골 인, 색목인, 한인, 남인을 달리 대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최상층을 차지한 소수의 몽골 인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정치·군사를 담당하였다. 색목인은 대부분 서역의 상인 출신으로서, 계산에 밝았으며 일찍부터 몽골의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들은 주로 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반면 원에 협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중국 강남 지역의 사람들은 심한 차별을 받았다. 원에서는 과거제가 꾸준히 실시되지 않는 대신 추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면서 한인과 남인들은 관직에 진출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남인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권리는 거의 행사할 수 없었다.

▲ 원의 사회 구조
색목인(色目人)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몽골 인과 중국 사람들을 제외한 서역의 여러 나라 사람을 한데 일컫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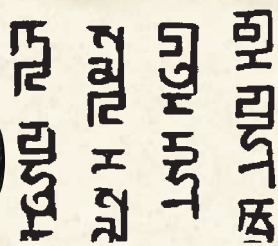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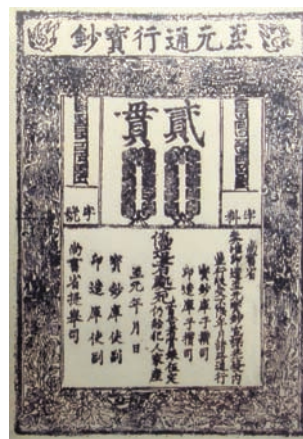
과제 1 원에서 신분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말해 보자.

과제 2 원에서 색목인이 담당했던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보자.

몽골 제국이 동서 세계를 하나로 묶다

몽골 제국의 넓은 영역 안에는 다양한 민족만큼이나 각양각색의 종교와 문화가 있었다. 이들 문화가 유라시아 안에서 직접 접촉함으로써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몽골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교통·통신과 물자 운반을 원활하게 하고자, 각 도로에 일정한 간격마다 숙박 시설인 **역참**을 두어 통행자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였다. 패자를 휴대한 사람은 말을 교대로 갈아타고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었다. 관리와 사절, 상인은 역참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국을 여행하였다.

역참 제도가 정비되면서 교류가 활발해져 유럽 인이나 이슬람 상인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탈리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발달한 중국 문화를 보고 감탄했던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해상 교역도 번성하여 상인들이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를 출발하여 바닷길을 따라 인도, 아라비아까지 진출하였다. 이들 항구 주변에는 이슬람 상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거류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 패자와 몽골(파스파) 문자
역참을 이용하려면 패자와 칸의 특허장이 필요했다. 여기에는 넓은 몽골 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구르 문자, 몽골(파스파) 문자 등 다양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 교초
원대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교초라는 지폐가 널리 사용되었다.

사료 돋보기 중국의 경이로운 강남 지역 도시를 방문하다!

이 양쯔 강 위를 오가는 선박의 총수, 그리고 수송량 및 그 가치의 합계는 크리스트교 세계의 모든 강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을 능가한다. 나는 이 강남의 도시에서 1만 5천 척의 배가 동시에 강 위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그다지 크지도 않은 이 도시에 이렇게 많은 배가 있다면 다른 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배가 있을까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이 강은 16개 이상의 지방을 통과하고 있으며 그 연변에는 200개 이상의 도시가 있는데, 도시마다 더 많은 배가 있다. -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 쿠빌라이를 알현하는 마르코 폴로 일행(프랑스 국립 도서관)

13세기 말 당시 유럽의 최대 항구였던 베니스에서 출생한 마르코 폴로는 창장 강 하류의 도시를 보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화려한 도시'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동방견문록"에 소개된 중국의 모습은 유럽 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르코 폴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이 책에는 거짓이거나 꾸며 낸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보고 들은 것의 반 정도도 소개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하였다.

▲ 원대의 잡극 배우들

▲ 라마교 사원(몽골 카라코룸)
티베트 불교는 원의 국교였다. 쿠빌라이는 티베트 불교의 고승(라마)인 파스파를 국사로 임명하고, 종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내정에도 관여하게 하였다.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원이 육로와 해로를 개척하여 교역이 확대되자 주변 여러 지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또한 원은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었다.

이슬람 세계에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 의학 등의 자연 과학과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문화가 전해졌으며, 유럽의 크리스트교와 티베트 불교(라마교) 등이 유입되었다. 특히 **티베트 불교**는 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발전하였다.

중국의 문화 역시 세계 각지에 전해졌다. 송대와 마찬가지로 나침반이 서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전해져 항해술 발달에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비단과 도자기뿐만 아니라 화약, 인쇄술도 유럽에 전해졌다.

한편 원에서는 서민적인 구어체 문학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희곡이 많이 쓰였다. “서유기”, “비파기” 등과 같은 걸작은 연극으로 공연되기도 하였다.

역사 가로지르기 원대에 동서를 오고 간 것들

▲ 청화 자기
코발트는 서아시아에서 유행하던 푸른빛을 내는 안료이다. 코발트가 중국에 수입되자, 백자에 코발트로 그림을 그려 만든 새로운 도자기가 등장하였다. 이는 동서 문화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 중국의 목판 인쇄물(간쑤 성 융덩 현 박물관)
원대에는 중국의 인쇄술이 유럽에 전파되었다. 더불어 송대에 개발된 화약, 나침반 등 다양한 발명품도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었다.

▲ 원대에 발달한 천문 기기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각종 기기가 난징에 만들어졌다. 또한 천문, 역법, 지도 제작법 등 서아시아에서 발달한 많은 과학 지식이 중국에 소개되었다.

3 명 · 청 제국의 발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은 지금까지 남아 있는 중국의 궁궐 중 가장 짜임새가 있고 웅장하다. 궁성은 남북 960 m, 동서 750 m, 사방 둘레가 3,400 m이며, 성안의 전체 면적은 72만 m^2이다. 명 · 청의 황제들은 이곳에 거주하며 나라를 다스렸다.

명 · 청의 황제들은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학습 목표 | • 명 · 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청이 중국을 통치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명이 유교적 통치 질서를 강화하다

원 말에는 민족 차별로 고통 받던 한족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중 강남 지역에서 홍건적을 지휘하던 주원장(홍무제)이 명을 세웠다(1368).

홍무제는 금릉(난징)에 수도를 정하고 몽골족을 몰아낸 후 중국을 지배하였다. 그는 원대에 파괴되었던 한족의 전통문화를 회복하여, 지속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과거제를 정비하고 **유교적 통치 질서**를 강화하였다.

1.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라.
2. 웃어른을 공경하라.
3. 향리에서 이웃과 화목하라.
4. 자손을 교육하여 잘 깨우치게 하라.
5. 각자 맡은 바 생업을 열심히 하라.
6. 금지한 일을 어기지 말라.

▲ **백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섯 가지 교훈**
'육유(六諭)'는 황제가 백성을 대상으로 직접 유교 윤리를 가르치려고 시도한 것이다.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펴다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정복과 외교 정책을 통하여 북방 민족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았다. 명의 대외 정책은 15세기 초 **정화의 항해**를 계기로 큰 결실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 명은 남쪽의 왜구와 북쪽의 몽골족에게 시달렸으며, 조선에서 일어난 임진왜란에 출병함으로써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결국 명은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 이자성의 농민군에게 멸망하였다(1644).

▼ **정화가 이용한 함선(모형)**
길이가 138 m, 너비가 65 m에 이르렀으며, 약 450명을 태울 수 있었다.

◀ **명의 영역과 정화의 항해로**
1405년 정화는 317척의 크고 작은 배에 2만 8천여 명의 선원을 태우고 중국을 출발하여 제1차 항해를 시작하였다. 항해는 그 후에도 25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계속되어, 동남아시아의 해안 일대와 인도양을 거쳐 페르시아 만과 아프리카 동북 해안까지 명의 존재를 알렸다.

▲ **변발**
한족의 풍속은 장발이었다. 이에 청은 복종의 표시로 한족에게 변발을 강요하였다.

만주족이 중국을 통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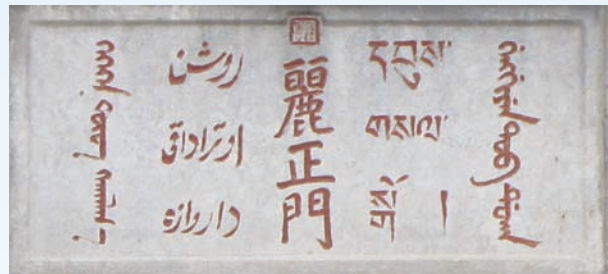
17세기 초 명이 약해지자, 누르하치(태조)가 만주에서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후금을 세웠다. 이어 홍타이지(태종)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고쳤고, 순치제는 베이징을 점령하여 도읍으로 정하였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청은 한족을 지배하고자 회유책과 강압책을 함께 사용하였다. **과거 시험**을 **실시**하여 만주족과 함께 한족을 관리로 등용하여 한인 지식인층을 회유하였고,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었다. 그러나 청은 한족 남성에게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였다. 또 한족이 우수한 민족이며 한족 중심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만주족을 비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청대에 영토가 크게 확장되다

17세기 후반 청은 강희·옹정·건륭제의 3대 130여 년간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북쪽에서 중국으로 남하하려던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어 이를 저지하였다. 이어 몽골 초원과 서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칭하이, 신장, 티베트에 이르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도움 글 오늘날 중국 영토는 청의 유산이다

▲ **청의 영토**
오늘날의 중국 영토는 강희제부터 건륭제에 이르는 시기에 이룩한 청대의 영토를 기초로 한 것이다.

▲ **다섯 가지 문자로 쓴 현판**
허베이 성 청더에는 청 황제의 여름 궁전인 피서 산장이 있다. 이곳의 정문 현판은 몽골, 위구르, 한자, 티베트, 만주 문자 등 다섯 가지 문자로 쓰여 있다. 이는 여러 민족을 다스린 청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청은 명의 영토였던 지역에는 성을 두었으며, 그 아래 부와 현을 두고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다스렸다. 한편 몽골, 티베트, 신장 등지에는 군대를 주둔시켜 감독하면서도, 원래 그 지역에 있던 지배 세력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었다.

4 명·청 시대 전통 사회의 성장

청대의 쑤저우는 강남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업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태풍을 만나 중국으로 표류했던 조선 사람 최부는 "표해록"에서 쑤저우를 비단과 금은보화, 온갖 기술을 가진 장인과 부유한 상인들이 모이는 최고의 상업 중심지로 묘사하였다.

청대 강남 지역의 경제적 번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학습목표 | • 명·청 시대에 발전된 경제와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명·청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대외 교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 청대 쑤저우의 모습을 그린 고소번화도의 일부

신사가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하다

명·청대에는 유교적 교양을 갖춘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명대부터 전국 곳곳에 학교가 세워졌고, 과거 시험의 문이 더욱 넓어지면서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관료로 진출하거나 향촌 사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을 **신사(향신)**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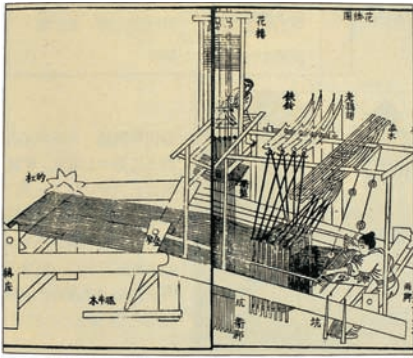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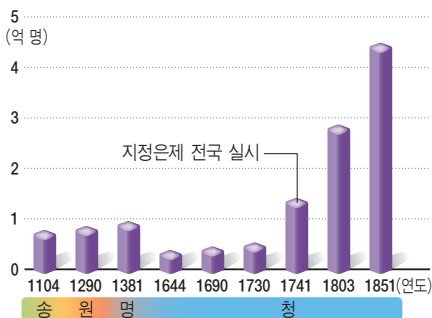
신사는 부역을 면제받는 등 특권을 누리면서 국가가 향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청대에도 신사는 여전히 사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 명대의 신사
신사는 향촌 사회에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관개 사업 등을 주도하였다.

유학에 변화가 나타나다

명대에는 성리학의 전통이 되살아났다. 그러나 성리학은 차츰 이론과 형식에 치우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 후기에는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주장하는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청대에는 소수의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사상과 저술 활동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청에서는 한인 학자들이 현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하도록 대대적인 편찬 사업을 벌여 "강희자전", "사고전서" 등을 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증학은 현실 정치나 사회 문제의 해결에는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 사고전서(四庫全書)
경전, 역사서, 제자백가서, 문집의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간행하였다.

▲ **명대 직물을 생산하던 기계**
복잡한 문양을 짜던 직조 기계로서, 명대의 산업 기술책인 "천공개물(天工開物)"에 수록되어 있다.

▲ **청대의 인구 증가**
17세기(청 초기)의 인구 조사 결과 약 6천만 명으로 집계되었지만, 18세기 후반(건륭제 때)에는 약 2억 6천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품 경제의 발전으로 사회가 변화하다

명 · 청대에는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였다. 명 중기 이후 쌀 생산의 중심지가 창장 강 하류에서 중류 지역으로 바뀌었고, 창장 강 하류에서는 면화, 뽕, 차 등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특히 면화의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면직물 등 수공업이 발달하여, 제품의 생산과 가공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담배, 땅콩 등 외래 작물의 재배도 확산되었다.

명대에는 민간의 대외 교역을 엄격히 통제하였으나,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비단과 도자기 · 차의 수출이 활발해졌다. 특히 포르투갈, 에스파냐와 교역하면서 멕시코 은이 대량으로 중국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은이 화폐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명은 그동안 복잡했던 세법을 간단히 하여 은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조편법**을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청대에 부역을 토지세에 통합하여 은으로 내게 하는 **지정은제**로 발전하였다. 지정은제를 실시한 이후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는 부역을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통계상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탐구 활동 명 · 청대에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밀려들다

◀ **마제은(말굽 모양 은)**
명 · 청대에 유통되던 은은 무게와 순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은 덩어리였다.

▲ **16세기 무렵 세계 은의 유통**

명대에 에스파냐는 멕시코산 은을 식민지였던 필리핀으로 보내 그곳에서 중국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에스파냐는 중국의 비단, 차, 도자기 등을 사 가면서 그 대가로 은을 지불하였다. 일본의 은도 대량으로 중국에 흘러들어 왔다. 명 말에는 세계 은의 3분의 1가량이 중국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명 · 청대에는 은이 화폐로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조세 제도가 변화하였다.

과제 1 명 · 청대에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밀려들어 온 요인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과제 2 명 · 청대에 은이 대량으로 유입된 이후 어떠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자.

서민 문화가 발달하고 유럽 문화가 전래되다

송대에 이어 명·청대에도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여 **서민 문화**가 유행하였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수호전", "삼국지연의", "홍루몽" 등 구어체 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다.

명 중기 이후 대외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양의 학문이 소개되었다. 16세기 말부터는 크리스트교 선교사가 들어와 천문학, 지리학 등의 과학 지식과 총포 제작 기술 등 유럽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였다. 특히 명 말에 **마테오 리치**는 천주교를 소개하는 한편, 곤여만국전도와 같은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전래된 기술과 학문은 중국인의 과학 지식에 영향을 끼쳐, 실용적 학문이 발달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유럽 문화가 전해지면서 크리스트교가 전파되었다. 그러나 유교의 전통적 예절과 마찰을 일으키자 건륭제는 크리스트교를 금지하였다. 이후 청에서는 19세기까지 원칙적으로 서양인 선교사의 체류와 포교가 금지되었다.

▲ 중국식 복장을 한 마테오 리치(왼쪽)와 크리스트교로 개종한 명의 관리 서광계(오른쪽)

▲ 곤여만국전도(난징 박물원)
마테오 리치가 베이징에서 만든 세계 지도로서, 전 세계를 타원형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도움 글 유럽에 분 중국 열풍

16세기 이후 중국을 다녀간 상인과 선교사들은 유럽에 중국 문화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유럽의 상류 사회에서는 이른바 '중국풍'이 유행하였다. 17, 18세기에 만들어진 유럽의 궁전에는 중국산 자기로 방을 장식했고, 침대와 병풍에는 중국의 풍물을 그려 넣었다. 군주와 귀족들은 중국산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며, 중국식 찻잔에 중국산 차를 마시면서 사교의 자리를 가졌다.

▲ 중국 백자의 영향을 받은 식탁 용기(프랑스, 18세기 초)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송대에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이 발전하였다.

(2) 명·청대에는 유교적 교양을 갖추고 향촌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가 사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었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송대 • • ㉠ 정화의 항해
(2) 원대 • • ㉡ 왕안석의 개혁
(3) 명대 • • ㉢ 지정은제 실시
(4) 청대 • • ㉣ 마르코 폴로의 방문

02 일본 무사 정권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

1 일본 무사 정권의 출현

일본 무사에게는 두 자루의 칼이 있었다. 하나는 자기가 모시는 영주와 자신을 지키는 데 쓰는 칼이고, 다른 하나는 죽어야 할 때 자신을 찌르는 데 쓰는 것이다. 그들은 영주를 위해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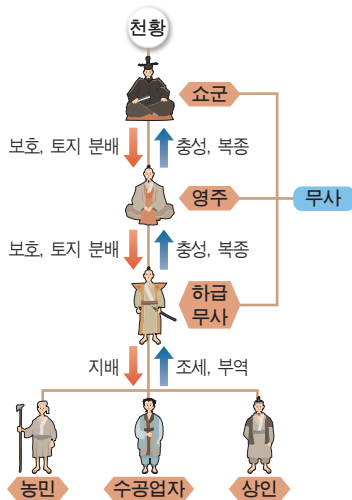
무사들이 활약했던 당시 일본의 사회 구조는 어떠했을까?

학습 목표 | •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출현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임진왜란으로 인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세워지다

10세기 무렵부터 일본에서는 귀족들의 내분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장원을 소유한 지방 영주의 세력이 커졌다. 영주들은 다른 영주와 대결하고자 무사를 고용하여 독자적인 기반을 다져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사 계급**이 본격적으로 출현하였고, 무사 집단이 점차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일본의 봉건 사회가 시작되었다.

막부(幕府, 바쿠후)
처음에는 쇼군의 본부 진영이 설치된 곳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점차 그곳을 중심으로 하는 무사 정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12세기 말에는 미나모토 요리토모 집안이 귀족 정치를 무너뜨리고 가마쿠라에 무사 정권인 막부를 세웠다. 막부 체제는 쇼군(장군)이 무사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무사는 쇼군에 대하여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는 관계를 기반으로 성립하였다. 이로써 쇼군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고 지방의 다이묘(영주)와 무사 계급을 지배층으로 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시행되었다.

▲ 막부 시대 일본의 사회 구조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무사 집단이 농민을 지배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 가마쿠라 막부 시대 무사의 저택
무사는 평상시에 영주나 장원의 관리인으로서 토지와 농민을 다스리다가, 전쟁이 나면 쇼군을 위해 싸웠다. 무사의 집 뒤편에는 말을 타고 활쏘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무로마치 막부 시대에 무사 중심 사회가 발전하다

13세기 말 고려를 복속시킨 원의 쿠빌라이는 가마쿠라 막부에 항복을 요구하였다. 막부가 이를 거부하자 쿠빌라이는 여·원 연합군을 편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원정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불어닥친 태풍으로 일본 정벌에 실패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 냈지만, 방어 비용을 부담하던 무사들이 몰락하여 붕괴하였다.

그 후 영주들 사이의 무력 대결이 계속된 혼란한 시기를 거쳐, 14세기 초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졌다(1336). 이 시대에 천황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였고, 군사력으로 전국을 통치하는 쇼군의 보호 아래 지방은 **무사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과거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유학도 발전하지 못하였다. 대신 자기 절제나 수련을 중시하는 무사의 취향에 맞는 선종 불교가 발달하였다.

무로마치 막부는 한때 명과 국교를 맺고 교류하면서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의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중엽부터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어, 각 지방의 무사들이 서로 세력을 다투는 전국 시대가 100여 년간 계속되었다.

태풍
가마쿠라 막부는 두 차례나 원의 공격을 받았지만 때마침 불어온 태풍 덕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때부터 일본 사람들은 막부를 위기에서 구한 태풍을 '가미카제(神風)' 즉, 신의 바람이라고 부르며,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특별한 나라라는 생각을 하였다.

▲ **전투하는 무사들**
화려한 갑옷과 투구로 장식한 무사들이 돌격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그림이다.

▼ **금각사(교토)**
1397년에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쓰 장군이 지은 별장이었으나, 그가 죽은 후 유언에 따라 선종 사찰로 바뀌었다. 3층 누각에 금박을 입힌 화려한 금각사는 소박한 은각사와 함께 무로마치 막부 시대의 정원 건축을 대표한다.

▲ **견명선**
무로마치 막부가 명과의 무역을 위해 보냈던 배로, 2개의 돛대를 달았으며 1,000~2,000석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규모였다. 견명선은 1404년부터 150여 년간 일본과 명을 왕래하였는데, 이들은 명이 발행한 입항 허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교역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화하다

16세기 후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의 내전을 마무리하고 일본을 통일하였다. 그는 내부적으로 지방 다이묘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 영토 확장과 무역 증진을 꾀하며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 1592). 여기에 명이 참가하면서 전쟁은 동아시아 삼국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면서 7년에 걸친 전쟁은 끝났다(1598). 그러나 이 전쟁 이후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크게 변하였다.

탐구 활동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가져온 변화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일본인이 저지른 난동'이라는 뜻에서 '왜란(倭亂)'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본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담겨 있다. 일본에서는 '분로쿠노 에키(文祿の役)'라고 하는데, '에키'는 전쟁이라는 뜻으로 침략의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는 '일본에 맞서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는 뜻에서 '항왜원조(抗倭援朝)' 전쟁이라고 한다. 조선을 도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조선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다.

자료 1 조선

조선은 토지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크게 줄었다. 전투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으며, 명을 더욱 공경하고 우러르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자료 2 명

명은 전쟁을 치르며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였다. 바닥난 재정을 보충하려고 강남 등에서 세금을 늘리자 백성들의 원망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만주에서 누르하치가 세력을 키워 명을 위협하였다.

자료 3 일본

일본은 전쟁을 통해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조선에서 약탈해 간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추종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패권을 장악하여 에도 막부를 열었다.

▲ 이삼평 비(일본 규슈 사가 현)와 아리타 자기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조선인이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다. 규슈의 아리타 지역으로 끌려간 이삼평은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여 일본에서 '도자기의 시조'로 불렸다. 1930년대에 일본은 이 탑을 세워 '내선일체'의 상징으로 악용하기도 하였다.

과제 1 자료 1, 2를 바탕으로 임진왜란 후 조선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취한 정책을 알아보자. ☞ 174쪽 참조

과제 2 자료 3을 참고하여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문물이 일본에 전파된 사례를 조사해 보자.

2 에도 막부와 일본의 발전

에도 시대에는 서민의 생활 모습이나 풍경을 다양한 색으로 찍어내는 우키요에(판화)가 유행하였다. 우키요에는 '속세'를 뜻하는 '우키요'라는 말처럼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어 급속히 발전하였다.

에도 시대에 대중적인 목판화가 발전한 배경은 무엇일까?

▲ 우키요에(가쓰시카 호쿠사이의 '파도')

학습 목표 | • 에도 시대 일본의 사회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 에도 시대 국제 교역의 형태를 설명할 수 있다.

에도 시대에 평화를 누리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하고 에도(도쿄)에 막부를 열었다(1603). 그때까지 지방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뜻대로 영지를 다스렸다. 그러나 에도 막부는 이전의 막부와는 달리 지방의 **다이묘**를 강하게 **통제**하였다. 지방의 다이묘들은 에도와 영지에 1년씩 교대로 머물러야 했으며, 그의 부인과 아들까지 에도에 인질로 잡혀 있어야 했다. 또한 막부는 영지를 적절히 배분하거나 몰수하는 방법으로 지방의 다이묘들을 통제하여 사회를 안정시켰다. 그리하여 에도 막부는 지방을 잘 다스릴 수 있었고, 일본 사회는 이후 200여 년간 평화를 누렸다.

▲ 막부 정치의 전개

도움 글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의 행렬

에도 막부는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자 지방의 다이묘를 일정 기간 교대로 에도에 머물게 하였다. 에도로 향하는 다이묘 행렬의 규모는 막부의 규정에 따라 정해졌는데, 다이묘를 중심으로 가신과 무사들이 배치되어 행진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막부가 다이묘를 통제하는 수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이묘들이 에도와 영지를 왕래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업 발달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 다이묘의 행렬 모습

에도 시대 후기에는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발해지면서 상공업과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조닌이라고 불리는 상공업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고, 가부키, 우키요에와 같은 **조닌 문화**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의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몰락한 농민들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무사 중심의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 가부키 배우

▲ 가부키가 공연되던 극장(도요쿠니 우타가와, 1858)
노래(歌), 춤(舞), 솜씨(伎)를 뜻하는 가부키는 음악과 춤, 무언극, 호화로운 무대와 의상이 어우러진 연극이다.

▲ 니혼바시(日本橋)
에도의 니혼바시는 당시 물류의 중심지로서, 창고를 소유한 상가가 즐비하였다. 상인들의 활기찬 모습을 통해 에도의 번성을 엿볼 수 있다.

역사 가로지르기 에도 시대에 한류를 불러온 통신사

▲ 통신사의 행로

임진왜란으로 조선과 일본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런데 에도 막부는 여러 지역의 영주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고자 조선에 통신사를 다시 보내 달라고 간청하였다.

일본에 간 통신사는 막부의 권위를 세워 주었고, 막부는 통신사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막부는 통신사를 맞이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꺼리지 않았다. 막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통신사의 숙소로 찾아가 시를 읊고 필담을 나누려고 애썼다. 200여 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통신사의 영접은 에도 막부가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좋은 기회였다.

▲ 통신사 행렬 모습

에도 시대에 새로운 사회의 싹이 자라나다

에도 막부는 조선과 국교를 회복하고 성리학을 공인하였다. 한편으로 전국 시대에 전래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유럽과의 교역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에게는 나가사키에 한하여 교역을 허용하였다.

문화에서는 일본의 고유한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의 고전 연구를 중심으로 한 **국학**이 발달하였고, 고유의 민족 종교인 신도가 유행하였다. 한편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온 서양의 학문인 **난학**이 발달하여 훗날 일본의 근대화에 이바지하였다.

난학(蘭學)
에도 시대에는 네덜란드를 '화란(和蘭)'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을 통해 받아들인 서양 학문을 '난학(랑가쿠)'이라고 불렀다.

도움 글 일본의 성장을 촉진한 난학

17세기 중엽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와 무역을 하고자 나가사키에 인공 섬인 데지마를 만들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머물 수 있게 하였다. 이곳을 중심으로 난학이 발달하였다.

▲ 나가사키 항의 인공 섬 데지마

▲ 일본어로 번역된 해부학 서적 "해체신서" (일본 국립 국회 도서관)

난학은 서양 의학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774년에 네덜란드 어로 쓰인 해부학 전문 서적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계기였다. 그 후 천문, 지리, 물리, 화학 등으로 영역이 넓어졌으며, 선박이나 대포를 만드는 기술도 배웠다. 더불어 서양의 새로운 정치·사회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나가사키에는 서양의 지식을 얻으려는 일본 지식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 문물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겨났으며, 19세기 초 난학 전문가는 1,000명이 넘을 정도였다. 난학은 일본 근대화의 싹이 되었고, 네덜란드는 일본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막부 체제에서는 천황 대신 □□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다.

(2) 에도 시대 후기에는 가부키, 우키요에와 같은 □□ 문화가 발전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미나모토 요리토모 •   • ㉠ 임진왜란

(2) 도쿠가와 이에야스 •   • ㉡ 에도 막부

(3) 도요토미 히데요시 •   • ㉢ 가마쿠라 막부

03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 서아시아 세계

1 서아시아의 새로운 이슬람 국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중앙아시아 유목민 중 어느 부족의 전사를 새긴 접시이다. 이 부족이 세운 나라의 침입을 받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교황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손에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서유럽과 비잔티움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과 마찰을 빚은 이 나라는 어디일까?

학습 목표 | 아바스 왕조 이후 서아시아에 등장한 이슬람 국가들을 말할 수 있다.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 사회를 지배하다

중앙아시아의 튀르크족은 10세기경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남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 가운데 셀주크 튀르크가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갔다.

셀주크 튀르크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에게서 **술탄**의 칭호를 받아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주도 세력이 되었다. 셀주크 튀르크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소아시아(지금의 터키 지역)와 예루살렘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 점령을 계기로 일어난 십자군 전쟁과 지배층의 권력 다툼 등으로 세력이 약화되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였다.

▲ 셀주크 튀르크와 일한국의 영역

술탄
'권위, 권력'을 뜻하는 말로서,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한다.

몽골족이 서아시아에 일한국을 세우다

13세기 중엽 훌라구가 이끄는 몽골군이 바그다드를 함락하였다. 이들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일한국을 세웠다. 일한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아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으나, 14세기경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분열되었다.

▲ 몽골군의 바그다드 함락(1258, 프랑스 국립 도서관)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을 꿈꾸다

14세기 후반에 칭기즈 칸의 후예를 자처한 티무르가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우며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이르는 티무르 제국을 건설하였다.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티무르 제국은 몽골과 튀르크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슬람과 페르시아 문화를 융합하여 오늘날 중앙아시아 문화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티무르 제국의 영역

15세기 후반 티무르 제국이 내분으로 약화되자, 이란 지역에서 시아파 계통의 사파비 왕조가 독립하였다. 티무르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는 티무르의 후손인 바부르가 인도 북부로 진출하여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세웠다.

사파비 왕조가 오늘날 이란의 전통을 완성하다

16세기 초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 인들은 사파비 왕조를 세워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사파비 왕조는 관료 조직과 상비군을 갖추어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7세기 초에 전성기를 누렸다.

사파비 왕조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중계 무역으로 번영을 누렸으며, 페르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이란·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아 국가적 단결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중앙아시아	이란	터키
티무르 제국 1369–1500	아바스 왕조 750–1258	셀주크 튀르크 1038–1157
	일한국 1258–1411	오스만 제국 1299–1923
	사파비 왕조 1501–1736	

(연도)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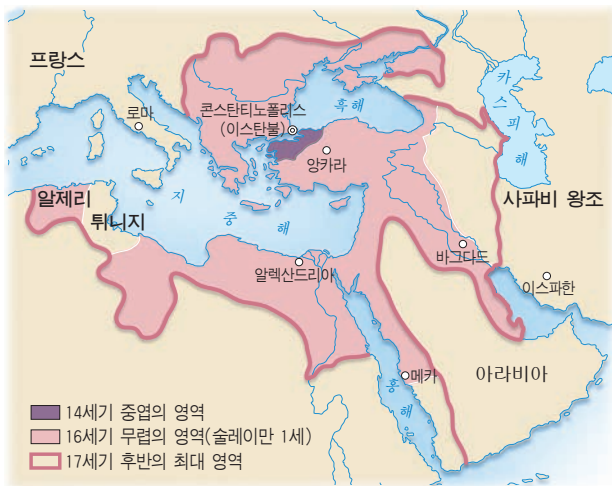
▲ 이슬람 세계의 변천

▼ 티무르 제국의 수도 사마르칸트
중앙아시아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사마르칸트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이곳에 있는 모스크를 비롯한 여러 건물들의 돔이 푸른색 타일로 장식되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는 '푸른 돔의 도시'라고도 불렸다.

2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

"저렇게 오색찬란한 모자이크화를 없앤다? 그러기에는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메흐메트 2세는 성 소피아 대성당을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꾸도록 지시하고도, 벽면의 모자이크화가 쏟아 내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한참을 고민하였다. 그러다 석회를 발라 모자이크화를 덮도록 명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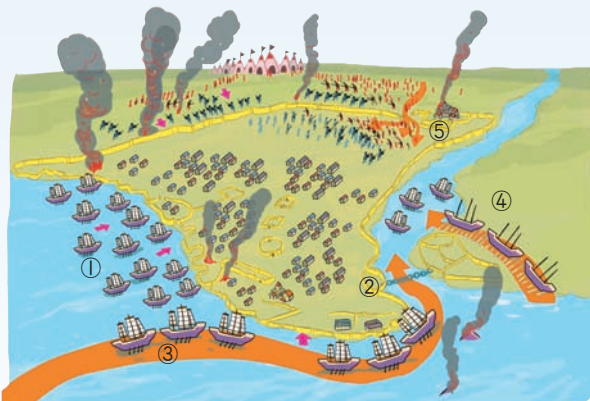
메흐메트 2세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

학습 목표 | 오스만 제국 통치 방식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오스만 제국의 발전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다

13세기 말 오스만 튀르크는 셀주크 튀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다.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여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꾸어 수도로 삼았다.

16세기에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와 헝가리 왕국을 정복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대제국을 이루었다. 나아가 유럽 국가들의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지중해의 해상권까지 장악하였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집트를 정복한 후 칼리프의 지위까지 넘겨받아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배자가 되었다.

도움 글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1453)

▲ 오스만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추정도)

1453년 오스만 제국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육상과 해상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였다(①). 이에 비잔티움 제국은 5천여 명의 군대로 대응하였으며, 오스만 제국의 함대를 막으려고 골든혼을 쇠사슬로 봉쇄하였다(②). 로마 교황이 함대를 보내 비잔티움 제국을 지원하였지만, 오스만 제국 함대가 이를 격파하였다(③). 오스만 제국은 육로로 함대를 이동시켜 쇠사슬로 막힌 골든혼 안으로 진입하였고(④), 총공격을 하여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켰다(⑤).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함으로써 지중해와 유럽으로 향하는 발판을 확보하였다.

오스만 제국이 동서 문화를 융합하다

오스만 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계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의 문화가 오스만 제국으로 흘러들어 왔다. 오스만 제국은 넓은 영토 안에 여러 민족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이민족이 세금만 내면 자신들의 종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등 **관용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이슬람 문화를 중심으로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 튀르크 문화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문화가 발전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는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유명하며, 공예 분야에서는 페르시아풍과 중국풍이 어우러진 도자기,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무늬가 새겨진 양탄자 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어받은 궁정 문학이 발달하였으며, 이슬람 세계의 자연 과학을 계승하여 수학, 천문학, 지리학 등의 실용 학문도 발달하였다.

◀ 예배용 도자기 램프(영국 박물관)
아라베스크 무늬와 페르시아풍, 중국풍 문양이 어우러져 있다.

▲ 기도용 양탄자
가운데 부분에 모스크의 첨탑을 연상하게 하는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터키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건물로 비잔티움 양식을 받아들여 지은 것이다. 터는 가로 64 m, 세로 72 m이고, 돔은 직경이 23 m, 높이가 43 m이다. 돔이 층층이 놓여 있어 겉모습이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내장 공사에만 2만 장 이상의 도자기 타일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일명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린다.

▲ 모스크 내부

탐구 활동 오스만 제국의 통치 정책

자료 1 상업의 자유를 허용하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후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너희들의 진정한 재산, 창고, 포도밭, 제분소, 배, 그 밖의 소유물은 모두 너희 것으로 둘 것이다. 오스만의 땅에서는 통상과 여행에 아무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 다양한 민족이 교류하는 상업의 중심지 바자르(이탈리아 콜레르 박물관)

자료 2 민족과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등용하다

오스만 제국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의 크리스트교도 소년들을 모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엄격한 훈련을 거쳐 예니체리라는 술탄의 친위 부대로 편성하였다. 예니체리는 새로운 병사라는 뜻이다. 예니체리는 많은 급료를 받았으며, 고급 관료가 될 수 있는 등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았다.

▲ 예니체리 군악대의 행진

자료 3 다양한 종교와 민족의 자치 공동체를 인정하다

오스만 제국은 종교와 민족에 따라 자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였다. 자치 공동체들은 조세와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신, 중앙 정부의 간섭 없이 결혼, 교육, 언어, 전통 등에서 거의 완전한 사회적·문화적 자치를 누렸다. 또한 모든 구성원은 능력과 기회에 따라 사회적 출세를 할 수 있었고, 개종하여 다른 공동체로 이주할 수도 있었다.

▶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거주하는 유대 인(터키 이슬람 예술 박물관)

과제 1 위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오스만 제국 통치 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과제 2 자료에서 나온 정책들이 오스만 제국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발표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셀주크 튀르크 • • ㉠ 예루살렘 점령
(2) 일한국 • • ㉡ 아바스 왕조 멸망
(3) 티무르 제국 • • ㉢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4) 오스만 제국 • • ㉣ 몽골 제국의 부활 주장

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티무르 제국의 수도 □□□□□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2) 16세기 초 이란 지역에서는 □□□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고자 하였다.
(3) '새로운 병사'라는 뜻의 □□□□는 오스만 제국 술탄의 친위 부대였다.

동서 문화의 교차로, 이스탄불

고대 그리스 시대의 도시 국가 '비잔티움', 로마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시기에 '콘스탄티노폴리스'라 불리던 도시. 오스만 제국은 1453년에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이스탄불'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만나는 지점, 비단길을 통해 동양과 서양을 이어 주는 길목, 동서 문화의 교차로인 이스탄불을 살펴보자!

이스탄불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으로 나뉜다. 구시가지가 있는 쪽이 유럽이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면 아시아이다. 이스탄불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은 주로 구시가지에 몰려 있다.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성 소피아 대성당과 이슬람교 사원인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은 동서 문명의 만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그랜드 바자르**
1461년 메흐메트 2세 때부터 조성된 그랜드 바자르는 비단길의 종착지로 동서양의 수많은 물건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터키 최대의 재래시장인 그랜드 바자르는 금은, 보석, 양탄자, 도자기, 옷감 등 없는 게 없는 쇼핑의 천국이다.

▼ **톱카프 궁전**
1478년에 지어져 약 380년 동안 오스만 제국의 궁전으로 사용되었다. 보스포루스 해협과 골든혼(금각만), 마르마라 해가 만나는 지점에 있어 외적 방어에 유리하였다. 톱카프 궁전에는 8만 6천여 점의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

▼ **돌마바흐체 궁전**
1856년 압둘 마지드 1세가 오스만 제국의 부흥을 꿈꾸며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모방하여 지은 궁전이다. 280개가 넘는 방과 43개의 홀이 있었으며, 궁전 장식에 금 14톤과 은 40톤이 쓰였다고 한다.

0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인도·동남아시아의 변화

1 무굴 제국의 발전

긴 머리카락을 감싼 터번과 빗, 짧은 속바지 그리고 쇠 팔찌와 허리 단검을 갖춘 시크교도는 유일신에 대한 사랑과 기도, 선행으로 윤회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다.

인도의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한 시크교는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았을까?

학습 목표 | •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무굴 제국에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한 사례를 말할 수 있다.

무굴 제국, 인도를 지배하다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가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북부에 침입하여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세웠다. 이후 **아크바르**는 북인도 전체와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는 이슬람교도와 함께 힌두교도를 관리와 군인으로 등용하였고, 비이슬람교도에게 거두었던 인두세를 폐지하는 등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무굴
페르시아 어로 '몽골'이라는 뜻이다. 바부르는 자신을 몽골의 후예라고 주장하였다.

17세기 후반 **아우랑제브**는 데칸 고원 남부 지역까지 정복하여 최대 영역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워 비이슬람교도에게 다시 인두세를 거두었다. 이에 힌두교도와 시크교도가 반란을 일으켜 무굴 제국은 분열되었고, 18세기 이후 유럽 열강의 잇단 침략으로 급속히 약화되었다.

▲ 무굴 제국의 발전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지다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면서 인도 북부에서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 계층의 문화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반 민중 사이에서는 여전히 힌두 문화의 전통이 유지되었다. 이에 무굴 제국에서는 두 문화가 융합되어 **힌두·이슬람 문화**가 발전하였다.

언어로는 힌디 어와 페르시아 어, 아랍 어 등이 섞인 우르두 어가 사용되었으며, 15세기 말 펀자브 지방에서는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시크교**가 등장하였다. 미술에서는 페르시아 세밀화의 영향을 받은 무굴 회화가 발달하였으며, 건축에서는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결합한 타지마할이 세워졌다.

▲ **시크교의 황금 사원(암리트사르)**
시크교는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에 반대하였으며, 이슬람교처럼 유일신을 믿었다.

◀ **타지마할(아그라)**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황후를 기리며 만든 건축물이다. 타지마할의 흰색 대리석과 보석 장식, 문에 새긴 연꽃무늬 등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고, 아치와 첨탑, 돔형 지붕, 아라베스크 무늬는 이슬람교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탐구 활동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의 통치

구분	아크바르(1542~1605)	아우랑제브(1618~1707)
정치	• 인더스 강과 갠지스 강 하류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관리를 등용할 때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 데칸 고원 이남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 고위 관직에 이슬람교도를 등용하고 힌두교도를 쫓아냈다.
사회	비이슬람교도에게 걷던 인두세를 폐지하였다.	비이슬람교도에게 걷던 인두세를 부활하였다.
종교	모든 종교인을 동등하게 대했으며,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였다.	시크교의 지도자들을 처형하였으며, 이슬람교 이외의 사원과 학교를 폐지하였다.

과제 1 아크바르와 아우랑제브 통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과제 2 아크바르가 대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추론해 보자.

2 동남아시아 세계의 발전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 의상인 히잡을 쓴 말레이시아 여성들이다. 원래 말레이시아 지역은 인도의 영향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전통이 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분류된다.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이런 복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교가 전파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치 변화와 전통문화 발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 전파

동남아시아에 이슬람교가 퍼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은 일찍부터 중계 무역이 발달하여 다양한 지역의 상인들이 드나들었다. 14세기 무렵 이 지역에 이슬람 상인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이슬람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5세기 초 말레이 반도에는 이슬람 왕조인 **믈라카 왕국**이 등장하였다. 믈라카 왕국은 동아시아와 인도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16세기 초에 포르투갈의 침입으로 몰락하였고, 이후 네덜란드가 이 지역을 지배하며 향료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 무렵 이슬람 세력은 자와 섬까지 진출하여 향료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던 마자파힛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여러 섬에 이슬람교가 전파되었다.

▲ 믈라카 술탄 궁전(말레이시아)
믈라카 왕국의 전성기 때 술탄이 거주하던 궁전이며, 지금은 전통 양식으로 복원하여 문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믈라카 왕국은 이슬람 상인들과 손잡고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교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그레이트 모스크(인도네시아 메단)

미얀마와 타이가 대립하다

타이에서는 14세기 이후 **아유타야 왕조**가 중국의 명 및 유럽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번영을 누렸다. 또한 상좌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가 크게 발전하였다.

미얀마에서는 16세기에 퉁구 왕조가 일어나 전국을 통일하고 포르투갈의 침입을 물리쳤다. 18세기 중반 퉁구 왕조를 계승한 알라웅파야 왕조는 아유타야 왕조를 멸망시키며 세력을 떨쳤다. 이에 타이에서는 방콕을 수도로 한 **짜끄리 왕조**가 새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타이 왕조이다.

▲ 아유타야 왕조의 불교 유적(타이)

베트남이 통일과 분열을 되풀이하다

15세기 초에 베트남의 대월국은 잠시 명의 지배를 받았으나, 레 왕조가 일어나 명을 몰아내고 독립하였다. 레 왕조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남쪽의 참파를 정복하여 인도차이나 반도의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 레 왕조의 사당(베트남)

16세기에 레 왕조가 몰락하자, 대월국은 남북으로 분열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이후 **응우옌 왕조**가 전국을 통일하고 국호를 베트남이라 하였다(1801).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식민 지배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앙코르 왕조 때 융성했던 캄보디아는 14세기 이후 쇠퇴하였고, 라오스는 뒤늦게 통일 왕조를 수립하였으나 분열되었다. 두 나라는 강성해진 타이와 베트남 사이에서 잦은 침탈을 받았다.

▲ 동남아시아 각국의 변천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바부르 •　　• ㉠ 타지마할 건축
(2) 아크바르 •　　• ㉡ 무굴 제국 건국
(3) 샤자한 •　　• ㉢ 종교 화합 정책
(4) 아우랑제브 •　　• ㉣ 최대 영역 확보

2 무굴 제국에서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한 사례를 두 가지 쓰시오.

3 15세기 말레이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 왕조로서 해상 무역으로 번영을 누린 나라를 쓰시오.

05 유럽 사회의 변모와 절대 왕정의 등장

1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왼쪽의 두 그림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세 명의 여신을 그린 것이다. 중세에 그려진 왼쪽의 세 여인은 얼굴이 똑같고 표정이 없으며, 모포로 온몸을 가리고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그려진 오른쪽의 세 여인은 생동감이 넘치며 물결 치는 듯한 베일을 걸치고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세 여인이 중세와 다르게 그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 • 르네상스가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종교 개혁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 르네상스의 전파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다

르네상스는 14~16세기 유럽에서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를 부흥하고자 한 문화 운동으로, 그 근본정신은 **인문주의**이다. 인문주의는 본래 그리스·로마의 고전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에서 비롯한 말로서, 인간을 중요시하는 현세적이고 합리적인 근대 정신을 의미하게 되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탈리아는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북부의 여러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유롭고 현세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또한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고 보전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을 받았다.

문학에서는 아름다운 서정시를 쓴 페트라르카와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가 유명하다. 미술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으며, 건축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이 대표적이다.

◀ 성 베드로 대성당(바티칸)
그리스의 열주와 로마의 돔 양식을 접목한 건축물이다.

알프스 산맥 너머로 르네상스가 전파되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16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으로 퍼져 나갔다.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의 부패를 날카롭게 풍자하였으며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네덜란드의 에라스뮈스가 쓴 "우신예찬"과 영국의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잘 드러나 있다.

문학에서는 라틴 어 대신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쓰인 작품들이 나왔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과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남겼다.

르네상스 시대에 높아진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심은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중세의 우주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구텐베르크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여 새로운 지식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크게 이바지였다.

▲ 코페르니쿠스의 천구도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는 둥글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돈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 왔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탐구 활동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자료 1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탈리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인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신과 만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미켈란젤로의 신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 라파엘로의 성모자(이탈리아 피티 미술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라파엘로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는 마리아를 우아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자료 2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과장하면 사람들까지 다 먹어 치우고 있다. …… 귀족, 수도원장까지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쳤기 때문이다.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현재 교황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처럼 즐거운 생활을 하며 근심 없는 사람도 없다.

\- 에라스뮈스, "우신예찬"

▲ 검열로 지워진 "우신예찬"

과제 자료 1, 2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특징을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 면벌부의 판매(예르크 브로이, 1530)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고쳐 짓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려고 면벌부를 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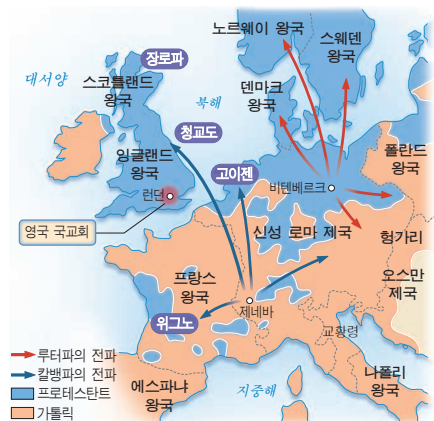
루터와 칼뱅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

중세 말에 이르러 가톨릭교회는 더욱 부패하였다. 한편 왕권이 강화되면서 군주들은 교회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종교 개혁은 독일의 루터가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1517). 그러자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과 교황을 지지하는 독일 황제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오랜 대립 끝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가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예정설**에 따라 근면, 정직, 절약하는 생활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상공 시민 계층의 환영을 받으며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세력에 반기를 든 사람들을 일컫는다. 가톨릭을 '구교', 프로테스탄트를 '신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교 개혁이 확산되자 가톨릭교회는 자체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여, 부패한 성직자를 쫓아내고 교리를 더욱 강화해 신교의 팽창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리고 예수회를 설립하여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였다.

▲ 신교의 확산
영국에서는 국왕이 영국 교회의 우두머리임을 선언하면서 신교의 교리를 받아들여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었다.

개인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다

종교 개혁이 확산되면서 유럽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이는 약 100년에 걸친 종교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독일에서는 대규모 국제 전쟁인 **30년 전쟁**이 일어나 큰 피해를 남기고 끝났다(베스트팔렌 조약, 1648). 이로써 칼뱅파는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종교 개혁과 종교 전쟁으로 개인의 신앙과 성서를 중시한 신교가 인정을 받았다.

사료 돋보기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트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루터는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이며, 인간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는 루터

2 신항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

1492년 10월 12일, “육지다! 육지다!”라는 외침에 콜럼버스 일행이 모두 뛰어나갔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려고 …… 모든 선원들이 그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을 때 무릎을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오늘날의 어디였을까?

학습 목표 | • 신항로 개척으로 대서양 무역이 확대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유럽 인의 침략으로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 도착

새로운 항로가 열리다

중세 말부터 향료와 비단 등 동방 산물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은 이탈리아 상인과 이슬람 상인들이 독점하여 유럽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동방과 직접 교역을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였다. 이 무렵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나침반이 도입되어 항해가 쉬워지면서 유럽 사람들은 **신항로 개척**에 나섰다.

신항로 개척에 앞장선 나라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다.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은 바스쿠 다 가마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항로를 발견하였다.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항해하다 오늘날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다(1492). 한편 마젤란 함대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고 인도양을 거쳐 세계를 일주하였다.

▲ 바스쿠 다 가마

▲ 콜럼버스가 탔던 산타 마리아호(복원)

◀ 신항로 개척
신항로 개척으로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발전하던 지구 상의 여러 지역과 문명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게 되었다.

대서양 무역이 발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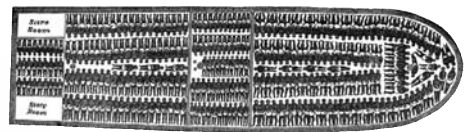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 갔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이 번영하였고, 이들은 앞다투어 국외로 진출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다.

한편 외국에서 금은 등 귀금속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물가가 크게 오르고, 새로 생긴 광대한 시장을 토대로 상공업자들이 부와 자본을 쌓아 유럽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상공 시민 계층이 성장하고 주식회사와 같은 근대적인 기업 형태가 나타나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신항로 개척 이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차, 면직물 등 새로운 산물이 유입되고, 아메리카에서 감자, 담배, 옥수수, 토마토 등이 전래되어 유럽 인의 일상생활이 크게 변하였다. 유럽 인들은 소와 말, 커피 등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져갔다.

유럽 인들은 식민지에 세운 농장에서 사탕수수, 담배, 커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유럽에 판매하였다. 그들은 원주민을 동원하여 강제로 일을 시켰으며, 전염병 등으로 아메리카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로 충당하였다. 유럽 상인들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공급하려고 노예 무역에 뛰어들면서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이 이루어졌다.

▼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의 국제 무역

신항로 개척 이후 대서양 무역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 흑인 노예를 가득 채운 노예선

16~18세기에 걸쳐 약 1,200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이 노예로 팔려 갔다.

▲ 농장에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테오도레 드 브리, 1596)

아메리카 문명이 파괴되다

콜럼버스 일행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기 이전에 아메리카에는 이미 수준 높은 문명이 발달해 있었다.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는 **아스테카 문명**이 발달하여 거대한 피라미드와 뛰어난 금은 세공품, 정교한 역법 등을 남겼다. 페루와 칠레에 걸쳐 있는 안데스 고원 지대에서는 **잉카 문명**이 발달하여 뛰어난 건축술과 금속 세공 기술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16세기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가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면서 두 문명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는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 아스테카 문명과 잉카 문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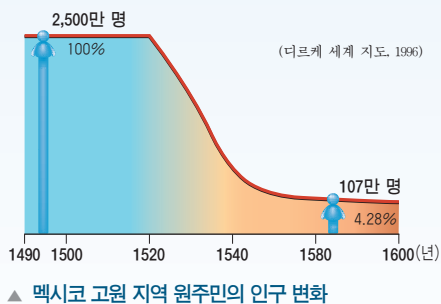
유럽 인들은 원주민을 이용해 광산을 개발하여 막대한 양의 금은을 가져갔고, 농장에서 사탕수수와 담배, 커피 등을 재배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반면에 원주민은 광산이나 농장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으며,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질병으로 무수히 죽어 갔다. 그 결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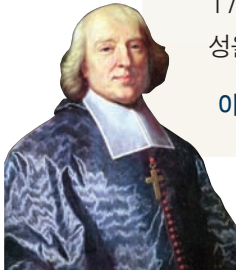
유럽 사람들은 대농장을 확보하려고 삼림을 훼손하였으며, 무분별하게 수렵을 하여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였다. 한편 유럽 인의 식민 지배 이후, 유럽 인과 현지인 사이에 혼혈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아메리카는 다양한 계통의 사람들로 구성된 다인종 사회가 되었다.

▶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페루)
안데스 산맥의 2,400 m 바위산 꼭대기에 남아 있는 잉카 문명의 유적이다. 이곳에서는 잉카 인들의 옛 농경지와 제단, 생활 터전 등을 볼 수 있다.

도움 글 아메리카 원주민의 몰락

1521년 코르테스의 공격을 받은 아스테카 제국은 석 달 만에 수도인 테노치티틀란(오늘날의 멕시코시티)이 함락되면서 무너졌다. 하지만 아스테카 제국이 쉽게 무너진 것은 코르테스의 공격보다도 천연두라는 전염병 때문이었다. 원주민에게는 정복자와 함께 찾아온 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어, "천연두는 한 걸음에 약 40 km를 달려가는 구두를 신었다."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퍼졌다. 그리하여 멕시코 고원의 원주민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유럽 사람들이 들여온 천연두, 홍역 등의 새로운 전염병과 그들의 살육, 착취 등으로 멕시코 고원의 원주민은 1600년경 약 100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 멕시코 고원 지역 원주민의 인구 변화

▲ 유럽 인에게 살육되고 착취당하는 아메리카 원주민(멕시코 국립 궁전)

3 유럽의 절대 왕정

17세기 프랑스의 역사가 보쉬에는 “신은 국왕을 당신의 사절로 세우시고 국왕을 내세워 백성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모든 권력이 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왕권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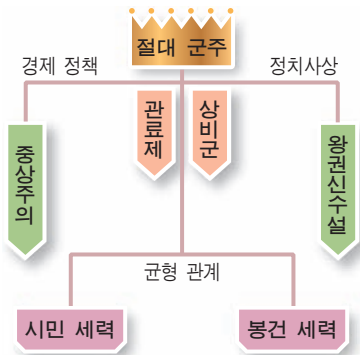
학습 목표 | • 절대 왕정의 정치 · 경제 · 사상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비교할 수 있다.

절대 왕정이 성립하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유럽 각국의 왕들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16~18세기에 절대 왕정이 성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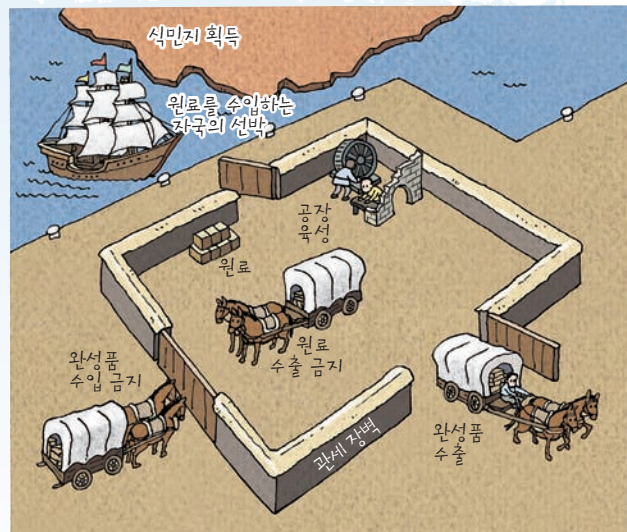
국왕들은 자신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많은 관료를 임명하고 상비군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확립하였다.

또한 국왕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국내 산업을 보호 · 육성하는 등 경제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왕들은 이러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부유한 상공 시민의 상공업 활동을 보호해 주는 대신, 그들에게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였다.

절대 군주
경제 정책 / 정치사상
중상주의 / 관료제 / 상비군 / 왕권신수설
균형 관계
시민 세력 / 봉건 세력

▲ 절대 왕정의 구조
절대 왕정은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세력과 봉건 세력이 서로 견제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성립하였다.

도움 글 절대 왕정 시기의 경제 정책

절대 왕정 초기에 유럽 각국은 가능한 많은 양의 금을 보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유할 수 있는 금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늘려 그 차액만큼 금을 남기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세를 높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였다.

많은 상품을 다른 나라에 팔려면 국내의 공업 발달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절대 왕정은 국내 산업을 보호 ·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유럽 각국은 자국의 물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고자 식민지 획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근대 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사상이 등장하다

르네상스 시대에 싹튼 근대 과학은 17~18세기에 크게 발달하였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제너는 종두법을 발견하였으며, 린네는 식물 분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종두법을 시행하는 제너(프랑스 국립 의학 아카데미)
제너는 종두법을 발견하여 예방 의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절대 왕정 시기에는 왕권 강화를 정당화하거나 견제하는 정치사상이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왕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왕권신수설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로크는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누리고자 계약을 맺고 정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크의 사상은 18세기 프랑스에서 발달한 **계몽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계몽사상가는 미신을 물리치고 불합리한 제도와 전통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는 볼테르,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있다. 계몽사상은 시민 계층이 절대 왕정을 비판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었으며, 훗날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살롱(프랑스 말메종 국립 박물관)
살롱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하며 사교하는 공간이었다.

사료 돋보기 로크의 사회 계약설

자연 상태는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려고 계약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 만일 정부가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에는 혁명에 의해 타도할 수 있다.

- 로크, '통치론'

로크는 정부가 개인의 자연권을 침해하거나 절대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이 그러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한 것이다.

▲ 로크

탐구 활동 절대 왕정

● 서유럽의 절대 왕정

서유럽은 신항로 개척 이후 국제 무역이 늘어나고 식민지가 확대되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왕이 온 나라를 지배하는 절대 왕정이 성립하였다.

(가) 에스파냐

▲ 무적함대와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는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금은을 바탕으로 세계의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가톨릭을 강요하는 종교 정책을 실시하여 신교 국가인 네덜란드가 독립하고,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나) 영국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적극적으로 국외 진출을 꾀하였다. 북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인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상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모직물 공업을 육성하는 한편, 무역을 장려하였다.

▲ 엘리자베스 1세

(다) 프랑스

▲ 베르사유 궁전(피에르 파텔, 1668)과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에 비유하였다. 그는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하였고, 상비군을 키워 프랑스를 유럽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다. 또한 파리 근교에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화려한 궁정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신교도인 위그노를 탄압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던 많은 위그노가 외국으로 망명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침체되었고, 무리한 대외 전쟁을 거듭하여 국력이 점차 약화되었다.

● 동유럽의 절대 왕정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동유럽은 도시와 상공업 발달이 부진하여 시민 계급의 성장이 느렸다. 게다가 봉건 귀족은 농노를 이용하여 광대한 토지를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동유럽에서는 봉건 사회의 기반 위에 국왕의 주도로 17세기 중엽 이후 절대 왕정이 나타났다.

▲ 프리드리히 2세

프리드리히 2세는 오스트리아와의 두 차례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면서 프로이센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계몽 전제 군주를 자처하면서, 제도를 정비하고 산업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프로이센은 여전히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마) 러시아

▲ 표트르 대제와 귀족의 수염을 깎는 이발사

표트르 대제는 귀족과 교회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 러시아 근대화에 힘썼다. 시베리아를 경영하여 중국과 국경을 정하였고, 스웨덴을 물리치고 발트 해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다른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노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과제 1 (가)~(마)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를 완성해 보자.

구분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대표 군주	펠리페 2세				표트르 대제
주요 정책		모직물 공업 육성		영토 확장	

과제 2 동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을 알아보자.

과제 3 절대 왕정의 정치적 특징, 경제 정책, 사상적 기반을 정리해 보자.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 □□□ □□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였다.

(2) 16~18세기 서유럽의 국왕들은 □□□□□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확립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1) 칼뱅 •   • ㉠ "우신예찬"
(2) 로크 •   • ㉡ 지동설 주장
(3) 에라스뮈스 •   • ㉢ 예정설 주장
(4) 코페르니쿠스 •   • ㉣ 사회 계약설

대단원 마무리

중국

〈송〉
- 태조의 [❶] 정책
- 남송: 사대부 사회
- 강남의 경제 발달, 도시와 상공업의 발전 → 서민 문화 발달
- 성리학 발전

〈몽골 제국〉
- 금, 아바스 왕조 정복 → 동유럽 일대 점령
- 원의 민족 차별 정책: 몽골 인과 색목인 우대
- 역참 제도 정비 → 동서 교류에 이바지

〈명〉
- 과거제 실시, 육유 반포 → 유교적 통치 질서 강화
- 정화의 대항해

〈청〉
- 한족에게 강압책과 회유책 실시
- 강희·옹정·건륭제 때 전성기

- 명대 [❷], 청대 고증학 발달
- 상품 화폐 경제 발전, 서민 문화 발달, 신사 등장

일본

〈무사 정권의 성립〉
- [❸] + 다이묘(영주) + 무사 → 일본 특유의 봉건제 실시
-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 14세기 초 무로마치 막부 성립

〈에도 막부〉
- 지방의 다이묘 통제
- 상품 화폐 경제, 조닌 문화 발달

서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변천〉

셀주크 튀르크 → 일한국 → 티무르 제국 → 사파비 왕조

〈오스만 제국〉
- 술탄이 칼리프 지위를 겸함
- 동서 교역 장악, 다양한 문화 융합

인도

아크바르	아우랑제브
중앙 집권 체제 강화, 종교 화합에 노력	최대 영토 확보, 이슬람 제일주의 주장
힌두·이슬람 문화 발달: 우르두 어, [❹] 성립, 타지마할 건축	

유럽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 르네상스: 이탈리아(문예 중심) → 알프스 이북(사회·종교 비판)
- 종교 개혁: 루터파, [❺], 영국 국교회 인정

〈신항로 개척과 무역의 확대〉
-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 콜럼버스의 서인도 제도 도착, 마젤란의 세계 일주
- 대서양 무역의 확대
- 아메리카 문명 파괴

〈절대 왕정〉
- 기반: 왕권신수설, 중상주의, 관료제와 상비군
- 동유럽: 농노제 기반, 계몽 전제 군주 자처
- 계몽사상 →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

생각의 열쇠

❶ 지방 절도사 세력을 누르고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문신 중심의 정치를 펼쳤다.
❷ 명 후기에 등장한 학문으로서, 지식과 실천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❸ 막부의 지배자로서 무사 정권 시대에 천황을 대신하여 전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
❹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융합된 종교이다.
❺ 예정설을 강조하였으며, 청교도, 회센, 위그노는 모두 이 파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 전통 사회의 발전을 토대로 지역적인 교류가 세계로 확대되는 과정을 주제로 학급 문화제를 개최해 보자.

1 모둠별로 선정할 주제 예시

① 송대의 해상 교역
② 몽골 제국과 역참제 정비
③ 마르코 폴로와 "동방견문록"
④ 이슬람 세력의 확대와 인도양 무역
⑤ 정화의 대항해
⑥ 바스쿠 다 가마와 인도 항로 개척
⑦ 콜럼버스와 서인도 제도
⑧ 마젤란 함대의 세계 일주

2 발표 형태 예시

① 연작시 낭송
② 단막극
③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④ 뮤지컬
⑤ 무언극
⑥ 민속 공연
⑦ 판소리 등 국악 공연
⑧ 랩 페스티벌

3 모둠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대본을 작성하고 연습한 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자.

- 모둠별로 선정된 주제에 알맞은 발표 형태, 대본 작성,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무대에서 발표할 때에는 모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며,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역사 연표

한국사		연대	세계사	
70만 년 전	구석기 문화	기원전	15만 년 전	현생 인류 출현
8000년경	신석기 문화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성립
2333	고조선 건국		3000년경	이집트 문명 성립
2000~1500년경	청동기 문화 보급		2500년경	중국 문명, 인더스 문명 성립
5세기경	철기 문화 보급		770	중국, 춘추 시대 시작
194	위만 조선 시작		492	페르시아 전쟁 시작
108	고조선 멸망, 한 군현 설치		403	중국, 전국 시대 시작
57	신라 건국("삼국사기")		334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
37	고구려 건국("삼국사기")		317	마우리아 왕조 건국
18	백제 건국("삼국사기")		221	진의 중국 통일
			27	로마, 제정 시작
42	가야 건국("삼국유사")	기원~300	220	후한 멸망, 삼국 시대 시작
194	고구려, 진대법 실시		313	밀라노 칙령
313	고구려, 낙랑군 축출		316	중국, 5호 16국 시대 시작
372	고구려, 불교 전래, 태학 설치		320	인도, 굽타 왕조 성립
373	고구려, 율령 반포		375	게르만족 이동 시작
384	백제, 동진에서 불교 전래		395	로마 제국의 동서 분열
427	고구려, 평양 천도	400	439	중국, 남북조 성립
433	나·제 동맹		476	서로마 제국 멸망
475	백제, 웅진 천도		486	프랑크 왕국 건국
494	고구려, 부여 복속			
520	신라, 율령 반포	500	529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527	신라, 불교 공인		537	성 소피아 대성당 건립
532	금관가야 멸망		570	무함마드 탄생
538	백제, 사비성 천도		589	수, 중국 통일
552	백제, 일본에 불교 전파			
562	대가야 멸망			
612	고구려, 살수 대첩	600	610	이슬람교 정립
624	고구려, 당에서 도교 전래		618	중국, 당 건국
645	고구려, 안시성 싸움		622	헤지라
660	백제 멸망		645	일본, 다이카 개신
668	고구려 멸망		642	사산 왕조 페르시아 멸망
676	신라, 삼국 통일		661	우마이야 왕조 수립
698	발해 건국			
722	신라, 정전 지급	700	710	일본, 나라 천도
751	불국사, 석굴암 중창 시작		750	아바스 왕조 성립
756	발해, 상경 용천부 천도		751	탈라스 전투

한국사		연대	세계사	
780	신라 하대 시작(선덕왕 즉위)	700	755	당, 안·사의 난(~763)
788	신라, 독서삼품과 실시		756	후우마이야 왕조 성립
			771	카롤루스 대제, 프랑크 왕국 통일
			794	일본, 헤이안 시대 시작
822	김헌창의 난	800	800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황제 대관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829	잉글랜드 왕국 성립
834	백관의 복색 제도 공포		843	프랑크 왕국 분열
888	“삼대목” 편찬		875	당, 황소의 난
			890년경	앙코르 왕조 성립
900	견훤, 후백제 건국	900	907	당 멸망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916	거란 건국
918	왕건, 고려 건국		946	거란, 국호를 요라 함.
926	발해 멸망		960	중국 송 건국
935	신라 멸망		962	오토 1세, 신성 로마 황제 대관
956	노비안검법 실시		977	아프가니스탄에 가즈니 왕조 성립
958	과거제 실시		987	러시아, 그리스 정교로 개종
976	전시과 실시			프랑스, 카페 왕조 시작
983	전국에 12목 설치			
993	거란의 1차 침입			
1009	강조의 정변	1000	1037	셀주크 튀르크 건국
1019	귀주 대첩		1054	크리스트교, 동서 분열
1033	천리 장성 축조		1069	왕안석의 변법
1076	전시과 개정(경정 전시과)		1077	카노사의 굴욕
1097	주전도감 설치		1096	십자군 전쟁 시작(~1270)
1107	윤관, 여진 정벌	1100	1115	여진족, 금 건국
1126	이자겸의 난		1125	요 멸망
1135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27	북송 멸망, 남송 건국
1145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		1163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건축 시작
1170	무신 정변		1192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
1196	최충헌 집권			
1198	만적의 난			
1231	몽골의 1차 침입	1200	1206	칭기즈 칸, 몽골 통일
1232	강화 천도		1258	아바스 왕조 멸망
1234	금속 활자로 “상정고금예문” 간행		1271	원 제국 성립
1270	개경 환도, 삼별초의 대몽 항쟁		1279	남송 멸망, 원의 중국 정복
1274	여·원 연합군의 제1차 일본 정벌		1293	마자파힛 왕조 성립
			1299	오스만 제국 건국

역사 연표

한국사		연대	세계사	
1314	만권당 설치	1300	1302	프랑스, 삼부회 소집
1359	홍건적 침입(~1361)		1309	아비뇽 유수
1376	최영, 왜구 토벌		1336	일본, 무로마치 막부 성립
1377	최무선의 건의, 화통도감 설치		1337	영국과 프랑스, 백년 전쟁(~1453)
	"직지심체요절" 인쇄		1368	중국, 명 건국
1388	이성계, 위화도 회군		1369	티무르 제국 성립
1389	박위, 쓰시마 섬 정벌		1378	교회의 대분열(~1417)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1394	조선, 한양 천도			
1402	호패법 실시, 무과 설치	1400	1405	명, 정화의 대항해(~1433)
1411	한양에 5부 학당 설치		1428	아스테카 문명, 중앙 멕시코 지배
1413	8도의 지방 행정 조직 완성			안남, 명에서 독립
1416	4군 설치(~1433)		1453	비잔티움 제국 멸망
1434	6진 설치(~1449)		1455	영국, 장미 전쟁(~1485)
1446	훈민정음 반포		1467	일본, 전국 시대 시작
1466	직전법 실시		1492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 도착
1485	"경국대전" 완성		1498	바스쿠 다 가마, 인도 항로 발견
1510	3포 왜란	1500	1502	사파비 왕조 성립
1519	기묘사화		1517	루터의 종교 개혁
1543	백운동 서원 설립		1519	마젤란, 세계 일주(~1522)
1592	임진왜란, 한산도 대첩		1521	에스파냐, 아스테카 제국 정복
1593	행주 대첩		1526	인도, 무굴 제국 성립
			1536	칼뱅의 종교 개혁
			1562	프랑스, 위그노 전쟁(~1598)
			1581	네덜란드 독립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통일
1608	대동법 실시(경기도)	1600	1600	영국, 동인도 회사 설립
1610	"동의보감" 완성		1603	일본, 에도 막부 수립
1623	인조반정		1613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성립
1624	이괄의 난		1616	누르하치, 후금 건국
1627	정묘호란		1618	독일, 30년 전쟁(~1648)
1636	병자호란		1628	영국, 권리 청원 제출
1653	하멜, 제주도 표착		1642	영국, 청교도 혁명(~1649)
1658	제2차 나선 정벌		1644	명 멸망, 청의 중국 정복
1659	대동법 확대 실시(호서 지방)		1648	베스트팔렌 조약
1678	상평통보 주조		1688	영국, 명예혁명
1696	안용복, 독도에서 일본인 축출		1689	청과 러시아,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영국, 권리 장전 발표

한국사		연대	세계사	
1708	대동법,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1701	프로이센 왕국 성립
1712	백두산정계비 건립		1740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1748)
1725	영조, 탕평책 실시		1756	7년 전쟁(~1763)
1750	영조, 균역법 실시		1757	플라시 전투, 영국의 인도 독점
1776	규장각 설치	1700	1776	미국, 독립 선언
1785	“대전통편” 완성		1779	카자르 왕조, 페르시아 통일
1786	서학 금지		1789	프랑스 혁명(~1799)
			1796	청, 백련교의 난(~1804)
1801	신유박해		1804	나폴레옹, 황제 즉위
1811	홍경래의 난(~1812)		1814	빈 회의
1831	천주교 조선 교구 설치		1830	프랑스, 7월 혁명
1839	기해박해		1838	영국, 차티스트 운동
1860	최제우, 동학 창시		1840	청, 아편 전쟁
1861	김정호, 대동여지도 제작		1842	청과 영국, 난징 조약 체결
1862	임술 농민 봉기		1848	프랑스, 2월 혁명
1863	고종 즉위, 흥선 대원군 집권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1865	경복궁 중건(~1872)		1851	청, 태평천국 운동
1866	병인박해, 병인양요		1857	인도, 세포이의 항쟁(~1858)
1871	신미양요		1858	일본,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75	운요호 사건		1860	청, 서양 열강과 베이징 조약 체결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1861	청, 양무운동
1879	지석영, 종두법 실시			미국, 남북 전쟁(~1865)
1881	조사 시찰단, 영선사 파견			러시아, 농노 해방령 발표
1882	임오군란		1863	링컨, 노예 해방 선언
	미국과 통상 조약 체결	1800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1883	한성순보 발간, 전환국 설치,		1869	수에즈 운하 개통
	원산 학사 설립		1871	프랑스, 파리 코뮌 성립
	영국, 독일과 통상 조약 체결			독일 제국 성립
1884	갑신정변		1882	3국 동맹 성립
1885	거문도 사건, 광혜원 설립		1884	청·프랑스 전쟁(~1885)
	서울-인천 간 전신 개통		1885	톈진 조약 체결
1886	육영 공원 설립		1887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성립
1889	함경도에 방곡령 실시		1894	청·일 전쟁(~1895)
1894	동학 농민 운동, 갑오개혁		1896	제1회 올림픽 대회
1895	을미사변		1898	필리핀, 아기날도의 독립 선언
1896	아관 파천, 독립신문 발간,			청, 변법자강 운동
	독립 협회 설립			파쇼다 사건
1897	대한 제국 성립		1899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
1898	만민 공동회 개최			청, 의화단 운동
1899	경인선 개통			

역사 연표

한국사		연대	세계사	
1900	만국 우편 연합 가입		1902	영·일 동맹 성립
1904	한·일 의정서 체결		1904	러·일 전쟁(~1905)
1905	을사늑약		1905	쑨원, 중국 동맹회 결성
1906	통감부 설치		1907	3국 협상 성립
1907	국채 보상 운동, 헤이그 특사 파견,		1911	청, 신해혁명
	고종 황제 퇴위, 군대 해산, 신민회 설립		1912	중화민국 성립
1908	의병, 서울 진공 작전		1914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1909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			파나마 운하 개통
	간도 협약		1915	중국, 신문화 운동
1910	국권 피탈		1917	러시아 혁명
1912	토지 조사령 공포		1918	미국의 윌슨 대통령, 14개조 평화 원칙 발표
1914	대한 광복군 정부 수립		1919	베르사유 조약 체결, 중국의 5·4 운동
1919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920	국제 연맹 성립
1920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1921	워싱턴 회의
1921	자유시 참변		192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수립
1926	6·10 만세 운동		1923	터키 공화국 수립
1927	신간회 조직		1924	중국, 제1차 국·공 합작(~1927)
1929	광주 학생 항일 운동		1927	중국, 난징에 국민 정부 성립
1932	이봉창, 윤봉길 의거		1928	네루, 인도 독립 연맹 결성
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1929	대공황
1934	진단 학회 조직		1930	호찌민, 베트남 공산당 창당
1936	손기정, 베를린 올림픽 대회 마라톤 우승	1900	1931	만주 사변
1938	조선 의용대 조직		1933	미국, 뉴딜 정책
1940	한국광복군 창설		1935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침공
1942	조선어 학회 사건		1937	중·일 전쟁
1945	8·15 광복,		1939	제2차 세계 대전(~1945)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1	일본,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
1946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 개최		1943	카이로 회담
1947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구성		1945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국제 연합 성립
1948	5·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7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1950	6·25 전쟁 발발		1949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성립
1953	휴전 협정 조인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57	우리말 큰사전 완간		1950	국제 연합, 한국 파병 결의
1960	4·19 혁명, 장면 내각 성립		1954	평화 5원칙 선언
1961	5·16 군사 정변		1955	제1회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 회의)
1962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6)			바르샤바 조약기구 결성
1963	박정희 정부 성립		1956	이집트, 수에즈 운하 국유화
1965	한·일 협정 조인		1957	소련,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
1966	한·미 행정 협정 조인		1962	쿠바 봉쇄
1967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1)		1963	핵실험 금지 협정
1968	국민 교육 헌장 선포		1966	중국, 문화 대혁명(~1976)
1970	경부 고속 국도 개통		1967	제3차 중동 전쟁

한국사		연대	세계사	
1972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6)	1900	1969	미국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 적십자 회담, 10월 유신		1972	미국의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1973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1973	제4차 중동 전쟁, 제1차 석유 파동
1975	대통령 긴급 조치 9호 발표		1973	베트남 전쟁 종식
1976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6	국제 연합, 팔레스타인 건국 승인안 채택
1977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81)		1978	미국·중국, 국교 정상화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979	중동 평화 조약 조인
1979	10·26 사태			소련,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0	이란·이라크 전쟁(~1988)
1981	전두환 정부 성립		1982	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1983	KAL기 피격 사건, 아웅산 사건		1984	영국·중국, 홍콩 반환 협정 조인
	이산가족 찾기 TV 방송		1985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 취임
1985	남북 고향 방문단 상호 교류		1986	필리핀, 민주 혁명
1986	서울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7	6월 민주 항쟁		1987	미·소, INF 폐기 협정 조인
	6·29 민주화 선언		1988	팔레스타인 독립 선언
1988	노태우 정부 성립		1989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루마니아, 공산 독재 정권 붕괴
1989	동유럽 국가와 수교			중국, 톈안먼 사건
1990	소련과 국교 수립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결성
1991	남북한, 국제 연합 동시 가입		1990	독일 통일
1992	한·중 수교, 베트남과 수교		1991	발트 3국 독립, 걸프 전쟁
1993	김영삼 정부 성립, 금융 실명제 실시			소련 해체, 독립 국가 연합(CIS) 성립
1994	북한, 김일성 사망		1993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유럽 연합 출범
1995	지방 자치제 전면적 실시		1994	북미 자유 무역 협정(NAFTA) 발효
	구총독부 건물 해체(~1996)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당선
1996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1995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1998	김대중 정부 성립		1997	영국, 중국에 홍콩 반환
			1999	포르투갈, 중국에 마카오 반환
2000	남북 정상 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	2001	미국, 뉴욕 세계 무역 센터 테러 발생
	아시아·유럽 정상 회의(ASEM) 개최		2002	동티모르, 인도네시아에서 독립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2003	룰라, 브라질 대통령 취임
2002	한·일 월드컵 대회 개최			이라크 전쟁
2003	노무현 정부 출범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05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개최		2009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2006	수출 3000억 달러 돌파		2011	일본 도호쿠 지역 대지진
2007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2008	이명박 정부 출범			
2011	북한, 김정일 사망			

고구려 | 기원전 37 ~ 기원후 668

백제 | 기원전 18 ~ 기원후 660

박씨·7왕
1. 혁거세
기원전 57~기원후 4
2. 남해
4~24
3. 유리
24~57
5. 파사
80~112
6. 지마
112~134
7. 일성
134~154
8. 아달라
154~184
석씨·8왕
4. 탈해
57~80
구추
9. 벌휴
184~196
골정
11. 조분
230~247
14. 유례
284~298
12. 첨해
247~261
걸숙
15. 기림
298~310
이매
10. 나해
196~230
우로
16. 흘해
310~356
김씨·37왕
김알지
구도
(김알지의 5세손)
13. 미추
262~284
말구
17. 내물
356~402
19. 눌지
417~458
20. 자비
458~479
21. 소지
479~500
?
습보
22. 지증왕
500~514
23. 법흥왕
514~540
대서지(김알지의 후예)
18. 실성
402~417
입종
24. 진흥왕
540~576
동륜
26. 진평왕
579~632
27. 선덕 여왕
632~647
국 반
28. 진덕 여왕
647~654
25. 진지왕
576~579
용춘
29. 무열왕
654~661
30. 문무왕
661~681
31. 신문왕
681~692
32. 효소왕
692~702
33. 성덕왕
702~737
34. 효성왕
737~742
35. 경덕왕
742~765
36. 혜공왕
765~780
37. 선덕왕
780~785
내물 10세손
38. 원성왕
785~798
내물왕 12세손
인겸
39. 소성왕
798~800
40. 애장왕
800~809
41. 헌덕왕
809~826
42. 흥덕왕
826~836
충공
44. 민애왕
838~839
예영
헌정
43. 희강왕
836~838
계명
48. 경문왕
861~875
49. 헌강왕
875~886
52. 효공왕
897~912
50. 정강왕
886~887
51. 진성 여왕
887~897
균정
45. 신무왕
839
46. 문성왕
839~857
47. 헌안왕
857~861
박씨·3왕
53. 신덕왕
912~917
아달라 원손
54. 경명왕
917~924
55. 경애왕
924~927
김씨·1왕
56. 경순왕
927~935
(문성왕 6세손)

우리나라 역대 왕조 계보

발해 | 698 ~ 926

고려 | 918 ~ 1392

1. 태조 918~943
2. 혜종 943~945
3. 정종 945~949
4. 광종 949~975
5. 경종 975~981
7. 목종 997~1009
대종
6. 성종 981~997
안종
8. 현종 1009~1031
9. 덕종 1031~1034
10. 정종 1034~1046
11. 문종 1046~1083
12. 순종 1083
13. 선종 1083~1094
14. 헌종 1094~1095
15. 숙종 1095~1105
16. 예종 1105~1122
17. 인종 1122~1146
18. 의종 1146~1170
19. 명종 1170~1197
20. 신종 1197~1204
21. 희종 1204~1211
22. 강종 1211~1213
23. 고종 1213~1259
24. 원종 1259~1274
25. 충렬왕 1274~1308
26. 충선왕 1298 1308~1313
27. 충숙왕 1313~1330 1332~1339
28. 충혜왕 1330~1332 1339~1344
29. 충목왕 1344~1348
30. 충정왕 1348~1351
31. 공민왕 1351~1374
32. 우왕 1374~1388
32. 창왕 1388~1389
34. 공양왕 1389~1392
신종 7세손

조선 | 1392 ~ 1910

1. 태조 1392~1398
2. 정종 1398~1400
3. 태종 1400~1418
4. 세종 1418~1450
5. 문종 1450~1452
6. 단종 1452~1455
7. 세조 1455~1468
덕종
8. 예종 1468~1469
9. 성종 1469~1494
10. 연산군 1494~1506
11. 중종 1506~1544
12. 인종 1544~1545
13. 명종 1545~1567
덕흥 대원군
14. 선조 1567~1608
15. 광해군 1608~1623
원종
16. 인조 1623~1649
17. 효종 1649~1659
18. 현종 1659~1674
19. 숙종 1674~1720
20. 경종 1720~1724
21. 영조 1724~1776
장조
은언군
전계 대원군
25. 철종 1849~1863
22. 정조 1776~1800
23. 순조 1800~1834
은신군
남연군
흥선 대원군
익종
24. 헌종 1834~1849
26. 고종 1863~1907
27. 순종 1907~1910
강
은

찾아보기

찾아보기

찾아보기

참고 문헌

- 강경선 외, "이야기가 있는 경복궁 나들이", 역사넷, 2000.
- 강봉룡 외,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솔, 2006.
- 강종훈 외,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여유당, 2006.
- 강종훈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웅진 2011.
- 고구려연구재단 편집·발행, "다시 보는 고구려사", 2004.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003.
- 권오영, "무령왕릉: 고대 동아시아 문명 교류사의 빛", 돌베개, 2005.
- 김무진 외, "신편 한국사의 길잡이", 혜안, 1998.
- 김부식,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96.
- 김세기, "고분 자료로 본 대가야 연구", 학연문화사, 2003.
-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5.
-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푸른역사, 2002.
- 김한식 외, "역사교육자료집", 신서원, 1999.
- 김형준, "이야기 인도사", 청아, 2011.
- 남재우, "안라국사", 혜안, 2003.
- 노용필 외, "한국문화사의 이해", 신구문화사, 2006.
- 노중국,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 노태돈 외, "시민을 위한 한국역사", 창작과 비평사, 1997.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 다니엘 돌링 외, 김화경 역, "리얼 아틀라스 리얼 월드", 디자인 하우스, 2009.
- 다할편집실, "한국史 연표", 다할미디어, 2008.
- 로버트 램, 이희재 역, "서양문화의 역사", 사군자, 2007.
- Robert J. Wenke, 김승옥 역, "선사 문화의 패턴", 서경, 2003.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르몽드 세계사", 휴머니스트, 2009.
- Richard E. Leakey, 최정필 역, "續오리진", 세종서적, 1995.
- 마르코 폴로, 김호동 역,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 문중양, "우리역사 과학기행", 동아시아, 2006.
- 박금표, "인도사 108장면", 민족사, 2007.
- 박종기,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08.
- 박찬영 외, "세계사를 보다", 리베르스쿨, 2010.
-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 백승옥,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2003.
- 변태섭, "고려사의 제 문제", 삼영사, 1986.
-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89.
-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 비토리오 주디치 외, 김현주 역, "지도와 그림으로 보는 세계 고대 문명사", 청솔출판사, 2011.
- 서긍, "고려도경", 황소자리, 2005.
- 세계사신문편찬위원회, "세계사 신문", 사계절, 2003.
- 송호정,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 스티븐 로저 피셔, 박수철 역, "문자의 역사", 21세기북스, 2010.
- 신동준, "제자백가, 사상을 논하다", 한길사, 2007.
- 아일린 파워, 김우영 역, "중세의 사람들", 이산, 2007.
- 양병우, "아테네민주정치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 역사교과서연구회(한국), 역사교육연구회(일본), "한일 교류의 역사", 혜안, 2007.
-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사계절, 2010.
-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 유성룡, "징비록", 서해문집, 2011.
- 유흥태,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 살림, 2008.
- 이기동, "백제사 연구", 일조각, 2000.
- 이기백 편, "한국사 시민강좌 제2집: 고조선의 제문제", 일조각, 1988.
- 이도학,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1995.
- 이선복, "고고학개론", 이론과 실천, 1988.
-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동방미디어, 2002.
- 이성무, "조선왕조사", 수막새, 2011.
- 이순신, "난중일기", 한양출판, 1997.
- 이시다 미키노스케, 이동철·박은희 역, "장안의 봄", 이산, 2004.
- 이연복 외, "사료 한국사", 신서원, 1998.
- 이원순 외, "열린 한국사", 솔, 2004.
- 이현혜, "삼한 사회 형성 과정 연구", 일조각, 1984.
- 이희수, "이슬람", 청아출판사, 2002.
- 일연,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5.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터키사", 휴머니스트, 2010.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5.
- 전국역사교사모임, "사료로 보는 우리 역사", 돌베개, 1997.
- 전덕재, "한국 고대 사회경제사", 태학사, 2006.
-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 정수일, "고대 문명 교류사", 사계절, 2001.
- J.M 로버츠, 조윤정 역, "히스토리카 세계사", 이끌리오, 2007.

- 조규태 외, "사건으로 본 역사", 한성대학교출판부, 2010.
- 조르주 뒤비, "지도로 보는 세계사", 생각의 나무, 2006.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저, "발해의 유적과 유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 주보돈,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8.
- 지오프리 파커, "아틀라스 세계사", 사계절, 2004.
- 천관우, "고조선사 삼한사 연구", 일조각, 1989.
- 최부 저, 서인범·주성지 역, "표해록", 한길사, 2004.
- 클라이브 폰팅, "녹색 세계사", 그물코, 2003.
- 타임라이프 북스, "기사도의 시대", 가람기획, 2004.
- 타임라이프북스, "사무라이와 쇼군의 후예들", 가람기획, 2005.
- 프랜시스 로빈슨 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시공사, 2006.
- 하일식, "신라 집권관료제 연구", 혜안, 2006.
- 한국 생활사 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 생활사 박물관", 사계절, 2003.
- 한국 역사 연구회, "고려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2006.
-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사회평론, 2007.
- 한국고대사연구회, "한국고대사연구 9집: 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한국고대사연구회, 1996.
-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동향", 서경문화사, 2007.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진, "아틀라스 한국사", 200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한우근 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일지사, 1984.
- 한국종교회, "세계종교사 입문", 청년사, 1991.
- 한상수, "함무라비 법전", 인제대출판부, 2008.
- 혜안편집부, "한일교류의 역사", 혜안, 2007.
- 〔宋〕范曄, 〔唐〕李賢 等注, "後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82.
- 〔漢〕班固, "漢書",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1982.
- 高崇文 安田喜憲 主編, "長江下流靑銅文化硏究", 科學出版社, 2002.
- 谷應泰, "明史"紀事本末", 三民書局, 1969.
- 廣東省中山圖書館 編纂, "辛亥革命在廣東", 廣東敎育出版社, 2001.
- 紀江紅, "中國傳世人物畵", 北京出版社, 2004.
- 國家文物局 主編, "中國文物地圖集: 河南分冊", 北京, 中國地圖出版社, 1991.
- 紀江紅, "中國傳世人物畵", 北京出版社, 2004.
- 金維諾 主編, "中國美術全集: 畵像石畵像磚" 2, 黃山書社, 2009.
- 羅宗眞, "魏晉南北朝考古", 文物出版社, 2001.
- 〔唐〕白居易, 顧學頡 校點, "白居易集", 中華書局, 1979.
- 敦煌文物硏究所 編著, "中國石窟: 敦煌莫高窟"(第三卷), 文物出版社, 1987.
- 羅宗眞 主編, "魏晉南北朝文化", 學林出版社, 2000.
- 藍永蔚, "中國軍事史: 五千年的徵戰",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1.
- 莫久愚·趙英 主編, "中國通史圖鑑", 內蒙古大學出版社, 2000.
- 文物出版社編, "戰國地下樂宮: 湖北隨縣曾侯乙墓", 文物出版社, 1994.
- 宋應星, "天工開物", 中國社會出版社, 2004.
- 楊牧, "中國革命史敎育地圖集", 河南敎育出版社, 1992.
- 郁進編, "長城", 文物出版社, 1980.
- 劉煒 主編, "中華文明傳眞 3: 春秋戰國—爭霸圖强的時代", 上海辭書出版社, 2001.
- 李治亭, "吳三桂大傳", 吉林文化出版社, 1990.
- 莊吉發, "淸高宗十全武功硏究", 中華書局, 1987.
- 戴逸 主編, "簡明淸史", 人民出版社, 1984.
- 丁守和 主編, "五四圖史", 遼海出版社, 1999.
- 齊東方, "隋唐考古", 文物出版社, 2002.
- 朱瑞熙 外, "宋遼西夏金社會生活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5.
- 中國氣象局, "中國氣候資源地圖集", 1994.
- 中國美術全集編輯委員會編, "中國美術全集 : 繪畵編 15 : 敦煌壁畵 下",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5.
- 中國地圖出版社, "中國地圖集", 中國地圖出版社, 2004.
- 陳振, "宋史", 上海人民出版社, 2003.
- 馮爾康, "雍正傳", 人民出版社, 1985.
- 韓儒林, "元朝史", 人民出版社, 1986.
- Albert M. Craig et al, "The heritage of world civilizations Vol Ⅰ, Ⅱ, Upper Saddle River", NJ:Pearson Prentice Hall, 2007.
- "ATLAS of WORLD HISTORY", E.D.C. Publishing, 1996.
- Bakewell, Peter John. "A History of Latin America: Empire and Sequels, 1450-1930", Malden Mass, 1997.

참고 문헌 및 인용 자료 출처

- Bartlett, R. "The Making of Europe: Conquest, Colonization and Cultural Change 950-1350", London, 1993.
- Beckingham, C. F. "Atlas of the Arab World and the Middle East", London, 1960.
- Bellwood, P. "Prehistory of Indo-Malay Archipelago", Ryde NSW, 1985.
- Brown, P. "The Rise of Western Christendom: Triumph and Diversity 200-1000", Oxford, 1996.
- Cook, M. A. "A History of Ottoman Empire to 1730", Cambridge, 1976.
- Curtin, P. D. "The Atlantic Slave Trade", Madison, 1972.
- Davis, R. W. "The Industrialization of Soviet Russia", Cambridge, 1989.
- Dorling Kindersley, "The Dorling Kindersley History of the world", London:1998.
- Edwardes, M. "A History of India", London, 1961.
- Felipe Fernandez-Armesto, "The world:a history. To 1500, Upper Saddle River", NJ:Pearson Prentice Hall, 2007.
- Ferguson, J. "The Heritage of Hellenism", London, 1973.
- Hall, D. G. E. "A History of South-East Asia", London, 1981.
- Harley, J. B, Woodward, D. "The History of Cartography", Chicago, 1987.
- Hopkins, A. G. "Economic History of West Africa", London, 1973.
- Jane Portal ed, "The first emperor: China's Terracotta Arm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Jean, D. N. "An Historical Geography of New South Wales to1901", Sydney, 1972.
- Johnson, G. "New Cambridge History of India", Cambridge, 1989.
- Jones, G.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Business", London, 1996.
- Kuhrl, A. T. L. "Ancient Near East c.3000-330 BC", London, 1995.
- Maier, C. S. "Recasting Bourgeois Europe", Prinstone, N. J, 1975.
- Mckitterick, R. "The New Cambridge Medieval History", Cambridge, 1995.
- McNeill, W. H. "The 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the Human Community", Chicago, 1991.
- Mellaart, J. "The Neolithic of the Near East", London, 1975.
- Neatby, H. "The Revolutionary Age 1760-1791", London, 1966.
- Osbourne, M. E. "Southeast Asia: An Introductory History", Sydney, 1983.
- P.B. Ebrey, "The Cambridge illustrated history of China", Cambridge Univ. Press, 1996.
- Postan, M. M. "Medieval Trade and Finance", Cambridge, 1973.
- Rhoads Murphey, "East Asia: a new history", New York:Pearson Longman, 2007.
- Shaw, I. British, "Museum Dictionary of Europe", Oxford, 1994.
- Snow, D. "The American Indians: Their Archaeology and Prehistory", London, 1996.
- Sonyel, S. R. "The Ottoman Armenians", London, 1987.
- Toynbee, A, J. "Cities of Destiny", London, 1967.
- Williamson, E. "The Penguin History of Latin America", London, 1992.

사진 출처

| 경인일보 | 18(下)

| 경주시청 | 244(下)

| 고분유물 | 69

| 구글어스 | 27(下), 46(上), 51(下), 54(下左), 93, 97, 102, 104, 116, 131(中右), 134, 138(上), 251(上), 282(上右), 221, 223(下中), 309(下)

| 국가 문화유산 포털 | 107, 196(上左)

| 국립 중앙 박물관 | 18, 33(下), 36(下右), 38(上), 41(下左), 48(下右), 57(上右), 58(下左), 61(中), 62(下左), 63(下), 70(下右), 71, 72, 73, 90, 91(上右), 95, 101(上), 102(下左), 139(下左), 149(下), 159(上), 161, 173(中左), 188(上), 193(上), 195(下左), 196(下左), 203(上)

| 국립 청주 박물관 | 30(下)
| 굿이미지 | 132(下左)
| 동아 사이언스 | 16(下右)
| 디지털 조선일보 | 182
| 문화재청 | 97, 108(下右), 139(下右), 141(上), 148, 162(下)
| 문화체육관광부 | 114, 140(上下), 168, 177, 189(下), 193(下左)
| 발해를 다시 본다 | 91, 102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 21(上), 30(中), 53, 54(上右), 55, 68(上右), 69(中), 71(下右), 138(下右), 142(中右), 143(上), 173(上), 195(下右), 198, 203(下右)
| 사진으로 본 백년 전의 한국 | 150(上), 183
| 삼강행실도 | 156(下)
| 서울신문 | 125
| 숙명대학교 기독교 박물관 | 192
| 술레이만-오스만의 화려한 황제 | 297(中)
|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 | 192
|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 30(中), 32(上), 36(下左), 54(上右), 66(中左), 73(中右), 98(上), 100, 104, 160, 189(中)
| 아틀라스 한국사 | 66(下中), 120(下左), 136, 138(中), 243(中)
| 연합뉴스 | 15, 220(上), 254(下)
| 영남대 박물관 | 193(下右)
| 위키피디아 | 12, 17, 19(上), 22(下), 25(中), 27, 28(下左), 64, 68(上左), 121, 142(下), 161(下左), 171(下), 184, 190(上), 192, 194(上), 197(上), 211(下), 213(下), 217(上右), 219(下左), 229(下), 231(下), 239(下), 240(上), 243, 246(下), 249(下), 252(下), 255(下), 258(上), 260(上), 262, 264(中下), 266, 267(下), 269(下), 270(上下), 273(上), 276(上), 280(上), 283(上), 291, 292, 294, 295, 296, 297(下右), 301(上), 302(下), 303(上), 304(上), 305(下左), 307(中), 310(上), 312(下), 313(左)
| 유로크레온 | 14(上), 34, 38(下), 39(下), 46, 57(上), 66(中右), 67, 78, 79, 83, 84, 94, 95(中), 96, 97, 130, 138(下左), 145, 148, 151(右), 152(上), 154, 164, 165(上), 167(上), 171(上), 194(下), 197(下), 207(上), 209, 210, 213(中), 219(下右), 221(下), 223(下右), 226(下) 227(中), 228(下), 232, 240(中), 243(下), 253(上), 255(上), 256(上), 257(下), 258(下), 267(中), 281(下), 287(上), 290(左), 298(左), 299, 301(下), 306(下), 307(上), 308(下), 311(中)
| 이뮤지엄 | 30(下右), 36(左), 66(下左), 101(下), 120(下右), 140(中), 160(上), 189(上左)
| 이미지클릭 | 215(下), 220(下), 223(下左), 256(下), 268(下), 299(下)
| 중국 호북성 박물관 | 211(上)
| 타임라이프 세계사 "기사도의 시대" | 263(下), 266(上), 268(上)
| 타임라이프 세계사 "용의 나라" | 277(上左)
| 타임라이프 세계사 "음모와 반역의 천년제국" | 264(上), 265(上右)
| 토픽포토 | 97, 154, 214(下), 215(上), 217(上中), 221(中), 223(上), 225, 226(上), 231(上), 233(上), 246(中), 253(下), 297(下左), 304(下)
| 페르시아 | 221(上)
| 플리커 | 142(中右), 254(上), 302(上), 311(下)
| 한국 관광 공사 | 151(下左), 199(上)
| 한국 문화 교류 센터 | 18(上)
| 한국생활사박물관 | 61(上), 62(下中), 66(上), 67, 70, 71, 72(上), 105, 128, 141(中), 173(中右), 188(下), 203(下左), 287(下)
| 히스토리카 세계사 | 260(下)
| 図説 中国文明史 3-争覇する文明 | 207(下)
| Timelines world of history | 229(上)
| World history perspectives on the past | 227(下)

* 사진이 한 면에 위아래로 있을 경우에는 면수(上), 면수(下) 순으로 표기하였음. 좌우로 있을 경우에는 면수(左), 면수(右) 순으로 표기하였음.
* 출처가 같은 사진이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면수를 나열하고 출처는 한 번만 밝혔음.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출처표시를 안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집필진

정재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도쿄대학 인문과학연구과 동양사학과 한국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박사,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현)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교수

김태식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박사, (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박근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중국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중국사 박사, (현)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

최병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 박사, (현) 공주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과 교수

강신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용산고등학교 교사

구본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서초고등학교 교사

장종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경기고등학교 교사

박찬석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광남고등학교 교사

강성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 (현) 월곡중학교 교사

김종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현) 휘봉고등학교 교사

김지현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과 석사 과정 수료, (현) 거원중학교 교사

만든 사람들

개발 책임 황해영

편집 윤흥상, 최윤자, 임지연

디자인 리트머스

삽화 이소영, 장덕현, 최상훈

컷 김동현

교육부의 위임을 받아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심사를 하였음.

중학교 역사 1

2013. 3. 1. 초판 발행 2014. 3. 1. 2쇄 발행 정가 원

지은이: 정재정 외 10인

발행인: (주)지학사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6길 5

인쇄인: (주)벽호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43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누리집 주소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누리집 주소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관련문의: (주)지학사 콘텐츠본부 사회팀 전화 02-330-5468 전송 02-325-7111
공급업무대행: (사)한국검인정교과서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29-28
개별구입문의: 누리집 주소 www.ktbook.com 전화 02-3663-5409~12 (사)한국검인정교과서
누리집 주소 www.jihak.co.kr 전화 02-330-5302 (주)지학사

ISBN 978-89-05-03964-6 53900